

국립국어원  
중  
국립국어원  
한글  
한글  
한글

#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

연구 책임자 | 원 성 옥





국립국어원 2018-01-25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726-01

#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18년 04월 10일 ~ 2018년 11월 30일

2018년 11월 30일

연구 책임자: 원성옥(한국복지대학교)

연구 기관: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원성옥

공동 연구원: 허일, 김지숙, 김만영, 김연우,  
이운선, 홍성은, 이현정

연구 보조원: 김병아, 김효정, 박정민



##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수어의 연구 및 교육 등에서 필요한 한국수어 문법을 정리하고 기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수어는 기본적으로 ‘시각’이라는 언어 양식이 그 문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수어의 조음에서부터 문법 구조에 이르기까지 설명하는 틀과 체계가 음성언어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어와는 다른 문법 체계로 문법적 기능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는 체계로 한국수어 문법을 기술하면 많은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 문법 지식 범주를 상세화하기 위해 국내외의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후, 향후 활용할 한국수어 문법서의 기술 체계와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 절차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문법서 3권, 영어로 출간된 국외 문법서 20권 등 총 23권의 문법서 목차를 분석한 후, 특정 연구 주제로만 구성된 문법서를 제외하고 총 14권의 문법서를 통해 대범주 목차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어 문법서의 대범주 목차는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음성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 용어와 더불어 수어의 특정 문법 요소로 구성, 음성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를 대범주로 하고 하위 범주로 수어의 특정 문법 요소를 구성, 수어의 특정 문법 요소로만 구성.

둘째, 14권의 문법서를 대상으로 언어학 하위 영역별로 핵심 내용을 추출한 후, 핵심 내용을 포괄하지 않은 문법서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을 고찰하기 위한 문법서를 선정하였다. 결과, 음운론에서 7권, 형태론에서 8권, 통사론에서 7권, 의미와 화용론에서 6권을 선정하였다.

셋째, 음운론에서는 한국수어 문법서 2권(『한국 수어학 개론(2014)』, 『한국수어의 이론(2003)』). 나라별 문법서 3권(『호주수어 언어학 개론(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2007)』, 『미국수어 언어학(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2011)』, 『독일수어(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2008)』), 개론 문법서 2권(『수어 언어학 핸드북(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2012)』, 『수어 언어학 개론(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2016)』)을 대상으로 지식 범주와 세부 내용을 고찰하였다.

넷째, 형태론에서는 한국수어 문법서 2권(『한국 수어학 개론(2014)』, 『한국수어의 이론(2003)』), 나라별 문법서 4권(『호주수어 언어학 개론(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2007)』, 『미국수어 언어학(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2011)』, 『독일수어(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2008)』, 『영국수어(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1999)』, 개론 문법서 2권(『수어 언어학 핸드북(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2012)』, 『수어 언어학 개론(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2016)』)을 대상으로 지식 범주와 세부 내용을 고찰하였다.

다섯째, 통사론에서는 한국수어 문법서 2권(『한국 수어학 개론(2014)』, 『한국수어의 이론(2003)』), 나라별 문법서 3권(『호주수어 언어학 개론(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2007)』, 『미국수어 언어학(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2011)』, 『독일수어(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2008)』), 개론 문법서 2권(『수어 언어학 핸드북(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2012)』, 『수어 언어학 개론(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2016)』)을 대상으로 지식 범주와 세부 내용을 고찰하였다.

여섯째, 의미와 화용론에서는 한국수어 문법서 2권(『한국 수어학 개론(2014)』, 『한국수어의 이론(2003)』), 나라별 문법서 2권(『호주수어 언어학 개론(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2007)』, 『미국수어 언어학(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2011)』), 개론 문법서 2권(『수어 언어학 핸드북(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2012)』, 『수어 언어학 개론(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2016)』)으로 지식 범주와 세부 내용을 고찰하였다.

일곱째, 고찰한 결과를 통해 거시적 쟁점과 언어학의 하위 범주별 쟁점을 도출하였다. 쟁점에 대해 언어학 전공자 2인, 국어학 전공자 1인, 수어 사용자 1인의 자문 의견을 받았다. 자문을 받은 거시적 쟁점은 한국수어 문법서의 목차 구성을 위한 분류체계 문제, 내용 구성 문제로 수어 관련 제반 지식(습득, 농사회, 수어 환경 등) 포함 여부와 의미론과 화용론 포함 여부, 수어문 표기와 관련한 문제(예: 글로스, 비수지 요소 및 공간과 방향 요소의 기록 등), 문법 설명 시 사용하는 예시 수어문(데이터)의 수집 방법론, 내용 기술 방법 등이다.

여덟째,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문법 지식을 설정하고 상세 범주화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론에서는 대범주를 언어와 수어 그리고 수어와 사회로 나누었다. 언어와 수어에서는 수어의 언어 보편적 특성과 시각언어로서의 수어로 범주화 하였다. 수어와 사회에서는 수어와 농인, 수어 환경으로 범주화 하였다. 음운론에서는 대범주를 수어의 내적 구조, 동시성과 순차성 그리고 음운 과정으로 나누었다. 수어의 내적 구조에서는 음운과 수어소, 수형, 수위, 수동, 수향, 비수지 요소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동시성과 순차성에서는 음절과 음절 구조, 음직임-정지 모델을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형태론에서는 대범주를 형태소와 형태론, 수어 형성, 수어 변형, 품사로 나누었다. 형태소와 형태론에서는 형태소의 개념, 수어 형태소의 유형을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수어 형성

에서는 수어 단어 형성 방법, 파생, 수사포함과 지문자어, 합성을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수어 변형에서는 시제와 상, 복수성, 일치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통사론에서는 문장성분, 문장 유형, 공간과 서술어로 대범주를 나누었다. 문장 유형에서는 서술문, 의문문, 부정문, 화제화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공간과 서술어에서는 수어 공간, 서술어, 분류사 술어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의미 및 화용론에서는 대범주를 의미론과 화용론으로 나누었다. 의미론에서는 의미이론, 도상성과 은유, 어휘 관계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아홉째, 한국수어 문법의 기술 체계는 기본적으로 언어학의 하위 범주인 음운, 형태, 통사, 그리고 의미와 화용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언어학 하위 범주에서 나타나는 수어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2~4개의 대범주로 목차를 구성한다. 하위 범주 문법 지식의 세부 내용에 관한 기술 체계는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일반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정의, 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와 개념을 국외 수어의 예시를 통해 기술, 한국수어의 문법 지식을 예시와 함께 기술.

열 번째, 문법서에서 예로 제시되는 수어 단어와 문장은 그림과 함께 표기 체계를 사용한다. 표기 체계는 글로스를 사용하고, 글로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 ]를 사용한다. 또한 수어문의 위 줄에는 얼굴 표정, 시선, 머리의 움직임 등의 문법표지를 기록하고, 아래 줄에는 공간이나 방향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음운론의 대범주 수어의 내적 구조 중 음운과 수어소라는 중범주에 대한 문법 모형을 제시하였고, 형태론에서는 대범주 수어 형성 중 파생이라는 중범주에 대한 문법 모형을 제시하였다.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  
**Basic Study on the**  
**Korean Sign Language(KSL) Gramma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o basic study on KSL grammar and to provide basic literature work in order to describe the KSL grammar in the future. A descriptive KSL grammar is needed in the field of KSL research as well as in KSL education. KSL is a language with a "visual" modality and this effects the KSL grammar in general. That's why the framework and grammar system - from the articulation of a sign to the structure of the grammar itself - is so different than spoken language. And because grammatical functions in KSL are realized differently than in Korean it would cause many problems and false prejudices if the KSL grammar was explained in a way how the Korean grammar is explained.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reviewing korean and foreign literature concerning sign language grammars. Based on these reviews we have developed a structure with its chapters and sub-chapters for a descriptive KSL grammar. On the basis of this structure it will be possible to describe and distinguish the sign language typical features. Besides we have described a small part of the KSL grammar to show in an exemplary way how a KSL grammar might look like.

The procedure as well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we examined the table of contents of 3 KSL grammar books and 20 foreign sign language grammar books published in English. After excluding the work, which dealt with only specific parts of sign language grammar, 14 sign language grammar books were left for consideration. We have classified the books in three groups depending on how the categories in the grammar books were structured and in what extent the books used the subcategories and terminology of the spoken language.

Second we have extracted the content of the above grammar books in order to narrow our selection. Following work has been finally reviewed.

한국 수어학 개론(2014) by Joon-Woo LEE & Ki-Hyun Nam

한국수어의 이론(2003) by Sang-Bae Choi & Sung-Woo Ahn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2007) by  
Trevor Johnston & Adam Schembri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2011) by Clayton Valli, Ceil Lucas, Kristin  
Mulrooney & Miako Villanueva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2008) by Chrissostomos Papaspyrou, Alexander von Meyenn, Michaela Matthaei  
& Bettina Herrmann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1999) by Rachel  
Sutton-Spence & Bencie Woll

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2012) by Roland Pfau, Markus Steinbach &  
Bencie Woll(eds)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2016) by Anne Baker, Beppie  
van den Bogaerde, Roland Pfau & Trude Schermer(eds)

We have chosen 7 of the above work for phonology, 8 of the above for  
morphology, 7 of the above for syntax and 6 of the above for semantics and  
pragmatics.

Third, on the basis of the above reviews we have described controversial issues  
concerning the macroscopic aspects of a sign language grammar and the  
linguistics subcategories within the grammar. With these issues we consulted two  
general linguists, two Korean linguists and one sign language user. We asked the  
consultants about their opinion on our table of contents, if they thought deaf  
related background information(deaf community, signing environment etc.) belongs  
in a KSL grammar book, if semantics and pragmatics should be left out, about the  
notation problems(how to notate non-manual signals, direction in space etc. in  
glosses) of signs, about the methodology how to collect proper sign language  
examples etc. The answers of the consultants were taken into account when we  
decided on the final structure of the KSL grammar.

Fourth, we have created following structure for the description of the KSL  
grammar. The introduction is divided in two parts: language & sign language and  
sign language & society. The part language & sign language is divided in sign  
language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visual modality of sign language. The part  
sign language & society is divided in sign language & deaf people and sign  
language environment. The chapter phonology is divided in three parts: internal

structure of sign language, simultaneity & sequenciality and phonological process. The part internal structure deals with phonemes & cheremes, handshape, location, movement, hand orientation, & non-manual signals. The part simultaneity & sequenciality deals with syllables and its structure & the hold-movement model. The chapter morphology is divided in morphemes & morphology, sign formation, sign modification, and word classes. In the part morphemes & morphology the concept of a morpheme is introduced and the different types of morphemes are described. The part sign formation deals with how new signs are formed, how signs are derived, how number signs and the finger alphabet are incorporated in signs, and how sign compounds are created. The part sign modification deals with tense and aspect, plural and agreement. The syntax chapter is divided in sentence parts, sentence types and space & predicates. The part sentence types introduces statements, questions, negation and topicalization. The part space & predicates deals with the use of space in sign language and classifier predicates. The chapter semantics and pragmatics are divided in their two components that means semantics and pragmatics. The part semantics deals with semantic theories, iconicity & metaphors, and lexical relations.

Fifth, in each chapter of our structure we deal with following three points: the introduction and definition of the terminology used in the spoken linguistics, introducing terminology which is used to describe the sign language specific features by showing sign language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and giving KSL examples for the described KSL specific features.

Sixth, we have used pictures and drawings in order to show KSL examples. We also used glosses by marking korean written words in square brackets [ ]. Non-manual signals such as mime, eye gaze, head movement and so on are notated in a line above the glosses. The line under the glosses were used to notate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space and directions of a sign.

At last we have written out the part phonemes and cherems which belong to the sub-chapter internal structure of sign language of the phonology chapter. Also the part derivation of signs which belongs to the sub-chapter sign formation in the morphology chapter was fully written out. This two parts are to show in an exemplary way how grammatical issues might look like in a future KSL grammar book.



## < 차 례 >

<b>I. 연구 개요</b>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3. 수행 전략 및 과정	3
<b>II.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b>	5
1.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 추진 방법	5
2. 문법서 분석	5
2.1 한국수어 문법서 목차 분석	5
2.2 국외 수어 문법서 목차 분석	7
3. 하위 범주 목차 분석	14
3.1 음운론 목차 분석	14
3.2 형태론 목차 분석	19
3.3 통사론 목차 분석	24
3.4 의미 및 화용론 목차 분석	29
3.5 기타 제반 지식 목차 분석	32
3.6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 목차	39
4. 언어학 하위 범주별 수어 문법 내용 고찰	42
4.1 음운론	42
4.2 형태론	68
4.3 통사론	108
4.4 의미 및 화용론	136
<b>III. 연구 추진 결과</b>	157
1.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157
1.1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거시적 쟁점	157
1.2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하위 범주별 쟁점	159
2.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한 쟁점의 전문가 자문 결과	169

2.1 자문 절차 .....	169
2.2 거시적 쟁점 자문 결과 정리 .....	169
2.3 하위 범주별 쟁점 자문 결과 .....	176
3.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문법 지식 설정 및 상세 범주화 .....	195
3.1 총론 .....	195
3.2 음운론 .....	196
3.3 형태론 .....	197
3.4 통사론 .....	198
3.5 의미 및 화용론 .....	199
4. 한국수어 문법 모형 제시 .....	199
4.1 한국수어 문법 기술 체계 .....	199
4.2 한국수어 예시문 표기 방법 .....	200
4.3 한국수어 문법 모형 제시 .....	201
<b>IV. 결론</b> .....	209
1. 연구 결과 요약 .....	209
1.1 한국수어 문법서 대범주 목차 분석 .....	209
1.2 국외 수어 문법서 대범주 목차 분석 .....	210
1.3 하위 범주 목차 분석 .....	210
1.4 언어학 하위 범주별 수어 문법 내용 고찰 .....	212
1.5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및 자문 의견 .....	214
1.6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문법 지식 설정 및 상세 범주화 .....	215
1.7 한국수어 문법 모형 제시 .....	216
1.8 한국수어 문법 모형 제시 .....	216
2. 제언 .....	217
<b>참고문헌</b> .....	219
<b>부록 1- 전문가 자문을 위한 질문지</b>	

## 〈표 차례〉

<표 1> 한국수어 문법서 목차 내용 분석 .....	6
<표 2> 국외 나라별 수어 문법서 목차 내용 분석 .....	8
<표 3> 수어학 개론서 및 수어학 문헌 목차 내용 분석 .....	11
<표 4> 특정 주제 관련 수어 문법서 목차 내용 분석 .....	12
<표 5> 나라별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음운론 .....	15
<표 6> 개론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음운론 .....	18
<표 7> 나라별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형태론 .....	19
<표 8> 개론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형태론 .....	22
<표 9> 나라별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통사론 .....	24
<표 10> 개론 문법서별 하위 범주 체계-통사론 .....	28
<표 11> 나라별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의미 및 화용론 .....	30
<표 12> 개론 문법서별 하위 범주 체계-의미·화용론 .....	31
<표 13> 국내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기타 제반 지식 .....	32
<표 14> 개론 문법서별 하위 범주 체계-기타 제반 지식 .....	37
<표 15> 나라별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다양한 범주를 포함 .....	40
<표 16> 개론 문법서별 하위 범주 체계-다양한 범주 포함 .....	41
<표 17> 문법서별 체계 비교-음운론_1 .....	43
<표 18> 문법서별 체계 비교-음운론_2 .....	44
<표 19> 이준우·남기현(2014). 한국 수어학 개론-음운론 .....	46
<표 20> 최상배, 안성우(2014) 한국수어의 이론-음운론 .....	48
<표 21> Valli 외(2011).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음운론 .....	50
<표 22> Papaspyrou 외(2008):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음운론 .....	53
<표 23> Johnston & Schembri(2007). Australian Sign Language-음운론 .....	57
<표 24> Baker 외(2016).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음운론 .....	61
<표 25> Pfau, Steinbach, Woll(2012).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음운론 .....	64
<표 26> 주제에 따른 목차 비교-음운론_1 .....	66
<표 27> 주제에 따른 목차 비교-음운론_2 .....	67
<표 28> 문법서별 체계 비교-형태론_1 .....	69
<표 29> 문법서별 체계 비교-형태론_2 .....	70
<표 30> 이준우·남기현(2014). 한국 수어학 개론-형태론 .....	73
<표 31> 최상배·안성우(2014). 한국수어의 이론-형태론 .....	77
<표 32> Valli 외(2011).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형태론 .....	81
<표 33> Papaspyrou 외(2008):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형태론 .....	84
<표 34> Johnston & Schembri(2007). Australian Sign Language-형태론 .....	89

<표 35> Sutton-Spence & Woll(1999).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형태론 .....	92
<표 36> Baker 외(2016).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형태론 .....	96
<표 37> Pfau, Steinbach, Woll(2012).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형태론 .....	104
<표 38> 주제에 따른 목차 분석-형태론_1 .....	106
<표 39> 주제에 따른 목차 비교-형태론_2 .....	107
<표 40> 문법서별 체계 비교-통사론_1 .....	109
<표 41> 문법서별 체계 비교-통사론_2 .....	110
<표 42> 이준우, 남기현(2014). 한국 수어학 개론-통사론 .....	112
<표 43> 최상배, 안성우(2014). 한국수어의 이론-통사론 .....	114
<표 44> Valli 외(2011).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통사론 .....	118
<표 45> Papaspyrou 외(2008):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통사론 .....	121
<표 46> Johnston & Schembri(2007). Australian Sign Language-통사론 .....	124
<표 47> Baker 외(2016).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통사론 .....	127
<표 48> Pfau, Steinbach, Woll(2012).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통사론 .....	131
<표 49> 주제에 따른 목차 분석-통사론_1 .....	134
<표 50> 주제에 따른 목차 비교-통사론_2 .....	135
<표 51> 문법서별 체계 비교-의미 및 화용론_1 .....	137
<표 52> 문법서별 체계 비교-의미 및 화용론_2 .....	138
<표 53> 이준우 · 남기현(2014). 한국 수어학 개론-의미 및 화용론 .....	139
<표 54> 최상배 · 안성우(2014). 한국수어의 이론-의미 및 화용론 .....	141
<표 55> Valli 외(2011).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의미 및 화용론 .....	143
<표 56> Johnston & Schembri(2007). Australian Sign Language-의미 및 화용론 .....	147
<표 57> Baker 외(2016).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의미 및 화용론 .....	149
<표 58> Pfau, Steinbach, Woll(2012).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의미 및 화용론 .....	153
<표 59> 주제에 따른 목차 분석-의미 및 화용론 .....	154
<표 60> 주제에 따른 목차 비교-의미 및 화용론 .....	155
<표 61> 대범주와 중범주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쟁점 사항-음운론 .....	195
<표 62> 대범주와 중범주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쟁점 사항-음운론 .....	196
<표 63> 대범주와 중범주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쟁점 사항-형태론 .....	197
<표 64> 대범주와 중범주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쟁점 사항-통사론 .....	198
<표 65> 대범주와 중범주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쟁점 사항-의미 화용론 .....	199

가이드라인  
주제  
가이드라인표

##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수행 전략 및 과정



#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

## I. 연구 개요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동 법률에 의거하여 제1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2018-2022)이 만들어졌으며, 이 계획의 3대 중점 추진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한국수어 능력 향상 및 보급”이다. 이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수어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어능력 검정 시험 및 수어교원 검정 시험 등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한국수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한국수어 문법서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이다.

그간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서뿐 아니라, 한국수어 연구 분야에서도 한국수어 문법을 정리하거나 기술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수어 연구 및 문법 관련 서적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 용어 및 개념 정의가 통일되지 않았으며, 이론적 문법 체계의 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법을 기술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문법 연구의 절차 및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체계 없이 이루어진 문법 기술로 인해 진정한 한국수어의 문법 형태를 보여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각언어인 한국수어는 언어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언어학의 틀에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시각언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체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수어는 기본적으로 ‘시각’이라는 언어 양식이 그 문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수어의 조음에서부터 문법 구조에 이르기까지 설명하는 틀과 체계가 음성언어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어와는 다른 문법 체계로 문법적 기능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는 체계로 기술하려고 하면 많은 오해와 잘못된 편견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한국수어 문법 연구 결과물 및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서의 문법 수용 및 설명 현황을 고찰하고 분석하여 한국수어 문법 기술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한국수어 문법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실질적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외 수어에서는 자국의 수어 문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시각언어 문법 체계를 설명하는 틀을 분석하여 한국수어 문법을 연구하는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수어 문법서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한국수어를 보급·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기초 없이 건물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수어 교육 현장과 한국수어 교원을 양성하는 현장에서는 한국수어 교육의 기준이 되는 문법서의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한국수어 능력이나 한국수어 교육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한국수어 문법을 정립하여 제공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으로 한국수어 문법을 기술하고 설명한 문법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국수어 문법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방법론이나 원칙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어 문법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 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고 분석하여 향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수어 문법서 개발에 필요한 한국수어 문법 기술 체계와 한국수어 문법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비롯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수어의 연구 및 교육 등에서 필요한 한국수어 문법을 정리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수어 문법을 정립하고 기술하기 위한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수어 문법 관련 연구물을 고찰한다.

둘째, 국외 수어 문법 관련 연구물을 고찰한다.

셋째, 한국수어 문법 지식의 범주 설정 및 관련 쟁점을 도출한다.

넷째, 한국수어 문법 연구를 위한 문법 체계 및 내용을 도출한다.

다섯째, 체계적인 수화언어 이론에 기반을 둔 한국수어 문법 모형을 개발한다.

##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수어 문법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방법론 및 한국수어 문법 체계와 문법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로 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문법 관련 연구물 분석: 한국수어 문법 관련 연구물 및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문법의 내용 등을 고찰하여 한국수어 문법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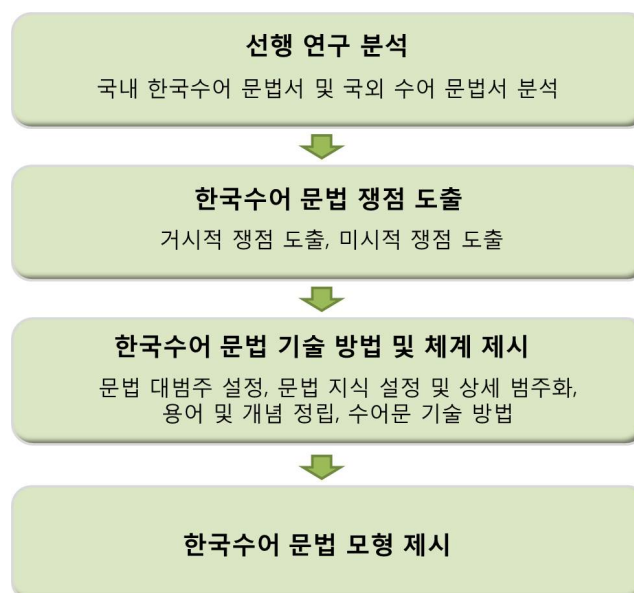
둘째, 국외 수어 문법 관련 연구물 분석: 국외 수어 문법 관련 문헌 및 연구물을 고찰하여 수어 문법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수어 문법 체계와 그 내용을 분석한다.



- 셋째, 한국수어 문법 체계 및 기술 원칙 제시: 수어 문법의 이론적, 실제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한국수어 문법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여 문법 기술 원칙을 제시한다.
- 넷째, 한국수어 문법 지식의 범주 제시: 한국수어와 한국수어 문법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수어 문법에 포함될 문법 지식 및 상세 범주를 제시한다.
- 다섯째, 전문가 검토 및 자문: 한국수어 문법 기술 체계 및 문법 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수어 문법 모형을 확정한다.
- 여섯째, 한국수어 문법 모형 개발: 한국수어 문법의 기술 체계를 제안하고 한국수어 문법 모형을 개발하여 기술 사례를 제시한다.

### 3. 수행 전략 및 과정

본 연구는 한국수어 문법을 개발하는 기초 단계의 연구로 향후 한국수어 문법서 개발에 필요한 한국수어 문법 기술 방법과 범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연구 방법론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방법 단계에 따라 수어 문법 관련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어 문법 기술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쟁점 도출, 한국수어 문법을 위한 문법 지식 설정 및 상세 범주화, 기술 체계 개발과 그에 따른 기술 모형 등의 기초 연구 성과물을 도출할 것이다. 그 전략과 구체적인 과정은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추진 과정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

내용	2018년							
	4	5	6	7	8	9	10	11
연구계획 총괄 (전체연구 조정)	⇒							
국내 수어 문법 관련 문헌 및 연구물 분석	⇒ ⇒	⇒						
국외 수어 문법 관련 문헌 및 연구물 분석	⇒ ⇒	⇒ ⇒	⇒					
수어 문법 연구 방법론 및 기술 원칙 도출		⇒						
한국수어 문법 범주 및 체계 도출			⇒ ⇒	⇒ ⇒	⇒ ⇒	⇒		
한국수어 문법 모형 및 기술 사례 제시					⇒ ⇒	⇒		
전문가 의견 수렴						⇒ ⇒		
최종 보고서 작성							⇒ ⇒	
보고서 완성 및 제출								⇒

<그림 2> 추진 일정

## II.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1.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 추진 방법
2. 문법서 분석
3. 하위 범주 목차 분석
4. 언어학 하위 범주별 수어 문법 내용 고찰



## Ⅱ.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 1.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 추진 방법

- 한국수어 문법서 분석
- 국외 수어 문법서 분석
- 기존 국내외 수어 문법서의 체계, 용어 정의, 기술 내용 및 방법 비교 분석
- 수어 문법 관련 쟁점 도출
- 수어 문법 지식 설정 및 범주화 제안
- 수어 문법 기술 체계 및 문법 모형 제안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 2. 문법서 분석

#### 2.1 한국수어 문법서 목차 분석

현재까지의 수어 문법 관련 연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회도서관 등에서 청각장애, 수화, 농인, 수어, 한국수화, 한국수어로 검색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어 문법 관련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 6편, 석사학위 논문 24편, 그리고 학술지 게재 논문 72편으로 총 102편이다. 이 중 음운론 관련은 14편, 형태론 관련은 20편, 통사론 관련은 33편, 의미·화용론 관련은 17편, 그 외 수어의 언어학적 특성과 같은 전반적 내용 관련은 18편이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한국수어 문법서는 총 3권으로 한국수어의 이론(최상배, 안성우, 2003), 수화(원성옥, 2013), 한국 수어학 개론(이준우, 남기현, 2014)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논문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으며, 단행본으로 출간된 문법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수어 관련 문법서 3권의 전체 목차를 총론,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와 화용론, 그리고 기타 수어 관련 제반 지식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문법과 관련한 언어학적 내용만을 다루지 않고 수화 통역이나 수어의 종류 등 수어와 관련된 제반 지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문법서의 목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한국수어 문법서 목차 내용 분석

문법서	전체범주체계		비고
	목차	분석	
한국 수어학 개론  이준우 남기현 (2014)	-사회적 상황과 한국수어 (변화하는 사회와 한국수어) -한국수어의 구조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한국수어의 현장(한국수어와 수어통역사, 한국수어와 서 비스 체계)	-총론 -음운+형태+통사+의미론 -기타  총 3부: 크게 3부로 나누어 수어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함 한국수어의 구조라는 범주 안에 언어학 하위 범주로 나누어 문법적 내용을 기술함	· 한국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화 통역을 포함한 서비스 체계 포함 · 국내외 수어 관련 연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수화  원성욱 (2013)	-수화언어 -수화소 -한국수화 어원 -수화의 조어 특성 -지문자와 지숫자 -분류사 구문 -자연수화와 방법론적 수화 -한국수화 문법 -농아동의 수화 습득 -수화 통역	-총론 -음운론 -형태론 -형태론 - 형태론 -형태론 -통사론 -기타 -기타 -기타  총 10장: 언어학적 하위분류 체계에 따라 범주를 나누지 않음 형태론 관련 내용을 4장(어원, 단어 형성, 지문자 합성어, 분류사)으로 나누어 기술함	· 수어 습득, 수어의 종류, 수화 통역 등 의 내용을 포 함함 · 수어 전공자를 위한 전문 서적이라기보다는 일반인의 한국수어 이해를 돕기 위한 문법서임
한국수어의 이론  최상배 안성우 (2003)	-수어의 개요 -수어발달사 -수어에 대한 오해와 수어 -수어의 언어학적 특징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표현 -청인의 수어	-총론 -기타 -기타 -음운+형태+통사 +의미+화용론 -형태론 -형태론 -기타  총 7장: 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에 따라 범주를 나누지 않고 수어의 언어학적 특징을 가진 범주 안에서 각 내용을 기술함 형태론 관련 내용 중 2장(어원, 관용표현)을 따로 빼내어 기술함	· 수어 및 수화 통역의 제반 지식을 포함함

## 2.2 국외 수어 문법서 목차 분석

국외 수어 문법서의 출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아마존(<https://www.amazon.com/>)에서 ‘sign language linguistics’, ‘sign language grammar’ 등의 검색어로 수어 문법서를 검색하였다. 위와 같은 검색 방법을 통해 특정 나라의 수어 문법서 12권,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3권, 그리고 특정 주제로 이루어진 문법서 5권으로 총 20권의 영어로 출간된 수어 문법서를 선정하였으며 이 문헌들의 목차를 분석하였다.

### 2.2.1 국외 나라별 문법서 목차 분석

미국(Liddell, 2003, Padden, 1988, Valli & Lucas, 2011), 영국(Sutton, 1999), 독일(Papaspyrou 외, 2008), 호주(Bauer, 2014, Johnston & Schembri, 2007), 인도-파키스탄(Zeshan, 2000), 터키(Arik, 2013), 멕시코(Fridman-Mintx, 2005), 이스라엘(Meir & Sandler, 2007) 이탈리아(Mantovan, 2017) 등 9개국 수어 문법서 총 12권의 대범주 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탈리아 수어 문법서(Mantovan, 2017)와 호주수어 문법서(Bauer, 2014), 미국수어 문법서(Liddell, 2003, Padden, 1988)는 특정 수어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2>에 요약하였다.

<표 2> 국외 나라별 수어 문법서 목차 내용 분석

문법서	대범주체계	분석
<b>Nominal Modification in Italian Sign Language</b>  <b>Mantovan (2017)</b>	-Theoretical Background -Methodological Issues -Empirical Studies	3장:-총론 -기타 -형태+통사  · 언어학의 하위 범주로 목차를 구성하지 않고 특정연구물 (distribution+duration+Syntax+Closing remarks)을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함  * 하위 목차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
<b>The Use of Signing Space in a Shared Sign Language of Australia</b>  <b>Bauer (2014)</b>	-Introduction -Sociolinguistic Background & Methodology -Selected Aspects of YSL Grammar -Syntactic aspects -Use of Space -Discussion & Conclusion	6부:-총론 -기타 -음운(음성)론 -의미+화용론 -통사+의미론 -형태+통사+의미+화용론  · 수어의 언어학적 요소 및 특성으로 목차를 구성함 · 수어 관련 제반 지식(수어 유형-문화와 사회+자료수집)을 포함함  * 하위 목차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
<b>Current directions in Turkish sign language research. UK: CSP</b>  <b>Arik (2013)</b>	-Introduction -Communicative practices of deaf people in Turkey and the sociolinguistics of Turkish sign language -Documenting Turkish sign language(TID): A report on a research project -Hand Reversal and assimilation in TID lexicalized fingerspelling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reciprocals in Turkish sign language -Interrogative in TID: The role of eyebrows -Wh-movement in Turkish sign language -Aspects of reported utterances in Turkish sign language -Expressions of Space in Turkish sign language -Acquisition of locative expressions in children learning TID and Turkish -Expression of multiple entities in TID	11장:-총론 -기타 -기타 -형태론 -음운+형태론 -음운론 -음운+형태론 -통사론 -화용론 -형태+통사론 -기타  · 개별 수어 연구 프로젝트 중심으로 연구 주제별로 목차를 구성함 · 습득, 농사회 등 수어 관련 제반 지식 포함함
<b>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b>  <b>Valli &amp; Lucas (2011)</b>	-Introduction -Phonology -Morphology -Syntax -Semantics -Language in Use -Supplemental Readings	7장:-총론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기타  · 음성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목차를 구성함 · 수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별로 보충적인 읽기 자료를 제공함



## II.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b>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b>  <b>Papaspyrou 외 (2008)</b>	-Phonology: 총론, 수지, 비수지 -Morphology: 총론, Sign formation, Sort of signs, Modification -Syntax: 총론, Clauses, 문장유형, Sentence, modification, 접속사, Role shift, 공간, 담화	3부:-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 언어학 하위분류에 따라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으로 대범주를 나눈 후 하위 목차에서 수어의 언어학적 요소와 특징에 따라 구성함
<b>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b>  <b>Johnston &amp; Schembri (2007)</b>	-signed languages and linguistics -Auslan in social context -Auslan and other signed languages -Phonetics and phonology: The building blocks of signs -Morphology: Sgin formation and modification -Lexicon: The structure of Auslan vocabulary -Syntax: The structure of sentences in Auslan -Semantics and pragmatics: sign meaning and sentence meaning -Discourse: Structure and use above the sentence -Issues in the study of signed language	10장:-총론 -기타 -기타 -음운론 -형태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 +화용론 -화용론 -기타 · 언어학의 하위 범주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와 화용론으로 구성하면서 부제로 수어의 언어학적 요소 및 특징을 목차로 구성함 · 형태론을 2장으로 구성(수어 형성과 모디피케이션, 어휘론)함 · 수어 관련 사회 문화적 맥락 등 관련 제반 지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b>A Language in Space: The Story of Israeli Sign Language</b>  <b>Meir &amp; Sandler (2007)</b>	-Israeli Sign Language: Language and People -The linguistic of Israel sign language -The Language and its community -The Big Picture: ISL and Linguistic Theory	4부:-총론 -음운+형태+통사론 -기타 -기타 · 언어학의 내용을 하위 범주로 구성하지 않고, 이스라엘수어의 언어학적 구조라는 제목으로 어휘, 대명사, 동사 일치, 시제와 상, 분류사, 어순, 부정문, 의문문, 얼굴 표정 등 수어학 관련 중요 주제에 대해 기술함 · 기타 내용으로 수어 관련 제반 지식(역사, 수어 생성과 발전, 농사회의 목소리, 수어의 유사점과 차이점, 수어 연구 방향) 포함함
<b>Tense and aspect inflections in Mexican Sign Language verbs: A Cognitive Grammar approach to morphology and phonology in signed languages</b>  <b>Fridman-Mintz (2005)</b>	-Introduction -Present tense, aspects and LSM aktionsart -Perfective past inflection -Perfective future inflection -Imperfective inflection -Conclusion	6장:-총론 -형태+통사론 -형태+통사론 -형태+통사론 -형태+통사론 -기타 · 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로 목차를 구성하지 않고 시제와 상과 같은 특정 주제 중심으로 멕시코수어의 문법적 특성을 기술함
<b>Grammar, Gesture, and Meaning in American Sign Language</b>  <b>Liddell (2003)</b>	-American Sign Language as a language -A sketch of the grammar of ASL -Pronouns and real space -Indicating verbs and real space	11장:-총론 -음운+형태+통사론-형태+통사론 -형태+통사론(Indicating verbs) -기타(Surrogates) -형태+통사론 -기타(Tokens) -형태+통사론(Buoys) -형태+통사론(Depicting verbs) -기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urrogates</li> <li>-Directing signs at locations and things</li> <li>-Tokens</li> <li>-Buoys</li> <li>-Depicting verbs</li> <li>-Five brothers</li> <li>-Grammar, gesture, and mean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수어 관련 언어학적, 사회심리학적 주제로 내용을 구성함</li> <li>· 농인가족사, 문법, 제스처, 의미 등 수어 관련 제반 지식을 포함함</li> <li>* 하위 목차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li> </ul>
<p><b>Sign language in INDO-PAKISTAN: A description of a signed language</b></p> <p><b>Zeshan (200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troduction</li> <li>-The Signs</li> <li>-Morphology</li> <li>-Syntax</li> <li>-Discourse Strategies</li> </ul>	<p>5장:-총론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화용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 용어로 내용을 구성함</li> <li>· 수어의 구성 요소를 다룬 음운론 관련 내용을 “수어(signs)”라는 목차로 기술함</li> </ul>
<p><b>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 An introduction</b></p> <p><b>Sutton (199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nguistics and sign linguistics</li> <li>-BSL in its social context</li> <li>-Constructing sign sentences</li> <li>-Questions and negation</li> <li>-Mouth patterns and other nonmanual features in BSL</li> <li>-Morphology and morphemes in BSL</li> <li>-Aspect, manner, and mood</li> <li>-Space types and verb types in BSL</li> <li>-The structure of gestures and signs</li> <li>-Visual motivation and metaphor</li> <li>-The established and productive lexicons</li> <li>-Borrowing and name signs</li> <li>-Socially unacceptable signs-Extended use of language in BSL</li> </ul>	<p>14장:-총론 -기타 -통사론 -형태+통사론 -음운+형태론 -형태론 -화용론 -형태+통사론 -기타 -형태+의미론 -형태론 -형태론 -기타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 용어와 더불어 수어의 특정 문법 요소로 내용을 구성함</li> <li>· 수어의 사회학적 특성 등 수어 관련 제반 지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li> </ul>
<p><b>Interaction of Morphology and Syntax in American Sign Language</b></p> <p><b>Padden (198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lational grammar</li> <li>-Verb classes</li> <li>-Predicates</li> <li>-Embedded structures</li> <li>-Subjecthood</li> <li>-Verb agreement</li> <li>-Classifiers and Indices</li> </ul>	<p>7장:-통사론 -형태론 -통사론 -형태론 -통사론 -통사론 -통사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수어의 형태론과 통사론적 특정 요소(연구 주제별)로 내용을 구성함</li> <li>* 하위 목차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li> </ul>

2.2.2 국외 수어학 개론서 목차 분석

개론서 성격의 일반 수어학과 관련 문헌 총 3권의 대범주 목차를 분석한 결과, Brentari(2010)의 문법서는 언어학의 하위 범주로 분석할 수 없는 특정 연구 주제별 목차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3>에 목차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3> 수어학 개론서 및 수어학 문헌 목차 내용 분석

문법서	전체하위범주체계	분석
<b>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b> <b>: An introduction</b> <b>Baker 외 (2016)</b>	-Sign languages as natural languages -Psycholinguistics -Acquisition -Interaction and discourse -Constituents and word classes -Syntax: simple sentences -Syntax: complex sentences -Lexicon -Morphology -Phonetics -Phonology -Language variation and standardization -Language contact and change -Bilingualism and deaf education -appendix 1 - Notation conventions -appendix 2 - Examples of manual alphabets	16장:-총론 -기타 -기타 -화용론 -통사론 -통사론 -통사론 -형태론 -형태론 -음성학 -음운론 -기타 -기타 -기타 -부록 -부록 · 언어학의 하위 범주 체계로 내용을 구성함(다른 문헌과 달리 화용론부터 배열함) · 습득, 언어접촉과 변화 농교육 등 수어 관련 제반 지식으로 사회언어학적 심리 언어학적 내용을 포함함 · 부록으로 표기 체계와 수지 알파벳을 제공함
<b>Sign language</b> <b>: International handbook</b> <b>Pfau 외 (2012)</b>	-Phonetics, phonology, and prosody -Morphology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Communication in the visual modality -Psycholinguistics and neurolinguistics -Variation and change -Applied issues-Handling sign language data	9장:-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기타 -기타 -주제 -주제 -기타 · 대범주로 음성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를 대범주로 하고 수어의 언어학적 요소 및 특징을 하위 범주로 하여 내용을 구성함 · 핸드북 성격이므로 언어학 관련 제반 지식도 대범주화함

<b>Sign languages: A Cambridge Language Survey</b>  <b>Brentari (2010)</b>	-History and Transmission -Shared Cross linguistic Characteristics -Variation and Change	3부: -기타 -음운+형태+통사론 -기타  · 서아프리카+아랍+미국+영국, 호주, 네덜란드+동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수어에서 나타나는 교차언어학적 특징을 기술함 · 수어 관련 제반 지식을 포함함
--	--	--

### 2.2.3 특정 주제 관련 수어 문법서 목차 분석

수어의 특정 언어학적 특징을 주제(양식과 구조, 동시성, 비수지, 공간 등)로 한 연구물을 중심으로 편찬한 문법서는 총 5권이었으며, 이들 문법서에 대한 목차 분석 결과를 <표 4>에 요약하였다.

<표 4> 특정 주제 관련 수어 문법서 목차 내용 분석

문법서	전체하위범주체계	분석
<b>The Meaning of Space in Sign Language</b>  <b>Barberà Altimira (2015)</b>	-Introduction -Space in Sign Languages: background -A morpheme on spatial planes -Spatial locations and discourse referents -Deixis and familiarity -Specificity -Discourse structure and prominence -Final remarks	8장:-총론 -공간 -형태소로서의 공간 -답화에서 공간-Deixis and familiarity -Specificity -Discourse structure and prominence -Final remarks
<b>Nonmanuals in Sign Language</b>  <b>Herrmann &amp; Steinbach (2011)</b>	-Nonmanuals in sign languages -Syntax and prosodic consequences in ASL: Evidence from multiple WH_questions -Negation in Turkish Sign Language: The syntax of nonmanual markers -Eye gaze and verb agreement in German Sign Language: A first glance -Mouth gestures in British Sign Language: A case study of tongue protrusion in BSL narratives -Nonmanual markings for topic constructions in Hong Kong Sign Language -Nonmanuals, semantic operators, domain marking, and the solution to two outstanding puzzles in ASL	8장:-총론 -통사와 운율 -부정문 -동사 일치와 시선 -Mouth gestures -Nonmanual, markings -Nonmanuals, semantic operators, domain marking, and the solution to two outstanding puzzles -응용언어

	-Linguistics as structure in computer animation: Toward a more effective synthesis of brow mo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	
<b>Simultaneity in Signed Languages : Form and Function</b>  <b>Vermeerbergen 외 (2007)</b>	-Simultaneity in Signed Languages -Locative Functions of Simultaneous Perspective Constructions in German Sign Language Narratives -Conceptual Blending and the Windowing of Attention in Simultaneous Constructions in Irish Sign Language -A Cognitive Linguistic View of Simultaneity in Process Signs in French Sign Language -Simultaneity in French Sign Language Discourse -Simultaneous Constructions in Adamorobe Sign Language (Ghana) -Mouthings and Simultaneity in British Sign Language -The Non-Dominant Hand in a Swedish Sign Language Discours -A Crosslinguistic Comparison of Buoys. Evidence from American, Norwegian, and Swedish Sign Language -Point Buoys -Simultaneous Use of the Two Hands in Jordanian Sign Language-Sign + Gesture = Speech + Gesture? -Acquisition of Simultaneous Constructions by Deaf Children of Hong Kong Sign Language -Simultaneity in Atypical Signers -Perspectives on Linearity and Simultaneity	15장:-동시성 -독일수어 -아일랜드수어 -프랑스수어 -프랑스수어 -가나수어 -영국수어 -스웨덴수어 -Buoys -Point Buoys -요르단수어 -홍콩수어-Atypocal Signers -선형과 동시성
<b>Verbal and Signed Languages : Comparing Structures, Constructs and Methodologies</b>  <b>Pizzuto 외 (2007)</b>	-Iconicity, arbitrariness, linearity and simultaneity of the signifiers Iconicity and arbitrariness in French Sign Language -Units and levels of analysis -Grammatical categories and lexical semantics -Text cohesion devices	4부:-총론+시각언어 음성언어 -음운+Linguistic units+Routes from gestures+Interfaces -The expression of grammatical categories+Constructions and categories+Constructs of the mind -Deixis, anaphora and person reference+The deep relation between deixis and anaphora
<b>Modality and Structure in Signed and Spoken Languages</b>  <b>Meier 외 (2002)</b>	-Why different, why the same? Explaining effects and noneffects of modality upon linguistic structure in sign and speech -Phonological structure in signed languages -Gesture and iconicity in sign and speech -Syntax in sign: Few or no effects of modality -Using space and describing space: Pronouns, classifiers, and verb agreement	5부:-총론 -음운과 음소+Representations of repetition+음운 구조+Modality -dependent aspects+언어발달 -제스처+Gesture as the substrate+어휘 교차 분석 -공간+Applying morphosyntactic and phonological readjustment rules +Nominal expressions -대명사+동사 일치+양상+영국수어의 양상+Deictic points

특정 연구 주제별 문법서를 제외하고, 나라별 수어 문법서와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의 목차를 분석한 결과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 가. 음성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 용어와 더불어 수어의 특정 문법 요소로 목차 구성
- 나. 음성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를 대범주로 하고 하위 범주로 수어의 특정 문법 요소를 목차로 구성
- 다. 수어의 특정 문법 요소로만 목차 구성 (음성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 사용하지 않음)

### 3. 하위 범주 목차 분석

국내외 수어 문법서의 하위 범주 목차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하위 범주 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 연구 주제 결과를 문법서로 엮은 문헌 5권(Barberà Altimira, 2015, Herrmann & Steinbach, 2011, Vermeerbergen 외, 2007, Pizzuto 외, 2007, Meier 외, 2002)을 제외하였다. 또한 나라별 문법서 중에서도 특정 연구주제로 대범주 목차가 구성된 문법서 4권(Mantovan, 2017, Bauer, 2014, Liddell, 2003, Padden, 1988)을 제외하였다. 이에 분석 대상 문법서는 한국수어 문법서 3권과 국외 수어 문법서 11권으로 총 14권이다. 하위 범주 목차 분석은 언어학의 하위 범주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 및 화용론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시각언어의 특성상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는 목차와 기타 제반 지식 관련 목차의 하위 범주 목차도 분석하였다.

#### 3.1 음운론 목차 분석

음운론 관련 내용의 목차 분석에서는 총 14권 중 나라별 문법서를 선정하였으나, 영국수어 문법서(Rachel Sutton, 1999)에 음운론을 다룬 목차가 없어 제외하였다. 영국수어 문법서를 제외한 후 한국수어 문법서 3권, 국외 나라별 문법서 7권 그리고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3권으로 총 13권을 분석하였다. 결과, 한국수어 문법서 1권(원성옥, 2013), 국외 나라별 문법서 4권(Arik, 2013, Meir & Sandler, 2007, Fridman-Mintz, 2005, Zeshan, 2000),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1권(Brentari, 2010)에서는 음운론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음운론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을 포괄하지 않은 위의 6권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어 문법서 2권(이준우, 남기현, 2014, 최상배, 안성우, 2003), 나라별 수어 문법서 3권(Valli & Lucas, 2011, Papaspyrou 외, 2008, Johnston & Schembri, 2007),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Baker 외, 2016, Pfau 외, 2012), 총 7권의 문법서가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5>, <표 6>에 요약하였다.

<표 5> 나라별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음운론

문법서	음운론 하위범주 체계	분석
<p>한국 수어학 개론</p> <p>이준우, 남기현 (2014)</p>	<p><b>* 수어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형</li> <li>-수위</li> <li>-수어 공간의 기능</li> <li>-수동</li> <li>-수향</li> <li>-비수지 신호</li> </ul> <p><b>* 수어의 순차성과 동시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움직임-정지 모델</li> <li>-동시적 구조와 연속적 구조의 통합</li> </ul> <p><b>* 음운현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움직임 분절 삽입</li> <li>-정지 분절 삭제</li> <li>-동화</li> <li>-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어의 하위 범주를 구성 요소, 수어 음운론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 그리고 음운현상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함</li> <li>-수어소에서 수위라는 용어 대신 수어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조음·통사적·지형적 기능으로 분류하여 수어소에 포함함</li> <li>-Liddell과 Johnson의 모델(M-H)을 통한 음운현상을 분석하여 기술함</li> </ul>
<p>수화</p> <p>원성옥 (2013)</p>	<p><b>* 수화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형</li> <li>-수위</li> <li>-수동</li> <li>-수향</li> <li>-비수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위 범주를 수어소의 5개 유형으로 나누어 미국수어(Stokoe), 김칠관, 김승국, 석동일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최소대립쌍을 통해 설명함</li> </ul>
<p>한국수어의 이론</p> <p>최상배, 안성우 (2003)</p>	<p><b>* 수어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okoe(1960,1976)의 분류</li> <li>-Liddell과 Johnson(1989)의 분류</li> <li>-김승국(1983)의 수어소 분류</li> <li>-석동일(1989)의 수어소 분석</li> <li>-김칠관(1998)의 수형 분석</li> </ul> <p><b>* 수어의 순차성</b></p> <p><b>* 수어의 조동 유형</b></p> <p><b>* 수어소의 제약과 변화</b></p> <p><b>* 수어 분절음의 선행연속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어의 구성 요소인 수어소를 Stokoe, Liddell과 Johnson, 김칠관, 김승국, 석동일의 연구를 통해 설명함</li> <li>-수어 음운론에서 나타나는 언어학적 특성의 하위 범주를 5개로 나누어 기술함</li> </ul>
<p>Current directions in Turkish sign language research. UK: CSP</p> <p>Arik (2013)</p>	<p><b>* Differentiating the different senses of lexicalization in TID fingerspelling</b></p> <p><b>* Hand reversal</b></p> <p><b>* Assimil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rientation assimilation</li> <li>-Movement plane assimilation</li> <li>-Support for the distinction between place and setting nodes</li> <li>-Handshape assimilation</li> <li>-Suggestion for the hand arrangement node</li> <li>-Hand-Configuration assimilation as Hand configuration: Place coalescence</li> <li>-Summarizing points about assimil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문자를 통한 어휘의 의미 분화, 손의 방향에 의한 의미 분화, 음운동화 등 3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함</li> <li>*음운론의 단위 등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고 특정 연구 주제로 목차를 구성함</li> </ul>
<p>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p>	<p><b>* Signs Have Parts</b></p> <p><b>* The Stokoe System</b></p> <p><b>* The Concept of Sequentiality in the Description of Sign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 요소, 스토키 체계, 수어의 순차성, Liddell과 Johnson의 움직임-정지 모델, 음운 과정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함</li> </ul>

Valli 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tail in the description of ASL signs</li> <li>-The Representation of sequence in ASL signs</li> <li>-Minimal pairs</li> <li>* <b>The Liddell and Johnson Movement - Hold Model</b></li> <li>* <b>Phonological Process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ovement epenthesis</li> <li>-Hold reduction</li> <li>-Metathesis</li> <li>-Assimilation</li> <li>-Weak hand deletion</li> </ul> </li> </ul>	
<p>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p> <p>Papaspyrou 외 (20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Manual componen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andshape</li> <li>-Position of the hands</li> <li>-Location</li> <li>-Movement</li> <li>-Two-handed sign</li> </ul> </li> <li>* <b>Non manual componen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me</li> <li>-Eye gaze</li> <li>-Head and upper part of the body</li> <li>-Mouth actions</li> </ul> </li> </ul>	<p>-수지 요소와 비수지 요소로 나누어 기술하면서 수어 음운과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 요소를 포괄함</p>
<p>AUSTRALIAN SIGN LANGUAGE</p> <p>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p> <p>Johnston &amp; Schembri (20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he internal structure of word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nimal pairs</li> </ul> </li> <li>* <b>The internal structure of sign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andshape</li> <li>-location and movement</li> <li>-Other aspects of sign structure</li> </ul> </li> <li>* <b>Sign parameters and notation systems</b></li> <li>* <b>Minimal pairs in Auslan</b></li> <li>* <b>Sign types</b></li> <li>* <b>Manual sig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andshape in Auslan</li> <li>-Location in Auslan</li> <li>-Movement in Auslan</li> <li>-Minor parameters in Auslan</li> </ul> </li> <li>* <b>Non-manual and multi-channel signs in Ausla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on-manual signs</li> <li>-Multi-channel signs</li> </ul> </li> <li>* <b>Constraints on word and sign structur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nguistic constraints</li> <li>-Perceptual constraints</li> <li>-Production constraints</li> </ul> </li> <li>* <b>Simultaneity and sequentiality in sign structure</b></li> <li>* <b>Features, segments and syllables</b></li> <li>* <b>Phonological processes</b></li> </ul>	<p>-음성언어에서의 음소 개념을 최소 대립쌍을 통해 기술한 후, 수어의 내적 구조, 스토키 체계, 최소대립쌍 수어 타입 등 11개 부분으로 세분하여 음운론을 기술함</p>
A Language in Space: The Story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he linguistic structure of ISRAELI SIGN LANGUAGE</b></li> </ul>	<p>-언어의 내적 구조라는 범주 안에 음운 개념을 설명한 후 수어의 음</p>



<p><b>Israeli Sign Language</b></p> <p><b>Meir &amp; Sandler (200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meaningless building blocks of words</li> <li>-The meaningless building blocks of signs</li> <li>-Additional formational characteristics of signs</li> <li>-Singing it right</li> <li>-The phonology of sign language as a system</li> <li>-Sequentiality and simultaneity in phonology of signed and spoken language</li> </ul>	<p>운 체계를 기술함</p> <p>-동시성과 순차성에 대해 기술함</p> <p>*음운 과정 등의 음운론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음</p>
<p><b>Tense and aspect inflections in Mexican Sign Language verbs: A Cognitive Grammar approach to morphology and phonology in signed languages</b></p> <p><b>Fridman-Mintz (2005)</b></p>	<p><b>* Sign language phonology</b></p> <p><b>* The phonological instantiations of the Perfective Past inflec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T<sub>1</sub> and ACCEPTAR verbs</li> <li>-PRET<sub>2</sub> and AMER verbs</li> <li>-PRET<sub>3</sub> and TENER verbs</li> <li>-PRET<sub>4</sub> and PLATICAR verbs</li> <li>-PRET<sub>5</sub> and COCINAR verbs</li> <li>-PRET<sub>6</sub> and ESPERAR verbs</li> <li>-PRET<sub>7</sub> and DAR-A-TODOS verbs</li> <li>-PRET<sub>8</sub> and PATINAR verbs</li> <li>-Some irregular Perfective Past forms</li> </ul> <p><b>* The phonological instantiations of the Perfective Future inflec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UT<sub>1</sub> and ACCEPTAR verbs</li> <li>-FUT<sub>2</sub> and AMAR verbs</li> <li>-FUT<sub>3</sub> and TENER verbs</li> <li>-FUT<sub>4</sub> and PLATICAR verbs</li> <li>-FUT<sub>5</sub> and COCINAR verbs</li> <li>-FUT<sub>6</sub> and ESPERAR verbs</li> <li>-FUT<sub>7</sub> and DAR-A-TODOS verbs</li> <li>-FUT<sub>8</sub> and PATINAR verbs</li> <li>-Some irregular Perfective Future forms</li> </ul>	<p>-음성언어에서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굴절은 접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형태론에서 다루는 영역임</p> <p>-시각언어인 수어에서의 굴절, 즉 접사에 의해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굴절도 전형적인 굴절 접사의 형태를 갖지는 않지만 그 과정은 형태론적 과정(범주)에 속함</p> <p>-그러나 이 책에서는 음성언어와 다르게, 선형적인 나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각언어인 수어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음운론적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연함</p> <p>*음운론의 단위 등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고 연구 주제(특정 동사 분석)를 목차로 구성함</p>
<p><b>Sign language in INDO-PAKISTAN: A description of a signed language</b></p> <p><b>Zeshan (2000)</b></p>	<p><b>* Handshapes-Basic Handshap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ntral Handshapes</li> <li>-Marginal Handshapes</li> <li>-Problematic Cases</li> <li>-Meaningful Handshapes</li> </ul> <p><b>* Sign Famili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pposites</li> <li>-Signs Related by Common Handshape</li> <li>-Signs Related by Common Place of Articulation</li> <li>-Componential Signs</li> </ul> <p><b>* Extraneous Influences on IPSL-IPSL and Hindi/ Urdu- IPSL and English</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PSL and Gestures</li> <li>-IPSL and Other Sign Languages</li> </ul> <p><b>* Nonmanual Components of Sign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outh Pattern-Mouth Gesture and Facial Expression</li> <li>-Body Posture</li> <li>-Head Position and Eye Gaze</li> <li>-A Nonmanual Parameter?</li> </ul> <p><b>* Iconicity</b></p>	<p>-수형, 수어의 어족, 타 언어의 영향, 비수지 요소, 도상성으로 범주를 나누어 기술함</p> <p>*음운론의 단위 등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음</p>

	-The Role of Iconicity in Sign Languages -Iconic signs -Pantomimic Modification	
--	---	--

<표 6> 개론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음운론

문법서	음운론 하위범주 체계	분석
<b>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 An introduction</b>  Baker 외 (2016)	<b>* Phonetics</b> -Production -Perception -Phonetic variation -Notation systems for sign languages -Language technology <b>* Phonology</b> -Handshape -Orientation -Location -Movement -Non-manual aspects in the lexicon -Two-handed signs -Phonological processes -Iconicity and phonology -Prosody	-음성학과 음운론으로 나누어 기술함 -음운론에서는 수형, 방향, 수위, 수동, 비수지, 양손 수어, 음운 과정, 도상성으로 나누어 기술함
<b>Sign language : International handbook</b>  Pfau 외 (2012)	<b>* Phonetics</b> -The modality difference -Phonetics vs. phonology -Articulation -Phonetic variation <b>* Phonology</b> -Structure -Modality effects -Iconicity effects <b>* Visual prosody</b> -Prosodic constituents -Intonation -Prominence -Residual issues	-음성학, 음운론, 시각적 운율로 나누어 기술함 -음운론에서 구조, 양식의 영향, 도상성의 영향으로 범주를 나누고, 시각적 운율에서는 운율적 구성 요소, 억양, 현저성 등으로 나누어 기술함
<b>Sign languages: A Cambridge Language Survey</b>  Brentari (2010)	<b>* Handshape contrasts in sign language phonology</b> -Handshape -Methodology and description of the data -Selected finger combinations: distribution of three-finger handshapes -Joint configuration: distribution of the feature [stackde] -Feature asymmetries across classifier types -Theoretical implications <b>* Syllable structure in sign language phonology</b> -Syllable: the basics -Syllable structure	-수어에서 수형 관련 음소 구조와 음절 구조로 나눈 후 각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세분하여 기술함  *음운론의 단위 등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음

### 3.2 형태론 목차 분석

형태론 관련 내용의 목차 분석에서는 총 14권 중 나라별 문법서를 선정하였으나, 터키수어 문법서(Engin Arik (Ed.), 2013)에 형태론을 다룬 목차가 없어 제외하였다. 터키수어 문법서를 제외한 후, 한국수어 문법서 3권, 국외 나라별 문법서 7권 그리고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3권으로 총 13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어 문법서 1권(원성욱, 2013), 국외 나라별 문법서 3권(Meir & Sandler, 2007, Fridman-Mintz, 2005, Zeshan, 2000),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1권(Brentari, 2010)에서는 형태론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지 않았다. 형태론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을 포괄하지 않은 위의 5권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어 문법서 2권(이준우, 남기현, 2014, 최상배, 안성우, 2003), 나라별 수어 문법서 4권(Valli & Lucas, 2011, Papaspyrou 외, 2008, Johnston & Schembri, 2007, Sutton, 1999),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Baker 외, 2016, Pfau 외, 2012), 총 8권의 문법서가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7>, <표 8>에 요약하였다.

<표 7> 나라별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형태론

문법서	형태론 하위범주 체계	분석
한국 수어학 개론  이준우, 남기현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li> <li>-어근 형태소와 비어근 형태소</li> <li>-의존 어근</li> <li>-의존 비어근</li> </ul> </li> <li>* 단어 형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사 첨가</li> <li>-국내의 연구</li> </ul> </li> <li>* 명사-동사 파생</li> <li>* 수사 포함(numeral incorp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의 자리</li> <li>-시간 표현</li> <li>-나이 표현</li> <li>-그 밖의 표현들</li> </ul> </li> <li>* 지문자어(fingerspelled sig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문자의 개념</li> <li>-지문자의 사용</li> <li>-한글 지문자</li> <li>-지문자어</li> </ul> </li> <li>* 차용어(a loanword)</li> <li>* 합성어(compou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수어에서 합성어 연구</li> <li>-합성어의 유형</li> <li>-번역 차용</li> </ul> </li> <li>* 굴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어의 동사 분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연구를 통한 수어 단어 형성 과정 및 방법을 분석함</li> <li>-음성언어의 단어를 차용하는 등 지문자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지문자어’라는 용어로 사용함(지문자어와 차용어를 구분함)</li> <li>-단어 형성 과정에 접사 첨가만을 포함하고, 명사-동사 파생, 합성어, 차용어 등은 따로 분리하여 정리함.</li> <li>-수어만의 언어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일반 언어학에 기반을 두어 정리한 사례를 찾아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사와 일치</li> <li>-동사와 수</li> <li>* <b>상호 표현</b></li> <li>-한국어 비대칭 동사의 상호 표현</li> <li>-수어 일치동사에서 상호 표현</li> </ul>	
<p>수화</p> <p>원성옥 (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국수화의 어원</b></li> <li>-수화기호의 구성 방법</li> <li>-수화소에 따른 한국수화의 어원적 의미</li> <li>* <b>수화의 조어 특성</b></li> <li>-단어의 형성</li> <li>-단일구조를 가진 수화 단어</li> <li>-복합구조를 가진 수화단어</li> <li>* <b>지문자와 지숫자</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어 형성의 세부 내용으로 단어의 구조와 형성 방법을 소개하였고, 음운론적 측면에서 기술함</li> <li>-지문자를 통해 새로운 어휘 형성 방법과 지문자의 어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제시함</li> <li>-지숫자의 경우 타 연구에서는 수사 포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함</li> <li>-분류사의 개념(Supalla, 1986 인용)과 분류사 유형 4가지의 기술(Battison, 1978)은 8가지로 구분하였고, 지문자 내에 분류사 유형을 포함시킴함</li> </ul>
<p>한국수어의 이론</p> <p>최상배, 안성우 (20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형태론적 분석의 의미</b></li> <li>* <b>형태 구조</b></li> <li>* <b>분류사</b></li> <li>* <b>한국 수어의 어족 연구</b></li> <li>-석동일의 단어족 연구</li> <li>-장진권의 어족 연구</li> <li>* <b>수어 구성 방법</b></li> <li>* <b>수어의 품사</b></li> <li>-체언</li> <li>-관계언</li> <li>-용언</li> <li>-수식언</li> <li>-독립언</li> <li>* <b>수어의 변용</b></li> <li>-시간과 시제의 변용</li> <li>-인칭의 변용</li> <li>-수-동사의 변용</li> <li>-수-명사의 변용</li> <li>-동사의 변용</li> <li>-형용사의 변용</li> <li>* <b>수어 어휘의 다의어</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어 어휘의 생성 방법과 구조를 분석함</li> <li>-김승국의 품사 분류(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와 석동일의 수어 파생 연구를 수렴함</li> <li>-변용을 통한 수어 어휘 생성 분석, 'modification'을 변용의 용어로 사용함</li> <li>-수어 어휘에 다의어가 많은 이유를 분석함</li> <li>-품사를 형태론에 포함함</li> </ul>
<p>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p> <p>Valli &amp; Lucas (2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Building New Signs</b></li> <li>-Morphology</li> <li>-Derivational morphology</li> <li>-Inflectional morphology</li> <li>* <b>Deriving Nouns from Verbs</b></li> <li>* <b>Compounds</b></li> <li>-Compounds in ASL</li> <li>* <b>Fingerspelling</b></li> <li>-Fingerspelling</li> <li>-Lexicalized fingerspelling</li> <li>-The Lexicalization process</li> <li>* <b>Numeral Incorporation</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어 형성, 동사에서 명사 파생, 합성어, 지문자, 수사 포함의 내용을 기술함</li> <li>-미국수어의 형태론에서 많이 표현되는 문법 표지를 기술함</li> </ul>

## II.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p><b>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b></p> <p>Papaspyrou 외 (2008)</p>	<p><b>* Sign form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onicity</li> <li>-Simultaneity</li> <li>-Extern influences on sign formation</li> </ul> <p><b>* Sort of sign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ouns</li> <li>-Verbs</li> <li>-Pronouns</li> <li>-Adjectives</li> <li>-Expression of time</li> </ul> <p><b>* Modification of sign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lural</li> <li>-Comparison</li> <li>-Aspect of tens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수어의 수어 형성, 수어 분류, 수어 변형을 기술함</li> <li>-파생과 굴절이라는 표현 대신 수어 형성과 수어 변형으로 기술함</li> <li>-수어의 분류를 명사, 동사, 대명사, 형용사, 시간표현으로 범주화하여 기술하였고, 형태론에 포함함</li> <li>-수어 변형에서 복수, 비교, 시제의 상을 기술함</li> </ul>
<p><b>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b></p> <p>Johnston &amp; Schembri (2007)</p>	<p><b>* Morphology: sign formation and modific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morpheme in signed and spoken language</li> <li>-Morphological processes: Derivation and inflection</li> <li>-Sign formation processes</li> <li>-Processes of sign modification</li> </ul> <p><b>* Lexicon: the structure of Auslan vocabular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Auslan lexicon</li> <li>-The native lexicon</li> <li>-The non-native lexicon in Ausla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어 형성과 수어 변형으로 호주수어의 특성을 기술함</li> <li>-수어와 구어의 형태소의 차이를 기술하고, 특히 수어의 생산성 측면에 대해 기술함</li> <li>-형태론적 과정에서 구어의 특성인 파생과 굴절의 의미를 간략하게 기술함</li> <li>-수어 형성 과정에서 어휘의 확장, 반복, 접사, 합성, 수사 포함 등의 내용을 다룸</li> <li>-수어 변형의 과정에서는 명사의 변형과 동사의 변형을 기술함</li> </ul>
<p><b>A Language in Space: The Story of Israeli Sign Language</b></p> <p>Meir &amp; Sandler (2007)</p>	<p><b>* Vocabulary: Simple and Complex Word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ifficulties in finding and recording the words: the lexicographer's lament</li> <li>-The expressiveness of the ISL lexicon: words of communication</li> <li>-Adding new words and building complex words</li> <li>-Novel words form formation in poetry</li> <li>-Articles about the structure of the lexicons in sign languages</li> </ul> <p><b>* Grammar in Space: Verb Agreeme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at verb agreement</li> <li>-Verb agreement in sign languages</li> <li>-The form and meaning of sign language verb agreement</li> <li>-Verb agreement: signed versus spoken languages</li> <li>-Marking number with agreement morphemes</li> </ul> <p><b>* Tenses and Aspect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nse versus aspect</li> <li>-The aspectual system of ISL</li> <li>-The expression of tim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사 일치의 정의, 수어에서 동사 일치의 형식과 의미, 수어와 구어에서의 차이 비교, 일치 형태소 표지 등 이스라엘수어의 특성에 대해 기술함</li> <li>-구어와 수어에서의 시제 차이, 시제와 상 비교 기술, 이스라엘 수어의 상표지, 시간 표현(시제 수어)을 기술함</li> <li>*형태론의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음</li> </ul>
<p><b>Tense and aspect inflections in</b></p>	<p><b>* Tense inflections in sign languages</b></p> <p><b>* Aspect inflections in sign languag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어에서의 시제와 상의 영향을 기술함</li> </ul>

<p>Mexican Sign Language verbs: A Cognitive Grammar approach to morphology and phonology in signed languages</p> <p>Fridman-Mintz (2005)</p>	<p><b>* Sign language morphology</b></p> <p>-Overview</p> <p>-Outline of a cognitive approach</p>	<p>-멕시코수어에 출현하는 접사와 의존 형태소, 초분절 자질, 수지와 비수지 의존형태소 등을 기술함</p> <p>*형태론의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음</p>
<p>Sign language in INDO-PAKISTAN : A description of a signed language</p> <p>Ulrike Zeshan (2000)</p>	<p><b>* Word Classes</b></p> <p><b>* Directionality</b></p> <p><b>* Aspects</b></p> <p>-Completive Aspect</p> <p>-Aspectual Modulation</p> <p><b>* Complex Signs</b></p> <p>-Numeral Incorporation</p> <p>-LENA: 'take' and DENA: 'give'</p> <p>-Fusion, Compounds</p>	<p>-제3장에 단어 분류, 지향, 상, 복합수어의 내용을 포함함</p> <p>-상에서는 완료 상 표시와 상 변형 또는 상 굴절 특성을 기술함</p> <p>-복합 수어에서는 수사 포함, 결합과 합성 등 수어 단어 형성에 대해 기술함</p> <p>*형태론의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음</p>
<p>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 An introduction</p> <p>Sutton (1999)</p>	<p><b>* What is a morpheme</b></p> <p><b>* Bound and free morphemes</b></p> <p><b>* Plural morphemes</b></p> <p><b>* Verb morphology</b></p> <p><b>* Grammatical class: nouns, verbs, and adjectives in BSL(Adjectives)</b></p>	<p>-형태소의 의미와 특징, 의존형태소와 자립 형태소, 복수 형태소, 동사 형태론, 문법적 분류 등의 내용을 포함함</p> <p>-수어만의 형태소 분류 특성을 제시함 (단일 형태소 1개와 다형태소 3개로 구분)</p> <p>-복수 형태소를 상위 제목으로 분리해서 작성함</p> <p>-동사 형태론에서는 동사의 수 정보, 반복, 분포에 의해 의미 변화 특성 기술함</p> <p>-문법적 분류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의 정의와 분류 준거를 제시함</p>

<표 8> 개론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형태론

문법서	형태론 하위범주 체계	분석
<p>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 An introduction</p> <p>Baker 외 (2016)</p>	<p><b>* Constituents and word classes</b></p> <p>-Constituents</p> <p>-The structure of phrases</p> <p>-Lexical signs</p> <p>-Function signs</p> <p><b>* Lexicon</b></p> <p>-What can be a sign?</p> <p>-Form and meaning: iconicity</p> <p>-The frozen and the productive lexicon</p> <p>-Sign language dictionaries, Meaning and meaning relations</p>	<p>-어휘론에서는 수어가 무엇인지를 기술하였고, 형식과 의미, 고정된 어휘와 생산적인 어휘, 수어 사전, 의미와 의미 관계, 비유와 관용어 등의 내용을 기술함</p> <p>-의미와 의미 관계에서는 다의어, 동음이의어, 하위어, 반의어, 동의어 등을 기술함</p> <p>-형태론에서는 단어 형성, 합성, 파생, 굴절, 포함과 분류사를 큰 범주로 구분하여 기술함. 특히 굴절에서</p>

## II.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etaphor and idiom</li> </ul> <p><b>* Morpholog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ord formation: sequentiality versus simultaneity</li> <li>-Compounding</li> <li>-Derivation</li> <li>-Inflection</li> <li>-Incorporation and classification</li> </ul>	<p>시제와 양상, 일치, 복수화 등을 기술하였고, 포함과 분류사를 상위 범주로 분리하여 기술함</p>
<p><b>Sign language : International handbook</b></p> <p>Pfau 외 (2012)</p>	<p><b>* Word classes and word formation</b></p> <p><b>* Plurality</b></p> <p><b>* Verb agreement</b></p> <p><b>* Classifiers</b></p> <p><b>* Tense, aspect, and modality</b></p> <p><b>* Agreement auxiliaries</b></p> <p><b>* Pronoun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개의 장을 통해 수어 형태론 관련 다양한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음</li> <li>-단어 분류와 단어 형성에서는 수어 형태론적 과정, 단어 분류, 단어 형성(합성과 접사 첨가)을 중심으로 기술함. 특히 단어 분류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를 중심으로 품사를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함</li> <li>-복수화에서는 명사-명사구, 대명사-수사 포함, 숫자, 동사 일치와 분류사 동사, 수어와 구어에서 복수 표지 비교 등의 내용을 포함함</li> <li>-동사 일치에서는 일치의 구현 방법과 일치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하고 있음</li> <li>-분류사는 분류사 범주와 특성, 분류사 동사, 분류사 동사 이외의 분류사, 분류사 습득에 대해 기술함. 분류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li> <li>-시제, 상, 양상 중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함</li> <li>-조동사 일치에 대해 제시함</li> </ul>
<p><b>Sign languages: A Cambridge Language Survey</b></p> <p>Brentari (2010)</p>	<p><b>* Verb agreement in sign language morpholog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detailed description of verb agreement in signed languages</li> <li>-Psycholinguistic and historical studies of verb agreement in signed languages</li> <li>-Verb agreement in signed language</li> </ul> <p><b>* Functional markers in sign languag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exical morphemes and grammatical morphemes</li> <li>-Some basic notions</li> <li>-The story about FATTO</li> <li>-The story about FINISH</li> <li>-Interaction of FATTO and FINISH with neg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사 일치에서는 3가지 주제를 기술하였는데, 동사 일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논항 일치와 자질 일치, 동사 분류, 음성학적이고 음운론적 제약, 범언어적 변이 연구 등), 심리언어학적, 역사적인 연구(실험 연구, 발달 연구, 역사적 연구)에 대해 기술함</li> <li>-수어에서 기능적인 표지에서는 어휘적 형태소와 문법적 형태소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연구 사례를 소개함</li> </ul> <p>*형태론의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음</p>

### 3.3 통사론 목차 분석

통사론 관련 내용의 목차 분석에서는 총 14권 중 나라별 문법서를 선정하였으나, 멕시코수어 문법서(Fridman-Mintx, 2005)에는 통사론을 다룬 목차가 없어 제외하였다. 멕시코수어 문법서를 제외한 후, 한국수어 문법서 3권, 국외 나라별 문법서 7권 그리고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3권으로 총 13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어 문법서 1권(원성옥, 2013), 국외 나라별 문법서 4권(Rachel Sutton, 1999, Arik, 2013, Lnt Meir, 2007, Boris, 2005, Zeshan, 2000)과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1권(Brentari, 2010)에서는 통사론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을 포괄하여 다루지 않고 있었다. 통사론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을 포괄하지 않은 위의 6권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어 문법서 2권(이준우, 남기현, 2014, 최상배, 안성우, 2003), 나라별 수어 문법서 3권(『호주수어 언어학 개론(Valli & Lucas, 2011, Johnston & Schembri, 2007),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Baker 외, 2016, Pfau 외, 2012). 총 7권의 문법서가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9>, <표 10>에 요약하였다.

<표 9> 나라별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통사론

문법서	통사론 하위범주 체계	분석
한국 수어학 개론  이준우, 남기현 (2014)	<p><b>* 품사 분류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사</li> <li>-대명사</li> <li>-수사</li> <li>-동사</li> <li>-형용사</li> <li>-관형사</li> <li>-부사</li> <li>-감탄사</li> <li>-조사</li> </ul> <p><b>* 시제와 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의 시제</li> <li>-한국어의 상</li> <li>-수어의 동작상</li> <li>-비수지 신호와 상</li> </ul> <p><b>* 문장 유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문</li> <li>-복문</li> </ul> <p><b>* 의향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수지 신호의 문법적 기능</li> <li>-한국수어에서의 의향법</li> </ul> <p><b>* 초점과 화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탕-초점</li> <li>-화제-논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사론에서 품사를 설명하였으며 이윅하(2011)의 연구를 통해 조사를 설명함</li> <li>-한국수어에서 시제 표현은 시간 부사로 명시됨을 설명함</li> <li>-한국어와 한국수어의 상을 비교하고 수어의 동작상을 진행상, 습관상, 지속상, 반복상, 완료상으로 나누어 설명함. 비수지 신호로 표현되는 상을 ‘부’, ‘파’로 설명함</li> <li>-일반 동사, 일치 동사, 묘사 동사를 통한 단문의 문장 유형과 대등 접속문, 종속 접속문을 통한 복문의 문장 유형을 설명함</li> <li>-비수지 신호의 문법적 기능을 통한 한국수어에서의 의향법을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부정문으로 구분하여 설명함</li> <li>-수어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를 화제와 초점을 통해 설명함</li> </ul>



## 표.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p>수화</p> <p>원성옥 (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사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류사 개념</li> <li>-분류사 유형</li> <li>-한국수화 분류사의 특성</li> </ul> </li> <li>* 자연수화와 방법론적 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수화와 방법론적 수화의 정의</li> <li>-미국의 방법론적 수화</li> <li>-한국의 방법론적 수화</li> <li>-관용수화</li> </ul> </li> <li>* 한국수화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수화의 특성</li> <li>-주어의 실현</li> <li>-목적어의 실현</li> <li>-관형어·부사어의 실현</li> <li>-부정표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류사를 크기와 모양 특정자, 의미, 신체, 신체 부분, 도구 분류사로 구분한 Supalla (1986)의 분류사 연구와 한국수어의 분류사를 손 모양을 중심으로 한 남기현(2012)의 분류사 연구를 소개함</li> <li>-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다른 문법 체계를 가짐을 설명함</li> <li>-시각언어 체계로서의 한국수화 전반적인 특성과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이 어떻게 문장성분으로 실현되는지 설명함</li> </ul>
<p>한국수어의 이론</p> <p>최상배, 안성우 (20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어 통사론의 의미</li> <li>* 통사론 연구의 역사</li> <li>* ASL의 기본 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문문</li> <li>-부정문</li> <li>-명령문</li> <li>-화제화문</li> <li>-조건문</li> </ul> </li> <li>* 한국수어의 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동일(1989)의 연구</li> <li>-변지원(1992)의 연구</li> <li>-황도순(1994)의 연구</li> <li>-엄미숙(1996)의 연구</li> </ul> </li> <li>* 구문론에서 비수지신호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수지신호를 나타내는 기호</li> <li>-비수지신호의 문법적 기능</li> </ul> </li> <li>* 구문론에서 공간이동의 중요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수어의 기본 문형 연구와 한국수어의 문형 연구를 소개함</li> <li>-비수지 신호와 공간의 기능을 분석함</li> </ul>
<p>Current directions in Turkish sign language research. UK: CSP</p> <p>Arik (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rogative in TTD: The role of eyebro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onmanuals in sign languages</li> <li>-Content questions</li> <li>-Polar questions</li> <li>-Methodology</li> </ul> </li> <li>* Wh-movement in Turkish sign langu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urface positions of wh-elements in SLs,</li> <li>-Rightward and leftward analyses,</li> <li>-The position of Space</li> <li>-CP, The position of C° and the structure of CP</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문문 관련 두 가지 주제로 범주를 나눔</li> <li>-의문문을 구성하는 비수지에서 눈썹의 역할과, 의문사(wh-의문)의 역할을 하는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나누어 기술함</li> <li>*통사론의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고 특정 요소만으로 구성함</li> </ul>
<p>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p> <p>Valli &amp; Lucas (2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sic Sentence Typ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Questions</li> <li>-Negation</li> <li>-Commands</li> <li>-Topicalization</li> <li>-Conditionals</li> <li>-Declaratives</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문형, 어휘적 범주, 어순, 시간과 상, 동사, 공간의 기능으로 범주를 나눔 (공간을 통사론 안에 따로 범주를 나누어 문장에서의 공간의 기능을 강조함)</li> <li>-기본 문형은 의문문, 부정문, 명령문, 화제화, 조건문, 평서문으로 나누고 비수지의 중요성을 한 범주로 따로 기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importance of nonmanual signals</li> </ul> <p><b>* Lexical Categori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pen lexical categories</li> <li>-Closed lexical categories</li> </ul> <p><b>* Word Order</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sic word order in ASL</li> <li>-Word Order with intransitive verbs</li> </ul> <p><b>* Time and Aspec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ime and Tense</li> <li>-Expressing time in ASL</li> <li>-Temporal Aspect</li> </ul> <p><b>* Verb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lain Verbs</li> <li>-Indication Verbs</li> <li>-Depicting Verbs</li> </ul> <p><b>* The Function of Spac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휘의 범주는 열린 범주와 닫힌 범주로 나누어 기술함</li> <li>-어순은 기본 어순과 자동사에서의 어순으로 범주를 나누어 기술함</li> <li>-시간과 상은 시간과 시제, 시간의 표현, 시간 상으로 나누어 기술함</li> <li>-동사는 일반동사, 지시동사, 묘사동사로 나누어 기술함</li> </ul>
<p>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p> <p>Papaspyrou 외 (2008)</p>	<p><b>* Claus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dicate</li> <li>-Subject</li> <li>-Object</li> <li>-Addition</li> </ul> <p><b>* Sentence typ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atement</li> <li>-Questions</li> <li>-Request sentence</li> </ul> <p><b>* Sentence modific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odal verbs</li> <li>-Negation</li> <li>-Confirmation</li> <li>-Emphasis</li> </ul> <p><b>* Sentence conjunc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and B”</li> <li>-“A or B”</li> <li>-“A but B”</li> <li>-“A, and then B”</li> <li>-“Although A, still B”</li> <li>-“While A happened B”</li> <li>-“A leads to B”</li> <li>-“If A, then B”</li> </ul> <p><b>* Role shift</b></p> <p><b>* Use of spac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calisation</li> <li>-Relation of the located items to each other</li> <li>-Buoy as a reference point</li> </ul> <p><b>* Text structure of a narr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 문장 유형, 문장 변형, 문장 연결, 역할 전환, 공간의 사용, 담화 구조로 범주를 나누어 기술함</li> <li>-절에서는 술어, 주어, 목적어, 부속어로 나누어 기술함</li> <li>-문장 유형에서는 평서문, 의문문, 요청문으로 나누어 기술함</li> <li>-문장 변형에서는 조동사(can, will 등), 부정문, 진술문, 강조문으로 나누어 기술함</li> </ul>
<p>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p>	<p><b>* Word classes in Ausla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ouns</li> <li>-Verbs</li> <li>-Adjectives</li> <li>-Adverb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어의 갈래, 문장과 문장 구성 요소, 문장 유형, 단문에서의 구성 순서, 내용 의문문, 화제화, 분열문, 부정과 단언, 복문에서의 구성 순서로 범주를 나누어 기</li> </ul>

## II.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p>linguistics</p> <p>Johnston &amp; Schembri (20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terminers</li> <li>-Auxiliary verbs</li> <li>-Prepositions</li> <li>-Conjunctions</li> <li>-Pronouns</li> <li>-Interjections</li> <li>* <b>Sentences and their constituents</b></li> <li>* <b>Sentences types</b></li> <li>* <b>Constituent order in simple claus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erbless clauses</li> <li>-Clauses with intransitive plain verbs</li> <li>-Clauses with transitive plain verbs</li> <li>-Clauses with indicating and depicting verbs</li> <li>-Sentence-final tags and doubling</li> <li>-Ellipsis</li> </ul> </li> <li>* <b>Content questions</b></li> <li>* <b>Topicalisation</b></li> <li>* <b>Pseudo-clefts (or 'rhetorical questions')</b></li> <li>* <b>Negation and affirmation</b></li> <li>* <b>Constituent order in clause complexes</b></li> <li>* <b>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ditionals</li> <li>-Relative clauses</li> </ul> </li> </ul>	<p>술함</p>
<p>A Language in Space: The Story of Israeli Sign Language</p> <p>Meir &amp; Sandler (20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Grammar in Space: The Pronominal Syste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oint of reference: the basic of the pronoun system in language</li> <li>-The pronominal system in sign languages</li> <li>-Reference points as a means of avoiding ambiguity</li> <li>-Other pronouns in ISL</li> <li>-Marking number in the pronominal system</li> <li>-Indicating reference with the body: role shift</li> <li>-Pronouns in other sign languages</li> </ul> </li> <li>* <b>Word Orde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opic first, and then comment</li> <li>-Word order in possessive constructions</li> <li>-Topic-comment in other languages</li> </ul> </li> <li>* <b>Negative and Interrogative Sentenc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egative sentences</li> <li>-Interrogative sentences</li> </ul> </li> </ul>	<p>-공간의 문법 기능을 대명사 체계, 어순,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범주를 나누어 기술함</p> <p>*통사론의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고 특정 요소만으로 구성함</p>
<p>Sign language in INDO-PAKISTAN: A description of a signed language</p> <p>Zeshan (2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Word Orde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dicates and Participants</li> <li>-Temporal Expressions</li> <li>-Function Signs</li> <li>-Modifying Constructions</li> </ul> </li> <li>* <b>Localizat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ci</li> <li>-Directionality</li> <li>-Positioning</li> </ul> </li> </ul>	<p>-어순, 위치 특정, 비수지적 구문으로 범주를 나누어 기술함</p> <p>-수어의 시각언어적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목차를 정함</p> <p>*통사론의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고 특정 요소만으로 구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dex</li> <li>-Eye Gaze</li> <li>-Role Play</li> <li>-Inconsistencies</li> </ul> <p><b>* Nonmanual Syn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ffirmation and Negation</li> <li>-Interrogatives</li> <li>-Conditional Clauses</li> </ul>	
<p><b>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 An introduction</b></p> <p>Sutton (1999)</p>	<p><b>* Questions</b></p> <p><b>* Question function</b></p> <p><b>* Question structur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Yes-No questions</li> <li>-Wh- questions</li> <li>-Alternative questions</li> <li>-Rhetorical questions</li> </ul> <p><b>* Neg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acial expression</li> <li>-Head movements</li> <li>-Negation sig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문문, 의문문의 기능, 의문문 구조, 부정문으로 범주를 나눔</li> </ul> <p><b>* 통사론의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고 특정 요소만으로 구성함</b></p>

<표 10> 개론 문법서별 하위 범주 체계-통사론

문법서	통사론 하위범주 체계	분석
<p><b>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 An introduction</b></p> <p>Baker 외 (2016)</p>	<p><b>* Syntax: simple sentenc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unction of constituents</li> <li>-Valency</li> <li>-Semantic and grammatical roles</li> <li>-Sign order</li> <li>-Topicalization</li> <li>-Sentence types</li> <li>-Negation and affirmation</li> <li>-Pronominalization and pro-drop</li> </ul> <p><b>* Syntax: complex sentenc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mplement clauses and direct speech</li> <li>-Adverbial clauses</li> <li>-Relative clauses</li> <li>-Coordin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문과 복문으로 나누어 기술함</li> <li>-단문에서는 구성 요소의 기능, 결합, 의미적 문법적 역할, 어순, 화제화, 문장 유형, 부정과 확인문, 대명사화와 생략으로 나누어 기술함</li> <li>-복문에서는 종속절과 직접 화법, 부사절, 관계절, 조직화로 나눔</li> </ul>
<p><b>Sign language : International handbook</b></p> <p>Pfau 외 (2012)</p>	<p><b>* Word order</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ord order-some background issues</li> <li>-Word order and sign languages</li> <li>-A timeline for sign linguistic research: how does word order work fit in?</li> <li>-Towards a typology of sign languages</li> <li>-Methodological issues: how data type impacts results</li> </ul> <p><b>* The noun phras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haracteristics of this modality with consequenc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순, 명사구, 문장 유형, 부정문, 조직화와 종속 관계, 발화와 구성된 행위로 나누어 기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or noun phrase structure</li> <li>-What's in a noun phrase? A closer look inside</li> <li>-Number: expression of plurality</li> <li>-DP_internal word order</li> </ul> <p><b>* Sentence typ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olar (yes-no) questions</li> <li>-Content (wh) questions</li> <li>-Other constructions with wh-phrases</li> </ul> <p><b>* Neg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nual negation vs. non-manual marking of negation</li> <li>-Syntactic patterns of negation</li> <li>-Negative concord</li> <li>-Lexical negation and morphological idiosyncrasies of negatives</li> </ul> <p><b>*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ordination</li> <li>-Subordination</li> </ul> <p><b>* Utterance reports and constructed ac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porting the words, thoughts, and actions of others</li> <li>-Early approaches to role shift</li> <li>-Role shift as constructed action</li> <li>-Formal approaches</li> <li>-Integration</li> </ul>	
<p><b>Sign languages: A Cambridge Language Survey</b></p> <p><b>Brentari (2010)</b></p>	<p><b>* Overview of word order and clause structure</b></p> <p><b>* Clause structure in LSB and ASL</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vidence for clause structure</li> <li>-Clause structure with movement operations</li> <li>-Clause structure with different verb types</li> </ul>	<p>-어순과 절의 구조, 미국수어와 브라질수어에서의 절의 구조로 범주를 나누어 기술함</p> <p>*통사론의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고 특정 요소만으로 구성함</p>

### 3.4 의미 및 화용론 목차 분석

의미 및 화용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한국수어 문법서 2권(이준우, 남기현, 2014, 최상배, 안성우, 2003), 국외 문법서 중 나라별 문법서 3권(Valli, 2011, Johnston & Schembri, 2012) 그리고 일반 문법서 2권(Baker 외, 2016, Pfau 외, 2012)에서만 다루고 있었다. 이외 문법서에서는 도상성, 은유, 공간, 비수지 등의 내용으로 음운 및 형태론과 통사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검토 결과 17편의 한국수어 연구물이 있었으나 연구의 대부분이 어휘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론과 화용론의 범주를 한국수어 문법서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쟁점으로 두고자 한다. 목차 분석 결과는 <표 11>, <표 12>에 요약하였다.

<표 11> 나라별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의미 및 화용론

문법서	의미·화용론 하위범주 체계	분석
<p>한국 수어학 개론</p> <p>이준우, 남기현 (2014)</p>	<p><b>* 의미 이론</b></p> <p>-지시적 관점</p> <p>-표상적 관점</p> <p>-수어의 기호 유형</p> <p><b>* 어휘 관계</b></p> <p>-동의 관계</p> <p>-동음이의어 관계</p> <p>-다의어 관계</p> <p>-반의 관계</p> <p>-상하 관계</p> <p>-환유</p> <p>-은유</p>	<p>-지시적 관점과 표상적 관점으로 의미 이론을 설명하고 Bergman(1978, 1990, 1992)의 연구를 통해 수어의 기호 유형을 설명함</p> <p>-동의 관계, 동음이의어 관계, 다의어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환유, 은유를 통해 어휘 관계를 설명함</p>
<p>한국수어의 이론</p> <p>최상배, 안성우 (2003)</p>	<p><b>* 수어 의미론의 의미</b></p> <p><b>* 수어 어휘에서의 의미</b></p> <p>-의미의 유형</p> <p>-외연(외포)과 암시(내포)</p> <p>-어휘 항목들의 관계</p> <p><b>* 수어문에서의 의미</b></p> <p><b>* 수어의 의미 변화</b></p>	<p>-Valli, Lucas의 연구를 통한 수어 어휘의 의미 유형과 항목들의 관계를 분석함</p> <p>-수어의 의미 변화를 전이, 은유적 전용, 환유적 전용으로 구분한 김칠관의 연구를 소개함</p>
<p>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p> <p>Valli &amp; Lucas (2011)</p>	<p><b>* Semantics</b></p> <p>-The Meaning of Individual Signs</p> <p>-The Meaning of Sentences</p> <p><b>* Language in Use</b></p> <p>-ASL Discourse</p> <p>-Bilingualism and Language Contact</p> <p>-Language as Art</p>	<p>-의미론과 언어의 사용으로 범주를 나누어 기술함</p> <p>-의미론에서는 개별 단어 수준과 문장 수준에서의 의미를 나누어 기술함</p> <p>-언어의 사용에서는 미국수어 담화, 이중 언어와 언어 접촉, 언어 예술로 나누어 기술함</p>
<p>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p> <p>Johnston &amp; Schembri (2007)</p>	<p><b>* Semantics and pragmatics</b></p> <p>-Sign meaning and sentence meaning</p> <p>-Types of meaning</p> <p>-Sign meaning</p> <p>-Iconicity and metaphor in Auslan</p> <p>-Sentence meaning</p> <p>-Utterance meaning</p> <p><b>* Discourse: structure and use above sentence</b></p> <p>-Register</p> <p>-style and genre</p> <p>-Information structure</p> <p>-Cohesion</p>	<p>-의미론과 화용론, 그리고 담화로 범주를 나누어 기술함</p> <p>-의미와 화용론에서는 단어와 문장에서의 의미, 의미의 유형, 도상성과 은유, 문장의 의미, 발화 의미로 나누어 기술함</p> <p>-담화에서는 사용역, 스타일과 장르, 정보 구조, 응집력으로 나누어 기술함</p>
<p>Sign language in INDO-PAKISTAN: A description of a signed language</p> <p>Zeshan (2000)</p>	<p><b>* Contrasts</b></p> <p><b>* Use of the Left Hand</b></p> <p><b>* Perspective</b></p>	<p>-대조, 왼손의 사용, 관점으로 범주를 나누어 기술함</p> <p><b>*의미와 화용론의 하위 범주를 포괄하지 않고 특정 요소만으로 구성함</b></p>

<표 12> 개론 문법서별 하위 범주 체계-의미 및 화용론

문법서	의미·화용론 하위범주 체계	분석
<p><b>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 An introduction</b></p> <p>Baker 외 (2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ooperating in conversations</b></li> <li>* <b>Turn-taking</b></li> <li>* <b>Coherence</b></li> <li>* <b>Speech acts</b></li> <li>* <b>Structuring the discours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use of articles and pronouns</li> <li>-Information structure, Role shift</li> </ul> </li> <li>* <b>Pragmatic adequac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ispering and shouting</li> <li>-Influence of the hearing status of the conversation partner</li> </ul> </li> </ul>	<p>-협조하기와 대화, 대화 주고받기, 응집력, 말하기, 대화 구조화하기, 화용적 적절성으로 범주를 나누어 기술함</p>
<p><b>Sign language : International handbook</b></p> <p>Pfau 외 (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conicity and metaphor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onicity in linguistic theory</li> <li>-Examination of linguistic iconicity</li> <li>-Relevance of iconicity to sign language use</li> </ul> </li> <li>* <b>Use of sign spac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se of sign space for referent localization</li> <li>-Discourse-level structuring of sign space</li> <li>-Structuring sign space for event representation: Signing perspective and classifier predicates</li> <li>-Structuring sign space with multiple articulators: Simultaneous constructions</li> <li>-Typological perspective: Use of sign space across sign languages</li> </ul> </li> <li>* <b>Lexical semantics: Semantic fields and lexical aspec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ords and their meanings</li> <li>-Semantic relations and semantic fields</li> <li>-Aspect and visibility in sign languages</li> <li>-Lexical aspectual structures at work</li> </ul> </li> <li>* <b>Information structur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nguistic encoding of topic information</li> <li>-Linguistic encoding of focus</li> </ul> </li> <li>* <b>Communicative interaction Grice's Co-operation Principl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eech acts</li> <li>-Turn-taking</li> <li>-Coherence and cohesion</li> <li>-Narratives</li> <li>-Pragmatic adequacy</li> <li>-Influence of cultural/hearing status</li> </ul> </li> </ul>	<p>-도상성과 은유, 공간의 사용, 어휘 수준의 의미론, 정보 구조, 의사소통적 상호작용과 협업 원리로 범주를 나누어 기술함</p>

### 3.5 기타 제반 지식 목차 분석

대부분의 수어학 문법서에는 언어학의 하위분류에는 속하지 않으나, 수어 환경의 특성상 사회문화적 영향, 습득, 농사회와 문화 등의 기타 제반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제반 지식 관련 목차 분석 결과, 수어 습득 등의 언어 심리학, 수어의 변천사 등의 언어 사회학, 교차 언어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기타 제반 지식 관련 목차 분석 결과를 <표 13>, <표 14>에 요약하였다.

<표 13> 국내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기타 제반 지식

문법서	기타 문법의 하위범주 체계	분석
<b>한국 수어학 개론</b>  이준우, 남기현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하는 사회와 한국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화인가? 수어인가?</li> <li>-농인과 의사소통</li> </ul> </li> <li>* 수어와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의 구성 자질</li> <li>-수어의 기호</li> <li>-수어와 제스처</li> <li>-수어의 종류</li> </ul> </li> <li>* 한국수어와 수화(수어통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화통역사가 가져야 할 이념</li> <li>-수화통역사의 역할과 기능</li> <li>-수화통역사의 자질</li> </ul> </li> <li>* 한국수어와 서비스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li> <li>-의사소통 분야별 지원 실태</li> <li>-권리적 차원에서의 수어통역 서비스</li> </ul> </li> </ul>	-사회적 상황과 한국수어, 한국수어와 현장으로 구분하여 수어의 제반 지식과 수화 통역 등의 사회 서비스를 설명함
<b>수화</b>  원성옥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화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화의 언어 보편적 특성</li> <li>-수화의 시각언어 특성</li> </ul> </li> <li>* 농아동의 수화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아동의 언어환경</li> <li>-농부모 가정 농아동의 수화 습득</li> <li>-듣는 부모 농아동 자녀의 수화 습득</li> </ul> </li> <li>* 수화 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화 통역의 개념</li> <li>-수화 통역의 종류</li> <li>-수화 통역의 역사</li> <li>-수화 통역사 양성</li> </ul> </li> </ul>	-수화의 언어 보편적 특성과 시각언어로서의 특성을 설명함 -농아동의 환경에 따른 수화 습득 과정을 살펴봄 -수화 통역과 그 역사, 수화 통역사의 양성에 대해 설명함
<b>한국수어의 이론</b>  최상배, 안성우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어의 정의와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어의 정의</li> <li>-한국수어의 분류</li> </ul> </li> <li>* 수어 용어에 관한 논쟁</li> <li>* 수어 표현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적 배열</li> <li>-사상성과 규약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시성</li> <li>-가역성</li> <li>-반복성</li> <li>-조음과 조동의 운동량</li> <li>-비수지신호의 적절한 사용</li> <li>-기타 특징</li> </ul> <p><b>* 농아인과 수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병리적)관점</li> <li>-문화적 관점</li> </ul> <p><b>* 농교육과 수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교육의 역사</li> <li>-농교육 방법론의 패러다임 이동</li> <li>-농교육의 영향과 수어의 발달</li> <li>-조기 수어 획득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li> </ul> <p><b>* 외국의 수어 발달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어 연구의 시작</li> <li>-Wundt의 연구</li> <li>-Stokoe의 연구</li> </ul> <p><b>* 한국의 수어 발달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수어의 성립</li> <li>-한국수어의 전개</li> <li>-한국의 수어 연구</li> <li>-수어연구의 최근 동향</li> </ul> <p><b>* 수어에 대한 오해</b></p> <p><b>* 수어의 가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교육적 측면</li> <li>-언어학적 측면</li> <li>-발달심리학적 측면</li> <li>-신경생리학적 측면</li> </ul> <p><b>* 언어의 개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와 언어의 영역</li> <li>-다른 의사소통 체계와 비슷한 언어의 특징</li> <li>-언어와 다른 의사소통 체계의 구별</li> </ul> <p><b>* 심리언어학적 특징</b></p> <p><b>* 신경언어학적 특징</b></p> <p><b>* 사회언어학적 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문화의 등장배경</li> <li>-수어와 농문화의 관계</li> <li>-한국 농사회의 역사</li> <li>-농아인의 사회와 문화</li> <li>-농아인과 정보통신</li> <li>-농문화의 바람직한 발전</li> </ul> <p><b>* 수어의 대조언어학적 특징: 한·미·일 수어의 동형, 분류사, 이행 기호의 비교</b></p> <p><b>* 수어 어원연구의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원연구의 필요성</li> <li>-어원연구의 방법</li> <li>-어원연구의 제한성</li> </ul> <p><b>* 한국수어 어휘의 어원</b></p> <p><b>* 수어 관용표현의 개념</b></p> <p><b>* 수어 관용표현의 성립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용성</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의성</li> <li>-은유성</li> <li>-대중성</li> <li>-고정성</li> </ul> <p><b>* 한국 관용수어의 구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語)형식의 관용수어의 예</li> <li>-구형식 관용수어의 예</li> </ul> <p><b>* 관용표현과 혼동되기 쉬운 수어</b></p> <p><b>* 수어통역의 의미와 유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어통역의 의미</li> <li>-수어통역의 유형</li> </ul> <p><b>* 수어통역 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 훈련</li> <li>-실기 훈련</li> </ul> <p><b>* 수어통역 기법</b></p> <p><b>* 수어습득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의 예</li> <li>-일본의 예</li> </ul> <p><b>* 수어통역사의 양성과 윤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어통역사의 양성</li> <li>-수어통역사의 윤리</li> </ul> <p><b>* 외국어로서의 수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과정</li> <li>-교수 방법</li> <li>-교수 자료</li> </ul>	
<p><b>Current directions in Turkish sign language research.</b></p> <p>UK: CSP</p> <p>Arik (2013)</p>	<p><b>* Previous and current research</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vious studies</li> <li>-The present book</li> </ul> <p><b>* Communicative practices of deaf people in Turkey and the sociolinguistic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ociolinguistics of sign language in an age of Digital Mediation</li> <li>-Interpreting numbers: Deaf population in Turkey</li> <li>-A history of deaf education in turkey</li> <li>-Current state of deaf schools in Turkey and exposure of Turkish sign language</li> <li>-Deaf run organizations and the sociolinguistic life around them</li> <li>-Media practices of deaf youth in Turkey and other online deaf networks</li> <li>-Literacy practices of deaf youth and access to social domains</li> </ul> <p><b>* Documenting Turkish sign language(TID): A report on a research projec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tive signer competence</li> <li>-Access to subjects/participants</li> <li>-Data collection</li> <li>-Thepreto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raised by the study of sign languages</li> </ul> <p><b>* Acquisition of locative expressions in children learning TID and Turkish</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present study</li> <li>-Results</li> </ul>	<p>-농사회의 언어사 회학적 내용, 수어 습득 등을 다룸</p>

<p><b>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b></p> <p><b>Valli &amp; Lucas (201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efining Language</b></li> <li>* <b>Defining Linguistics</b></li> <li>* <b>Language in Us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ariation and Historical Change</li> </ul> </li> <li>* <b>Supplemental Reading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nalyzing Signs</li> <li>-Signs Have Parts: A Simple Idea</li> <li>-Introduction to A Dictionary of American Sign Language</li> <li>-American Sign Language: The Phonological Base</li> <li>-The Confluence of Space and Language</li> <li>-Indicating Verbs and Pronouns: Pointing Awayfrom Agreement</li> <li>-Body Partitioning and Real-Space Blends</li> <li>-Syntax: The Analysis of Sentence Structure</li> <li>-Semantics: The Analysis of Meaning</li> <li>-Analyzing Variation in Sign Languages</li> <li>-Varia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li> <li>-Variation: Basic Concepts, Discourse Analysis, Language Contact</li> </ul> </li> </ul>	<p>-수어의 역사적 변화와 각 분야에 대한 보충 읽기 자료를 포함함</p>
<p><b>Tense and aspect inflections in Mexican Sign Language verbs: A Cognitive Grammar approach to morphology and phonology in signed languages</b></p> <p><b>Fridman-Mintz (200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mperfective inflect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phonological pole of the Imperfective inflection</li> <li>-The semantic pole of the Imperfective Inflection</li> </ul> </li> <li>* <b>Conclus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described symbolic structures</li> <li>-Segmental concepts and a unified definition of word and sign, as linguistic units</li> <li>-Morph concepts and a unified definition of spoken and signed syllables</li> <li>-A single Concept-and-Integration approach to grammar</li> </ul> </li> </ul>	
<p><b>AUSTRALIAN SIGN LANGUAGE</b></p> <p><b>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b></p> <p><b>Johnston &amp; Schembri (200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igned language and linguistic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at is language?, What is linguistics?</li> <li>-Signed languages: Myths an misconceptions</li> <li>-A brief history of the study of singed languages</li> <li>-Signed languages and gesture</li> </ul> </li> <li>* <b>Auslan in social contex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deaf populationm the deaf community and the Auslan-using population</li> <li>-Auslan and the deaf community</li> <li>-The language of the deaf community</li> <li>-Bilingualism and diglossia</li> <li>-Sociolinguistic variation in the deaf community</li> </ul> </li> <li>* <b>Auslan and other signed languag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igned languages of Aboriginal Australia</li> <li>-The origins of Auslan</li> <li>-British Sign Language(BSL)</li> <li>-From BSL to Auslan</li> <li>-BSL and Auslan compared</li> <li>-Auslan and Irish Sign Language(ISL)</li> <li>-Auslan and other signed language with some BSL contact</li> <li>-Auslan and other unrelated signed language of the world</li> </ul> </li> </ul>	<p>-언어 연구 방법론 및 언어사회학적인 내용을 다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merging signed language of the developing world</li> <li>* <b>Issues in the study of signed languag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sues of theory</li> <li>-Issues in data collection</li> <li>-Issue Conclusion: signed languages and linguistics in signed language description</li> <li>-Conclusion: signed languages and linguistics</li> </ul> </li> </ul>	
<p><b>A Language in Space: The Story of Israeli Sign Language</b></p> <p><b>Meir &amp; Sandler (200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raeli Sign Language: Language and People</b></li> <li>* <b>The History of the Deaf Community in Israe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origins of the community</li> <li>-The educational system and its changing attitudes toward sign language</li> <li>-Deaf society and culture</li> <li>-Snapshot of the community today</li> </ul> </li> <li>* <b>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IS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impact of other sign languages</li> <li>-Stages in vocabulary development</li> </ul> </li> <li>* <b>Voices from the Communit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student's journal</li> <li>-From bad girl in class to honored teacher</li> <li>-The awakening</li> </ul> </li> <li>* <b>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cross Sign Languag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view that sign language is universal</li> <li>-Comparative studies of sign languages</li> <li>-Differences across sign languages</li> <li>-Communication among deaf signers of different languages</li> </ul> </li> <li>* <b>The Contribution of Sign Languages to Linguistic Research</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goal of modern linguistics</li> <li>-How sign languages help to identify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language</li> <li>-Language out of nothing: communication system that have developed without a language model</li> <li>-The contribution of research</li> </ul> </li> </ul>	<p>-역사, 교차언어학 등 언어사회학적 내용을 다룸</p>
<p><b>Sign language in INDO-PAKISTAN: A description of a signed language</b></p> <p><b>Zeshan (200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ntroduct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dopakistan Sign Language (IPSL)</li> <li>-Data</li> <li>-Transcription Conventions</li> </ul> </li> </ul>	<p>-언어 연구 방법론을 다룸</p>
<p><b>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 An introduction</b></p> <p><b>Sutton (199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Linguistics and sign linguistic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at do we know when we 'know' a language?</li> <li>-Is BSL a full, real human language?</li> <li>-What is and what is not BSL</li> </ul> </li> <li>* <b>BSL in its social contex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ocial variation in BSL</li> <li>-Regional dialects</li> <li>-Situational varieties of BSL, changes in BSL</li> <li>-Changes in attitude to the language</li> <li>-Standardisation</li> </ul> </li> </ul>	<p>-연구 방법론 및 언어사회적 내용을 다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ocially unacceptable sign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boo topics and signs</li> <li>-Insults</li> <li>-BSL Insults</li> <li>-Expletives</li> <li>-Euphemisms</li> <li>-Politically correct signs</li> </ul> </li> </ul>	
--	---	--

<표 14> 개론 문법서별 하위 범주 체계-기타 제반 지식

문법서	기타 문법의 하위범주 체계	분석
<p><b>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b> : An introduction Baker 외 (2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ign languages as natural languag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nguage in space</li> <li>-Deaf communities</li> <li>-The relationship between signed and spoken languages</li> <li>-Sign languages and linguistic universals</li> <li>-Differences between sign languages</li> <li>-Transcribing sign languages</li> <li>-The history of sign linguistics</li> <li>-The content of this book</li> </ul> </li> <li>* <b>Psycholinguistic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nguage and the brain</li> <li>-Language comprehension</li> <li>-Language production</li> </ul> </li> <li>* <b>Acquisit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ow do children learn a sign language?</li> <li>-The path of sign language development</li> <li>-Second language acquisition</li> <li>-Bilingual development</li> </ul> </li> <li>* <b>Language variation and standardizat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at constitutes a standard language?</li> <li>-What counts as a dialect in sign languages?</li> <li>-Variation in sign languages</li> <li>-Status and recognition of sign languages</li> <li>-The politics of language and language policy</li> <li>-Standardization</li> </ul> </li> <li>* <b>Language contact and chang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ign languages in historical perspective</li> <li>-Sign language families</li> <li>-Diachronic change</li> <li>-Language contact</li> </ul> </li> <li>* <b>Bilingualism and deaf educat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ilingual deaf communities</li> <li>-Deaf education</li> </ul> </li> <li>* <b>Notation convention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ranscription of sign language examples</li> <li>-Abbreviations</li> </ul> </li> <li>* <b>Examples of manual alphabet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ign Language of the Netherlands: one-handed alphabet</li> <li>-British Sign Language: two-handed alphabet</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 언어학, 습득 및 다양한 수어의 변이형 등 언어 사회학적 내용을 다룸</li> </ul>

<p><b>Sign language : International handbook</b></p> <p>Pfau 외 (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ommunication in the visual modalit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nual communication systems: evolution and variation</li> <li>-Shared sign languages</li> <li>-Language and modality</li> <li>-Homesign: gesture to language</li> <li>-Gesture</li> </ul> </li> <li>* <b>Psycholinguistics and neurolinguistic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cquisition</li> <li>-Processing</li> <li>-Production</li> <li>-Neurolinguistics</li> <li>-Atypical signing</li> </ul> </li> <li>* <b>Variation and chang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ociolinguistic aspects of variation and change</li> <li>-Lexicalization and grammaticalization</li> <li>-Language contact and borrowing</li> <li>-Language emergence and creolisation</li> <li>-Language planning</li> </ul> </li> <li>* <b>Applied issu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istory of sign languages and sign language linguistics</li> <li>-Deaf education and bilingualism</li> <li>-Interpreting</li> <li>-Poetry</li> </ul> </li> <li>* <b>Handling sign language dat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ata collection</li> <li>-Transcription</li> <li>-Computer modelling</li> </ul> </li> </ul>	<p>-수어 습득과 다양한 수어의 변이형 등 언어심리학적 내용과 언어사회학적 내용을 다룸</p>
<p><b>Sign languages: A Cambridge Language Survey</b></p> <p>Brentari (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History and Transmiss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ransmission of sign languages in Northern Europe</li> <li>-Transmission of sign languages in Latin America</li> <li>-Transmission of sign languages in the Nordic countries</li> <li>-Transmission of sign languages in Mediterranean Europe</li> <li>-Transmission of sign languages in Africa</li> <li>-Transmission of sign languages in Polish sign systems</li> </ul> </li> <li>* <b>Notation system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riting systems</li> <li>-Transcription and tagging systems</li> <li>-Coding systems</li> </ul> </li> <li>* <b>Sign languages in West Afric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afness and signing populations</li> <li>-The influence of Andrew Foster on deaf education</li> <li>-Foreign sign languages</li> <li>-Local sign languages</li> </ul> </li> <li>* <b>Sign languages in the Arab worl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ethodology</li> <li>-Results</li> <li>-Discussion</li> </ul> </li> <li>* <b>Varia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erspectives on variation in sign languages</li> <li>-Variation in signed and spoken languages</li> <li>-Quantitative sociolinguistics and ASL</li> </ul> </li> </ul>	<p>-교차언어학적 관점에서 수어의 역사와 변이형 등 언어사회적 내용을 다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role of modality invariance</li> <li>-Where do we go from here?</li> <li>* <b>Sociolinguistic variation in British, Australian and New Zealand Sign Languages</b></li> <li>-The deaf communities</li> <li>-The history of BSL</li> <li>-From BSL to Auslan and NZSL</li> <li>-BSL, Auslan and NZSL in the twentieth century</li> <li>-Comparative studies</li> <li>-Other signed languages with some BSL contact</li> <li>-Socio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in BANZSL</li> <li>* <b>Variation in East Asian sign language structures</b></li> <li>-Phonology</li> <li>-Word formation</li> <li>-Syntax</li> <li>-Concluding remarks</li> <li>* <b>Crosslinguistic variation in prosodic cues</b></li> <li>-Blink rate in signed and spoken languages</li> <li>-Identifying I-Phrases and the role of blinks</li> <li>-blinks and prosodic constituents in HKSL</li> <li>-Discussion and conclusion</li> </ul>	
--	---	--

### 3.6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 목차

다음의 문법서 목차들은 위의 언어학 하위 범주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어려운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목차들은 수어의 문법적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특정한 연구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학의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수어에는 음성언어를 설명하는 언어학의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다. 그럼으로 수어학 문법서에는 아래와 같이 특정 연구에 대한 주제로 목차를 구별하여 그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수어학의 역사는 길지 않아 기존의 체계화된 학문의 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수어의 특정 언어학적 현상에 대한 연구물이 축적된 경우 아래의 문법서와 같은 목차를 구성할 수 있다. 한국수어의 경우 이러한 연구물들이 축적된 상태가 아니므로 한국수어 문법서에서 가능한 체계가 아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 목차는 <표 15>, <표 16>이다.

<표 15> 나라별 문법서 하위 범주 체계-다양한 범주를 포함

문법서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 문법의 하위범주 체계
<p>Current directions in Turkish sign language research. UK: CSP</p> <p>Arik (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spects of reported utteranc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ata and methodology</li> <li>-Role and reference shift</li> <li>-SAY</li> </ul> </li> <li>* <b>Expressions of Spac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cational situations and motion events in TID</li> <li>-Causative motion events in TID in comparison to Croation Sign language</li> </ul> </li> <li>* <b>Expression of multiple entiti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ethodology</li> <li>-Results(Expression of entity plurality on nouns, Numerals, quantifiers, pronouns, Multiple entity expression through localization, Multiple entity expression through spatial predicate inflection, Other ways of providing plural interpretation)</li> </ul> </li> </ul>
<p>A Language in Space: The Story of Israeli Sign Language</p> <p>Meir &amp; Sandler (20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hapes, Locations, and Motions in space: Classifier Construction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at are classifiers?</li> <li>-Classifiers in different sign languages</li> <li>-Classifiers in spoken language</li> <li>-Conclusion</li> <li>-Reading for those with a linguistics background</li> </ul> </li> <li>* <b>Beyond the Hands: Facial Expression as Intonation in IS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ow we say what we say: the prosodic structure of language</li> <li>-Prosodic structure in Israeli sign language</li> <li>-Facial expression as part of a word, Facial expression as a modifying morpheme</li> <li>-Mouthing</li> <li>-Conclusion</li> <li>-Reading for those with a linguistics background</li> </ul> </li> </ul>
<p>Tense and aspect inflections in Mexican Sign Language verbs: A Cognitive Grammar approach to morphology and phonology in signed languages</p> <p>Fridman-Mintz (20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spect and LSM Aktionsar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erfective processes and durative verbs</li> <li>-Instantaneous perfective processes and punctual verbs</li> <li>-Imperfective processes and stative verbs</li> </ul> </li> <li>* <b>The phonological role of the Present tens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sent tense verbs with an Imperfective or Perfective Past appearance</li> </ul> </li> <li>* <b>The semantic role of the Present tens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sent usage of stative verbs</li> <li>-Present usage of durative and punctual verbs: Imperfective instantiations</li> <li>-Present usage of durative and punctual verbs: Imaginary synchronization</li> <li>-Present usage of durative verbs in Performative utterances</li> </ul> </li> <li>* <b>The semantic role of the Perfective Past inflect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erfective Past inflection of durative and punctual verbs</li> <li>-Perfective Past inflection of stative verbs: An inchoative construction</li> </ul> </li> </ul>
<p>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 An introduction</p> <p>Sutton (199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onstructing sign sentenc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dicates</li> <li>-Classifiers</li> <li>-Sign order</li> <li>-Main elements in sentences</li> </ul> </li> <li>* <b>Mouth patterns and other nonmanual features in BS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oken components</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ral components</li> <li>-Facial expression</li> <li>-Head nods</li> <li>-Head shakes</li> <li>-Eye gaze</li> <li>* <b>Aspect, manner, and moo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nse</li> <li>-Aspect</li> <li>-Manner</li> <li>-Mood</li> </ul> </li> <li>* <b>Space types and verb types in BSL</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yntactic and topographic space</li> <li>-BSL verbs types</li> <li>-Space and verbs</li> <li>-Plain verbs</li> <li>-Agreement verbs</li> <li>-Spatial verbs</li> <li>-Verb sandwiches and serial verbs</li> </ul> </li> <li>* <b>The structure of gestures and sign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imultaneous and sequential contrasts</li> <li>-Changes and holds</li> <li>-Sign types</li> <li>-Unmarked handshapes</li> <li>-Constraints on sign form</li> <li>-The source of signs</li> <li>-Gestures</li> <li>-Visual motivation</li> </ul> </li> <li>* <b>Visual motivation and metapho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lasses of visually motivated signs</li> <li>-Metaphor in BSL</li> <li>-Metaphor</li> <li>-Idioms</li> </ul> </li> <li>* <b>The established and productive lexicon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flection for person and manner</li> <li>-Using components to show size and shape</li> <li>-Simultaneous signs</li> <li>-Simultaneity in BSL</li> </ul> </li> <li>* <b>Borrowing and name sign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rrowing</li> <li>-Name signs</li> </ul> </li> </ul>
--	--

<표 16> 개론 문법서별 하위 범주 체계-다양한 범주 포함

문법서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 문법의 하위범주 체계
<p>Sign languages: A Cambridge Language Survey</p> <p>Brentari (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Factors that form classifier sign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ifferent descriptions of classifier signs</li> <li>-Data collection and foci of analysis</li> <li>-Analysis</li> <li>-Factors that Influence the form of the fall descriptions</li> </ul> </li> <li>* <b>Grammaticalization in sign languag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ckground: routes from gesture to language</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oute One: from gesture to lexical morpheme to grammatical morpheme</li> <li>-Route Two: from gesture to prosody/intonation to grammatical marker</li> <li>-Gesture to language in Italian Sign Language</li> <li>-Route One: gestural source of IMPOSSIBLE(H-fff)</li> <li>-Route Two: manner of movement in gesture and language</li> <li>* <b>The semantics - phonology interfac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oretical model</li> <li>-Model applied to sign languages</li> </ul> </li> <li>* <b>Nonmanuals: their grammatical and prosodic rol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rammatical functions of nonmanuals</li> <li>-Prosodic functions of nonmanuals</li> </ul> </li> <li>* <b>Deixis in an emerging sign languag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nalyses and results</li> <li>-Discussion</li> </ul> </li> <li>* <b>The grammar of space in two new sign language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ckground</li> <li>-Spatial morphology in new sign languages</li> <li>-Two new sign languages</li> <li>-Method</li> <li>-Results</li> <li>-Discussion</li> </ul> </li> </ul>
--	---

#### 4. 언어학 하위 범주별 수어 문법 내용 고찰

##### 4.1 음운론

음운론 관련 문법서의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 수어 문법서의 목차를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수어 음운론에서 다루는 하위 범주의 내용인 음운론의 단위와 음운 과정 등을 포괄하지 않거나, 특정 음운론 연구의 결과를 하위 범주로 다룬 문법서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문법서를 제외하면 한국수어 문법서 2권, 나라별 문법서 3권, 그리고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으로 총 7권으로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 문법서 2권(이준우, 남기현, 2014, 최상배, 안성우, 2003), 나라별 문법서 3권(Valli & Lucas, 2011, Papaspyrou 외, 2008, Johnston & Schembri, 2007), 개론 문법서 2권(Baker 외, 2016, Pfau 외, 2012)을 대상으로 수어학의 음운론에서 다루고 있는 범주와 내용을 고찰하였다. <표 17>과 <표 18>은 음운론 관련 세부 내용을 고찰한 문법서 7권의 대범주와 중범주 목차를 비교한 표이다.

<표 17> 문법서별 체계 비교-음운론\_1

한국 수어학 개론 이준우, 남기현(2014)		한국수어의 이론 최상배, 안성우 (2003)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Valli & Lucas (2011)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 수어소	-수형 -수위 -수어 공간의 기능 -수동 -수향 -비수지 신호	* 음운론적 분석의 역사		* Signs Have Parts	
				* The Stokoe System	
		* 수어소	-Stokoe(1960,1976)의 분류 -Liddell과 Johnson(1989)의 분류 -김승국(1983)의 수어소 분류 -석동일(1989)의 수어소 분석 -김칠관(1998)의 수형 분석	* The Concept of Sequentiality in the Description of Signs	-Detail in the description of ASL signs -The Representation of sequence in ASL signs -Minimal pairs
* 수어의 순차성과 동시성	-움직임-정지 모델 -동시적 구조와 연속적 구조의 통합	* 수어의 순차성		* The Liddell and Johnson Movement - Hold Model	
		* 수어의 조동 유형			
* 음운현상	-움직임 분절 삽입 -정지 분절 삭제 -동화 -전환	* 수어소의 제약과 변화		* Phonological Processes	-Movement epenthesis -Hold reduction -Metathesis -Assimilation -Weak hand deletion
		* 수어 분절음의 선행연속성			

&lt;표 18&gt; 문법서별 체계 비교-음운론\_2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Papasprou 외 (2008)		AUSTRALIAN SIGN LANGUAGE Johnston & Schembri (2007)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Baker 외 (2016)		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Pfau 외 (2012)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 <b>Manual component</b>	-Handshape -Position of the hands -Location -Movement -Two-handed sign	* <b>The internal structure of words</b>	-Minimal pairs	* <b>Phonetics</b>	-Production -Perception -Phonetic variation -Notation systems for sign languages -Language technology	* <b>Phonetics</b>	-The modality difference -Phonetics vs. phonology -Articulation -Phonetic variation
		* <b>The internal structure of signs</b>	-Handshape -location and movement -Other aspects of sign structure			* <b>Phonology</b>	-Structure -Modality effects -Iconicity effects
* <b>Non manual component</b>	-Mime -Eye gaze -Head and upper part of the body -Mouth actions	* <b>Sign parameters and notation systems</b>				* <b>Visual prosody</b>	-Prosodic constituents -Intonation -Prominence -Residual issues
		* <b>Mininal paris in Auslan</b>					
		* <b>Sign types</b>		* <b>Phonology</b>	-Handshape -Orientation -Location -Movement -Non-manual aspects in the lexicon -Two-handed signs -Phonological processes -Iconicity and phonology -Prosody		
		* <b>Manual sign</b>	-Handshape in Auslan -Location in Auslan -Movement in Auslan -Minor parameters in Auslan				
		* <b>Non-manual and multi-channel signs in Auslan</b>	-Non-manual signs -Multi-channel signs				
		* <b>Constraints on word and sign structure</b>	-Linguistic constraints -Perceptual constraints -Production constraints				
		* <b>Simultaneity and sequentiality in sign structure</b>					
		* <b>Features, segments and syllables</b>					
		* <b>Phonological processes</b>					

#### 4.1.1 한국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한국 수어학 개론(이준우, 남기현, 2014)』의 음운론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수어학 개론에서는 음운론을 수어소, 음운 현상, 수어의 순차성과 동시성으로 하위 범주를 나누어 기술하였다.

본 문법서에서는 수어소를 수형, 수위, 수어 공간의 기능, 수동, 수향, 비수지 신호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수형은 단어를 구성하는 손의 형상으로, 무표 수형, 고빈도 수형, 저빈도 수형, 의미가 있는 수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수위는 수어의 단어가 산출되는 위치로, 중립 공간과 수어 사용자의 신체로 나누었다. 수위에서는 석동일의 연구를 통해 한국수어에서의 수위를 설명하고 중립 공간, 머리, 이마, 눈, 코, 입과 턱, 귀, 뺨/목/어깨/가슴/배, 겨드랑이와 허리, 옆구리, 위팔과 팔뚝, 팔꿈치, 손목, 손으로 수위를 재분류하였다. 수어 공간의 기능에서는 수어 공간을 수평축(전후 공간), 시상축(좌우 공간), 수직축(상하 공간)으로 나뉘는 조음 공간과 지시 기능과 일치 표현 기능으로서의 통사적 공간, 지형적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수동에서는 경로 수동, 내부 수동, 수동에 따른 단어 유형, 수어 단어의 구조 제약을 설명하였다. 경로 수동은 중립 공간에서 수직, 좌우, 수평적 움직임으로 구분하였다. 내부 수동은 손목 회전 수동, 손목 굴절 수동, 어깨 외전 수동, 수형 변화 수동으로 나누었다. 수동에 따른 단어 유형은 한 손-단어와 두 손-단어로 구별하고, 두 손-단어를 두 손의 운동의 상호 관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수어 단어의 구조 제약으로는 대칭 조건과 우세 조건을 제시하였다. 수향은 단어가 산출될 때의 손가락과 손바닥의 방향으로, 한국수어에서 수향은 손바닥의 방향과 펼쳐진 손가락 끝의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어 화자의 몸으로 향하거나 멀어지는 방향을 제외한다고 하였다. 비수지 신호에서는 비수지 신호의 유형을 입 모양, 입 제스처, 신체, 머리, 눈 움직임, 얼굴 표정으로 나누고 한국수어에서 비수지 신호를 김승국(1983), 석동일(1989), 엄미숙(1996), 윤병천(2003), 이정옥(2012)의 연구를 통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장인 수어의 순차성과 동시성은 Liddell과 Johnson(1989)의 움직임-정지 모델과 수어의 음운적 구조를 단어의 연속적 측면과 동시적 측면을 함께 표현한 Sandler와 Lillo-Martin(2006)의 동시적 구조와 연속적 구조의 통합 모델로 설명하였다.

세 번째 장인 음운현상은 움직임 분절 삽입과 정지 분절 삭제, 동화로 설명하였다. 움직임 분절 삽입은 첫 번째 단어의 마지막 분절과 다음 단어의 처음 분절 사이에 움직임과 분절이 삽입되는 경우로 단어와 단어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정지 분절 삭제는 두 단어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두 단어 사이의 정지 분절이 삭제되는 현상으로 [안산]을 예로 들었다. 동화는 [만약], [일요일], [엄마], [아빠]를 예로 들었으며, 이는 이웃하는 분절의 특징을 가지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전환은 [농아]의 시작 수위가 바뀌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한국 수어학 개론』의 음운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내용을 <표 19>에 정리하였다.

<표 19> 이준우·남기현(2014). 한국 수어학 개론-음운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수어소	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가락의 선택·자세, 내부 수동으로 수형의 대립을 설명함</li> <li>-무표수형으로 석동일(B,G,T,M,A,O,I,H,C), 장세은(1999), 최상배(28개,2012)의 연구를 소개함</li> <li>-고빈도 수형으로 최상배(9,1,주먹, 지정, 편손, 5,부리,10,전화,6)의 연구를 소개함</li> <li>-저빈도 수형으로 최상배(N, 3형 붙임, 8형 검지 굽힘, 3형 검지 굽힘, 트, 4형 검지 굽힘, 매춘부, 8형 굽힘, 9형 검지 굽힘)의 연구를 소개함</li> <li>-의미를 가진 수형으로써 사물을 나타내는 수형과 사물을 조작하는 수형을 구분하여 소개함</li> </ul>
	수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위의 대립을 설명함</li> <li>-한국수어에서의 수위를 사상성, 변별적 위치인 어깨, 위쪽 팔, 손의 위치인 비우세손으로 구분함</li> <li>-수위를 중립 공간, 머리, 이마, 눈, 코, 입과 턱, 귀, 뺨/목/어깨/ 가슴/배, 겨드랑이와 허리, 옆구리, 상박과 하박, 팔꿈치, 손목, 손으로 재분류함</li> </ul>
	수어 공간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음 공간을 수평축, 시상축, 수직축으로 설명함</li> <li>-통사적 공간을 지시 기능, 일치 표현으로 설명함</li> <li>-지형적 공간을 도식적, 구경꾼으로 설명함</li> </ul>
	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로 수동을 수직의 상하, 수평의 좌우, 수평의 전후, 비스듬한, 원, 반원으로 설명함</li> <li>-내부 수동을 손목 회진, 손목 굴절, 어깨 외진, 수형 변화으로 설명함</li> <li>-수동에 따른 단어 유형을 Ø,X,1,2,3,C으로 설명함</li> <li>-수어 단어의 구조 제약인 대칭 조건과 우세 조건으로 설명함</li> </ul>
	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수어에서 수향은 손바닥의 방향과 펼쳐진 손가락 끝의 방향으로 결정되며 수어자의 몸을 향하거나 멀어지는 방향을 제외하는 것으로 설명함</li> </ul>
	비수지 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수지 신호의 유형을 입 모양, 입 제스처, 신체, 머리, 눈 움직임, 얼굴 표정으로 설명하며 그중 입 모양(mouth patten, mouthing)의 사용 목적을 의미 구별, 의미 확장으로, 입 제스처를 항상 의무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설명함</li> <li>-한국수어에서 비수지 신호를 설명함</li> <li>-비수지 신호의 수어소로서의 위상 문제를 다룸</li> </ul>
수어의 순차성과 동시성	움직임-정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ddell과 Johnson(1989)의 움직임-정지(M-H)모델로 설명함</li> <li>-조음 다발인 손의 형상, 접촉 지점, 향함, 방향을 설명함</li> </ul>
	동시적 구조와 연속적 구조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적, 동시적 특성은 모든 수어에서 공통적, 표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함</li> </ul>
음운현상	움직임 분절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 번째 단어의 마지막 분절과 다음 단어의 처음 분절 사이에 움직임 분절이 삽입되는 경우로 단어와 단어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함 (예: 합성어 [일요일])</li> </ul>

	정지 분절 삭제	-두 단어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두 단어 사이의 정지 분절이 삭제되는 현상으로 설명함 (예:[안산])
	동화	-이웃하는 분절의 특징을 가지는 현상으로 설명함 (예:[만약],[일요일],[엄마],[아빠])

다음은 『한국수어의 이론(최상배, 안성우, 2003)』의 음운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수어의 이론에서는 수어의 음운론적 특징을 하위 범주로 하여 음운론적 분석의 역사, 수어소, 수어의 순차성, 수어의 조동 유형, 수어소의 제약과 변화, 수어 분절음의 선형 연속성으로 나누어,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음운론적 분석의 역사에서는 수어의 조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Stokoe(1960)와 움직임 분절과 정지 분절 모델을 제시한 Liddell과 Johnson(1989), 수어 어휘의 순차성을 설명한 Sandler(1989)를 소개하였다. 수어소에서 수형(19), 수위(12), 수동(24)이 있다고 한 Stokoe(1976)와 이에 장향을 추가한 Battison(1978), Stokoe의 3요소를 주 매개변수에 손의 방향, 접촉점, 배열을 부 매개변수로 덧붙인 Klima와 Bellugi(1979)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수형(30), 수위(23), 수동(36), 수향(20), 체동(20)으로 수어소를 구분한 김승국(1983), 수위(40), 수형(44), 수동(49), 수향(12)로 본 석동일(1989), 김칠관(1998)의 한국수어 수어소의 분석을 소개하였다. 수어의 순차성은 수어소의 요소 변화로 수어 어휘가 만들어지며 수어 어휘는 각 수어소의 순차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수어의 조동 유형에서는 Battison(1978)의 구어 조동 유형과 비교하여 한국수어의 조동 유형을 제시한 석동일(1989)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이후 Battison(1978)의 대칭 조건, 우위 조건, 무표 수형(B, A, S, O, C, 1 또는 (G), 5)과 석동일(1989)의 무표 수형(B, G, T, M, A, O, I, H, C), Valli, Lucas(2000)의 수어 조동의 음운 변화(운동 삽입, 정지 삭제, 자위(字位)전환)를 소개하며 수어소의 제약과 변화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세은(1999)의 최소대립쌍 연구를 통해 수어 분절음의 선형 연속적인 특성을 기술하였다.

『한국수어의 이론』의 음운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내용을 <표 20>에 정리하였다.

<표 20> 최상배, 안성우(2014) 한국수어의 이론-음운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수어의 음운론적 특징	음운론적 분석의 역사	-Stokoe(1960), Liddell과 Johnson(1989), Sandler(1989)의 연구를 소개함
	수어소	-Stokoe가 나눈 수어소(수형(19), 수위(12), 수동(24))와 Battison의 장향, Klima & Bellugi (1979)가 구분한 손의 방향, 접촉점, 배열, 부 매개변수를 소개함 -김승국(1983)이 나눈 수어소(수형(30), 수위(23), 수동(36), 수향(20), 체동(20))과 석동일(1989)이 나눈 수어소(수위(40), 수형(44), 수동(49), 수향(12)), 김칠관(1999)이 나눈 수어소(수형, 수위, 수동, 장향)를 소개함
	수어의 순차성	-조동의 변화가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Stokoe(1960)의 연구를 소개함 -수어의 순차성이 중요한 이유는 구어의 조음은 순차적이나 수어는 조동의 변화를 정확히 표현하고 반대 수동이 불가(예: [가능하다]의 입모양)함을 설명함
	수어의 조동 유형	-석동일(1989)은 Battison(1978)의 구어 조동 유형과 비교 하여 한국수어의 조동 유형 제시함
	수어소의 제약과 변화	-Battison(1978)의 대칭조건, 우위조건, 무표수형(B,A,SO,C,1또는(G),5)을 소개함 -석동일(1989)의 무표수형(B,G,T,M,A,O,I,H,C)을 소개함 -Valli, Lucas(2000)의 수어 조동의 음운 변화(운동삽입, 정지삭제, 자위(字位)전환)를 소개함
	수어 분절음의 선형연속성	-장세은(1999)의 최소대립쌍 연구를 소개함

#### 4.1.2 미국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미국수어 문법서인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Valli, Mulrooney, & Villanueva, 2011)』의 음운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수어 음운론은 수어의 구성 요소, 스토키(Stokoe) 체계, 수어 기술에서의 순차성의 개념, Liddell과 Johnson(1989)의 움직임-정지 모델, 음운 과정 등 5개의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첫 번째 장인 수어의 구성 요소는 수어 분석 방법과 기록 방법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수어 분석 방법에서는 미국수어의 어휘가 수형(handshape), 수동(movement), 수위(location), 수향(orientation), 비수지 기호(nonmanual signals)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parameter)들이 수어 어휘에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각 구성 요소에서 단 하나의 구성 요소가 달라지므로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대립 단어쌍을 통해 수어의 어휘를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수형과 수위, 그리고 수동에서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시각적 변별 자질을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수어를



기록(writing)하는 방법은 크게 표기(notation)과 번역(translation)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표기(notation) 방법으로는 해당 수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를 대문자로 기록하는 주석(glossing)과 해당 수어의 형태를 기호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표기법(transcription)인 스토키 체계와 리텔과 존슨 체계를 소개하였다. 번역(translation)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으로 미국수어의 의미를 영어로 바꾸어 기록하는 것이다. 주석과 번역은 영어로 기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수어가 의미하는 메시지를 영어로 바꾸어 기록하는 번역과 주석은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즉, 주석은 문자가 없는 미국수어 자체를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수어를 기록하기 위해 편의상 의미 기반으로 영어 단어를 빌려 와서 기록하고 더불어 비수지 기호와 같은 다른 자질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장인 스토키 체계에서는 1960년대 Stokoe가 제안한 수어 표기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최초로 수어를 음성언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으로 3가지 구성 요소(parameter)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Stokoe는 그 3가지를 수어소(cheremes)라고 하였는데, 수어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어를 하는 손의 위치는 탭(tab:tabula)로 나타내었다. Stokoe는 미국수어의 탭으로 몸 앞의 중립 공간을 나타내는 Ø 등 12가지를 소개하고 그 표기 방법(symbols)을 제시하였다. 둘째, 손의 모양은 데즈(dez:designator)로 나타내었다. 이를 나타내는 표기 방법으로는 지문자 a, s, t와 비슷한 손 모양은 A, 손가락을 모두 펴서 붙인 손 모양은 B 등 19개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손의 움직임은 시그(sig:signation)로 나타내었다. 시그는 상향 운동을 나타내는 ^, 하향 운동을 나타내는 v 등 24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장에서는 미국수어 어휘의 사진과 더불어 이 스토키 체계를 활용한 표기(transcription)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장인 수어 기술에서의 순차성의 개념에서는 먼저 실제로 미국수어를 스토키 체계에 의해 표기할 때 어느 수준까지 세분화하여 전사할 것인가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HEAVEN, SIGN, CHILDREN의 수위는 중립 공간(Ø)으로 표기하는데, 이 세 수어의 위치가 눈이나 코 등의 신체 부위에서 이루어지는 수어와는 대비되지만, 이 세 수어가 정확하게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HEAVEN의 수위에서 SIGN, CHILDREN은 하지 않으며 CHILDREN의 수위에서 SIGN, CHILDREN은 하지 않음). 또한, 음성언어의 조음 자질과 같은 차원에서 수형, 수위, 수동, 수향 그리고 비수지 기호라는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으며, 음성언어에서 조음 방법, 조음 위치, 그리고 유성이나 무성이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변별 자질과 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를 소개한 후에 수어에서도 수위, 수동, 수형에서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대립 단어쌍을 소개하였다.

네 번째 장인 Liddell과 Johnson의 움직임-정지 모델에서는 수어가 움직임과 정지라는 분절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수형, 수위, 수향, 그리고 비수지 기호라는 조음자질 외에 수동을 정지와 움직임이라는 분절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수어 어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절 구조를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장인 음운 과정에서는 수어를 조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향 즉, 음운 과정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본 문법서에서는 음운 과정을 움직임 분절(movement) 삽입, 정지 분절(hold) 축소, 전환(metathesis), 동화, 비우세손 삭제 등 5가지로 소개하였다. 첫째, 움직임 분절 삽입(Movement Epenthesis)이다. 이는 수어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때 때때로 움직임 분절이 한 수어의 마지막 부분과 다음 수어의 처음 부분 사이에 삽입될 수 있다는 것으로 FATHER STUDY(H-H)라는 두 수어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때, 움직임은 이 두 정지 분절 사이에 삽입되어 H-M-H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지 분절 축소(Hold Reduction)이다. 움직임 분절 삽입은 정지 분절 축소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음운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정지 분절 축소는 수어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때 움직임 분절 사이에 정지 분절을 짧게 한다고 하였다. 셋째, 전환(Metathesis)으로 때때로 수어 분절의 일부분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DEAF라는 수어처럼 위치가 바뀌는 것을 허용하는 수어와 그렇지 않은 수어를 소개하였다. 넷째, 동화(Assimilation)이다. 이는 어떤 분절이 수어의 바로 앞뒤에 있는 또 다른 분절의 특징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비우세손 삭제(Weak Hand Deletion)이다. 때때로 두 손으로 수어를 할 때 비우세손이 삭제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의 음운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21>에 정리하였다.

<표 21> Valli 외(2011).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음운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수어 구성 요소 (Signs Have Parts)	수어 분석 방법	-수어의 구성 요소(수형, 수위, 수향, 수동) 설명함
	수어 표기 방법	-glossing, transcription 그리고 번역으로 나누어 설명함 -수어 사진, glossing, 번역에 대한 예시 설명
스토키 체계 (The Stokoe System)		-스토키 체계를 설명하고 예시를 소개함
수어 기술에서의 순차성의 개념 (The Concept of Sequentiality in the Description of Signs)	미국수어 기술의 실제	-수어에서 나타나는 순차성(움직임)에 대한 기술 방법을 소개함
	최소대립쌍	-수형, 수위, 수향, 배열순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수어쌍을 소개함

Liddell과 Johnson의 움직임-정지 모델 (The Liddell and Johnson Movement - Hold Model)		-수어에 나타나는 순차성을 설명하기 위한 Liddell과 Johnson의 모델을 소개함 -Liddell과 Johnson 모델에 따라 미국수어에서 가능한 단어 구조를 설명함
음운 과정 (Phonological Processes)	움직임 첨가	-두 수어를 연달아 할 때 첫 번째 수어의 마지막 분절과 두 번째 수어의 첫 분절 사이에 움직임이 첨가되는 현상을 설명함
	정지 감소	-두 수어를 연달아 할 때 두 움직임 사이에 있는 정지 순간이 짧아지는 현상을 설명함
	치환	-첫 분절의 수위와 두 번째 분절의 수위가 바뀌는 현상을 설명함
	동화	-첫 번째 수어의 수형이 두 번째 수어의 수형과 같아지는 현상을 설명함
	비우세손 생략	-같은 수형과 수동을 하는 양손 수어에서 비우세손을 생략하는 현상을 설명함

#### 4.1.3 독일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독일수어 문법서인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Papaspyrou, Chrissostomos, von Meyenn, Alexander, Matthaei, Michaela, Herrmann, Bettina, 2008)』의 음운론 관련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독일수어 문법서에서는 음운론을 수지 요소와 비수지 요소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수지 요소는 수형, 손의 상태(position)와 위치, 움직임 그리고 양손 수어로 구분하였다. 수형은 손의 형태로 나라마다 사용하는 수형은 다르나 주먹 수형, 손을 편 수형, 0-수형, C-수형, 엄지 수형 그리고 모든 손가락을 편 수형은 보편적인 기본 수형이라고 하였다(Boyes-Braem, 1995, Papaspyrou et al., 2008에서 인용). 본 문법서에서는 독일수어의 수형을 주먹 수형, 편 손 수형, 손가락을 다양하게 편 수형, 엄지와 관련된 수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최소대립쌍을 통해 독일수어 수형을 30개로 파악하였다.

수향은 손가락 방향(또는 손가락 뿌리 방향)과 손바닥 방향으로 구분하였다. 손의 방향은 3D 수어 공간의 정면, 측면, 횡단면으로, 손바닥 방향은 360도로 설명하였다.

수위는 수어 어휘의 위치가 몸에 위치하는 경우와 일반 수어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몸에서의 수위는 머리, 얼굴, 상체 그리고 손으로 구분하였고, 머리에서의 수위는 머리 앞, 머리 위, 머리 뒤, 이마 옆, 귀, 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얼굴에서의 수위는 이마, 눈, 코, 볼, 입과 턱으로 기술하였다. 몸통에서의 수위는 어깨, 가슴, 배, 아랫배, 허벅지로 그리고 손에서의 수위는 위팔, 팔꿈치, 팔오금, 아래 팔, 손목,

손등, 손바닥, 손 옆면, 손가락 옆면, 손 지문, 손끝, 손톱 위치로 설명하였다. 수위가 일반 수어 공간에 있을 경우, 횡단면에서는 몸에서의 거리로 구분하였으며, 정면에서는 몸 앞, 몸 왼쪽, 몸 오른쪽으로 구분하였다. 측면에서는 머리 높이, 하체 높이 그리고 배 높이로 분류를 하였다. 일반 수어 공간은 주로 가슴 앞이라고 하였다.

수동은 손의 움직임과 움직임 방식으로 손이 수위로 가는 움직임은 수동에서 제외하였다. 움직임은 외적 움직임과 내적 움직임으로 분류하였다. 외적 움직임은 수동 방향과 수동이며 직선, 곡선, 물결, 지그재그, 원, 나선 움직임으로 설명하였다. 수동 방향은 수동의 시작점과 끝점이라 하였다. 내적 움직임은 손가락 움직임과 손목을 포함하는 움직임으로 설명하였다. 손가락 움직임에는 문지르기, 손가락 흔들기, 손가락 굽히기, 손가락 꺾기, 손가락 두 개를 벌리기, 손가락 여러 개를 동시에 펴기, 손가락을 순차적으로 펴기(부채 움직임) 그리고 손가락 오므리기가 있다고 하였다. 손목을 포함한 움직임으로는 손목 돌리기, 손목 털기, 손목 꺾기를 예로 들었다. 또한, 수동의 각 움직임의 예시를 들어 외적 움직임과 내적 움직임은 서로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동은 수동 빈도수, 수동 속도와 수동 크기로 분류하였다.

독일수어 문법서에서는 양손 수어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양손을 사용하는 수어는 두 손 수어와 합동 수어(combines one-hand signs)로 분류하였다. 두 손 수어는 대칭 수어와 비대칭 수어로 나뉘며 비대칭 수어에서 비우세손은 우세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칭 수어에서는 두 손의 균형이 똑같으며 우세손과 비우세손은 평등하다고 하였다. 대칭 수어는 수동에 따라 수동이 평행한(parallel) 대칭 수어, 수동이 반대인(reversed) 대칭 수어와 수동을 교차하는 대칭 수어로 구분하였다. 합동 수어는 두 손을 사용하지만 두 손을 합쳐 하나의 형태(그림)를 나타내는 수어로 주로 생산적 수어에서 나타나며 여러 개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장인 비수지 요소에서는 이를 마임, 시선, 머리와 상체 위치 그리고 입 움직임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눈과 입은 가장 비중이 높은 비수지 요소라고 하였다.

마임은 얼굴 표정으로 어휘적 기능뿐만 아니라 형태론적, 통사론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본 문법서에서는 마임을 언어적인 마임과 비언어적인 마임을 구분하였다. 기본 얼굴 표정인 즐거움, 놀람, 슬픔, 화남, 두려움, 싫음을 비언어적인 마임으로 보았으며(Ekman & Ellsworth 1982, Papaspyrou et al., 2008에서 인용), 독일수어에서는 비언어적인 마임이 언어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선은 상대방을 향한 시선, 역할에서의 시선, 수어를 하는 손을 향한 시선(focus)으로 나누었다. 상대방을 향하는 시선의 기능은 음성언어 대화에서의 기능과 같고, 시선의 역할은 수어 화자가 표현하고 싶은 인물의 역할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키 작은 어린이와 키 큰 어른이 대화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키 작은 어린이의 역할을 하는 수어 화자의 시선은 위로 갈 것이다. 수어를 하는 손을 향한 시선은 상대방을 그 내용에 집중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 시선은 특히 생산적 수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머리와 상체 위치는 대부분 비언어적인 요소로 구분되나, 수어에서 상체 위치가 시선, 마임과 함께 나타날 때는 언어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입 움직임은 마우스 제스처(mouth gesture)와 마우딩(mouthing)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마우스 제스처는 수어의 특징적인 입 움직임이며, 마우딩은 음성언어 단어를 따라하는 입 움직임이라고 하였다. 독일수어의 경우 마우딩에 따라 수어의 뜻이 구분됨으로 마우딩이 음소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의 음운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22>에 요약하였다.

<표 22> Papaspyrou 외(2008):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음운론

대 범주	중 범주	세부 내용
수지 요소 (Manual component)	수형	-손의 형태, 모든 나라 수어에 나타나는 기본 수형 소개, 변이음 소개, 수형들을 4가지로 분류함
	손의 포지션	-손가락 방향(finger base orientation)과 손바닥 방향(palm orientation), 3D 개념(정면, 측면, 횡단면)을 소개함
	위치	-수어의 위치는 수어 화자에 몸(머리, 얼굴, 상체, 손)과 일반 공간으로 나눔
	움직임	-수동은 손의 움직임과 움직임 방식을 말함. -오직 수어 내에서의 움직임만을 포함함(손이 수위로 가는 움직임은 제외) -움직임은 외적과 내적으로 분류함 -외적인 수동은 수동 방향과 수동 -내적인 수동은 손가락 움직임과 손목을 포함하는 움직임으로 분류함 -움직임 방식은 움직임의 빈도, 움직임의 속도, 움직임의 범위로 분류함
	양손 수어	-두 손 수어와 합동 수어(combined one-hand signs)로 분류함 -두 손 수어는 대칭 수어와 비대칭 수어로 분류함. -대칭 수어는 유형 3개로 분류함. -합동수어는 두 손을 합쳐 하나의 형태(그림)를 나타내는 수어(주로 생산적 수어)임
비수지 요소 (Non-Manual component)	마임(Mimic)	-6개의 기본 마임으로 분류함
	시선(eye gaze)	-상대방을 향한 시선, 역할에서의 시선, 수어를 하는 손을 향한 시선(Focus)으로 나누어 설명함
	머리와 상체위치	-머리 위치와 머리 움직임을 유형 10개로 분류함
	입 움직임	-마우스 제스처와 마우딩으로 분류함
최소대립쌍		-수형, 수위, 수향, 수동에서의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어휘를 소개함

#### 4.1.4 호주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호주수어 문법책인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Johnston & Schembri, 2007)』의 음운론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호주수어 문법서의 음운론에서는 단어의 내적 구조, 수어의 내적 구조, 수어 구성 요소와 표기 체계, 최소대립쌍, 수어의 유형 등 11개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먼저 수어의 내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음성언어에서의 단어의 내적 구조인 음소의 개념을 최소대립 단어 쌍으로 설명하였다. 다음 장인 수어의 내적 구조에서는 음성언어의 음소와 유사한 수어소(cheremes)를 수형, 수위, 수동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다(국외 연구에서는 Stokoe가 cherem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는 cheremes 대신 음소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수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수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단일 수어에서의 수형, 수위, 수동을 설명하고 Stokoe 이후의 연구에서 소개하는 수동의 반복, 속도, 비수지 요소, 그리고 수향 등의 기능을 수어의 또 다른 구성 요소로 소개하고 있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수어의 구성 요소(parameters)인 수형, 수향, 수위, 수동 그리고 비수지 기호를 설명하면서 실제 SISTER, THANK-YOU 수어를 함노시스라는 음소 표기 체계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네 번째 장에서는 호주수어의 최소대립쌍 단어를 통해 수어의 내적 형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영국수어를 세 개의 유형(수지 수어, 비수지 수어, 다채널 수어)으로 나눈 Brennan(1992)의 분류에 따라 호주수어의 예를 제시하였다. 호주수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은 수지 수어이고, 두 번째는 다채널 수어였으며, 수지 없이 비수지만 나타나는 수어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하였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수지 수어를 한 손 수어, 양손 수어, 한 손과 두 손을 조합하는 수어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한 손 수어는 유형1과 유형2로 다시 나누었다. 유형1 수어는 신체 접촉이 없는 한 손 수어(HAVE, NOW)이고, 유형2는 신체 접촉이 있는 한 손 수어(WHY, KNOW)이다. 양손 수어는 4개의 유형(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으로 나누었다. 유형3은 양손의 수형이 같고 수어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없는 수어(RUN, PLAN)이다. 유형4는 양손의 수형이 같고 신체 접촉이 있는 수어(HUNGRY와 PRACTISE)이다. 유형5는 양손의 수형이 같은데 한 손이 다른 한 손에서 움직이는 수어

(TRUE와 QUICK)이다. 마지막 유형6은 양손의 수형이 다르면서 한 손이 다른 한 손에서 움직이는 수어(REGULAR와 CENTRE)이다. 한 손과 두 손을 조합하는 수어는 위 유형의 일부가 조합된 형태의 수어로 BELIEVE를 예로 들었다(유형2 수어인 THINK와 유형5 수어인 HOLD를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Johnston(1998)의 호주 수형 연구를 소개하였다. 호주수어 사전을 분석하여 62개의 수형이 있음을 밝히고, 호주수어의 62개의 수형 중 37개는 핵심 어휘 수형으로 손의 배열이 뚜렷하며, 나머지 25개는 변이로 보인다고 하였다. 변이된 수형은 서로 대조적이지 않은 손의 배열로 표현에 있어서 작은 차이점이 있으나 수어 사용자들이 변이된 수형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S를 의미하는 주먹권 수형에서 엄지손가락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일부 수어 어휘에서는 수형의 편 손가락의 개수, 붙임과 별립, 구부림의 정도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별 자질이지만 핵심 수어에서는 의미의 차이가 없는 변이적 형태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호주수어의 핵심 어휘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수형은 4개(1. B, 5, S)라고 하였다. 호주수어 사전 분석 결과, 이 4개 수형의 사용 빈도가 50% 이상이라고 하였으며, 그 중 B수형의 사용 빈도가 25% 라고 하였다. 일부 사용 빈도가 낮은 수형은 많이 사용되는 수어의 수형과 비슷하게 수정되는 경향이 있어 일부 호주수어 수어 사용자들은 2수형과 P수형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예를 들어 미국수어에서 차용된 수어인 PROGRAM과 PHILOSOPHY는 종종 P수형을 하기보다는 변이된 2수형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형에서의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수어 어휘의 예를 제시하면서 호주수어 어휘에서 사용되는 정확한 수형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호주수어에서의 수위는 크게 신체 접촉이 있거나 신체 근처에서 나타나는 것, 중립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체 근접 또는 접촉이 있는 수어는 신체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수어 유형2와 유형4)과 손에서 나타나는 것(수어 유형5와 유형6)으로 나누고, 신체에서의 위치는 주요 수위이고, 손에서의 위치는 부차적인 수위라고 하였다. 핵심 어휘에서 확실하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수위는 39개이며 그 예를 제시하였다. 지숫자와 같이 양손의 접촉점 위치가 중요하여, 접촉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부차적인 수위는 주요 수위보다 최소대립쌍 어휘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덜 주요한 수위라 하였다. 호주수어에서는 엄지 끝(ALCOHOL), 엄지 옆(INITIAL), 검지 위(POINT), 검지 옆(ENGLISH), 중지 끝(COINCIDENCE), 약지(SPOUSE)와 새끼손가락(MENSTRUATION) 등의 수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수동에서는 먼저 Brennan(1992)의 세 가지 경로(수직적 경로, 좌우 경로, 수평적 경로) 수동을 주요 수동으로 소개하고, 이들 경로 수동의 축이 제한적이지 않고 조합하여

나타난다는 Johnston(1989a)의 견해를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 10개의 경로 수동과 그것이 나타나는 호주수어의 예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구부리기, 쥐어짜기 등과 같은 9개의 부차적인 수동 유형과 호주수어에서의 예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문헌에서는 수향, 손의 배열, 손의 접촉면을 나머지 요소로 설명하였다. 손가락과 손바닥의 방향인 수향은 Johnston(1989a)의 기본 방향 체계로 설명하였다. 기본 방향은 손가락과 손바닥의 방향으로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수어자 신체 쪽으로 향하는 방향 또는 수어자 신체와 반대 방향 등이 있으며, 대각선 방향은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호주수어 어휘에서 이러한 방향에 의해 대립하는 최소대립쌍을 소개하였다(THING는 손바닥이 위로 향하고 SAME은 손바닥 방향이 아래로 향하는 것만 다르다). 우세손과 비우세손의 배열, 그리고 접촉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영국수어와 호주수어의 예시를 소개하였다.

비수지 수어는 수지 없이 비수지만으로 이루어진 수어로 눈, 머리, 신체 움직임, 다양한 종류의 표정, 마우딩과 마우스제스처 등을 일컫는다. 호주수어에서 비수지로만 이루어진 수어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음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다채널 수어는 수지와 비수지 수어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다채널 수어에서 어떤 비수지적 특징이 의무적으로 사용되는지는 만장일치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수어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은 잘 인지되며 중요하지만 ‘너는 행복하지 않니?’에서 HAPPY라는 수어를 할 때의 표정은 행복한 표정이 아닌 다른 표정이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다채널 수어를 분석할 때 비수지적 특징은 문법적 기능을 하기도 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단어와 수어 구조에서의 제약에서는 먼저 음성언어에서의 제약을 설명한 다음 수어 어휘 구조에서의 제약을 설명하였다. 수어 구조에서의 제약은 언어적 제약과 지각에서의 제약, 산출(production) 제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언어적 제약으로는 다른 수어에서는 나타나지만, 호주수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수형을 제시하였다. 지각에서의 제약은 수어로 의사소통할 때 마임보다 훨씬 제한된 공간을 사용하며 수어 사용자는 상대방의 손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보며, 얼굴과 얼굴 주변의 수어가 가장 확실하게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호주수어에서는 머리카나 몸통 부분 가까이에서 나타나는 수어가 많은데, 머리, 얼굴, 목에서 나타나는 수어가 76.8%, 몸통과 팔에서 나타나는 수어가 23.2%라고 하였다. 산출 제약은 수어를 쉽게 하도록 하는 제약을 일컫는다. 산출 제약은 수형, 수위, 수동의 특정 조합만이 가능한 것과 다른 조합보다 빈도가 더 많은 일부 조합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Battison(1978)의 양손 수어에서의 대칭 조건(symmetry condition)과 우세손 조건(dominance condition)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세손 조건에서



비우세손에 나타나는 무표 수형을 설명하면서 호주수어에서의 7개 무표 수형(6, S, B, 5, 1, bC, O)이 수어 사전에 있는 수어 중 60% 차지한다고 하였다.

동시성과 순차성에서는 음성언어에서의 음절의 개념과 음절 구조를 설명한 후 수어에서의 음절 구조를 설명하였다. 수어는 형성의 특성상 음성언어와 달리 동시적 표현이 불가피하지만, 순차적인 조합도 사용한다고 하였다. 특히 수어의 합성어에서 순차적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질, 분절 그리고 음절에서는 1980년대 이래 수어의 순차적인 구조를 설명한 모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Liddell과 Johnson(1989)의 움직임-정지(movement-hold) 모델을 소개하고, 호주수어에서 나타나는 구조를 M(WHO, SIGN, RUDE), H(HOW-MUCH, WHEN, ONE), MH(POSS-1(1인칭 대명사), THINK, HOW), MHMH(CHILDREN, FLOWER), MMMH(FATHER, MOTHER, PAPER)로 설명하였다. 또 다른 수어 음절에 관한 연구인 Wilbur(1993)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그는 하나의 경로 수동(수위의 변화, 예) HELP), 하나의 내부 수동(수형이나 수향의 변화, 예) HAVE, REBEL), 경로 수동과 내부 수동의 조합(수위와 수형의 변화, 예) BELIEVE 혹은 수위와 수향의 변화, 예) NONE-OF-ONE'S BUSINESS)의 패턴이 하나의 음절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운 과정에서는 정지 분절 삭제(hold deletion), 움직임 분절 삽입(movement epenthesis), 동화 현상 그리고 비우세손 유지(perseveration)와 예측(anticipation)에 대해 설명하였다.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의 음운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23>에 요약하였다.

<표 23> Johnston & Schembri(2007). Australian Sign Language-음운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단어의 내적 구조	최소대립쌍	-음성언어에서의 음소 개념을 설명함
수어의 내적 구조	수형, 수위, 수동	-단일 수어 어휘에서의 수형, 수위, 수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그 외 변인	-수어에서의 방향(수향), 양손 수어, 수동의 반복, 비수지 자질 (얼굴 표정, 눈 응시, 입 움직임, 머리와 몸의 움직임 등), 수어 공간과 신체 부분과의 접촉 등을 설명함
수어 구성 요소와 표기 체계		-구성 요소(parameters)와 표기 체계(notation system)로 독일의 합노시스를 소개함
최소대립쌍		-수형, 수위, 수향, 수동에서의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어휘를 소개함

수어 형태 (Sign types)		-수지로만 이루어진 수어, 비수지로만 이루어진 수어, 수어와 비수지 함께(다채널) 이루어진 수어 유형으로 분류함
수지 수어 (Manual sign)		-한 손 수어(A)와 양손 수어(B)로 분류함 -한 손 수어에서는 신체 접촉 없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어(타입1)와 신체 접촉이 있는 수어(타입2)로 분류함 -양손 수어는 우세손과 비우세손으로 구분하고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함
	호주수어에서의 수형	-많이 나타나는 수형과 빈도, 수형에 의한 최소대립쌍 단어를 소개함
	호주수어에서의 수위	-많이 나타나는 수위와 빈도,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수위와 빈도를 소개함
	호주수어에서의 수동	-많이 나타나는 수위와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수동을 소개함
비수지 수어와 다채널 수어	호주수어에서의 나머지 구성 요소	-손의 방향, 손의 배열에 따른 최소대립쌍 단어를 소개하고, 신체와의 접촉과 같은 요소를 설명함
	비수지 수어 (Non-manual signs)	-비수지 자질(머리, 눈, 눈썹, 코, 입, 볼, 어깨, 몸) 분류
	다채널 수어 (multi-channel signs)	-수지와 비수지가 함께 나타나는 수어로 비수지에 의한 최소 대립쌍 단어 소개함
단어와 수어에서의 제약	언어적 제약	-호주수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수형을 소개함
	지각(perceptual) 에서의 제약	-수어 공간의 사용과 관련된 제약을 설명함
	산출에서의 제약	-수어 산출에서의 용이성과 경제성과 관련한 제약을 설명함
동시성과 순차성		-Stokoe의 동시적 모델과 Liddell과 Johnson의 순차적 모델 소개함
자질, 분절 그리고 음절		-Liddell과 Johnson의 움직임-정지(M-H) 모델을 설명함
음운 과정		-음운 동화 현상을 설명함

#### 4.1.5 국외 수어학 개론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수어학 개론서인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Baker, Bogaerde, Pfau & Schermer (Eds.), 2016)』의 음운론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 문법서에서는 먼저 음운론은 단어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들과 그것들의 가능한 조합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음성언어에서 언어의 소리가 어떻게 분석되고, 이들 소리가 어떻게 음절이나 단어로 조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수어에도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수어의 SHOULD는 영국수어 사용자에게는 낯설며, 네덜란드 수어에서는 약지만 퍼는 수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다. 즉, 어떤 나라의 수어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수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수어에서도 수형, 수위, 수동이라는 구성 요소(parameter)를 어떻게 분석하고 조합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수어 음운론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수형의 개수는 수동과 수위보다 많으며, 수형 목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자주 나타나는 수형에 관해 연구한 반면 변이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수형은 어떤 손가락을 선택하였으며 그 손가락의 상태(position)가 어떠한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보통 이렇게 선택된 손가락은 종종 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능동적인’이거나 ‘특히 중요한’ 손가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수어에서 엄지와 검지 끝을 붙이고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다 편 수형에서는 선택된 손가락이 편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였다. 선택된 손가락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본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첫째, 신체, 머리, 다른 손이나 팔에 접촉될 수 있다. 둘째, 특별한 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곡선으로 이루어진, 구부러진, 오므리는, 뻗는). 셋째, 움직일 수 있다(펴기와 오므리기).

다음으로 수형을 결정하는 변별 자질로 엄지와 선택된 손가락 간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즉, 엄지와 검지가 접촉하면 이는 ‘단힘’이라고 하고, 접촉이 없으면 ‘열림’이라는 자질로 구분하였다. 손가락 상태의 변별 자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손가락 구부리기(C 수형) 둘째, 손가락 펴기(모든 손가락을 펴는 수형) 셋째, 엄지와 다른 선택된 손가락과의 관계(엄지와 검지 붙이고 나머지는 편 수형), 표현하기 쉽고 지각이 잘 되는 수형, 아동이 먼저 습득하는 무표(unmarked) 수형과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덜 나타나는 유표(marked) 수형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무표 수형은 유표 수형보다 다양한 수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자주 비우세손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라마다 무표 수형과 유표 수형은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수어만의 독특한 수형으로 분류사 수형, 지문자 수형, 지숫자 수형을 소개하면서 지문자와 지숫자 수형은 이니셜이나 숫자 포함 수어 단어에서만 사용된다고 하였다. 일부 수형은 음성학적으로 다르나 음운론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변이 수형(allophonic handshapes)이라고 하였다. 수향은 손가락과 손바닥의 방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며 네덜란드 수어에서의 수향에 의한 최소대립 단어 쌍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본 문헌에서 네덜란드 수어 VISIT가 수향의 변화로 ‘내가 너를 방문하다’ 또는 ‘내가 나를 방문하다’로 의미가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동사의 공간에서 일치 현상을 편 손가락 방향의 변화로 음운론에서 설명하였다.

수위는 수어가 조음 되는 위치로 의미 변별 자질이 된다고 하였다. 본 문헌에서는 수위를 머리, 상체, 비우세손, 중립 공간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눈 다음 이 범주

안에서 다시 의미가 달라지는 음소적 수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이 수위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며, 공간을 제외한 접촉의 유무로 수위에서의 음운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수동은 Stokoe가 미국수어의 음운에 대해 제시 한 이후로 음운적 변수 중에 하나로 여겨져 왔는데, 본 문헌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손가락과 손목의 움직임(손 내부에서의 움직임과 수향의 변화)이며 둘째는 손 전체의 움직임(경로 수동)이다. 본 문헌에서는 네덜란드 수어를 예시로 손 내부의 움직임과 경로 수동 그리고 복합적인 수동이 일어나는 형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어휘 수어에서 수동은 일반적으로 처음 수위와 마지막 수위 사이의 전이로 기술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손의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알고 있을 때 거의 모든 어휘의 수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수어의 음운적 특성은 손에 의한 조음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비수지 측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비수지는 수어의 통사와 담화에 관련된 운율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얼굴의 일부분이 ‘조음자’로서 기능한다고 하였다. 또한 명사 스웨터나 코트를 하면서 뺨을 부풀리면 이러한 비수지는 ‘두꺼운’이라는 의미를 더하므로 의존 형태소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운적 측면에서는 입의 움직임은 마우딩(mouthing)과 마우스 제스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마우딩은 구어에서 단어의 조음으로부터 온 차용 요소로 네덜란드 수어에서는 어휘를 분화(형제라는 수어는 마우딩에 의해 남자 형제인지 여자 형제인지가 구분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양손 수어에서는 대칭 조건과 우세손 조건에 대해 네덜란드 수어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다.

수어 단어를 연결하여 표현할 때 나타나는 음운적 과정에서는 동화와 탈락(reduction)을 네덜란드 수어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다.

도상성과 음운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어의 도상적 특징을 소개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수어에서 도상적 형태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음운 수준에서도 도상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 하였다. 즉 도상적 동기화가 종종 하나 이상의 특정 음운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의 예시로 ‘먹다’, ‘말하다’ 등의 수어는 입의 위치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비행기라는 수어에서의 수형이나 일본 수어 춤이라는 수어에서의 수동 또한 도상적으로 사용된 예라고 하였다.

문장 수준에서의 억양, 강세, 리듬을 운율(prosody)이라고 하는데, 수어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특정 비수지 기호를 설명하였다. 즉 구어에서의 억양 역할과 비슷한 것으로 의문문을 만들 때는 수어를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앞쪽으로 기울이는’ 비수지 기호를 소개하였다. 또한, 구어에서 일반적으로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세는 수어에서는 증가한 크기나 지속 시간, 속도, 날카로운 경계, 반복, 수어 공간에서 좀

더 높은 수위 또는 눈썹 올리기, 뺨 부풀리기, 몸 기울기, 머리 끄덕이기와 같은 비수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의 음운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24>에 요약하였다.

<표 24> Baker 외(2016).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음운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음성학 (Phonetics)	산출	-수어 산출에 필요한 신체 기관인 근육, 관절, 각 신체 부분에 대해 그림과 함께 설명함 -양손 수어에서의 대칭적 조음 형태를 소개함(동시에 같은 움직임,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 우세손만 움직임)
	지각	-시각적 지각에서는 주변 시각과 중심 시각 영역으로 나누고, 중심 시각 영역에서의 조음 위치가 더 세분화됨을 예시를 통해 설명함
	음성학적 변이	-조음의 편이를 위한 수형, 수위의 변이 형태를 미국수어, 독일수어, 네덜란드수어를 예로 들어 설명함
	수어의 표기 체계	-합노시스, 스토키 체계, 싸인라이팅 등 표기 체계를 예를 들어 설명함
	언어 기술학	-아바타를 활용한 수어 번역 시스템 등 기술적인 내용을 소개함
음운론 (Phonology)	수형	-수형을 편 손가락과 그 손가락들의 모양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출현 빈도와 현저성을 중심으로 유표 수형과 무표 수형으로 나누어 설명함
	방향	-손바닥과 손가락의 방향을 조음의 제약과 관련지어 설명함
	위치	-의미 변별 자질이 되는 수위와 변이형 수위에 관해 설명함
	움직임	-손의 내적 움직임과 방향의 변화, 움직임의 경로로 나누어 설명한 후 단순 움직임과 복합적 움직임을 분류함.
	어휘에서의 비수지	-어휘 수준에서 나타난 비수지 요소로 인해 의미가 달라지는 수어에 관해 설명함
	양손 수어	-양손 수어의 형태를 대칭 조건과 우세 조건으로 나누어 설명함 -대칭 조건은 같은 수형으로 움직임이 같거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형태임 -우세 조건은 비우세손은 움직임이 없으며, 한정적인 수형 형태가 나타남을 설명함
	음운 과정	-두 수어를 연이어 할 때 나타나는 동화, 감소, 생략 등의 음운 변동을 설명함
	도상성과 음운론	-수위와 수형의 도상성을 설명함.
	운율	-강세, 휴지 등을 비수지 표지를 통해 나타냄을 설명함.

다음은 수어학 핸드북인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Pfau, Steinbach, & Woll (eds.), 2012)』의 음운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 문법서에서는 음성언어와 수어는 음성학적 변이 등 유사한 점이 많지만, 지각 채널(청각과 시각)이 다름에 따라 조음기관(구강과 신체 움직임)이 달라지므로 수어에서는 동시에 발생하는 정보가 많다는 주장(Vermeerbergen, Leeson, Crasborn, 2006)을 소개하면서 음성언어와 수어의 방법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도 청각 뿐 아니라 시각적 요소도 지각되므로 이러한 방법의 차이는 흑백 논리처럼 딱 떨어지게 대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수어의 시각적 지각에 대한 Siple(1978)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지각은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고 미국수어를 사용하는 수어 사용자는 그들의 시선을 턱에 고정시킨다고 하였다. 수어 사용자들은 손의 움직임에 따라 시선은 움직이지 않고 얼굴 가까이에 있는 수형, 수향, 수위를 좀 더 자세히 본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차이는 상체 부분과 비교하여 얼굴 가까이에 더 미세한 음운론적 위치 차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소리 대 시각의 시간 정보 처리 과정(temporal processing)으로 청각적 지각은 시각적 지각보다 미세한 시간 정보 패턴을 구별해내는 데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음성언어는 순차적인 구조를 보이는 반면에 수어에서 형태소는 전형적으로 그런 시간 정보의 복잡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수어의 음성학적 분석을 음성언어의 기능적 음성학 모델의 틀 안에서 설명하였다. 음운적 형태는 음성 형태가 표현되므로 표면적으로 음운적 형태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때 수어에서는 동시조음의 효과를 설명하며 음성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Ormel 외(2012)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음성학적 연구에서는 수어의 조음에서 특히 수지 부분의 조음은 팔과 손(손가락, 손 전체, 팔뚝, 팔꿈치 위쪽의 팔)이 어떤 위치(머리와 상체 부분의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방향, 관절의 상태나 움직임 등)를 분석하여 기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음운론적 기술은 일반적으로 어휘 목록에서 손을 중심에 놓고 수형, 공간에서의 회전, 수위 그리고 수동으로 표상하여 분석하고 기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어의 음운적인 설명에서는 수어를 할 때 전체적인 음성적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례를 살펴보면 실제로 사용되는 조음은 상당히 다르다고 하였다.

수어의 비수지 조음에 필요한 턱, 머리 그리고 상체의 움직임은 팔과 손의 조음을 위한 움직임과 유사하지만, 하관을 제외한 얼굴의 조음은 피부 근육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표기법으로 FACS(Facial Action Coding System)을 소개하였으며 이것은 Paul Ekman과 그의 동료들이 피부 근육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만든 표기법이라고 하였다.

수어의 어휘 목록에서 일부 형태에 대한 상대적인 빈도를 설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 중 수어의 조음 부분에서 사용된 손가락의 펴짐근을 연구한 Mandel(1979)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생리학적 특성이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므로 미국수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반적으로 손 전체의 경로 수동(path movement)을 유도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음운론적으로 경로 수동의 방향과 수형의 변화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 둘은 음성적인 영향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리적 특성으로 편안하게 조음을 하기 위해서 수어에서는 제약이 나타나며 조음 제약은 일부 형태소를 형성하는데 관여한다고 하였다. 즉 팔, 관절의 행동반경이 수어에서 일부 동사의 굴절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어의 음성학적 표상도 매우 변이적이라고 하였다. 즉 하나의 음운적인 형태에 여러 음성적인 형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어에서 이러한 변이를 이끄는 것은 우세손이라고 하였다. 중립 공간에 위치해 있다고 명시된 수어에서 손의 높이는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손의 높이는 앞뒤의 수어 손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음성언어에서 동시조음이 되는 것과 유사하게 순차적이고 속도에 민감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음성적 변이를 제외하고 음성적인 위치에서 시각적인 차이를 이끄는 것은 음운적 동화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Jerde, Soechting, Flanders (2003)의 연구를 통해 수형에서도 이러한 동시조음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음성적인 변이를 밝히고자 하는 소수 연구들은 음운적인 차이에서 조음적인 변이가 있다고 하면서 수어에서도 음운적 수준과 음성적 수준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음운론에서는 수어 단어의 구조를 계층적 도식으로 분석한 Brentari(1998)의 운율 모델(Prosodic Model)을 소개하고 있었다. 즉 수어의 어휘소(lexeme)를 내재 자질(inherent features)과 운율 자질(prosodic features)로 나누고, 내재 자질 밑에 수형(handshape features)과 조음 위치(place of articulation features)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운율 자질은 움직임 자질(movement features)과 함께 일어나며, 이 움직임 자질에는 2개의 지점(x-slots)이 발생하는 시간(timing units)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음성언어에서 음절을 구성하는 핵이 모음인 것처럼 수어에서는 움직임(수동)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음성언어에서는 모음이 청각적으로 가장 잘 지각되는 것(medium)이듯, 수어에서는 움직임이 시각적으로 가장 잘 지각되는 것(medium)이라는 것이다. 본 문법서에서는 수어의 음절을 설명하는 이론들 4가지를 소개하였다. 그 첫째는 웅알이설(babbling argument)로 농아동의 수어 웅알이에서 나타나는 손의 움직임으로 음절을 설명하는 Petitto와 Marentette(1991)의 설명이다. 둘째는 최소

단어설(minimal word argument)이다. 이는 음성언어에서 하나의 음절로 형태를 갖추려면 모음이 있어야 하듯이 수어에서도 최소한 한 음절은 반드시 운율이 있는 단어(prosodic word)가 기본이 되므로, 움직임이 음절을 이루는 핵이라는 이론이다. 세 번째는 공명 계층의 증거(evidence of sonority hierarchy)로 움직임의 현저성이 음절을 이루는 기본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는 작은 음절 대 큰 음절의 증거(evidence for light vs. heavy syllables)이다. 여기서는 운율 모델에서 움직임이 이루는 요소를 갖춘 하나의 움직임을 작은 움직임과 큰 움직임으로 나누고 이들이 모두 음절을 이루는 핵이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 나라 수어 단어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수어는 음성언어와 다른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단어의 형태 및 음운 수준에서 순차적인 특성도 있지만 단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동시성이라는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또한 수어 단어의 분절을 음성언어 분절 방법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수어는 음성언어보다 훨씬 크게 형태론의 수준에서 뿐 아니라 음운론 수준에서도 도상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분류사 구문에서의 수형과 수향이 도상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움직임 경로와 동사 일치에서 나타나는 도상성을 미국수어의 시각적 운율 체계(visual prosody)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의 음운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25>에 요약하였다.

<표 25> Pfau, Steinbach, Woll(2012).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음운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음성학 (Phonetics)	양식의 차이	-양식의 차이를 행동, 신호, 지각으로 나누어 설명함
	음성학대 음운론	-수어에서의 음성학적 연구와 음운적 연구의 차이를 설명함
	조음	-수어의 주요 조음기관인 어깨부터 손끝까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음운론적 기술에서는 주로 손의 형태에 맞추고 있음을 설명함 -더불어 비수지 조음인 턱, 머리, 상체, 얼굴 표정에 대해 설명을 함 -조음 제약에 대해 설명을 함
	음성학적 변이	-우세손, 손 높이, 수형, 수동에서의 조음의 편이성에 의한 제약 등을 설명함 -수어에서의 음성학과 음운론적 설명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함
음운론 (Phonology)	구조	-수어의 구조를 내재 자질과 운율 자질과 구분하고, 내재 자질에 수형, 수위 그리고 운율 자질에 움직임과 관련된 요소로 나누어 계층적 도식으로 설명함 -수어의 음절과 분절 개념을 5가지 모델을 통해 설명함
	양식의 영향	-시각 양식이라는 특성에 의해 단어의 형태 및 음운 수준에서 동시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남을 설명함 -단일 형태소 단어와 다중 형태소 단어의 구조를 설명함
	도상성의 영향	-수형, 수위, 수동에서의 도상성의 영향을 미국수어를 예로 들어 설명함



시각적 운율 (Visual prosody)	운율의 구성 요소	-음성언어에서의 운율을 설명한 후, 수어에서의 운율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설명함
	억양	-음성언어에서의 억양을 설명한 후, 수어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 억양의 역할을 하는 얼굴 표정, 머리 움직임을 예를 들어 설명함
	두드러짐 (현저성)	-수어를 하는 시간, 휴지, 멈춤 등 다양한 운율적 특성을 통해 수어 화자가 강조하는 방식을 설명함 -구성된 행위도 강조의 한 양식임
	그 외의 이슈	-모든 비수지 신호가 운율적인 것은 아님 -수어와 음성언어에서 운율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함

총 7권의 수어 문법서에서 음운론과 관련된 내용을 고찰한 결과, 음운론에서는 수어소 등의 음운 단위와 음운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음운현상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었고, 더불어 시각언어의 특성인 음운 차원에서의 동시성과 순차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 이론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에 수어 음운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크게 음운 단위, 음운 과정, 동시성과 순차성으로 분류하고 각 문법서의 목차와 세부 목차를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표 26>과 <표 27>은 각 문법서에서 음운단위, 음운과정, 동시성과 순차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목차들을 비교한 표이다.

&lt;표 26&gt; 주제에 따른 목차 비교-음운론\_1

문법서 주제	한국 수어학 개론 이준우, 남기현(2014)		한국수어의 이론 최상배, 안성우(2003)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Valli & Lucas(2011)	
	목차	세부 목차	목차	세부 목차	목차	세부 목차
음운단위	* 수어소	-수형 -수위 -수어 공간의 기능 -수동 -수향 -비수지 신호	* 수어소	-Stokoe(1960,1976)의 분류 -Liddell과 Johnson(1989)의 분류 -김승국(1983)의 수어소 분류 -석동일(1989)의 수어소 분석 -김칠관(1998)의 수형 분석	* Signs Have Parts	
음운과정 (음운현상)	* 음운현상	-움직임 분절 삽입 -정지 분절 삭제 -동화 -전환	* 수어소의 제약과 변화		* Phonological Processes	-Movement epenthesis -Hold reduction -Metathesis -Assimilation -Weak hand deletion
동시성과 순차성	* 수어의 순차성 과 동시성	-움직임-정지 모델 -동시적 구조와 연속적 구조의 통합	* 수어의 순차성		* The Stokoe System	
			* 수어의 조동 유형		* The Concept of Sequentiality in the Description of Signs	-Detail in the description of ASL signs -The Representation of sequence in ASL signs -Minimal pairs
			* 수어 분절음의 선형 연속성		* The Liddell and Johnson Movement - Hold Model	
기타			* 음운론적 분석의 역사			

<표 27> 주제에 따른 목차 비교-음운론\_2

문법서 범주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Papaspyrou 외(2008)		AUSTRALIAN SIGN LANGUAGE Johnston & Schembri(2007)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ntroduction Baker 외(2016)		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Pfau 외(2012)	
	목차	세부 목차	목차	세부 목차	목차	세부 목차	목차	세부 목차
음운단위	* Manual component	-Handshape -Position of the hands -Location -Movement -Two-handed sign	* The internal structure of words	-Minimal pairs	* Phonology	-Handshape -Orientation -Location -Movement -Non-manual aspects in the lexicon -Two-handed signs -Prosody	Phonology	-Structure -Modality effects -Iconicity effects
			* The internal structure of signs	-Handshape -location and movement -Other aspects of sign structure				
			* Mininal pairs in Auslan	-				
	* Non manual component	-Mime -Eye gaze -Head and upper part of the body -Mouth actions	* Sign types	-				
			* Manual sign	-Handshape in Auslan -Location in Auslan -Movement in Auslan -Minor parameters in Auslan				
			* Non-manual and multi -channel signs in Auslan	-Non-manual signs -Multi-channel signs				
음운과정 (음운현상)			* Constraints on word and sign structure	-Linguistic constraints -Perceptual constraints -Production constraints	* Phonology	-Phonological processes		
			*Phonological processes					
동시성과 순차성			* Simultaneity and sequentiality in sign structure					
			* Features, segments and syllables					
기타			* Sign parameters and notation systems		* Phonology	-Iconicity and phonology	* Visual prosody	-Prosodic constituents -Intonation -Prominence -Residual issues

## 4.2 형태론

형태론과 관련된 수어 문법서의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 수어 문법서의 목차를 분하여 일반적으로 수어 형태론에서 다루는 하위 범주의 내용을 포괄하지 않거나, 특정 형태론 연구의 결과를 하위 범주로 다룬 문법서는 제외하였으며 음운론과 달리, 수어 연구의 역사가 길고, 수어 형태론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영국 수어 문법서를 추가하였다. 즉 한국수어 문법서 2권, 나라별 문법서 4권, 그리고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으로 총 8권이다.

한국수어 문법서 2권(이준우, 남기현, 2014, 최상배, 안성우, 2003), 나라별 문법서 4권(Valli & Lucas, 2011, Papaspyrou 외, 2008, Johnston & Schembri, 2007, Sutton, 1999), 개론 문법서 2권(Baker 외, 2016, Pfau 외, 2012)을 대상으로 수어 언어학의 형태론에서 다루고 있는 범주와 내용을 고찰하였다. <표 28>과 <표 29>은 형태론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고찰할 문법서 8권의 대범주와 중범주 목차를 비교한 표이다.

<표 28> 문법서별 체계 비교-형태론\_1

한국 수어학 개론 이준우, 남기현(2014)		한국수어의 이론 최상배, 안성우(2003)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Valli & Lucas(2011)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Papaspyrou 외(2008)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 형태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어근 형태소와 비어근 형태소 -의존 어근 -의존 비어근	* 형태론적 분석의 의미		* Building New Signs	-Morphology -Derivational morphology -Inflectional morphology	* Sign formation	-Iconicity -Simultaneity -Extern influences on sign formation
		* 형태 구조					
		* 분류사					
* 단어 형성 과정	-접사 첨가 -국내의 연구	* 한국 수어의 어족 연구	-석동일(1989)의 단어족 연구 -장진권(1995)의 어족 연구	* Deriving Nouns from Verbs		* Sort of signs	-Nouns -Verbs -Pronouns -Adjectives -Expression of time
* 명사-동사 파생							
* 수사 포함	-수의 자리 -시간 표현 -나이 표현 -그 밖의 표현들		* 수어 구성 방법		* Compounds		-Compounds in ASL -Lexicalized fingerspelling -The Lexicalization process
* 지문자어	-지문자의 개념 -지문자의 사용 -한글 지문자 -지문자어	* 수어의 품사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 차용어				* Fingerspelling			
* 합성어	-한국수어에서 합성어 연구 -합성어의 유형 -번역 차용	* 수어의 변용	-시간과 시제의 변용 -인칭의 변용 -수-동사의 변용 -수-명사의 변용 -동사의 변용 -형용사의 변용	* Numeral Incorporation			
* 굴절	-수어의 동사 분류 -동사와 일치 -동사와 수						
* 상호 표현	-한국어 비대칭 동사의 상호 표현 -수어 일치동사에서 상호 표현		* 수어 어휘의 다의어				

&lt;표 29&gt; 문법서별 체계 비교-형태론\_2

AUSTRALIAN SIGN LANGUAGE Johnston & Schembri(2007)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Baker 외(2016)		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Pfau 외(2012)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Sutton(1999)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 Morphology: sign formation and modification	-The morpheme in signed and spoken language -Morphological processes: Derivation and inflection -Sign formation processes -Processes of sign modification	* Constituents and word classes	-Constituents -The structure of phrases -Lexical signs -Function signs	* Word classes and word formation	-The signed word -Sign language morphological processes -Word classes -Word formation	* Morphology and morphemes in BSL	-What is a morpheme -Bound and free morphemes -Plural morphemes -Verb morphology -Grammatical class: nouns, verbs, and adjectives in BSL(Adjectives)
		* Lexicon	-What can be a sign? -Form and meaning: iconicity -The frozen and the productive lexicon -Sign language dictionaries, Meaning and meaning relations -Metaphor and idiom	* Plurality	-Nouns and noun phrases -Pronouns, numeral incorporation, and number signs -Verb agreement and classifier verbs -Pluralization across modalities		
* Lexicon: the structure of Auslan vocabulary	-The Auslan lexicon -The native lexicon -The non-native lexicon in Auslan			* Verb agreement	-Background on agreement -Realization of agreement -Candidacy for agreement		
		* Morphology	-Word formation: sequentiality versus simultaneity -Compounding -Derivation -Inflection -Incorporation and classification	* Classifiers	-Classifiers and classifier categories -Classifier verbs -Classifiers in signs other than classifier verbs -The acquisition of classifiers in sign languages -Classifiers in spoken and sign languages: a comparison		
				* Tense, aspect, and modality	-Tense -Aspect -Modality		
				* Agreement auxiliaries	-Form and function of agreement auxiliaries -Agreement auxiliaries in different sign languages -a cross-linguistic comparison -Properties of agreement auxiliaries in sign languages -Grammaticalization of auxiliaries across modalities		

#### 4.2.1 한국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한국 수어학 개론(이준우·남기현, 2014)』의 형태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수어학 개론에서 형태론은 형태소, 단어 형성 과정, 명사-동사 파생, 수사 포함, 지문자어, 차용어, 합성어, 굴절, 상호 표현 9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장인 형태소에서는 Johnston과 Schembri(2007)의 연구를 기반으로 자립 형태소, 어근 형태소와 비어근 형태소, 의존 어근, 의존 비어근(접사)으로 형태소 유형을 소개하였으며, 한국수어의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한국수어에서 자립 형태소는 [학교], [친구] 등이며 실질형태소이기도 하다. [형]<sup>고개 끄덕임</sup>에서 고개 끄덕임은 독립적으로 혼자 설 수 없는 의존형태소이며 형식 형태소이다. 어근 형태소와 비어근 형태소에서는 기본형, 수어 공간에서 이동을 통해 굴절형을 산출하는 자립 어근과 홀로 설 수 있지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으며 굴절 형태소를 취할 수 없는 자립 비어근으로 설명하였다. 의존 어근의 예로 [1시], [2시]를 제시하였으며, 의존적이면서 어근이 아닌 형태소의 예로 [외할아버지], [삼촌]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김칠관(2010) 등의 한국수어연구문헌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 장인 단어 형성 과정에서는 미국수어의 부정 접미사, 동작주 접미사, 이스라엘수어의 SENSE접두사, 한국수어 [보다]의 파생, [기술]의 파생, 부정 접사 첨가, [만아들], [손자] 접두사로 접사 첨가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장인 명사-동사 파생에서는 국내외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국외 연구로는 미국수어에서의 100개의 명사-동사 쌍을 검토한 Supalla와 Newport(1978)를 소개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명사와 동사 형태가 동일하며, 파생 과정이 없다고 주장한 장세은(1996)의 연구, 그리고 반복 운동으로 품사 파생을 설명한 김칠관(2010)의 연구, 문맥에서 단어의 위치와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 석동일(1989) 등을 소개하였다.

네 번째 장인 수사 포함에서는 수사 포함의 개념과 한국수어에서 수사 포함이 관찰되는 수의 자리, 시간 표현, 나이 표현, 기타 표현 등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수의 자리를 표현하는 수어 [십], [백], [천]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시간 표현에서는 연을 표현하는 수어 [1년], [2년], 날을 표현하는 수어 [과거], [어제], [그저께], 그리고 정각과 시간을 표현하는 수어 [1시], [1시간] 등의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나이 표현에서는 1살에서 99살까지 턱에 접촉하여 형성되는 수어 사례들을 제시하였고, 100살도 함께 제시하여 [1살]과 [백]과의 수어 표현 차이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표현에서는

순서를 표현하는 수어 [첫째], 층수를 표현하는 수어 [1층], 등수를 표현하는 [일등]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장인 지문자어에서는 지문자의 개념, 지문자의 사용, 한글 지문자, 지문자어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였다. 지문자의 개념에서는 한국수어에서의 지문자의 개념과 각 나라의 지문자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지문자의 사용에서는 지문자를 사용하는 이유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9가지 특성을 기술하였다. 한글 지문자에서는 한글 지문자의 창안 배경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문자와 비교하여 소개하였으며, 지문자어에서는 호주수어를 연구한 Johnston과 Schembri(2007)가 제시한 수어의 지문자를 활용한 단어 형성 방법 4가지(수지 단일 문자어, 두문자어, 약어, 전체 영어 단어)를 소개하였다. 한국수어에서 나타나는 것은 수지 단일 문자어(single manual letter signs)이다. 예를 들어, [지금], [즐겁다]는 단일 문자와 움직임이 결합된 수어 단어의 예이다. 또한 호주수어와 한국수어의 단어 형성 방법을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여섯 번째 장인 차용어에서는 차용어의 개념과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두문자어를 이용한 차용어 사례(예, [카톡 보내다])와 번역차용과 의미차용의 사례(김철관, 2010)를 소개하였다.

일곱 번째 장에서는 한국수어의 합성어 연구와 합성어의 유형, 번역 차용을 소개하였다. 한국수어의 합성어와 관련된 세 가지 연구를 소개하였는데, 김철관(1996)은 시간적, 공간적, 혼합적 배치 방식의 복합 요소로 합성어를 설명하였으며, 원성옥과 장은숙(2003)은 두 개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형성을 합성어와 파생어로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율하(2008)는 계기적 결합 구조(합성어로 결합), 동시적 결합 구조(두 형태소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녹아 붙어 표면상 형태소 분석이 안 되어 마치 단일 형태소처럼 보이는 특성)로 합성어를 설명하였다. 합성어의 유형에서는 순차적 합성어와 동시적 합성어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순차적 합성어에서는 순차적 합성어의 개념과 그 대표적 사례([여왕],[지혜])를 소개하였고, Meir 등(2010)의 연구에서 ‘dvandva compounds’와 분류사를 통한 합성어를 기반으로 한국수어 사례를 기술하였다. 동시적 합성어에서는 한국수어 연구들을 기초로 동시적 합성어로 사용되어 왔던 용어들을 소개하였고, 본 문헌에서는 합성어를 순차적 합성어, 동시적 합성어, 동시적-순차적 합성어로 사용하였다. 또한 동시적 합성어 형태학적 과정 특성을 기술하였는데, 첫째, 동시적 합성어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형성([화산],[등산],[방문])하며, 둘째, 두 단어의 일부 수어소들이 결합하여 형성([인격],[법],[여성 단체],[간단하다])하였다. 번역 차용에서는 음역 차용과 번역 차용의 개념과 김철관(2012)의 연구를 통해 번역 차용([명소])과



의미 차용([견습])의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한국수어에서 번역 차용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이유를 기술하였다.

여덟 번째 장인 굴절에서는 수어의 동사 종류와 굴절의 양상(동사와 일치, 동사의 수, 상호 표현)에 대해 기술하였다. 수어 동사는 일반동사, 일치동사, 공간동사(표사동사)로 분류하였으며, 동사와 일치에서는 방향성이 없고, 인칭에 따라 굴절하지 않는 일반동사([먹다],[웃다],[자다],[기억] 등), 동사의 시작점과 끝점이 인칭과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위해 굴절하는 일치동사([주다],[돕다]), 수어 공간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을 통해 표현하는 표사동사 등의 개념과 굴절 특성을 소개하였다. 특히 표사동사는 처소동사, 이동동사, 이동방식동사, 취급동사 등 하위로 구분하고 사례를 설명하였다. 동사와 수는 동사의 유형에 따라 문장의 주어를 단수로 혹은 복수로 표현되는지와 문장에서 동사의 기본형이 수사의 포함 여부에 따라 어떻게 어형이 변화하는지 기술하였다. 남기현 외(2010)의 연구를 기초로 수사가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직선 수동이 반원 수동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사 이외에 다른 단어들을 추가하여 복수 의미 표현하며, 표사동사의 경우에는 수사 포함을 사용하여 사건에 포함된 개체의 수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수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사가 이미 앞에서 표현되면 동사를 수어 공간의 각 지점과 일치하도록 굴절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상호 표현에서는 한국어 비대칭 동사의 상호 표현과 수어 일치동사에서의 상호 표현을 소개하였다. 한국어 비대칭 동사의 상호 표현에서는 상호 동사의 개념과 [돕다], [민다], [속이다], [싸우다] 등 네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다. 수어 일치동사의 상호 표현에서는 인칭 표시가 있는 일치동사(순차적 표현, [충성하다]), 임의적인 인칭 표시가 있는 일치동사(동시적 표현, [눈썰하다]), 인칭 표시가 없는 일치동사의 순차적 표현, 동시적 표현, [문자-보내다], [메일-보내다])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한국수어학 개론』의 형태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내용을 <표 30>에 정리하였다.

<표 30> 이준우 · 남기현(2014). 한국 수어학 개론-형태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형태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자립 형태소([학교],[친구])와 의존 형태소 개념과 사례를 소개함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비수지 신호) 개념과 사례를 소개함
	어근 형태소와 비어근 형태소	-Johnston과 Schembri(2007)의 연구를 소개함 · 자립 어근: 기본형, 수어 공간에서의 이동을 통해 굴절형 산출 등의 개념과 사례 소개 · 자립 비어근: 홀로 설 수 있고,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으며 굴절 형태를 취할 수 없는 것 등의 개념과 [그러나],[무엇] 등 사례 소개

	<b>의존 어근</b>	-Johnston과 Schembri(2007)의 연구를 소개함 • 의존적이면서 어근의 개념과 [1시],[2시]의 사례 소개
	<b>의존 비어근 (접사)</b>	-Johnston과 Schembri(2007)의 연구를 소개함 • 의존 비어근의 개념 및 사례 소개 • 김칠관(2010), 원성옥(2002) 등의 분석 • 한국수어에서 단어를 구성하는 수어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모두 결합되어 하나의 단어를 형성함
<b>단어 형성 과정</b>	<b>접사 첨가</b>	-미국수어의 부정 접미사로 ZERO를 들어 설명함 -동작주(agent) 접미사로 TEACH-동작주 접미사(techer)를 설명함 -이스라엘수어의 SENSE 접두사인 EYE-SHARP를 예로 들어 설명함 -한국수어의 접사를 설명함 • 접미사: [보다]의 파생, [기술]의 파생, [맛없다],[관계없다] 등의 사례 소개, Aronoff 등(2003)의 미국수어 연구 소개(음운적 제약과 통사적 제약) • 접두사: 김칠관(2010)의 연구-[받아들], [손자]
<b>명사-동사 파생</b>	<b>국외 연구</b>	-Supalla와 Newport(1978)연구를 통해 미국수어 100개의 명사-동사 쌍 연구를 소개함 • 명사와 동사는 수형, 수위, 수동을 공유하지만, 수동의 특성인 방향성, 방식, 빈도의 체계적인 변화로 서로 구별함(수동의 세 가지 특성) • 명사는 제한된 방식과 반복 수동(97개), 정지 방식의 단일 수동(3개), 명사에서는 수동의 제한 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b>국내 연구</b>	-장세은(1996)의 연구를 소개함 • 미국수어: 음운 중첩 과정을 통해 동사가 명사로 파생 발생함 • 한국수어: 명사와 동사 형태가 동일하여 음운 중첩과 파생 과정이 없다고 결과 보고함 -김칠관(2010)의 연구를 소개함 • 반복 운동(음운적 현상)으로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 발생함(예:[왔다]/[의자], [눕다]/[침대], [말하다]/[언어]) -석동일(1989)의 연구를 통해 한국수어 품사의 경우 문맥에서 단어의 위치와 기능에 따라 달라짐을 설명함
<b>수사 포함 (numeral incorporation)</b>	<b>수의 자리</b>	-수의 자리를 표현하는 수어 [십], [백], [천] 등 사례를 소개함
	<b>시간 표현</b>	-연을 표현하는 수어 [1년], [2년], [3년], 날을 표현하는 수어 [과거], [어제], [그저께], 정각과 시간을 표현하는 수어 [1시], [1시간] 등의 사례를 소개함
	<b>나이 표현</b>	-턱 접촉하여 형성하는 1살에서부터 99세를 예를 들어 설명함 -100살의 경우, [백]은 턱 접촉이 아닌 중립 공간에서 산출됨을 설명함
	<b>그 밖의 표현들</b>	-순서를 표현하는 수어 [첫째], 층수를 표현하는 수어 [1층], 등수를 표현하는 수어[일등] 등의 사례를 소개함
<b>지문자어 (fingerspelled signs)</b>	<b>지문자의 개념</b>	-한국수어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모방한 손의 모양을 지문자로 사용하고, 미국수어는 알파벳을 지문자로 사용함을 설명함 -각 나라의 지문자의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함(형태적인 차이, 지문자의 속도와 명확성)
	<b>지문자의 사용</b>	-지문자의 사용 이유를 소개함
	<b>한글 지문자</b>	-한글 지문자의 창안과 창안 당시의 한글 지문자, 현재의 한글 지문자를 비교함

## 표.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지문자어	<p>-Johnston과 Schembri(2007)이 호주수어의 지문자를 활용한 단어 형성 방법(4가지)을 소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지 단일 문자어, 두문자어, 약어, 전체 영어 단어</li> </ul> <p>-한국 지문자어의 사례를 소개함</p>
차용어		<p>-차용어의 개념을 설명함</p> <p>-두문자어를 이용한 어휘 확장을 [카톡 보내다]로 설명함</p> <p>-김칠관(2010)의 번역 차용, 의미 차용을 소개함</p>
합성어	한국수어에서 합성어 연구	<p>-김칠관(1996)의 연구를 소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 구성(합성법) 수어 41.9%정도 출현</li> <li>· 복합 구성 단순어 분류 방법 소개 (시간적 배치, 공간적 배치, 혼합적 배치)</li> </ul> <p>-원성옥·장은숙(2003)의 연구를 소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개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파생 과정을 거친 파생어</li> </ul> <p>-이윤희(2008)의 연구를 소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기적 결합 구조, 동시적 결합 구조</li> </ul>
	합성어의 유형	<p>-순차적 합성어에 대해 설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이며 음성언어의 단어 형성과 유사([여왕],[지혜])</li> <li>· 병렬 합성어(dvandva compounds): CAR^LPLANE^TRAIN ‘vehicle’ 교통수단)</li> <li>· 분류사를 통한 합성어: [유리병],[[유리]+원통형 사물]</li> </ul> <p>-동시적 합성어에 대해 설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에 근거한 동시적 합성어 용어 정리: 복합 구성(김칠관, 1996), 한국복합수화(원성옥 외, 2003), 동시적 결합 구조(이윤희, 2008), 동시적 합성어, 동시적-순차적 합성어(이준우, 남기현, 2014)</li> <li>· 동시적 합성어의 형태론적 과정 소개: 두 단어 결합([화산],[등산],[방문]), 두 단어의 일부 수어소 결합([인격],[법],[여성 단체],[간단하다])</li> </ul>
	번역 차용	<p>-음역 차용과 번역 차용의 개념을 relay(릴레이, 이어달리기)를 통해 설명함</p> <p>-김칠관 연구(2012)를 소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역 차용: 한자어의 구성소를 번역하여 재배치, [명소]</li> <li>· 의미 차용: 한자어의 구성소를 그대로 직역하여 배치, [견습]</li> </ul> <p>-한국수어에서 번역 차용을 사용하는 이유를 기술함</p>
굴절	수어의 동사 분류	<p>-Padden(1990)의 일반동사, 일치동사, 공간동사 개념을 설명함</p> <p>-Johnston과 Schembri(2007)의 일반동사, 일치동사, 묘사동사 개념을 설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절 동사(방향 동사 또는 지시 동사)를 일치동사와 공간동사로 구분함</li> <li>· 일치동사: 수향, 수동, 수위 변화를 통해 표현함</li> <li>· 공간동사: 위치의 정보로 표현, 묘사동사(depicting verbs) 또는 분류사 동사로 불림</li> </ul>
	동사와 일치	<p>-일반동사는 방향성이 없고, 인칭에 따라 굴절하지 않음을 설명함 [먹다],[웃다],[자다],[기억] 등 사례를 소개함</p> <p>-일치동사를 설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칭표현을 위해 굴절함 [주다],[돕다]</li> <li>· 동사의 시작점과 끝점이 인칭과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위해 굴절함</li> </ul> <p>-묘사동사(분류사 동사, 공간동사)를 설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어 공간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나르다]</li> <li>· 하위분류: 처소동사, 이동동사, 이동방식동사 취급동사</li> </ul>

	<b>동사와 수</b>	-동사의 유형에 따라 문장의 주어를 단수로 혹은 복수로 표현되는지 확인함 -문장에서 동사의 기본형이 수사의 포함 여부에 따라 어떻게 어형이 변화하는지 기술함 -남기현 외(2010)의 연구를 기초로 수사가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함
	<b>상호 표현</b>	-한국어 비대칭 동사의 상호 표현을 설명함 • 상호 동사(reciprocal verb)의 개념 기술 • [뵈다], [밋다], [속이다], [싸우다] 등 네 가지 사례 소개 -수어 일치동사에서 상호 표현을 홍성은(2013)의 연구를 통해 설명함 • 인칭 표시가 있는 일치동사(순차적 표현, [충성하다]) • 임의적인 인칭 표시가 있는 일치동사(동시적 표현, [눈썰하다]) • 인칭 표시가 없는 일치동사(순차적 표현, 동시적 표현, [문자-보내다], [메일-보내다])

다음은 『한국수어의 이론(최상배·안성우, 2003)』의 형태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수어의 이론에서는 수어의 형태론적 특징을 중범주로 하여 형태론적 분석의 의미, 형태 구조, 분류사, 어족 연구, 수어 구성 방법, 수어의 품사, 수어의 변용, 수어 어휘의 다의어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형태론적 분석의 의미에서 형태론은 수어소 또는 수어소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수어 어휘의 형태소를 연구하는 분야로 석동일(1989) 수어가 적은 어휘수를 공간, 신체의 움직임과 표정, 눈의 움직임과 같은 문법적인 기능을 통해 파생이나 변용 등에 의해 보충한다는 연구를 소개하였다. 김철관(1999)은 순차적 결합(또는 축차적 결합)과 동시적 결합으로 형태 구조를 설명하였으며 크기와 공간을 나타내는 분류사, 취급분류사, 의미분류사, 신체분류사로 분류사를 구분하였다.

어족 연구에서는 석동일(1989)이 수형, 수위, 수동에서 형태적으로 공통성을 가지는 수어 단어 그룹(단어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장진권(1995)은 수형, 수위, 수동을 기초한 수어 상징의 어원적 의미와 특징 분석하였다.

수어 구성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Wundt가 지사, 모방(모사, 표현, 상징)으로 그리고 Stokoe(1976)가 몸짓 기호, 모방 기호, 표식 기호, 지사 기호, 명칭 기호, 어두 수형 기호로 설명하였다. 수어 구성 방법에 대한 한국수어 연구로 김승국(1983)과 석동일(1989) 연구를 소개하였다. 김승국(1983)은 기본이 되는 낱말의 기호가 대상이나 활동의 어떠한 자질을 상징하고 있고, 다른 낱말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방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사, 모방, 상형, 형지, 형동, 회의, 전주 7가지 기호 구성 방법을 소개하였다. 석동일(1989)은 김승국의 분류보다 더욱 쉽고 현실적인

용어로 수어의 구성 방법을 9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사물의 지적, 형의 사상, 동작의 사상, 형태와 동작의 동시 사상, 추상적 사상, 대표성 사상, 공통 사상, 포섭어 사상, 자의적 구성 방법 등이다.

수어의 품사에서 김승국(1983)과 석동일(1989)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김승국(1983)은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언(문법관계언은 있으나, 격조사는 없음), 처소격(에서), 유래격(부터), 공동격(과, 와), 비교격(만, 보다),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형 수어와 완료시제, 진행시제(진행완료 시제 없음), 수식언(관형사, 부사), 독립언으로 수어의 품사를 분류하였으며 석동일(1989)은 명사에서 동사가 파생되는 수어 파생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특히 석동일(1989)의 연구에서는 수어의 변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수어의 변용에는 시간과 시제의 변용, 인칭의 변용, 수-동사의 변용, 동사의 변용, 형용사의 변용이 있으며 시간과 시제의 변용에는 공간의 위치, 동사의 반복, 시제 표현, 완료 및 미완료의 표시, 사건의 순서 표시, 숫자에 의한 시제 표시가 있다. 그리고 수어 어휘의 다의어에서 한국수어 어휘의 41%가 다의어로 이는 어휘가 적으며, 수어의 기호 구성 특징과 구별할 기호가 제한된 점과 전통 수어에서 품사전환, 변칙용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석동일, 1989).

『한국수어의 이론』의 형태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내용을 <표 31>에 정리하였다.

<표 31> 최상배·안성우(2014). 한국수어의 이론-형태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수어의 형태론적 특징	형태론적 분석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론 개념과 수어소 또는 수어소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수어 어휘의 형태소 연구를 소개함</li> <li>-수어가 적은 어휘수를 파생이나 변용 등에 의해 보충한다는 석동일(1989)의 연구를 소개함</li> <li>• 공간의 활용: 시작점, 종결점, 움직임, 수 및 시제 등을 표현함</li> <li>• 수어에서의 어휘의 의미(손의 움직임에서 나타남)와 문법적 의미(공간적 배치와 신체의 움직임, 표정과 눈의 움직임) 표현</li> </ul>
	형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철관(1999) 연구를 소개함</li> <li>• 순차적 결합(또는 축차적 결합)과 동시적 결합</li> </ul>
	분류사 (Size And Space Specifiers: S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철관(1999) 연구를 소개함</li> <li>• 분류사의 개념과 역할: 수형은 대상을 대리하는 대명사의 역할과 대상을 직접 연상하게 하는 역할(유사(類辭)라고도 함)</li> <li>• 분류사의 유형: 크기와 공간을 나타내는 분류사, 취급분류사, 의미분류사, 신체분류사</li> <li>-Valli와 Lucas(2000)의 분류사 수형, 분류사 술어 연구를 소개함</li> <li>• 분류사 술어: 동작에 관련, 대상물의 속성에 따라 동사를 구성하는 손 모양을 변화하여 표현 [가다]</li> </ul>
	한국수어 어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동일(1989)의 연구를 소개함</li> <li>• 단어족 개념: 수형, 수위, 수동에서 형태적으로 공통성을 가지는 수어 단어 그룹(수형, 수위, 수동에 기초한 단어족 사례)</li> <li>• 수동에 기초한 어족이 가장 보편성 있고, 수위에 기초한 어족이 보편성이 적음</li> </ul>

		-장진권(1995)의 수형, 수위, 수동을 기초한 수어 상징의 어원적 의미와 특징 분석 및 사례 제시 연구를 소개함
	<b>수어 구성 방법</b>	-Wundt의 분류(김승국, 1983, 재인용)를 소개함 • 외현 동작으로 개념 표현에는 지사(direction), 모방(imitation) • 수어 기호에는 지사 기호와 모방 기호(모사, 표현, 상징으로 구분) -Stokoe(1976)의 수어 기호를 6가지로 분류한 연구를 소개함 • 몸짓 기호, 모방 기호, 표식 기호, 지사 기호, 명칭 기호, 어두 수형 기호 -7가지로 분류한 김승국(1983)의 연구를 소개함 • 지사, 모방, 상형, 형지, 형동, 회의, 전주 -9가지로 분류 석동일(1989)의 연구를 소개함 • 사물의 지적, 형의 사상, 동작의 사상, 형태와 동작의 동시 사상, 추상적 사상, 대표성 사상, 공통 사상, 포섭어 사상, 자의적 구성 방법
	<b>수어의 품사</b>	-김승국(1983)의 분류 연구를 소개함 •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언(문법 관계언은 있으나, 격조사는 없음), 처소격(에서), 유래격(부터), 공동격(과, 와), 비교격(만, 보다) 있음,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형 수어와 완료시제, 진행시제, 진행완료 시제 없음, 수식언(관형사, 부사), 독립언 -석동일(1989)의 수어 파생 연구를 소개함 • 명사에서 동사로의 파생: 반복이 되고, 동작 확대 • 형용사에서 명사로의 파생: 표정과 동작의 축소 • 형용사에서 동사로의 파생: 신체 동작과 표정 확대
	<b>수어의 변용 (modification)</b>	-석동일(1989)의 연구를 소개함 • 변용의 개념 소개 • 시간과 시제의 변용: 공간의 위치, 동사의 반복, 시제 표현, 완료 및 미완료의 표시, 사건의 순서 표시, 숫자에 의한 시제 표시 • 인칭의 변용: 상체 이동 동사(상체 이동에 의해 주격, 목적격을 가리킴) [알다] • 수-동사의 변용: 주어나 목적어의 수에 따라 동사 방향 바뀜 [보다] • 수-명사의 변용: 명사의 복수화 [사람들] • 동사의 변용: 동사의 움직임 형태를 바꿈으로 의미가 변함 [가다] • 형용사의 변용: 정동 변용, 강세 변용, 반복 변용
	<b>수어 어휘의 다의어</b>	-다의어 개념을 소개함 -석동일(1989)의 다의어가 수어에서 많은 이유 4가지 기술 연구를 소개함 • 한국수어 어휘의 41%가 다의어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임 첫째, 수어 어휘가 적음 둘째, 사상성, 동시성, 시각성 언어로 기호 구성에 어려움 셋째, 구별할 기호의 제한 넷째, 전통 수어에서 품사전환, 변칙용언을 고려하지 않음

#### 4.2.2 미국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미국수어 문법서인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Valli, Mulrooney, & Villanueva, 2011)』의 형태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수어 형태론에서는 형태론의 특징을 중범주로 하여 단어 형성, 동사에서 명사 파생, 합성어, 지문자, 수사 포합으로 구분하여 미국수어의 형태론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과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장인 새로운 수어 단어 형성에서는 형태론, 파생 형태론(derivational morphology), 굴절 형태론(inflectional morphology)으로 나뉘어 기술하였다. 형태론에서는 형태론의 의미와 형태소의 의미를 미국수어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예, 영어 cat과 sit, ASL CAT과 LOUSY)와 의존형태소(예, 영어 복수접미사, ASL THREE-WEEKS/ THREE-MONTHS)를 영어와 미국수어의 예를 통해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파생 형태론 과정과 굴절 형태론 과정을 기술하였는데, 파생 형태론에서는 파생어, 합성어, 지문자어, 수사 포합, 행위자 또는 동작주 접미사(agentive suffix) 등을 통해 새로운 수어 단어를 형성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파생어의 개념과 정의, 파생어 형성 과정, 접두사와 접미사 등에 대해 영어와 ASL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수어 명사들이 동사로부터 파생되는 형태들(SIT에서 CHAIR)을 소개하였다. 합성어(compounds)는 개별 수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 새로운 수어 단어(예, GIRL+SAME=SISTER)를 형성하게 되고, 지문자어들은 영어의 각 철자의 특성을 가져와 단어를 형성(예, B-A-C-K은 B-K로 사용)하게 됨을 기술하였다. 분명한 기간을 수어로 전달하기 위해 분절 구조 내에 포함하여 특정수를 수형으로 표현하는 수사 포합(numeral incorporation)에 대해서도 기술하였고(예, THREE-WEEKS/ FIVE-MONTHS), 교사(TEACHER), 변호사(LAWYER)와 같은 명사에 존재 수어를 더하는 행위자 또는 동작주 접미사를 통해 수어 단어를 형성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굴절 형태론은 영어에서 굴절 형태론의 의미와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파생 형태론이 새로운 단위를 창조한다면 굴절 형태론은 이미 존재했던 단위에 문법적 정보를 더하여 형성하는 과정으로 기술하였다(예, 영어에서 명사 s복수 접미사-명사의 의미는 남으면서 복수의 의미만 더해 짐).

두 번째 장인 명사와 동사의 파생에서는 파생 과정에서 명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표지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동사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고, 명사는 첫음절에 강세가 있으며, 명사와 동사의 강세가 다르기 때문에 두 단어의 모음의 소리 또한 차이가 있음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미국수어의 경우에도 영어의 동사와 명사처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는데, 특히 Supalla와 Newport(1978)의

명사-동사 쌍 연구를 통해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수어 Chair와 Sit은 수형, 수위, 수향은 같으나, 수동(수어의 움직임, 반복)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반복(repeats or reduplicates) 표지는 두 수어의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세 번째 장인 합성어(compounds)는 영어에서의 일반적인 합성어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고, 합성어 형성 시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를 소개하였는데, 강세의 변화(합성어의 첫 번째 단어에 있고, 두 번째 단어는 강세를 잃거나 약화)와 새로운 의미 창출이다. 즉 두 수어 단어를 합성함으로써 새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추측하기는 어려우며(예, THINK MARRY BELIEVE), 많은 모국어 수어자들도 합성어의 어원을 배우면서 놀라게 된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미국수어 합성어 형성에서 규칙-지배적 과정 네 가지 규칙을 사례와 함께 기술하였다. 즉 네 가지 규칙으로 첫 수어 접촉 정지 규칙(first contact hold rule), 단일 연속 규칙(single sequence rule), 비우세손 우선 규칙(the weak hand anticipation rule), 합성어 형성 순서 규칙(ordering of compound formation rules)을 설명하였다.

네 번째 장인 지문자(fingerspelling)에서는 지문자, 어휘화된 지문자, 어휘화 과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지문자에서는 지문자 정의와 수어 수형이 영어 문어체 상징과 닮았으나 수어는 수어로 이해해야지 낱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형태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지문자어들을 자립형태소로 보고, 지문자 표현 방법도 소개하였다. 즉 수어자들은 지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대시 기호(예, W-H-A-T)를 사용하나, 지문자 형태소를 연속적으로 산출 할 때 많은 분리된 형태소들이 단일 수어 형태소처럼 보일 수 있게 되는데, 어휘화될 경우 # (어휘화된 지문자)으로 표기한다고 하였다. 어휘화된 지문자(lexicalized fingerspelling)는 분리된 수어 단어들이 수어규칙에 기반하여 하나의 수어가 될 수 있으며, 지문자가 어휘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미국수어에서는 지문자가 어휘화되는 형성 과정을 8가지로 소개하였다. 즉 몇몇 수어들은 생략될 수 있음, 수위의 변화(the location may change), 수형의 변화(handshapes may change), 수동 첨가(movement may be added), 수향의 변화(the orientaion may change), 움직임의 반복(reduplication), 두 번째 손의 첨가(the second hand may be added), 문법 정보 포함(grammatical information may be included) 등이다.

다섯 번째 장인 수사 포함(numeral incorporation)에서는 수사 포함의 개념과 사례를 통해 기술하였다. 수사 포함 과정은 미국수어에서 매우 일반적이다. TWO-WEEKS와 THREE-WEEKS를 표현하려고 할 때 TWO와 THREE의 수형은 변화하지만, 수위, 수향, 비수지 신호는 변하지 않는다. TWO-WEEKS는 2개의 형태소(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의 의미는 분절 구조(정지와 움직임)와 수위, 수향, 비수지 신호(예, WEEK)이고



또 다른 의미는 수의 의미를 표현하는 수형이다. 전자는 의존형태소로 볼 수 있다. 미국수어 WEEK, MONTH, DAY, DOLLAR AMOUNT, PLACE IN RACE, EXACT TIME, PERIOD OF TIME, HEIGHT 등과 함께 수사 포함이 나타난다고 기술하였다.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의 형태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32>에 정리하였다.

<표 32> Valli 외(2011).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형태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단어 형성 (building new signs)	형태론	-형태소 정의, 형태소 유형(자립, 의존), 단어 형성 방법(합성, 차용, 파생, 굴절)
	파생 형태론 (derivational morphology)	-파생어, 합성어, 지문자어, 수사 포함, 행위자 또는 동작주 접미사 (agentive suffix) · 파생어 정의, 파생어 형성 과정 소개, 접사(접두사와 접미사): ASL 파생적 형태론의 사례 제시(예, SIT에서 CHAIR) · 합성어의 정의와 특성 · 지문자어 · 수사 포함 · 동작주 접미사
	굴절 형태론 (inflectional morphology)	-굴절 형태론의 개념 간략 소개 · 굴절 형태론은 이미 존재했던 단위에 문법적 정보를 더하여 창조하는 과정.
명사와 동사의 파생	동사와 명사	-명사와 동사의 파생에서의 명사와 동사 차이점 표지 · 연구 사례 : Supalla와 Newport(1978). 3가지 명사-동사 쌍 연구
합성어 (compounds)	합성어의 형성 과정	-합성어의 정의 및 특성 · Liddell 등의 연구들: 합성어 형성에서 형태론 규칙(3가지)과 음운론 규칙(3가지) 소개 -미국수어에서 합성어 형성은 규칙-지배적 과정 네 가지 소개
지문자 fingerspelling	지문자 (fingerspelling)	-지문자어(fingerspelled signs) 정의와 개념, 표기 방법
	어휘화된 지문자 (lexicalized fingerspelling)	-영어에서의 어휘화된 단어 사례, 어휘화된 지문자의 개념
	어휘화 과정 (the lexicalization process, Battison,1978)	-지문자가 어휘화되는 과정에서의 변화 소개(8가지) 수위의 변화(the location may change), 수형의 변화(handshapes may change), 수동 첨가 (movement may be added), 수향의 변화 (orientation may be added), 움직임의 반복(reduplication), 두 번째 손의 첨가, 문법 정보 포함
수사 포함 (numeral incorporation)		-수사 포함의 정의와 특성 · 미국수어에서 수사 포함이 나타나는 어휘 소개

#### 4.2.3 독일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독일수어 문법서인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Papaspyrou, Chrissostomos, von Meyenn, Alexander, Matthaei, Michaela, Herrmann, Bettina, 2008)』의 형태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독일수어 문법서에서는 형태론을 수어 형성(sign formation), 수어 분류(sort of signs) 그리고 수어의 변형(modification of signs)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첫 번째 장인 수어 형성에서는 도상성, 동시성과 수어 형성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수어는 시각적인 언어로 수어 형성에 도상성의 원리가 적용되며 도상성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손대체 기법, 손이용 기법, 손묘사 기법, 측정 기법, 지시 기법이 있다고 하였다. 손대체 기법은 주로 수형이 지시 대상 혹은 대상 물체를 상징하며, 수어 공간 내의 수위, 수향, 수동은 대상 물체의 공간적 위치, 방향, 움직임과 상응한다고 하였다. 손이용 기법에 나타나는 수어 사용자의 손은 실제의 손을 나타내며, 대상물을 만지고 잡고 사용하는 행위를 수어 사용자는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기술하였다. 손묘사 기법은 손이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되어 수동을 통해 사물의 모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손측정 기법은 손이나 손가락이 목적어의 크기나 신장을 표현하는 것으로 지시 대상의 크기와 그 경계선의 기능 및 일정한 여백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손지시 기법은 검지나 손이 상대방의 주의를(실제 혹은 가상의) 대상이나 공간 내 대상 물체의 위치로 이끄는 화살표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 기법은 대상 물체를 가리키거나 접촉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어가 지니는 동시성은 포함(수사와 부정)과 비수지 병행(마임, 마우스 제스처와 마우딩)으로 구분하였다. 수사와 부정의 경우 각각의 의미를 지니는 두 수어가 하나로 결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두 가지 의미가 한 수어로 표현되는 것으로, 지숫자 3이 달(month)이라는 수어와 결합되어 석 달이라는 수어 단어가 형성되는 것으로 예를 제시하였다. 독일수어 부정의 경우 알파 수동(그리스 알파 모양을 따라 하는 수동)을 통해 양상 동사(modal verb)의 부정형을 표현한다(예: CAN CANNOT, MAY MAY-NOT, MUST MUST-NOT)고 하였다. 비수지 병행은 수지 수어와 비수지(마임, 마우스제스처, 마우딩)신호가 함께 병행됨으로써 동시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도상성과 동시성 외에 수어 형성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으로 청인 사회와 음성언어, 외국 수어의 영향을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이 현상은 독일수어에서는 마우딩을 통해 제일 잘 나타나며 대응 수화 표현과 지문자로 시작되는 수어 표현도 이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 장인 수어 분류에서는 명사, 동사, 대명사, 형용사와 시제 수어에 관해 설명하였다. 명사는 고유명사와 사물 표지로 분류하고, 동사는 단순동사와 복합동사로 구분하였다. 단순동사는 복합동사와 달리 형태의 변화가 없는 동사를 말하며, 수위를 통해서 신체근접동사(body anchored)와 몸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동사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복합동사는 손 대체 동사, 손이용동사와 일치동사로 구분하였다. 손 대체 동사는 도상성 원리인 손 대체 기법으로 분석이 되는 동사로 설명하였다. 독일수어의 손 대체 동사에서 나타나는 일곱 개의 수형은 편 손 수형, 4-형 수형, 손가락 벌린 수형, 검지 수형, 3-수형, V-수형과 Y-수형이라고 하였다. 손이용 동사는 손이용 기법으로 형성된 동사로 흔히 사용되는 수형으로 F-수형, C-수형, 손가락 굽힌-수형과 납작하고 각형을 위한 수형을 소개하였다. 일치동사는 수동을 통해서 주어와 목적어 각각에 일치하는 경우(bidirectional transfer verbs)와 오직 목적어에 일치하는 경우(monodirectional transfer verbs)로 설명하였다. 일치동사가 주어와 목적어와 일치하는 것을 수동으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 'AUF'라는 수어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하였으며, 독일수어에는 일치동사 중 의무적으로 AUF와 함께 나타나는 일치동사들이 있다고 하였다.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소유대명사, 부정대명사와 의문대명사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형용사는 단순형용사, 묘사형용사와 수량형용사로 분류하였으며, 단순형용사는 수어 변형이 불가하지만 묘사형용사와 수량형용사는 묘사 및 측정하는 목적어 따라 변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제 수어는 세 가지 타임라인(timeline)을 바탕으로 시제를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첫 타임라인은 수어 화자 어깨에서 앞과 뒤로 그려진다. 미래를 표현할 때는 타임라인을 수어 화자 앞으로 사용하며 과거를 표현할 때는 머리와 어깨 뒤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따르는 독일수어는 GESTERN '어제', JETZT '지금', MORGEN '내일' 등이 있다고 하였다. 어깨 타임라인은 수어 화자 가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슴 앞에 타임라인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시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며 그 예로 독일수어 DANN '그때', SPAETER '그 후', VORHER '그 전'을 들었다. 또한 타임라인을 90도로 돌려서 수어 화자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까지 상상해서 시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장인 수어의 변형(modification)에서는 복수, 비교(comparison), 시제 상(temporal aspect)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어의 기본형이 변형된다는 뜻으로 복수 변형은 수어 동사와 명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동사의 경우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째, 수어 동사를 살짝 다른 위치에서 반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STERBEN '죽다' 동사를 오른쪽에서 중간에서 왼쪽에서 하면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다. RESERVIEREN '예약하다' 동사를 여러 위치에서 반복하면 여러 곳에 예약했다는 의미를 뜻한다. 둘째, 손 대체 동사를 통해서 복수를 표현하는 방식

으로 손 대체 동사의 수형이 수동을 통해서 여러 개의 사물이 한 줄에 있는 모습, 쌓아 올린 모습, 싸여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로 설명하였다(예: 한국수어 자동차\_분류사\_수형을 양손으로 하고 우세손이 비우세 수형 뒤로 수동을 이루며 자동차들이 한 줄에 서 있다는 것을 표현함). 셋째, 일치동사를 Z자형으로 하는 것이다. GEBEN ‘주다’ 수어를 여러 번 반복하는데, 시작점은 같은 데서 시작하고 끝점의 위치를 이동하며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 사람한테 각각 준다는 뜻이 된다고 하였다. 넷째, GEBEN ‘주다’ 일치동사를 반원 모양으로 하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준다는 뜻으로 의미가 바뀐다. 명사의 복수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반복할 때 동사와 같이 살짝 위치를 옆으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독일수어 형용사의 COMPARATIVE ‘비교’는 수동을 통해서 표현한다. 기본 수동의 속도를 더 빨리하거나 더 느리게, 더 크게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수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동이 더 커지고 빨라져서 형용사 의미가 더 강해지는 경우의 예로 GUT ‘좋다’, BESSER ‘더 좋다’, AM-BESTEN ‘제일 좋다’를 들었다. 수동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형용사 의미를 강화하는 경우의 예는 SUESS ‘달다’, SUESS-SEHR ‘많이 달다’ 등이 있다고 하였다. 시제는 완료, 행동의 지속, 행동의 빈도로 나누었다. 완료의 경우 FERTIG ‘끝’이란 수어를 통해서 진행은 수어의 수동을 통해서 표현한다. 예를 들어, TELEFON- KLINGELN ‘전화가 울리다’ 수어를 표현할 때 Y-수형을 흔드는 형태로 표현하고, 전화가 계속해서 울린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흔들을 지속해줌으로써 표현한다. 빛 또는 조명이 계속하여 비친다는 표현을 할 때는 빛이라는 수어를 지속해서 반복한다. 행동의 빈도수도 반복을 통해 표현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수동이 아니라 중간에 쉬면서 반복을 한다.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의 형태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33>에 정리하였다.

<표 33> Papaspyrou 외(2008):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형태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수어 형성 (Sign formation)	도상성 (Iconicity)	-손대체(substitutor), 손이용(manipulator), 손묘사(sketch), 손측정(measuring), 손지시(index)에 대해 설명함
	동시성 (Simultaneity)	-포함(수와 부정)과 수지와 비수지 병행(마임, 마우스 제스처와 마우딩)을 구분함
	수어 형성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	-농인사회는 소수사회기 때문에 청인사회와 음성언어, 외국 수어의 영향 받음을 설명함 -독일어의 영향은 마우딩을 통해서 확인함 -대응 수어와 지화로 시작하는 수어(initialized signs)를 예시로 들
수어 분류 (Sort of signs)	명사	-고유명사와 사물 표지로 분류함
	동사	-단순동사와 복합동사로 분류함, 복합동사는 손 대체 동사, 손 이용 동사와 일치동사로 분류함

	대명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소유대명사, 부정대명사(Indefinite pronoun), 의문대명사(Interrogative pronoun)에 대해 설명함
	형용사	-단순 형용사, 묘사 형용사, 수량 형용사(Measure adjective)에 대해 설명함
	시제 수어	-Timeline(현재완료, 과거완료)에 대해 설명함
수어의 변형 (Modification of signs)	복수성	-동사의 복수 형태를 4가지 유형(단순동사의 반복, 대용 동사 사용, 전이 동사의 Z자형 움직임, 전이 동사의 활 모양 움직임)으로 설명함
		-명사의 복수의 실현 방법을 설명함
	비교	-수동을 통해서 표현함 [COMPARATIVE]을 설명함
	시제	-완료, 행동의 진행, 행동의 빈도로 구분하여 설명함

#### 4.2.4 호주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호주수어 문법책인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Johnston & Schembri, 2007)』의 형태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호주수어 형태론은 수어 형태소 유형, 형태학적 과정, 수어 형성 과정, 수어 변형과정 등 네 개의 대범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첫 번째 장은 수어의 형태소 유형과 호주수어의 생산성 측면에 관해 기술하였다. 형태소에서는 구어와 수어의 형태소 개념과 유형 및 그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호주수어의 형태소 유형을 자립어근(free root) 형태소, 자립 비어근(free not-root) 형태소, 의존어근(bound root) 형태소, 의존 비어근(bound not-root) 형태소 또는 접사(affix)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자립어근형태소는 원래 형태대로 사용되거나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함으로써 변형하여 표현할 수 있다(예, ASK, AGREE). 의존어근 형태소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단어를 형성하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소다. 예를 들어, 호주수어 4시에서 시각(o'clock)을 의미하는 비우세손에서의 수형은 자립형태소는 아니지만 실질형태소이다. 자립 비어근 형태소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수 없는 형태소로 BUT, WHO와 같은 문법적 역할을 하는 수어들이 있다. 의존 비어근 형태소 또는 접사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항상 실질형태소와 결합하여 사용되므로 호주수어에서는 두 명사 간에 소유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명사의 소유격 접미사를 예로 소개하였다. 또한 언어의 특징 중 하나는 창조성이며, 이러한 개념은 언어의 형태학적 구조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형태소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분리성, 비생산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제시하고, 호주수어의 분리성과 생산성, 비생산성의

사례들을 기술하였으며, 호주수어가 형태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장인 형태학적 과정에서는 파생과 굴절의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기존 연구물들에서 수어 형성(sign formation)을 일반적으로 파생(derivation)으로, 수어 변형(sign modification)을 굴절(inflexion)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세 번째 장인 수어 형성 과정(sign formation processes)에서는 호주수어의 형성에 대한 주요한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는데, 어휘의 확장(lexical extension), 중복 또는 반복(reduplication)-명사와 동사 쌍, 접사 첨가법(affixation), 합성법(compounding), 수사 포함(numeral incorporation) 등 다섯 개의 중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어휘의 확장에서는 호주수어의 어휘 확장 형성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어에서처럼 기존의 단어에서 의미를 확장하고(예, 구어에서 close, open, save 등의 단어들은 원래의 뜻도 유지되지만, 컴퓨터 용어의 명령어로 사용되기도 함. 호주수어 사용자도 이 컴퓨터 용어를 수어로 사용하고 있음), 수어의 변형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기도 한다고 하였다(예, PAY+rept[원래 의미는 ‘정기적으로 돈을 내다’]를 ‘빌리다(rent)’나 ‘대출하다(mortgage)’로 사용할 수도 있고, EARN+rept(원래 의미는 ‘정기적으로 돈을 벌다’)는 ‘수입’, ‘임금’, ‘연금’으로 사용). 또한 특정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을 수어에 적용하여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거나, 기존 어휘 목록에서 찾을 수 있는 어휘 확장의 다양한 예(AIRPORT, BOW-TIE, MASK, BRIDGE, CHAT)를 소개하였다. 둘째, 중복 또는 반복(reduplication)-명사와 동사 쌍에서는 ‘reduplication’의 개념으로 일부 명사와 동사를 구분하는데, reduplication 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reduplication 표지 이외 동사나 명사의 해석은 맥락(context)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reduplication 표지와 같은 하나의 문법적인 특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함도 제시하였다. 셋째, 접사 첨가법(affixation)은 의존접사와 자립형태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호주수어 문법에서 상대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호주수어에서는 부정 접미사, 재귀 접사, 소유 접미사 등이 발견되었으나, 제한된 형태의 수어에서 발견되었고, 생산적인 단어 형성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부정 접미사(영국수어 ‘NOT HAVE’, 호주수어 ‘not do’ / ‘not finish’)의 경우 단독적인 형태(자립형태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형태가 정말 자립형태소인지 접사인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재귀 접사(reflexive affix)의 경우에도 호주수어 사용에 대한 연구(Jeanes et al., 1972)에서 ‘SELF’를 자립 형태소로 보았으나 부정 접미사 연구와 유사하게 자립형태소인지 접사인지에 대해 연구가 더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소유접미사(Possessive suffix)는 수어 형성이라기보다 수어 변형의 예지만 접사 부분에서 함께 다루고 있었다. 이 형태소는 두 명사 간에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자립 형태소로 사용되지 않으며, 일부 호주수어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가족 관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넷째, 합성법(compounding)에서는 합성법의 개념과 합성어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합성법이란 새로운 수어 단어를 형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자립 형태소를 결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어 PARENTS는 MOTHER^FATHER 자립 형태소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 영어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단어들이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의미와 강세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호주수어의 경우에는 의미와 형태가 변한다고 하였다. Klima와 Bellugi(1979), Brennan(1990)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합성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주요한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합성어의 첫 번째 수어(앞 어근)는 움직임이 줄어들거나 짧아진다. 둘째, 두 번째 수어(뒤 어근)에서 반복해야 할 때 움직임을 반복하지 않는다. 셋째, 합성어의 두 번째 수어를 할 때 두 손을 사용한다면, 비우세손은 두 번째 수어가 시작될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합성어를 시작할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넷째, 더 빠르고 부드럽게 표현함으로써 두 요소 간의 움직임이 전이되어 하나의 단위로 표현된다. 다섯째, 수어의 전체적인 지속 시간은 하나의 수어를 할 때와 동일하다. 또한 형태 변화와 더불어 합성어의 의미 변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구어에서 합성어의 의미가 변화하듯이 수어에서도 각각의 수어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해도 합성어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우며, 합성 수어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른 어휘의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는 혼성어(Blends or portmanteau word)와 호주수어가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중요한 방법으로 번역차용(loan translation)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다섯째, 수사 포함(numeral incorporation)에서는 수사 포함의 의미와 호주수어에서의 나타나는 시간수어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수어를 하면서 의존 실질 형태소의 형태로 형성(Liddell, 1996)한다는 Liddell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나, 접사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호주수어의 사례가 적절한 분석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제시하였고, 호주수어에서 나타나는 수사 포함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네 번째 장인 수어 변형 과정(sign modification processes)에서는 다양한 수어 연구를 기반으로 수어도 구어에서 굴절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간과 움직임을 기반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호주수어의 변형에 대한 주요한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는데, 명사의 변형과 동사의 변형 등 2개의 중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명사의 변형에서는 명사 변형 특성과 명사의 변형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동사의 변형에서는 구어에서 사람과 숫자 일치, 사람과 위치, 수, 양태(manner), 상(aspect), 강조 등 다섯 가지 주요한 특성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명사의 변형(noun modification)은 구어에서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나 구어의 굴절과

다른 변형들도 많이 나타남을 기술하였다. 호주수어에서 명사의 변형은 동사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인데, 4가지 정도로 그 특성을 기술하였다. 첫째, 수어 공간에서의 위치에 대한 수어 단어 배열을 통한 변형 즉 공간에 참조물의 위치 공간을 설정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어 사용자가 방의 배치를 설명할 경우 창문과 문의 상대적인 위치를 표상하기 위해서 [창문]은 수어 공간의 왼쪽, [문]은 수어 공간의 오른쪽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공간 정보와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 명사의 반복을 동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과 아이와 같은 명사 수어 표현에서 공간 정보와 반복을 통해 변형이 가능하다. 두 명의 아이 표현은 두 번 반복하거나, 두 번 반복 이상은 세 개 이상의 참조물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여자와 사과처럼 수어 사용자의 신체 가까이에서 표현되는 명사 수어는 공간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신체를 이동하거나 고개 돌리기 등으로 변형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호주수어는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 반복을 할 때도 있고, 반복 없이 복수를 표현하기도 하는 등 선택적인 변형을 나타내며, 동사를 변형하거나 위치 동사를 묘사하고, 복수를 표현하는 한정사 수어와 함께 결합하여 표현하는 등 다른 복수 표현 방법도 소개하였다. 셋째, 명사 수어 형태를 포함한 참조물의 크기와 모양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명사의 변형으로 이것은 크기와 모양과 관련된 명사 수어에서만 가능하다. 넷째, 접사를 동반한 명사의 변형으로 앞에서 제시했던 소유 접사가 해당된다. 동사의 변형(verb modification)은 Padden(1988)의 연구와 Sutton-Spence와 Woll(1999), Sandler와 Lillo-Martin(2006)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동사 변형의 다섯 가지 주요한 형태를 제시하였다. 첫째,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과 방향의 변형(사람), 행동의 위치나 관련된 대화 참여자들의 위치의 변형(위치), 사람과 위치를 동시에 변형(사람과 위치). 둘째, 참조물이나 참여자의 수를 표현하기 위한 변형(수), 셋째, 동사의 행동이 어떻게 적시에 나타나는지 표현하기 위한 움직임의 변형(상, aspect), 넷째, 어떻게 행동이 일어나는지 표현하기 위한 변형(양태, manner), 다섯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변형(강조, intensification)이다. 다섯 가지 주요한 형태의 구체적인 호주수어 사례와 이슈들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장인 호주수어의 비수지 자질에서는 비수지 자질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 기술하였다. 호주수어에서 다양한 비수지 신호들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독립적인 어휘로 사용되는 빈도가 낮아 의존 형태소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미국수어와 영국수어의 비수지 신호 “ee”와 “cs”와 호주수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비수지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즉 호주수어에서도 “ee”와 “cs” 비수지 수어들은 강조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으며, 수어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큰 사물의 크기에 따라 오픈된 입술과 부풀어진 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분류사 구문과 함께 표현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어의 비수지 요소들이 의미 단위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실제적인 증거들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의 형태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34>에 정리하였다.

<표 34> Johnston & Schembri(2007). Australian Sign Language-형태론

대 범주	중 범주	세부 내용
수어의 형태소	형태소 유형	-구어의 형태소 분류(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와 수어의 형태소 분류(자립 어근 형태소, 자립 비어근 형태소, 의존 어근 형태소, 의존 비어근(접사)형태소)를 설명함
	생산성 수어와 비생산성 수어	-언어의 형태론적 구조 연구시 창조성을 강조함 -형태소라는 것은 비생산성, 생산성, 분리성 증거 필요성을 제안함 -호주수어의 분리성, 생산성과 비생산성 사례를 제시함
형태학적 과정 : 파생과 굴절		-파생은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기술함 -굴절은 단어의 변형과정으로 기술함
수어 형성 과정(formation)	어휘 확장	-어휘 확장의 의미와 호주수어의 어휘 확장 사례를 제시함
	중첩 또는 반복 (reduplication) -명사와 동사의 쌍	-의미의 변이를 위해 움직임의 반복 사용 특성을 기술함 -명사와 동사의 쌍 연구를 통해 반복이 명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과 반복이 아닌 문맥에서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접사 첨가 (affixation)	-부정 접미사, 재귀 접사(reflexive affix), 소유 접미사 (Possessive suffix)를 설명함 -호주수어에서는 제한된 맥락에서만 산출되고, 생산적인 단어 형성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음을 기술함
	합성 (compounding)	-합성법의 정의와 합성어 형성 과정을 소개함 -합성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주요한 5가지 유형을 제시함 -혼성어와 차용을 통한 합성 과정을 기술함
	수사 포함 (numeral incorporation)	-수사 포함의 정의와 특성의 사례를 제시함
수어 변형 과정 (modification)	명사의 변형	-호주수어에서의 명사 변형 특성과 명사의 변형 과정을 소개함
	동사의 변형	-동사 변형의 다섯 가지 주요한 형태를 설명함: 사람과 위치, 수(number), 양태(Manner), 상(Aspect), 강조(intensification)
비수지 자질 (features)		-호주수어의 비수지 자질의 특징과 역할을 설명함 -미국수어, 영국수어, 호주수어에서의 비수지 신호의 특성을 설명함 -수어의 비수지 요소들은 의미 단위로 파악하는지 의문을 제기함

#### 4.2.5 영국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영국수어 문법책인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Sutton-Spence & Woll, 1999)』의 형태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영국수어의 형태론을 알아보기 위해 형태론과 형태소(6장), 상과 양태, 서법(7장), 차용과 이름 수어(12장) 등을 선정하여 세 개의 대범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첫 번째 장인 형태론과 형태소는 형태소의 정의, 수어의 형태소 유형, 복수 형태소, 동사 형태론, 문법적 분류 등 다섯 가지 중범주로 구분하였다. 형태소 정의에서는 수어 형태소의 의미와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 형태소(single morphemes, monomorphemic)와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다형태소(polymorphemic) 등 형태소의 유형을 소개하였다. 수어에서는 수동 또는 수형의 수가 형태소의 수와 일치하지 않으며, 더 짧은 수어는 하나의 형태소를 갖고, 더 긴 수어는 두 개의 형태소를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RED와 TRUE는 하나의 형태소와 하나의 움직임이 있으나, MAGIC은 하나의 형태소와 두 개의 움직임이 있다. 수어의 형태소 유형에서는 수어 단어를 단일 형태소(자립형태소)와 다형태소로 나누고, 다형태소의 하위 범주를 두개 이상의 자립형태소(합성어), 의존형태소와 자립형태소의 결합, 두 개 이상의 의존 형태소의 결합으로 나눠 제시하였다. 특히 수어에서 두 개 이상의 자립형태소(합성어)의 특성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는데, 가장 관심을 갖고 기술한 것은 합성어를 조음할 때 두 개 이상의 분리된 수어를 조음하는데도 시간이 덜 걸린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합성어 유형을 동시적 합성어와 연속적 합성어로 구분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사례도 제시하였다. 복수 형태소에서는 영어의 복수 형태소 /s/의 특징과 기본 규칙을 기술하고, 영국수어 복수 형성 방법을 기술하였다. 영어는 복수형을 만들 때 명사에 복수형태소를 첨가하여 형성하는데, 수어는 단어 끝에 첨가하거나 더하는 규칙은 없으나 자립형태소와 분리 사용하여 명사 앞이나 뒤에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수어에서 복수형은 위치를 다르게 하여 반복하기, 수량사(quantifiers) 사용하기(예, 수량 수어는 명사 이전에 나타나거나, HE BUY TWO CAKE 또는 명사 전 후에 수량사를 두 번 사용 HE BUY TEN CAKE TEN), 대용형(proform)의 사용하기(예, 대용형이 다른 위치에서 분명하게 반복되었다면 이것은 장소에 위치한 침대의 수를 의미하나, 옆으로 움직이는 수동을 표현했다면 침대들이 많다는 의미를 표현), 수량사와 분포를 결합하여 사용하기 등을 통해 형성됨을 설명하였다. 동사 형태론(verb morphology)에서는 동사에서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특히 영국수어 동사는 행위를 한번 이상 수행하는 지와 한 명이상의 사람이 행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반복과 분포 움직임 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본 문법서에서는 문법적 분류에서 명사, 동사는 간략하게 기술하였고, 형용사는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형용사의 개념과 종류, 영국수어에서 형용사가 영어에 비해 더 적은 이유, 강도를 표현하기 위한 BSL 형용사의 변형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형용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한정 형용사(attributive adjective)와 서술 형용사(predicative adjective) 등 두 종류를 제시하였다. BSL 한정 형용사는 명사 앞(예, HOOT FOOD), 명사 뒤(예, SHIRT WHITE), 명사 내 포함(예, SMALL-SPOTS)되어 사용되나, 대부분의 사례가 명사구 내(예, SMALL-BOX)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서술 형용사는 동사와 동사구(예, MAN INDEX TALL, the man is tall)에서 사용된다고 하였다. BSL 형용사 연구는 거의 없으며 용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영어에 비해 수어에서 그 사례가 적은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째, 몇몇 형용사는 명사 내에 포함되어 있어 형용사로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수어의 크기는 참조물의 크기를 가리키거나 수형이 그 크기를 가리키거나 참조물의 형태로 표현(예, long, short 등)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분리된 형용사들은 몇몇 수어 단어들로 사용되는데, 수어 크기 변화가 항상 전체 참조물의 크기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예, 만일 'BIRD bigger'를 수어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의미는 'big bird'라기보다는 'big beaks'). 둘째, BSL 서술 형용사는 영어의 서술형용사(predicate adjective)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the man is big'을 수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동일한 수어표현은 'MAN BIG'으로 동사의 한 종류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또한 BSL 형용사들은 강도를 보이면서 변형될 수 있는데, 전치수식어(premodifier)를 더하기, 다른 수어로 대체(substitute)하기(예, TIRED, EXHAUSTED), 강도(intensity)를 표시하기 위해 굴절하기(예, LONG vs. VERY-LONG), 강도 표시를 위해 비수지 자질(non-manual features) 사용하기 등 네 가지의 특성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은 다른 문헌에서는 수어 형성과 수어 변형의 하위 특성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본 문헌에서는 수어의 독특한 특성으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먼저 두 번째 장인 상, 양태, 서법에서는 상, 양태, 서법의 개념을 영어와 비교하여 그 특성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상(aspect)에서는 상의 굴절, 분리된 상의 표지(완료의미, BEEN 접미사), 상을 표현하기 위한 수어의 동시성(양손이 각각 다른 사건을 표현) 특성, 상태 동사와 동적 동사(Stative and dynamic verbs) 등을 소개하였다. 양태(manner)에서는 양태의 정의와 특성, 수어에서의 양태 특성(양태부사, 동사의 변화, 얼굴 표정과 동사의 움직임 변화), 영어에서의 양태 특성 등을 소개하였다. 서법(mood)에서는 서법의 정의, 영어와 수어에서의 서법 특성 비교, 서법의 세 가지 표지(2개 수지적 방법과 1개 비수지적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차용과 이름 수어에서는 차용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다른 수어에서 BSL로 차용, 영어로부터 차용, 번역 차용(Loan translations), 지문자, 음운론과 형태론, 영어철자와

형태론, 수지형태, 영국수어와 영어에서 수어자의 영향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또한 명칭 수어(name signs)에서는 브랜드 이름, 장소 이름 수어, 개인 이름 수어, 수어와 구어에서 이름 사용의 차이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의 형태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35>에 요약하였다.

<표 35> Sutton-Spence & Woll(1999).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형태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형태론과 형태소	형태소 정의	-형태소의 의미와 특징
	수어의 형태소 유형	-단일 형태소(monomorphemic), 다형태소(polymorphemic)의 3가지 유형 (두 개 이상의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의 결합, 두 개 이상의 의존 형태소의 결합)
	복수 형태소	-BSL의 복수 단어 형성 특성(자립 형태소와 분리하여 사용하여 명사 앞이나 뒤에 표현) · 반복: 위치를 다르게 하여 각 반복 분포 · BSL에서 수 표지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대용형의 사용 · 수량사와 분포를 결합하여 사용
	동사 형태론	-동사에서 수 정보 · BSL 동사는 행위를 한번 이상 수행하는 지와 한 명이상 사람이 행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문법적 분류	-명사, 동사 간략 설명 -형용사: 형용사의 개념과 종류, 영어에 비해 그 수가 더 적은 이유, BSL 형용사 변형(강도표현)
상, 양태, 서법 (Aspect, manner, and mood)	상(aspect)	-상의 굴절, 분리된 상표지(완료의미, BEEN 접미사), 상을 표현하기 위한 수어의 동시성(양손이 각각 다른 사건을 표현), 상태동사와 동적동사 (Stative and dynamic verbs), 영어의 상 특성
	양태(manner)	-양태의 정의와 특성, 수어에서 양태특성(양태부사, 동사의 변화, 얼굴 표정과 동사의 움직임 변화), 영어에서의(부사와 동사사용) 양태 특성
	서법(mood)	-서법의 정의, 영어와 수어 서법 특성 비교, 서법 세 가지 표지(두 개 수지 방법과 한 개 비수지 방법)
차용과 명칭 수어 (borrowing and name signs)	차용 (borrowing)	-다른 수어에서 BSL로 차용, 영어로부터 차용, 번역 차용(Loan translations), 지문자, 음운론과 형태론, 영어철자와 형태론, 수지 형태, 영국수어와 영어에서 수어 사용자의 영향 등 기술
	명칭 수어 (name signs)	-브랜드 이름, 장소 이름 수어, 개인 이름 수어, 수어와 구어에서 이름 사용의 차이 특성

#### 4.2.6 국외 수어학 개론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수어학 개론서인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Baker, Bogaerde, Pfau & Schermer (Eds.), 2016)』의 형태론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 개론서의 형태론에서는 단어 형성, 합성, 파생, 굴절, 포합과 분류사 등 다섯 가지의 주제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장인 단어 형성에서는 일반적인 형태학적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복합어를 형성할 때 수어와 구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수어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학적 변형이 나타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라고 기술하였다. 그 이유는 음운론적 요소(수형, 수동, 비수지 신호)가 형태소로 기능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에 변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기술하였다.

두 번째 장인 합성(compounding)에서는 수어에서의 합성어 정의, 합성어 유형(병렬 합성어와 종속합성어), 합성어 형성 과정 시 음운론적 변화(리듬변형, 수형의 역행 동화)와 형태 변화(움직임의 감소, 생략, 변화, 수형 동화, 비우세손으로의 번짐), 의미 변화를 기술하였다.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드는 것으로 하나의 수어를 표현 한 뒤에 다른 수어가 이어지는 병렬합성어(a coordinated compound)와 핵심부분과 종속부분으로 구성되는 종속합성어(subordinated compounds)를 소개하였다. 병렬합성어는 수어가 변형되지 않고 각각의 의미가 더해지며, 두 단어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나 각 수어의 움직임은 줄어든다(예, PARENTS, WEEKEND). 종속합성어는 오른쪽에 있는 요소가 문법적인 범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성어의 오른쪽 요소는 합성어의 핵심이고, 합성어 왼쪽 요소는 수식하거나 명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예, BLACK^NAME, bad reputation). 합성어 형성 과정 시 음운론적 변화에서는 리듬변형이 관찰되는데, 두 개의 수어로 구성된 합성어를 표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나의 수어를 표현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같다고 하였다. 즉 두 개의 수어로 구성된 합성어를 표현할 때 수어는 각각의 수어 단어를 표현할 때 보다 시간 짧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수어 합성에서 두 수어들은 같은 수형을 나타내는 수형 역행 동화(예, 스웨덴 수어, RED^COMB ‘rooster’) 특성을 기술하였다. 합성어 형성 과정 시 많은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예로 움직임의 감소, 생략, 변화, 수형 동화, 비우세손으로의 번짐 등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수어로 구성된 합성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변화하는데, 각각의 수어 단어의 의미로는 합성어의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고 기술하였다.

세 번째 장인 파생(Derivation)에서는 수어에서의 파생어 개념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파생어는 의존형태소와 결합하여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FEEL^ZERO(not feel at all)

복합 수어(complex sign)는 동사 FEEL과 부정접미사 ZERO와 결합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합성어와 유사하게 수어 파생어는 움직임도 감소되고, 의미에서도 변화를 나타나는데, 합성어와 차이는 부정접미사 ZERO의 경우에서 보듯이 동사에 붙어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한 손으로 하는 수어와 결합되어 사용된다. 구어에서는 순차적인 파생 과정으로 단어 형성이 일반적이나, 수어에서는 순차적인 파생어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수어의 단어 형성 과정에서 매우 적게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수어에서 동시적이고 범주가 바뀐 파생(예, 동사로부터 명사의 파생)은 수어의 수지 및 비수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비수지적 변형이 수어의 파생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특성이 축소와 확장인데, 축소(diminutive)와 확장(augmentative)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단어의 범주가 변하지 않는 두 개의 동시적 파생 과정이다. 이 두 과정은 여러 수어에서 많은 명사에 적용될 수 있으며, 네덜란드 수어의 사례(예, 축소는 뺨을 빨아들이고 입술을 오므리고 ‘)’로 표시, 확장은 볼을 뽕뽕하게 부풀리고 혀끝을 내미는 것을 조합하여 ‘( )’로 표시)를 소개하였다. 특히 비수지 변화는 수지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사례도 함께 제시하였다.

네 번째 장인 굴절(inflexion)에서는 다양한 굴절 과정(시제와 상, 동사 일치, 복수성 등)을 소개하였다. 굴절 단어 형성 과정은 어휘적 단어 형성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사적 단어 형성으로 본다. 시제와 상(tense and aspect)에서는 다양한 수어에서 나타나는 시제표현을 소개하였고, 상의 개념과 상 굴절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 시제는 시간 선상에서 하나의 사건이 시간 선상에 위치한 또 다른 시점과 관련하여 위치하는 것이다. 수어에서 시제 정보를 표현할 때 부사를 통한 표현(예, Flemish Sign Language에서 yesterday, today), 수동의 방향을 통한 표현(예, 네덜란드 수어 HAPPEN은 수어 표현 시 과거, 현재, 미래시제를 표현), 비수지 시제 전략을 사용한 표현(예, 이탈리아 수어의 어깨 위치 변화로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 등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변형은 모든 동사에 적용되므로 시제 굴절을 소개하려 하였으나, 시제 굴절은 수어에서 거의 찾기 어려워 상 굴절을 제시한다고 설명하였다. 시제와 유사하게 상(aspect)은 시간 개념과 관련된 문법적 범주로 사건의 내부적인 시간 구조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수어에서 상은 기본 수어의 반복과 결합하여 특정 움직임 변화에 의해 표시되며 영어에서 상의 정보는 접미사 -ing가 사건의 상적인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의 형태는 지속적인 의미를 표현하는데, 수어의 경우 보통 커다란 원 모양 움직임이나 기본 수어를 반복함으로써 표현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수어에서 상의 표시는 동사를 반복이나 접사를 통해 변형(예, LOOK-AT, LOOK-AT(HAB), LOOK-AT(ITE)) 시키는 것이다. 또한 자립형태소를 동반하는 경우를 소개하였는데, 이스라엘 수어에서는 완료표시로 ALREADY라고 주석을 단다고 하였다(예, WEEK FOLLOWING INDEX(dual))

ALREADY MARRY).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 수어에서도 발견되며, 여기서 사용된 ‘already’는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어휘적인 요소를 문법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어와 구어 모두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것을 문법화(grammaticalization)라고 기술하였다. 일치(agreement)에서는 수어 일치 연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동사의 공간적 변형과 관련 이슈에 대해 기술하였다. 일치는 인칭, 수, 성과 같은 어떤 특징에 대해서 두 요소 간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지금까지 연구된 문헌에서 수어는 수어 공간의 위치에 의해 특정 동사를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위치는 담화에 있는 참조 대상자의 실제 위치일 수도 있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위치일 수도 있다. 또한 위치는 보통 가리키기 수어(예, INDEX)를 사용하여 나타내나 눈맞춤이나 분류사의 사용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어에서 일부 동사 수어들은 수동과 수향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 일치를 시킬 수 있다. 네덜란드 수어에서 위치와 관련된 가리키기 수어는 보통 명사 뒤에 나타나는데, 스페인 수어에서는 명사 앞에 나타난다. 특히 동사 일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인칭(person)에 관한 것으로 구어와 달리 수어에서 인칭을 구별하는 다양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복수성(Pluralization)에서는 구어와 수어의 복수 단어 형성 방법을 기술하였다. 구어에서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드는 주요 전략으로 접사(affixation), 반복(reduplication), zero 표지(zero marking)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수어에서는 복수형 단어를 형성하기 위해 반복(reduplication) 표지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 수어의 경우, 한 손으로 표현하는 명사는 반복이 옆으로 움직이면서 표현(예, 아이, 아이들)되나, 두 손으로 표현하는 명사는 위치 변화 없이 반복(예, 책)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반복되고 복잡한 움직임이 있는 명사들은 반복(음운론적 제약)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명사의 복수형은 “ø”로 표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복수 단어 형성에서 국가 간의 수어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예를 들어, 신체와 관련된 수어 안경의 경우 네덜란드수어에서는 반복이 있으나, 독일 수어에서는 신체와 관련된 수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복이 없다고 하였다.

다섯째 장인 포합과 분류사에서는 포합과 분류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두 현상은 구어에서도 나타나며, 이 두 가지 단어 형성 과정을 따로 다룬 이유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어 형성에서 어느 형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단어 형성에서 전혀 다른 형태가 구성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포합(incorporation)은 파생과 합성과는 다르게 어휘에서 두 요소가 결합하지 않고, 통사 구조 내에 있는 것이며, 굴절과 다르게 두 개의 자립요소들이 결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수어 단어를 형성하는 것으로 수사 포합(numeral incorporation)을 소개하였으며,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분류사(classification)는

의존 형태소가 명사의 특정한 의미나 형식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론적 과정으로 수어의 분류사는 모든 동사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형의 변화가 필요한 움직임이나 위치 동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수어 분류사의 유형으로 개체분류사(entity classifiers)와 취급분류사(handle classifiers)를 소개하였다. 또한 수어에서 분류사 분석과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하였다. 즉 분류사를 포함의 한 형태로 볼 것인지, 일치의 특별한 경우로 볼 것인지, 문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스처로 볼 것인지 등이었다.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의 형태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36>에 요약하였다.

<표 36> Baker 외(2016).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형태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단어 형성: 순차성과 동시성 (Word formation: sequentiality versus simultaneity)		-구어 단어 형성 과정(순차성과 동시성)의 사례 제시 -수어 단어 형성 과정: 동시성의 사례 제시
합성 (Compounding)		-수어에서 합성어 개념 -합성어 유형: 병렬합성어, 종속합성어 -합성어 형성 과정 시 변화 특성: 움직임의 감소, 생략, 변화, 수형 동화, 비우세손 변경
파생 (Derivation)		-수어에서의 파생어 개념과 특성 -파생어 유형 · 순차적 파생어: 드물게 나타남 · 동시적 파생어: 움직임 변화(반복), 비수지 변형(축소, 확장), 전환 파생
굴절 (Inflection)	시제와 상 (tense and aspect)	-다양한 수어에서의 시제 특성 · 부사를 통한 표현, 수동의 방향을 통한 표현, 비수지 시제 전략을 사용한 표현 -상의 개념과 상 굴절 특성 · 기본 수어의 반복과 결합하여 특정 움직임 변화에 의해 표시(진행형 수어표현: 보통 커다란 원 모양 움직임이나 기본 수어를 반복) · 미국수어: 동사를 반복이나 접사를 통해 변형 · 이스라엘수어: 자립 형태소를 동반하는 경우
	일치 (agreement)	-수어 일치 연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동사의 공간적 변형과 관련 이슈 · 위치 표현: 가리키기(예, INDEX), 눈 맞춤이나 분류사의 사용 · 수동과 수향에 의해 주어와 목적어 일치
	복수성 (Pluralization)	-구어에서 복수 단어 형성 방법 -수어의 복수 단어 형성 방법 · 독일수어 사례: 한 손으로 표현하는 명사는 반복이 옆으로 움직이면서 표현, 두 손으로 표현하는 명사는 위치 변화 없이 반복(예, 책)
포함과 분류사 (Incorporation and)	포함	-포함의 개념과 특성 -수사 포함(numeral incorporation)



Classification)	분류사	-분류사의 개념과 특성 -분류사의 유형(개체분류사, 취급분류사)
-----------------	-----	--

다음은 수어학 핸드북인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Pfau, Steinbach, & Woll (eds.), 2012)』의 형태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수어학 핸드북에서 형태론에 해당하는 5장~9장, 11장 등 여섯 개의 장을 선정하였고, 그 내용의 주제는 단어 분류와 단어 형성(word classes and word formation), 복수성(plurality), 동사 일치(verb agreement), 분류사(classifiers), 시제(tense), 상(aspect), 양상(modality), 대명사(pronouns) 등이다. 형태론의 대범주도 여섯 개의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각 하위 내용을 중범주로 기술하였다.

첫 번째 장인 단어 분류와 단어 형성에서는 수어 단어(the signed word), 수어 형태학적 과정, 수어에서의 단어 분류(품사), 수어에서의 단어 형성 방법(합성, 접사 첨가, 반복) 등 네 가지의 중범주로 구분하였다.

수어 단어에서는 수어 단어의 하위-어휘 단위(sub-lexical units) 특성과 단어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결과 등을 기술하였다. 수어는 형태-의미와 관련된 관습적인 단위, 즉 단어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어휘 단위로 구성된다. 수어는 특정 형식 단위로 구성되고(수동, 수위, 수형 등), 이러한 형식 단위들은 의미를 갖게 되며, 형식 요소와 의미 요소 간에 규칙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상적 언어라 할 수 있다. Meir(2012)는 도상성이 수어를 형성하는 하위 어휘 요소 특성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Meir(2012)는 구어의 음소와 형태소를 구별할 수 있는 요인인 의미성에 주목하면서 수어에서 음소를 형태소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수어의 음소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Johnston과 Schembri(1999)는 의미를 갖는 음소의 경우를 음소형태소(phonomorphemes)라고 지칭하였다. 그 이유는 형태소나 단어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형식 단위으로써 기능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위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분류사 구조를 통해 이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수어군(sign families)은 형식요소(수형, 수위, 수동)에서 형태적으로 공통성을 가지는 수어 단어의 그룹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특정 수어 내에서 특정 의미를 가진 하나 이상의 음운론적 특징들의 조합이라고 하여 Fernald와 Napoli(2000)는 새로운 언어학적 단위 ‘ion-morph’ 용어를 제안하였다. 수어군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음소들을 결합하여 수어 단어를 만들 때 그 결과로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어(signs)와 어휘소(lexemes)는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휘소는 완벽하게 자의적이고, 완벽하게 관습적이라서

언어의 어휘목록에 저장되어 있으나, 수어는 어휘소보다 좀 더 생산적이라고 하였다 (Johnston과 Schembri, 1999). 즉 그들은 수어와 어휘소는 다른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휘소만이 어휘의 부분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수어 형태론 과정(Sign language morphological processes)에서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파생과 단어의 다른 형태를 형성하는 굴절의 특성, 그리고 형태론적 과정으로 순차적 작용과 동시적 작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구어와 수어 모두에서 순차적인 작용과 동시적 작용 모두 발견됨을 제시하면서 구어는 순차적인 작용이 일반적인 반면 수어는 동시적인 작용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어 단어 형성의 동시적 과정은 음운적 요소들과 관련 없이 수어의 움직임, 자질의 변화, 수형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굴절과 파생의 형태가 모두 있으며, 대부분 생산적(비자의적)이고, 특히 공간적이고 시각적 인지와 관련된 형식요소들이 변화되면서 형성되는데, 문법적 성격을 띠지 않는 자립단어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수어 단어 형성의 순차적 과정은 변형보다는 음운론적 요소들을 덧붙이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품사(Word classes)에서는 수어에도 품사가 존재하는지와 특정 품사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첫째, 수화 언어의 역사는 매우 짧으나 수어에서도 같은 단어가 명사나 동사로 쓰이거나 명사나 형용사로 쓰인다고 설명하였다. 구어와 유사하게 수어도 같은 다른 형태의 어휘소로 구성된 어휘 목록을 가지고 있으나 수어는 수어와 다른 방식으로 조음되고 전달된다고 하였다. 둘째, 특정 품사 간의 차이점을 알아내기 위해 명사-동사 쌍, 굴절 변화, 품사를 결정하는 접사, 기능어와 동시표현, 비수지 자질과 동시표현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하였다. 명사-동사 쌍에서 수동 구성 요소의 미묘한 차이로 품사를 구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명사는 반복적이고, 제한적이며 통제적인 반면 동사는 명사보다 더 길고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른 수어에서도 유사한 특성들이 나타남을 제시(예, 영국수어, 이스라엘수어, 러시아수어, 호주수어 등)하였다. 특히 명사와 동사를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연구(도상성으로 보는 입장, 명사와 동사의 지속시간으로 보는 입장, Hunger, 2006)를 소개하였다. 굴절 변화는 구어에서 품사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지만 수어에서는 굴절 변화로 품사를 결정하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또한 품사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파생 접사들을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수어에서 동사를 만드는 감각-접두사(Aronoff, Meir, Sandler, 2005), 형용사의 부정 접미사(Meir, 2004; Meir & Sandler, 2008), ABSL(Al-Sauuid Bedouin 수어: 7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Bedouin 마을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어)에서 명사를 형성하는 SASS 접미사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품사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기능어도 소개하였다. 기능어는 함께 표현되는 내용어에 의해 품사가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한정사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 수어 범주로써 명사를 정의하였고(Padden, 1988), 명사 또는 동사와

함께 동시 표현 할 수 있는 부정 표현 특성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수지 특성은 수어에서 다양한 문법적 역할을 하며, 기능어와 유사하게 비수지 신호도 함께 표현되는 내용어의 품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얼굴 표정과 마우딩(mouthing)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호주수어에서 명사-동사 쌍 연구에서 마우딩이 동사보다 명사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단어 형성 방법에서는 합성(compounding), 접사 첨가(affixation), 반복(reduplication) 등 세 가지 내용을 기술하였다. 합성에서는 수어의 순차적 합성(sequential compounding)과 동시적 합성(simultaneous compounding)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순차적 합성에서는 수어 연구를 기반으로 수어 합성어의 특성과 형태학적 구조에 대해 기술하였다. 수어 합성어 특성에서는 구와 합성어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첫째, 합성어의 의미는 예측가능하지 않으며, 둘째, 합성어는 두 개의 수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어 단어로 봄)을 설명하였다. 형태학적 구조(morphological structure)에서는 구어의 합성어 유형과 수어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의미의 핵심 부분이 어기의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내심 합성어(endocentric compound)와 외심 합성어(exocentric compound), 두 단어나 어근이 병렬 관계, 곧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되는 병렬 합성어(dvandva compounds)를 소개하였다. 구어에서 내심 합성어는 머리부(headness)의 위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영어의 대부분은 오른쪽에 머리부(예, highchair)가 있으며, 히브리어는 왼쪽에 머리부가 있다. 수어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심 합성어의 경우 왼쪽에 머리부(예, EART(FOOD)^NOON 'lunch'),가 있으나, 이스라엘 수어의 경우 히브리어의 영향으로 왼쪽에 머리부(예, party^surprise 'surprise party')가 있다. 특히 수어에서 '머리부' 위치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미국수어의 경우 외심 합성어(예, face^strong 'resemble, Klima & Bellugi, 1979)가 많다고 하였다. 병렬합성어는 현대 유럽 수어나 젊은 수어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미국수어에서는 찾을 수 있다(Kilma/Bellugi 1979, 234-235, CAR^PLANE^TRAIN 'vehicle')고 하였으며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고 각 수어의 움직임이 줄어들어 수어 간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최소화된다고 하였다. 구어와 달리 합성어를 구성하는 수어 단어들이 상위어의 하위어들이고, 의미는 상위어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동시적인 합성어에서는 수어의 동시적 합성법의 두 가지 유형을 기술하고, 동시적 합성어 사례로 수사포함(numeral incorporation)과 두문자어(initialized signs)를 제시하였다. 동시적 합성은 첫째, 각각의 손은 다른 수어를 표현하지만, 동시에 산출하는 유형, 둘째, 하나의 수어 단어를 형성하기 위해 두 개의 다른 수어로부터 특정 음운론적 요소들을 결합하는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동시적 합성어의 특성으로 수사 포함과 두문자어를 기술하였다. 수사 포함은 한 수어에서는 수형을, 다른 수어에서는 수동과 수위를 결합한 동시적 합성어로 보며, 대명사 수어, 시간, 기간, 나이, 돈을 나타내는 수어에서 발견된다고 하였다. 물론 수사 포함이 발견되지 않는 수어(예, ABSL)도 있다고 하였다. 두문자어는

구어 단어와 수어 단어를 결합하여 동시에 나타내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미국수어에서 FAMILY, ASSOCIATION, TEAM, AND DEPARTMENT라는 수어를 수어 사용자는 수동과 수위를 모두 공유하고, 수형 F, A, T, D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특히 Brennan(1990)은 비우세손으로 분류사 수형을 표현하는 수어를 합성어(고정된 어휘 목록)라고 하였으나, Johnston과 Schembri(1999)는 합성어라기보다는 구나 절로 되어 있는 동시적 수어 구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분류사를 통합 합성어의 경우 순차적으로 볼 것인지, 동시적인 처리과정으로 볼 것인지 추후 연구에서 논의해야 될 것임을 제안하였다. 접사 첨가(affixation)에서는 순차적 접사(sequential affixation)와 동시적 접사(simultaneous affixation)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수어에서 순차적 접사는 드물게 발견됨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수어의 비교 접사, 최상급 접사, 동작주 접미사는 영어에서 번역 차용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Supalla(1998)는 동작주 접미사가 미국수어 [PERSON]의 과거의 형태로부터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접사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부정 접미사(negative suffixes), 이스라엘 수어의 감각 접두사 등 3개를 소개하였다. 미국수어 [zero, 'not at all'] 접미사는 다른 수어 단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휘단위처럼 표현되며, 결합된 의미는 각각의 의미와 다른 의미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접미사는 출현과 생산성이 수어 사용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문법적이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수어 부정 접미사는 문법적인 특성이 있으며, 전형적인 접사의 특징과 더불어 한 손으로 하는 그리고 두 손으로 하는 이 형태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스라엘 수어 감각 접두사(sense prefixes)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가 영국수어에서도 발견되었는데, Bremman(1990)은 이를 합성어로 보았으며, Aronoff, Meir, Sandler(2005)는 이러한 형태를 접사로 분석하였다. Aronoff 외(2005)가 접사라고 분석한 이유는 '생산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눈을 가리키는 것이 '보다'인지 '눈'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보면서 이러한 불확실함은 접사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반복(Reduplication)에서는 수어에서의 반복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반복은 동사와 형용사의 상 굴절, 명사의 복수성, 파생 과정에서 사용된다고 기술하였다.

두 번째 장인 복수성(plurality)에서는 명사와 명사구, 대명사와 수사 포함 그리고 지숫자, 동사 일치와 분류사 동사, 수어와 구어 복수 표지 비교 등 네 가지 중범주로 구분하였다. 수어와 구어는 복수 표지 전략들을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하였고, 전략의 선택은 어휘적, 음운론적, 그리고 형태론적인 자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수어에서 복수 표지로 관찰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제시하였고, 명사구의 복수 특성, 대명사의 복수표현, 일치동사와 분류사 동사에서의 복수표현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어와 수어의 복수 패턴을 비교하고 기술하였다. 명사와 명사구에서는 명사 수 굴절과 명사구의 복수성과 수일치 등을 기술하였다. 특히 명사 수 굴절에서는 음운

론적 자질과 복수 표지 전략, ZERO 표지, 반복(reduplication), 유형론적 변이(typological variation) 등 명사의 굴절을 소개하였다. 반복과 ZERO 표지는 여러 다른 수어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단순 반복과 옆으로 이동하면서 반복하는 복수지표 이외에 몇몇 수어들은 비우세손으로 움직임 대체하기, 제2의 움직임 반복하기, 수평선 방향으로 호를 그리며 움직이기, 비수지 신호 등의 형태를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명사구에서의 복수성과 수일치는 음운론적 제약과 통사론적 제약으로 드물게 발견되었으며,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대명사, 수사 포함, 지숫자에서는 수어 대명사에서 나타나는 수어의 단수, 복수, 배분사(distributive), 집합(collective) 복수 형태를 구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하였고, 시각언어의 수어만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대명사와 함께 발견되는 수사 포함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수사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지숫자의 특성을 기술하였는데, 특히 지숫자(number sign)체계는 조음의 물리적 자질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 체계를 소개하였다. 동사 일치와 분류사 동사에서는 대명사가 움직임의 변형, 대명사의 반복을 통해 수를 표현하는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고, 대표적인 현상으로 동사 일치의 복수 형태와 분류사 동사의 복수 형태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어와 구어 복수 표현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언어 양식에 따른 일반적인 복수 전략과 언어만이 갖는 특정 복수 전략 및 제약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두 언어모두 반복과 Zero 표지는 명사의 복수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접사와 어간의 내적 변화는 구어에서는 빈번하나 수어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다른 유사성으로 명사의 복수 형성에서 음운론적 자질에 의존함을 기술하였으며 수어에 대한 복수성 연구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장인 동사 일치에서는 수어의 동사 일치(verb agreement)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적 접근을 비교하여 제시하였고, 수어와 구어(spoken language)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구어와의 유사점으로는 수어가 동사 일치를 통해 인칭(person), 수(number) 자질을 실현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차이점으로는 첫째, 구어 보다 수어는 더 작은 동사 세트(a smaller set of verbs)로 제한되며, 둘째, 동사 일치 특성이 구어 보다 더 획일적(uniform)이라고 하였다. 수어의 일치 형태는 제스처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두 양식의 차이는 수어가 시각 양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어와 구어 모두 일치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 장 분류사에서는 분류사의 범주, 분류사 동사(classifier verbs)에 대한 이슈들, 수어 분류사 습득, 수어 분류사와 음성언어의 분류사의 차이점 등에 대해 기술하였고, 분류사 연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분류사는 최근 ‘묘사 수형’이라고 불리며, 현재까지 연구된 대부분의 수어 연구 중에 충분히 연구된 주제 중 하나

이지만 이 문법요소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분류사의 다양한 범주는 그들이 나타나는 언어적 맥락과 의미에 근거하여 추정되어 왔으나, 그 기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분류사의 구조와 분류사가 출현하는 수어의 구조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부분적으로는 음성언어의 분류사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분류사’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하였다. 한편 농아동의 분류사 구문 습득에 대해서는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분류사가 언어학적 요소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분류사 범주에서는 분류사 유형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그 유형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였다. 첫째, 분류사와 분류사의 범주는 분류사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유형론 연구에서 50여개의 분류사 언어를 관찰하고, 그 유형을 구분(Allan 1977)해 왔던 음성언어의 분류사 연구경향이 수어의 분류사 연구에 영향을 미쳐 수어는 대체로 Allan이 제시한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어 왔으며, 특히 의미적 분류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둘째, Allan의 유형 분류를 근거로 미국수어 분류사 유형을 연구한 Supalla(1982, 1986)는 분류사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최근에는 분류사 유형을 전체 개체분류사(Whole Entity classifiers)와 취급분류사(handling classifiers)로 구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전체 개체분류사는 Supalla의 크기 및 모양분류사, 신체부분분류사의 일부분, 도구분류사를 포함시켰으며, 취급분류사에 Supalla의 도구류분류사의 취급분류사, 신체부분 분류사의 일부를 포함시켰다. 특히 Supalla가 제시한 ‘신체분류사’는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수어 사용자 신체 그 자체로 수어 사용자 신체는 조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분류사로 볼 수 없으며, 지시 대상 전이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흔적 크기 및 모양분류사’는 수동을 가지는 동사와 결합할 수 없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되며 대응적인 용법을 수행하기 때문에 분류사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 이외 수어에서는 분류사가 동사들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므로 분류사동사(classifier verbs)의 특성과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분류사 습득과 습득 순서를 밝히기 위해 3세 이상의 농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자료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어와 음성언어의 분류사 특성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시제(tense)와 상(aspect) 그리고 양상(modality)의 형태론적 특성을 여러 나라들의 수어의 실례를 들어 소개하였고, 차이점과 유사점들도 함께 기술하였다. 영어에서는 시제, 상, 양상을 부사와 같은 자립형태소로 보거나 의존 굴절 표지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수어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그 특성을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시제는 일반적으로 부사 표지와 어휘 시제 표지로 자립형태소로 사용되기도

하나, 몇 수어에서 동사적 굴절표현이 나타난다(예, 미국수어, 이탈리아수어)고 기술하였다. 즉 수어의 동사는 구어의 동사처럼 시제 굴절이 많이 나타나지 않으며, 수어 시제에서 어휘 시제 표지(lexical tense markers: LTMs, Aarons et al., 1995)와 타임라인(timelines)의 표현 사례를 소개하였다. 여러 나라의 수어에 시제 표지는 거의 없지만 상 표지는 매우 풍부하다. 수어에서 상(aspect)은 자립 구성적 요소들에 의해 표현(예, Free aspectual markers, 이스라엘 수어 perfect 지표로 ALREADY)되거나 동사 상 굴절에 의해서 표현되며, 움직임의 방법과 빈도의 변화에 의해 표현(non-manual aspect marking)됨을 기술하였다. 양상(modality)에서는 의무양상(deontic modality)과 인식양상(epistemic modality)을 기반으로 수어의 형태학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양상은 서법범주나 기타 어휘적 수단에 의해 나타나는 부수적 의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범주(허성태, 2009)를 기술하였는데, 의무양상과 인식양상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상 동사(dedicated modal verbs)라고 하였다. 즉 의무양상이란 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어떤 행동이 수행되도록 문장의 주어에 가해지는 힘의 정도를 말하여, 인식양상이란 명제의 참에 대하여 화자가 가지고 있는 확실성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수어의 양상 특성은 미국수어, 그리스수어, 브라질수어 등의 연구를 통해 사례를 소개하였다.

여섯 번째 장인 대명사(pronouns)는 복수성에서도 간략하게 다뤘지만, 이 장에서는 구어와 수어에서 대명사의 특성을 비교하여 기술하였고, 특히 인칭대명사(사람, 수, 배타적 대명사, 소유대명사, 성 표지)와 대용형태(proform)의 특성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저자는 대용형태(proform 또는 pro-form)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는데, 다소 혼란스럽기 하지만 수어에서만 다른 특성과 구성들의 다양성을 언급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먼저 소개하였다. 대용형태에서는 재귀대명사와 강조대명사(reflexive and emphatic pronouns), 부정대명사(indefinite pronouns), 상호대명사(reciprocal pronouns), 의문대명사(interrogative pronouns), 지시대명사(demonstrative pronouns) 등의 형태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수어에서 대명사 체계는 1970년대 중반부터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명사라는 용어는 수어 사용자, 대상자 등의 참여자들을 언급하기 위해 지시하거나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를 가진 다양한 수어들에서 표현되는 형태를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구어에서는 넓은 의미로 대용형태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수어에서의 인칭대명사와 대용형태의 특성이외 인칭대명사와 대용 형태 간의 관계성, 구어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의 형태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37>에 요약하였다.

<표 37> Pfau, Steinbach, Woll(2012).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형태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단어 분류와 단어 형성 (Word Classes and Word Formation)	수어 단어 (the signed word)	-하위-어휘 단위 특성 -어휘 구조: 수어군(단어족, 수어족), ion-morph
	수어 형태학적 과정	-파생과 굴절 -동시적 수어 단어 형성 과정, 순차적 수어 단어 형성 과정
	단어 분류 또는 품사 (Word classes)	-수어에서의 단어 분류(품사) -특정 품사 간의 차이 구별 수단 · 명사-동사 쌍, 굴절 변화, 품사 결정하는 접사, 기능어와 동시 표현, 비수지 자질과 동시 표현
	단어 형성 (word formation)	-합성(순차적 합성, 동시적 합성-수사 포함, 두문자어) -접사 첨가(순차적 접사, 동시적 접사) -반복
복수성 (plurality)	명사와 명사구	-명사의 수 굴절, 명사구의 복수와 수 일치 특성
	대명사, 수사 포함, 지숫자	-대명사, 수사 포함(numeral incorporation), 지숫자(number sign)
	동사 일치와 분류사 동사	-동사 일치와 분류사 동사 특성
	수어와 구어 복수 표지 비교	-구어와 수어에서 복수형 특성
동사 일치 (verb agreement)	일치의 구현 (Realization of agreement)	-R-locus analysis, Indicating analysis, Featural analysis, Interface with gesture, Cross-linguistic uniformity and variation
	일치의 자격 (Candidacy for agreement)	-연구 사례 정리 · Padden(1983), Janis(1992, 1995), Meir(1998, 2002), Rathmann and Mathur(2002), Quadros and Quer(2008)
분류사 (classifiers)	분류사와 분류사의 범주	-분류사의 범주: 분류사 유형 연구 소개 -분류사 특성
	분류사 동사	-분류사 동사들의 특성과 관련 이슈
	분류사 동사이외 분류사	-복합 수어 또는 단일 수어 -고정된 수어(frozen signs, 어휘화된 수어) 구조
	수어 분류사 습득	-산출 연구와 이해 연구 결과 : 수어 분류사 습득과 습득순서 이해
	분류사 특성 비교(구어와 수어)	-음성 언어 분류사 연구 개괄 -동사 분류사에서 음성 언어와 수어 분류사 특성 비교(공통점과 차이점)
시제, 상, 양상 (tense, aspect, and modality)	시제(tense)	-어휘 시제의 표지, 타임라인(Timelines) 표지 -동사에서 시제 표지



## II.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상(aspect)	-자립 상 표지(free aspectual markers) -동사 상 굴절(연속, 반복, 습관 등) -비수지 상 표지
	양상(modality)	-의무양상(deontic modality), 인식양상(epistemic modality) -미국수어, 그리스수어, 브라질수어 사례 소개
대명사 (pronouns)	인칭대명사 (personal pronouns)	-사람, 수, 배타적 대명사(화자와 제3자를 포함하는 지시), 소유대명사, 성(gender)에서의 형태적 특성
	대용형태(proforms)	-재귀대명사, 부정대명사, 상호대명사, 의문대명사,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성, 구어와의 차이점과 유사점 기술

총 8권의 수어 문법서의 형태론 관련 내용을 고찰한 결과 수어 형태론에서는 수어 단어와 형태소, 형태론적 과정, 수어 형성 과정, 수어 단어 분류(품사), 수어 변형, 기타로 분류하고 각 문법서의 목차와 세부 목차를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표 38>, <표 39>은 각 문법서에서 수어 단어와 형태소, 형태론적 과정, 수어 형성 과정, 수어 단어 분류(품사), 수어 변형, 기타 대법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목차들을 비교한 표이다.

<표 38> 주제에 따른 목차 분석-형태론\_1

문법서 주제	한국 수어학 개론 이준우, 남기현(2014)		한국수어의 이론 최상배, 안성우(2003)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Valli & Lucas(2011)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Papasprou 외(2008)	
	목차	세부 목차	목차	세부 목차	목차	세부 목차	목차	세부 목차
수어 단어와 형태소	* 형태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어근 형태소와 비어근 형태소 -의존 어근 / -의존 비어근						
형태론적 과정								
수어 형성 과정	* 단어 형성 과정	-접사 첨가 / -국내의 연구	* 수어구성 방법	-Wundt -Stokoe -김승국 -석동일	* Building New Signs	-Morphology -Derivational morphology -Inflectional morphology	* Sign formation	-Iconicity -Simultaneity -Extern influences on sign formation
	* 명사-동사 파생				* Deriving Nouns from Verbs			
	* 수사 포함	-수의 자리 /-시간 표현 -나이 표현 /-그 밖의 표현들			* Compounds	-Compounds in ASL -Lexicalized fingerspelling -The Lexicalization process		
	* 지문자어	-지문자의 개념 -지문자의 사용 -한글 지문자 / -지문자어			* Fingerspelling			
	* 차용어				* Numeral Incorporation			
	* 합성어	-한국수어에서 합성어 연구 -합성어의 유형 / -번역 차용						
수어 단어 분류 (품사)	* 통사론에서 다툼		* 수어의 품사	-체언 / -관계언 -용언 / -수식언 -독립언			* Sort of signs	-Nouns /-Verbs -Pronouns -Adjectives -Expression of time
			* 수어 어휘의 다의어					
수어 변형	* 굴절	-수어의 동사 분류 -동사와 일치 -동사와 수	* 수어의 변용	-시간과 시제의 변용 -인칭의 변용 -수-동사의 변용 -수-명사의 변용 -동사의 변용 -형용사의 변용			* Modification of signs	-Plural -Comparison -Aspect of tense
	* 상호 표현	-한국어 비대칭 동사의 상호 표현 -수어 일치동사에서 상호 표현	* 분류사					
기타			* 형태론적 분석의 의미					
			* 한국수어의 어족 연구	-석동일의 연구 -장진권의 연구				

<표 39> 주제에 따른 목차 비교-형태론\_2

문법서 범주	AUSTRALIAN SIGN LANGUAGE Johnston & Schembri(2007)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Baker 외(2016)		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Pfau 외(2012)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Sutton(1999)		
	목차	세부 목차	목차	세부 목차	목차	세부 목차	목차	세부 목차	
수어 단어와 형태소	* The morphme in signed and spoken language	-Types of morpheme -Productivity in Auslan					* morphology and morphemes in BSL	-what is a morphemes? -bound and free morphemes -Plural morphemes	
형태론 적 과정	* Morphological processes: Derivation and inflection		-Word formation: sequentiality versus simultaneity						
수어 형성 과정	* Sign formation processes	-Lexical extension -Reduplication (noun-verb pairs) -Affication -Compounding -Numeral incorporaion	-Compounding -Derivation		* Classifiers	-Classifiers and classifier categories -Classifier verbs -Classifiers in signs other than classifier verbs -The acquisition of classifiers in sign languages -Classifiers in spoken and sign languages : a comparison	* borrowing and name signs	-borrowing -fingerspelling -name signs	
			-Incorporation and classification	-Incorporation -Classification		* Word classes and word formation	-The signed word -Sign language morphological processes -Word classes -Word formation	* morphology and morphemes in BSL	-grammatical class: nouns, verbs, and adjectives in BSL
						* Word classes and word formation			
수어 단어 분류 (품사)	* Processes of sign modification	-Noun modification -Verb modification			* Verb agreement	-Background on agreement -Realization of agreement -Candidacy for agreement	* morphology and morphemes in BSL	verb morphology	
수어 변형			-Inflection	-Tense and aspect -Agreement -Pluralization	* Plurality	-Nouns and noun phrases -Pronouns, numeral incorporation, and number signs -Verb agreement and classifier verbs -Pluralization across modalities	* the established and productive lexicons	-inflection for person and manner -simultaneity in BSL	
기타	* Processes of sign modification	-Non-manual features in Auslan			* Agreement auxiliaries	-Form and function of agreement auxiliaries -Agreement auxiliaries in different sign languages -a cross-linguistic comparison -Properties of agreement auxiliaries in sign languages -Grammaticalization of auxiliaries across modalities			

### 4.3 통사론

통사론(syntax)은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 단어와 형태소들의 배열에 관계된 문법의 단계를 가리킨다. 또한 인간의 언어능력의 일부분이 되는 기본적으로 잠재적 규칙들(묵시적 규칙 혹은 지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방법을 의미한다. 통사론에서는 통사적 구성(문장과 절), 잠재의식적 지식(언어에 대한 지식), 문장의 성분 구조, 구조 규칙, 변형 규칙(선택적 변형과 필수적 변형), 문장의 구조, 통사 규칙과 통사구조, 귀환 규칙, 변형 등을 다룬다.

통사론과 관련된 문법서의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 수어 문법서의 목차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수어 음운론에서 다루는 하위 범주의 내용인 음운론의 단위와 음운 과정 등을 포괄하지 않거나, 특정 음운론 연구의 결과를 하위 범주로 다룬 문법서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문법서를 제외하면 한국수어 문법서 2권, 나라별 문법서 3권과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으로 총 7권이다.

한국수어 문법서 2권(이준우, 남기현, 2014, 최상배, 안성우, 2003), 나라별 문법서 3권(Valli & Lucas, 2011, Papaspyrou 외, 2008, Johnston & Schembri, 2007), 개론 문법서 2권(『수어 언어학 핸드북(Baker 외, 2016, Pfau 외, 2012)을 대상으로 수어 언어학의 통사론에서 다루고 있는 범주와 내용을 고찰하였다. <표 40>과 <표 41>은 통사론 관련 세부 내용을 고찰할 문법서 7권의 대범주와 중범주 목차를 비교한 표이다.

<표 40> 문법서별 체계 비교-통사론\_1

한국 수어학 개론 이준우, 남기현(2014)		한국수어의 이론 최상배, 안성우(2003)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Valli & Lucas(2011)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Papasprourou 외(2008)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 품사 분류 기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 수어 통사론의 의미		* Basic Sentence Types	-Questions -Negation -Commands -Topicalization -Conditionals -Declaratives -The importance of nonmanual signals	* Clauses	-Predicate -Subject -Object -Addition
		* 통사론 연구의 역사				* Sentence type	-Statement -Questions -Request sentence
		* ASL의 기본 모형	-의문문 -부정문 -명령문 -화제화문 -조건문			* Sentence modification	-Modal verbs -Negation -Confirmation -Emphasis
* 시제와 상	-한국어의 시제 -한국어의 상 -수어의 동작상 -비수지 신호와 상	* 한국수어의 문형	-석동일(1989)의 연구 -변지원(1992)의 연구 -황도순(1994)의 연구 -엄미숙(1996)의 연구	* Word Order	-Basic word order in ASL -Word Order with intransitive verbs	* Sentence conjunction	-“A and B” -“A or B” -“A but B” -“A, and then B” -“Although A, still B” -“While A happened B” -“A leads to B” -“If A, then B”
* 문장 유형	-단문 -복문			* Time and Aspect	-Time and Tense -Expressing time in ASL -Temporal Aspect		
* 의향법	-비수지 신호의 문법적 기능 -한국수어에서의 의향법	* 구문론에서 비수지신호의 중요성	-비수지신호를 나타내는 기호 -비수지신호의 문법적 기능	* Verbs	-Plain Verbs -Indication Verbs -Depicting Verbs	* Role shift	-Localisation -Relation of the located items to each other -Buoy as a reference point
				* The Function of Space		* Use of space	
* 초점과 화제	-바탕-초점 -화제-논평					* Text structure of a narration	

&lt;표 41&gt; 문법서별 체계 비교-통사론\_2

AUSTRALIAN SIGN LANGUAGE Johnston & Schembri(2007)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Baker 외(2016)		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Pfau 외(2012)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 Word classes in Auslan	-Nouns -Verbs -Adjectives -Adverbs -Determiners -Auxiliary verbs -Prepositions -Conjunctions -Pronouns -Interjections	* Syntax: simple sentences	-Function of constituents -Valency -Semantic and grammatical roles -Sign order -Topicalization -Sentence types -Negation and affirmation -Pronominalization and pro-drop	* Word order	-Word order-some background issues -Word order and sign languages -A timeline for sign linguistic research: how does word order work fit in? -Towards a typology of sign languages -Methodological issues : how data type impacts results?
		* Syntax: complex sentences	-Complement clauses and direct speech -Adverbial clauses -Relative clauses -Coordination	* The noun phrase	-Characteristics of this modality with consequence for noun phrase structure -What's in a noun phrase? A closer look inside -Number: expression of plurality -DP_internal word order
* Sentences and their constituents				* Sentence types	-Polar(yes-no) questions -Content(wh) questions -Other constructions with wh-phrases
* Sentences types				* Negation	-Manual negation vs. non-manual marking of negation -Syntactic patterns of negation -Negative concord -Lexical negation and morphological idiosyncrasies of negatives
* Constituent order in simple clauses	-Verbless clauses -Clauses with intransitive plain verbs -Clauses with transitive plain verbs -Clauses with indicating and depicting verbs -Sentence-final tags and doubling -Ellipsis			*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Coordination -Subordination
* Content questions				* Utterance reports and constructed action	-Reporting the words, thoughts, and actions of others -Early approaches to role shift -Role shift as constructed action -Formal approaches -Integration
* Topicalisation					
* Pseudo-clefts (or 'rhetorical questions')					
* Negation and affirmation					
* Constituent order in clause complexes					
*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Conditionals -Relative clauses				

#### 4.3.1 한국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한국 수어학 개론(이준우, 남기현, 2014)』의 통사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수어학 개론은 통사론을 품사 분류 기준, 시제와 상, 문장 유형, 의향법, 초점과 화제 5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장인 품사 분류 기준에서 단어와 단어가 취할 수 있는 굴절의 관계인 형태론적 특징과 구와 문장에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인 통사론적 특징을 통해 수어의 품사를 구별하여 총 9개의 품사별 특징을 살펴보고 있었다. 명사에서 ‘나는 많은 학생에게 질문한다.’를 예로 들어 한국수어에서는 명사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것과 [많다]를 [학생] 앞에 두어 수식하는 표현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수어에서 대명사는 지시와 공간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양수사는 한글 지숫자로 나타내며 서수사는 [첫째], [둘째]와 같은 특정 단어로, 복수는 원형 수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동사에서는 형용사와 명사가 서술어 기능을 하는 미국수어와 명사가 서술어 기능을 하는 한국수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영국수어에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크기와 모양이 포함된 한정 형용사와 동사처럼 쓰이는 서술 형용사를 제시하였다. 한국수어에서는 명사를 수식할 때 일반적으로 한정적 방법보다는 서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이를 ‘튼튼한 집’으로 설명하였다. 관형사에서는 관형사가 한정적인 방법보다 서술적인 방법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부사는 수식하는 성분 위에 위치하는 성상부사, 문미에 위치하는 지시 부사, ‘안’ 부정과 ‘못’ 부정 등의 부정부사로 구분하였다. 감탄사는 감탄을 나타내는 어휘와 비수지, 손짓, 끄덕임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윅하(2011)의 연구를 통해 조사를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서술격, 호격, 부사격, 도구격, 비교격, 동반격, 변성격, 인용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시제와 상을 한국어의 시제, 한국어의 상, 수어의 동작상, 비수지 신호와 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국어의 시제에서 한국수어의 시제 표현은 시간 부사로 명시된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상에서 한국수어는 동사와 함께 ‘어’ 입 모양을 하는 완료상과 수어 유지+‘어’ 입 모양, 수동의 반복이 있는 진행상으로 구분하였다. 수어의 동작상은 진행상, 습관상, 지속상, 반복상, 완료상이 있으며, ‘부’ 입 모양, ‘파’ 입 모양으로 비수지 신호와 상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 장인 문장 유형에서는 단문과 복문으로 구분하였으며, 단문에서는 일반동사와 문장 유형, 일치동사와 문장 유형, 묘사동사와 문장 유형으로 한국수어의 단문 유형을 설명하였다. 복문은 대등 접속문(나열 관계, 대조 관계, 선택 관계)과 종속 접속문

(인과 관계, 조건 관계, 의도 관계, 양보 관계)으로 실현됨을 설명하였다.

네 번째 장인 의향법에서는 비수지 신호의 문법적 기능과 한국수어에서의 의향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비수지 신호는 문법적 표지를 담당하며, 미국수어에서는 Yes-No 의문문, 제한적 관계사절, 화제화에서 비수지 신호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Liddell(1980)이 제시한 비수지 신호로는 눈썹 올리기, 머리와 신체 앞으로 하기, 윗입술 올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를 소개하였다. 한국수어에서의 의향법은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부정문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부정문을 사실부정, 의지부정, 상태부정, 완료부정, 능력부정, 상황부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다섯 번째 장인 초점과 화제에서는 문장 끝에 의문사와 명사를 위치시켜 가벼운 고개 끄덕임, 눈썹 올림, 휴지와 같은 비수지 신호를 동반하는 초점화(바탕-초점)와 발화자와 수신자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문장의 앞으로 이동시키고 고개 끄덕임, 휴지와 같은 비수지 신호를 반드시 동반하는 화제화(화제-논평)를 설명하였다.

『한국 수어학 개론』의 통사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42>에 요약하였다.

<표 42> 이준우 · 남기현(2014). 한국 수어학 개론-통사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품사 분류 기준	명사	-Johnston & Schembri(2007): 동사의 논항으로 확인함(통사적 특징)
	대명사	-미국수어에서는 1인칭(수어자), 2인칭(대화상대자), 3인칭(수어 공간의 다른 위치)으로 구분하며 마이어(1990)는 1인칭과 비1인칭으로 구분함 -수형으로는 1수형, G수형이 있음 -인칭대명사는 지시 지점(특정인을 지칭), 지시대명사는 화자와 지시의 위치로 구현함 -[이것],[그것],[저것], [여기],[그것]+[곳], [저것]+[곳]을 예로 들
	수사	-양수사는 [1],[2],[3] 등이며, 서수사는 [첫째],[둘째]가 있음. 복수는 원형 수동으로 표현하며 사람의 수는 [둘],[셋],[넷],복수(지시+원형수동)으로 나타냄
	동사	-미국수어에서는 형용사와 명사가 서술어 기능을 함 -한국수어에서는 명사가 서술어 기능을 하기도 함
	형용사	-영국수어에서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 크기와 모양이 포함된 한정 형용사와 동사처럼 쓰이는 서술 형용사가 있으며 한국수어에서는 두 개의 서술어가 연속적으로 이어 한정 형용사를 표현함
	관형사	-명사를 수식할 경우 관형사가 명사 뒤에서 서술어처럼 꾸미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 -명사 뒤 서술어가 두 개일 경우 서술어1이 앞의 명사를 수식함
	부사	-성상부사는 수식하는 성분 위에 위치 (예:[철수]+[뛰다]+[빠르다])하며 지시부사는 문미에 위치 (예:[어제]+[눈이 내리다]+[처음])함 -부정부사로는 ‘안’부정, ‘못’부정이 있음



	감탄사	-감정 감탄사로는 [아차]등이 있으며, 비수지 신호로 말하는 이의 감정, 의지를 표현함. -남을 부를 때와 응답은 손짓, 끄덕임등으로 표현함
	조사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서술격, 호격, 부사격, 도구격, 비교격, 동반격, 변성격, 인용격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시제와 상	한국어의 시제	-시간 부사로는 문장 앞 지금, 어제, 작년 등이 있으며 [황사비]+[내일]+[오다] <sup>짧게 반복 수동</sup> , [내일]+[황사비]+[오다] <sup>짧게 반복 수동</sup> 을 예로 들어 설명함
	한국어의 상	-완료상은 동사와 함께 ‘어’ 입모양을 동반하며 진행상은 수어 유지+‘어’입모양, 수동의 반복으로 표현함
	수어의 동작상	-진행상, 습관상, 지속상, 반복상, 완료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비수지 신호와 상	-‘부’입모양, ‘파’입모양이 있음을 설명함
문장 유형	단문	-일반동사와 문장 유형, 일치동사와 문장 유형, 묘사동사와 문장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복문	-대등 접속문은 나열관계, 대조 관계, 선택 관계, 종속 접속문은 인과 관계, 조건 관계, 의도 관계, 양보 관계로 구분하여 설명함
의향법	비수지 신호의 문법적 기능	-미국수어에서의 Yes-No 의문문, 제한적 관계사절, 화제화를 설명함. -Liddell(1980)이 제시한 비수지 신호인 눈썹 올리기, 머리와 신체 앞으로 하기, 윗입술 올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를 설명함
	한국수어에서의 의향법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부정문(사실·의지·상태·완료·능력·상황부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초점과 화제	바탕-초점	-초점화는 문장 끝에 의문사와 명사를 위치시켜 가벼운 고개 끄덕임, 눈썹 올림, 휴지와 같은 비수지 신호가 동반됨
	화제-논평	-화제화는 발화자와 수신자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문장의 앞으로 이동시키고 고개 끄덕임, 휴지와 같은 비수지 신호가 반드시 동반됨

다음은 『한국수어의 이론(최상배, 안성우, 2003)』의 통사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수어의 이론에서는 수어의 통사론적 특징을 하위 범주로 하여 이를 수어 통사론의 의미, 통사론 연구의 역사, ASL의 기본 문형, 한국수어의 문형, 구문론에서 비수지 신호의 중요성, 구문론에서 공간이동의 중요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수어 통사론의 의미에서 수어에는 문장성분을 나타내는 조사나 어미 활용이 없으나 어순이나 굴절 등의 방법으로 문장성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수어 어휘를 품사로 구별하는 대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통사론 연구의 역사에서 Fischer(김칠관, 1999, 재인용), Fredman(김칠관, 1999, 재인용), Liddell(1980)을 소개하며 한국에서는 변지원(1992), 황도순(1994), 엄미숙(1996)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미국수어의 기본 문형을 평서문, 의문문(Yes-No Question, Wh-question, 물음표 사용하기, 수사의문문), 부정문, 명령문, 화제화문, 조건문으로 나누고, 비수지 신호로 구별되는 의미가 없는 평서문을 제외하여 설명하였다. 한국수어의 문형은 석동일

(1989), 변지원(1992), 엄미숙(1996)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석동일의 연구에서 한국수어는 기능어, 부속어가 없어 어순에 다소의 혼용이 있으며, 어순은 항상 문맥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것이 먼저 표현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간 배치, 운동 방향, 상체 이동, 표정, 시선 등에 의해 문장이 구성된다고 하였다. 수어 구문론 연구에서 비수지 신호 연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였다. 변지원(1992)은 자연 수어는 관용구, 절 등의 형태(합성 수어)와 관용적 표현형태(농식 수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황도순(1994)은 한국수어는 독특한 통사 구조이며 국어에 없는 S+O+V 변형 구조를 가진 혼성 국어식 수화로 설명하였다. 엄미숙(1996)은 주어+목적어+∅ 구조이며 내재된 의미구조가 같아 전성 기호 없이 품사가 바뀐다고 하였다. 서술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으로 문장의 종류를 나누고, 시제는 수어 어휘에 의하거나 상황의 전제에 따라 생략된다고 하였다. 부정법은 ‘없다-부정법’, ‘아직-부정법’, ‘못되다-부정법’, ‘아니다-부정법’, ‘안되다-부정법’, ‘말다-부정법’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구문론에서 비수지 신호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의문 표식, 화제화 표식, 화제화 의문 표식, 수궁 표식, 부정 표식, 부사 기능 표식, 회화 개시 동작과 같은 비수지 신호를 나타내는 기호와 비수지 신호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어의 문법을 표시하는 기능의 예로 공간 이동을 제시하였으며, 구문론에서 공간 이동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한국수어의 이론』의 통사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43>에 요약하였다.

<표 43> 최상배, 안성우(2014). 한국수어의 이론-통사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수어의 통사론적 특징	수어 통사론의 의미	-조사, 어미 활용이 없음으로 어순이나 굴절 등의 방법으로 문장성분을 나타냄 -ASL어휘 범주(명사, 술어형동사, 형용사, 부사 / 소수범주-한정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를 소개함
	통사론 연구의 역사	-Liddell(1980)의 문법 이론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비수지 신호를 구문에 포함을 설명함 -한국에서는 변지원(1992), 황도순(1994), 엄미숙(1996)의 통사론적 분석이 있음을 소개함
	ASL의 기본 문형	-평서문에서 비수지 신호로 구별되는 의미가 없음을 설명함 -의문문을 Yes-No 의문문과 Wh 의문문, 수사 의문문으로 나누어 설명함. Yes-No 의문문은 특별한 어순이 없으며 독특한 비수지 신호 사용, Wh 의문문은 Wh수어와 독특한 비수지 신호 사용, 물음표 흔들기(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놀랐을 때와 확인할 때 사용)로 설명함, 수사의문문은 강조를 위한 긍정적 진술로 독특한 비수지임을 설명함 -부정문에서 부정 수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사소통 가능하며 비수지 신호가 중요함을 설명함 -명령문에서 주어를 생략하거나 대명사와 비수지 신호를 사용함을 설명함 -화제화문은 목적어가 문장의 처음으로 이동할 때 발생함을 설명함. -조건문은 대부분 수어 어휘 사용하지 않으며 비수지 신호가 중요함을 설명함

	한국수어의 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휘 수준에서 문법적 표시가 많아 어순으로는 자유도가 높음을 설명함</li> <li>-석동일(1989): 기능어, 부속어가 없어 어순에 다소의 혼용이 있으며, 어순은 항상 문맥에 의존하고 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것이 먼저 표현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함. 한국수어의 문장 중심은 동사이며 변용, 공간 배치, 운동 방향, 상체이동, 표정, 시선 등에 의해 문장이 구성됨을 설명함, 수어 구문론 연구에서 비수지 신호 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설명함</li> <li>-변지원(1992): 자연 수어는 관용적 표현형태로 나타나며 자연수어의 표현은 관용구, 절 등의 형태(합성수어)와 관용적 표현형태(분석수어)로 나타나는 것으로 봄</li> <li>-황도순(1994): 독특한 통사 구조로 국어에 없는 S+O+V 변형 구조를 혼성 국어식 수화로 설명함</li> <li>-엄미숙(1996): 주어+목적어+Ø 구조, 내재된 의미구조가 같아 전성 기호 없이 품사가 바뀌며 문장의 종류(서술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시제표현(수어 어휘에 의하거나 상황의 전제에 따른 생략), 부정법(‘없다-부정법’, ‘아직-부정법’, ‘못되다-부정법’, ‘아니다-부정법’, ‘안되다-부정법’, ‘말다-부정법’)을 설명함</li> </ul>
	구문론에서 비수지신호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수지 신호를 나타내는 기호(김철관, 1999)로 의문 표식, 화제화 표식, 화제화 의문 표식, 수궁 표식, 부정 표식, 부사 기능 표식, 회화 개시 동작을 소개함</li> <li>-비수지신호의 문법적 기능으로 비수지 신호에 따라 문장의 유형이 달라지며, 초분절음소와 비슷한 역할을 함을 소개함. 엄미숙(1996)연구를 통해 구문론 연구에서 비수지 신호의 문법적 기능을 설명하며 비수지 신호는 의사소통 장면에서의 상황과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 연결되는 어휘형태소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나타남을 소개함</li> </ul>
	구문론에서 공간이동의 중요성	

#### 4.3.2 미국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미국수어 문법서인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Valli, Mulrooney, & Villanueva, 2011)』의 통사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수어 문법서에서 통사론은 문장을 형성하는 단어들을 결합하는 규칙에 관한 연구라고 하였다. 한 언어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문장의 숫자는 무한하지만 각 언어는 문장을 만들기 위한 한정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에서 규칙들의 모음이 문법이고 이들 규칙에 관한 언어적 연구가 통사론이라 하였다. 본 문법서는 Liddell(1980, 2003)의 저서에 기반을 두고 미국수어의 통사에 관해 논의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장인 기본 문장 형태에서는 미국수어의 동사, 명사, 형용사가 술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미국수어 문장 BOY HOME, BOY SICK에는 동사 is가 없고, 명사 HOME과 형용사 SICK이 술어 기능을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 소개하였다. 본 문법서에서는 의문문, 부정문, 명령문, 주제화, 조건문, 서술문을 기본 문장 형태로 보고 미국수어 통사에서 사용하는 비수지 신호에 초점을 두어 통사론을 설명하였다.

의문문에서는 의문문을 YES-NO 의문문과 WH-의문문, 수사의문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미국수어에서 YES-NO 의문문은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커지고 머리와 몸은 앞으로 기울어지며 어깨를 올리는 등의 의문 부호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WH-의문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비수지 신호는 눈썹을 찡그리거나, 머리를 갸우뚱하고 또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어깨를 올리는 것이라 하였다. 수사의문문의 비수지 신호는 YES-NO 의문문, WH-의문문과는 약간 다르며 눈썹을 올리거나 고개를 약간 흔들거나 갸우뚱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부정문은 얼굴을 찌푸리거나 눈을 찡그리면서 머리를 양옆으로 흔드는 특이한 비수지 신호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명령문은 말하는 상대방과 눈을 직접 마주 보면서 가능하면 위압적인 표정을 짓는 등의 고유한 비수지 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수어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끌거나 강조를 하기 위해 정보를 문장의 시작 부분에 표현하는 주제화 구문을 사용하며, 이때 주제화된 부분을 비수지 신호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HOME PRO를 예로 들어 수어 어휘가 아닌 비수지 신호로 문장 형태가 결정됨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장인 어휘적 범주에서는 수어는 한 개 이상의 어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며 이는 문장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문법서에서는 어휘 범주를 열린 어휘 범주에 속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닫힌 어휘 범주에 속하는 대명사, 조동사, 접속사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미국수어에서 복수 명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수어를 반복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미국수어의 형용사는 구어의 동사나 형용사처럼 기능한다고 하였다. 또한 형용사 역시 굴절(modified)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수어에서 부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수어를 수정하는 방법과 비수지 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표현한 공간으로 시제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조동사는 비수지 신호를 통해 강조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수어는 영어에 비하면 전치사 어휘는 많지 않으나 영어 전치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장인 어순에서는 미국수어의 기본 어순을 SVO로 보고 타동사가 있는 미국수어 문장의 어순은 주어-동사-목적어, 자동사가 있는 문장의 기본 어순은 주어-동사로 설명하였다. 주어가 주절 다음에 대명사로 반복이 되는 경우 고개를 끄덕거리는 비수지 신호를 사용하며 주제화 구문에서는 주어, 목적어 생략이 가능하며 만일 주절 앞에 주제화가 사용된다면 눈썹을 올리고 머리를 기울이며 나머지 문장을 표현하기 전 약간의 정지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네 번째 장인 시제와 상에서는 시간과 시제를 표현할 때 NOW, TODAY와 같은 시

간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어휘와 YEAR, WEEK와 같이 숫자와 함께 사용하는 시간과 관련된 수어 어휘가 있으나 -s나 과거형의 -ed 같은 의무화된 형태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수어 사용자의 위치는 은유적으로 ‘현재’, 앞 공간은 ‘미래’, 뒷 공간은 ‘과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Klima와 Bellugi(1979, 1990)의 연구를 통해 미국수어에서의 시간적 양상 표지를 소개하였다.

다섯 번째 장인 동사에서는 미국수어의 동사를 일반(plain)동사, 지시(indicating)동사 그리고 서술(depicting)동사로 구분하였다. 일반동사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에 관한 정보를 담지 않으며 그 예로 EAT, ENJOY, FORGET, HAVE, LIKE, LOVE, PUNISH, UPSET 등을 소개하였다. 지시동사는 특정한 사람, 물건 혹은 공간적 장소를 향해 움직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지시동사의 예로 GIVE, INFORM, TELL, PICK-ON, SEND, PAY를 소개하였다. 또한 지시동사는 왕복 행위를 보여 줌으로써 정보를 추가하는 동사인 상호 동사(reciprocal verbs)와 수화의 실질적 방향이나 위치와 같은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위치동사(locative verbs)로 구분하였다. 서술동사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VEHICLE-DRIVE-BY, PERSON-WALK, FLAT-SURFACE, VEHICLE-DRIVE-UPHILL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어휘화된 서술동사는 세 가지 주요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어떤 것이 공간 안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며, 둘째, 대상물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목적물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세 번째의 형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행동을 묘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여섯 번째 장인 공간의 기능에서 공간(space)은 수어의 조음(음운론), 새로운 수어의 생성(형태론), 문장의 구조(통사론), 이야기 관점, 서술 시각(화용론) 등 모든 언어적 활동에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공간은 손 모양, 위치, 방향 그리고 비수지 신호 등 조음과 관련이 있으며, 위치를 특정 사람이나 물건과 연관시킴으로 형태론적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수어 발화자가 어느 한 등장인물의 역할을 하다가 다른 등장인물의 역할로 바꾸는 등의 예를 통해 미국수어에서의 공간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의 통사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44>에 정리하였다.

<표 44> Valli 외(2011).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통사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기본 문장 형태 (Basic Sentence Types)	의문문	-YES-NO 의문문, WH-의문문, 수사 의문문으로 나누어 설명함
	부정문	-각 문장 형태에서 사용하는 비수지 신호와 그 중요성을 설명함
	명령문	
	주제화 구문	
	조건문	
	서술문	
어휘적 범주 (Lexical Categories)	열린 어휘 범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대해 설명함
	닫힌 어휘 범주	-대명사, 조동사, 접속사에 대해 설명함
어순 (Word Order)	미국수어의 기본 어순	-주격대명사, 주제화 구문을 통해 기본 어순을 설명함 -주제화 구문에서의 비수지 신호를 설명함
	자동사가 있는 경우의 어순	-자동사가 있는 문장의 기본 어순을 설명함
시제와 상 (Time and Aspect)	시간과 시제	-미국수어에서는 일반적으로 3인칭 현재형 동사에 붙는 -s나 과거형의 -ed 같은 의무화된 형태소를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함
	미국수어에서의 시간 표현	-시간과 시제를 표현하는 독립적인 어휘, 숫자와 함께 사용하는 시간 관련 어휘를 소개하여 설명함 -시간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어 사용자의 은유적 위치를 설명함
	시간적 양상	-Klima와 Bellugi(1979, 1990)의 연구를 소개함
동사 (Verbs)	일반동사	-EAT, ENJOY, FORGET, HAVE, LIKE, LOVE, PUNISH, UPSET을 예로 들어 설명함
	지시동사	-GIVE, INFORM, TELL, PICK-ON, SEND를 예로 들어 설명함 -상호동사와 위치동사로 구분하여 설명함
	서술동사	-VEHICLE-DRIVE-BY, PERSON-WALK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함 -공간, 대상물, 묘사의 형태로 설명함
공간의 기능 (The Function of Space)		-미국수어의 모든 언어학적 하위 범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간과 그 중요성을 설명함

#### 4.3.3 독일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독일수어 문법서인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Papaspyrou, Chrissostomos, von Meyenn, Alexander, Matthaei, Michaela, Herrmann, Bettina, 2008)』의 통사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독일수어 문법서는 통사론을 절, 문장 유형, 문장, 수어 변형, 문장 접속, 역할 전환

(Roleshift), 공간사용, 내레이션 텍스트 체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술어, 주어, 목적어와 추가절(complement)로 분류하여 절(clause)을 설명하였다. 술어는 주로 동사를 사용하지만, 명사와 형용사도 술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어는 술어 다음으로 중요한 절이며 수어에서는 동사 속에 주어가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일치동사 수동 시작점에 주어가 속해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목적어는 목적어와 사물목적어로 구분하였다. 목적어 역시 동사 속에 포함될 수 있으며, 손 이용 동사의 경우 사물목적어가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추가절은 세부절과 수식어(modifier)로 분류하였다. 세부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수식어는 주어와 목적어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형용사, 대명사와 지숫자로 구분하였다.

문장 유형은 평서문, 의문문과 명령문으로 분류하였다. 의문문은 Y/N 의문문과 wh-의문문으로 구분하였다. Y/N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예’, ‘아니요’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묻는 것으로, 머리를 살짝 숙이고 눈썹을 올리는 비수지 표지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wh-의문문은 Y/N 의문문과 다르게 눈썹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비수지 표지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명령문에서는 청유문과 명령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비수지 신호와 마임으로 구분하였다.

문장 변형은 조동사, 부정문, 확인문과 강조문으로 분류하였다. 조동사는 독일수어 CAN, MAY, LIKE, WISH, WANT, MUST, SHALL 등을 사용하며, 부정문은 머리 흔들기, 알파 수동, NEIN 수어, 기타 수어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머리 흔들기 부정문은 주로 술어와 함께 사용되고, 동사 중 몸의 접촉이 없는 동사는 알파 수동으로 부정을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수사의문문에서는 NEIN 수어를 사용하여 부정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 외 부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독일수어로 NOT-YET, NOT, NOT-THERE, NOT-IF를 소개하였다. 확인문은 비수지 표지인 머리 끄덕거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며, 한 수어에 비수지 표지가 있을 수도 있고 문장의 여러 수어에 비수지 표지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강조문은 비수지 표지로 강조하기, 어순을 전도하여 강조하기, 대체부정으로 강조하기로 분류하였다. 비수지 표지로 강조하기는 강조해야 하는 수어를 할 때 눈을 크게 뜨고 눈썹을 올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이며, 어순을 통해서 강조를 표현할 경우 강조를 해야 하는 수어를 문장 앞부분으로 옮겨 문장을 구성하여 표현한다고 제시하였다. 대체부정으로 강조하기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부정하면서 해당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 파란 자동차는 내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빨간 자동차가 내 것이다”라는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또는 수사의문문을 통해 No로 답하고 상대방을 해당 수어에 집중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예로는 “임신을 했을 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태아에게 아주 위험 합니다”를 들었다.

문장 접속은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로, 접속사(conjunction) 수어를 통해서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독일수어에서는 비수지 표지를 통해서 문장 접속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였다. 문장 연결 형식을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A and B는 동등한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음성언어에서는 and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수어에서는 수어 단어 없이 공간설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A or B는 ODER ‘또는’이라는 수어를 사용하고 추가로 공간설정으로 구분을 하였다. A but B는 눈을 크게 뜨고 살짝 놀란 표정을 하거나 ABER ‘하지만’이라는 수어로 접속을 실현한다고 하였다. A, and then B는 순차적인 표현으로, FERTIG ‘끝’이라는 수어 후에 DANN ‘그 후’라는 수어를 하는 방법으로 두 문장을 이어준다고 하였다. Although A, still B는 A를 할 때 눈썹을 올리고, B를 할 때 눈썹이 좁아지는 비수지 표지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추가로 TROTZDEM ‘그래도’와 EGAL ‘상관없다’라는 수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WHILE A happened B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이 경우 동시성을 형태론적으로 표현하거나 역할로 표현함을 설명하였다. A leads to B는 원인과 결과를 뜻하며, A 문장이 원인이고 B 문장이 결과라면 DESHALB ‘그 때문에’에라는 수어로 문장을 접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문장의 순서가 거꾸로라면 결과를 표현한 후 WARUM ‘왜’ 또는 GRUND ‘이유’라는 수어를 통해서 문장 접속을 실현한다고 하였다. If A then B에서는 A는 조건, B는 결과를 뜻하며 두 문장을 WENN ‘-면’과 DANN ‘그 후’라는 수어로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유형은 A 문장에서 눈썹을 올리고 B 문장을 할 때 눈썹을 다시 내리는 비수지 표지로 두 문장을 구분하여 연결할 수 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역할 전환(Roleshift)은 수어에만 존재하는 특징이라고 하였다. 수어 화자가 역할을 바꾸면서 수어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역할은 사람만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다양한 예시를 통해 본 문법서에서는 역할 전환을 설명하였다. 역할 전환은 내레이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연설, 강의에서도 흔하게 사용한다고 하였다.

수어에서 통사론적인 내용은 공간사용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공간사용은 공간을 설정하는 것과 공간적으로 설정한 사물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원하는 공간에서 수어를 함으로 공간을 설정하거나, 수어의 형태(body anchored signs)가 자유로운 위치설정이 불가능할 때는 지시나 손 대체 동사를 통해 공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공간을 설정하고 나면 서로의 관계를 일치동사, 손대체동사, 손이용동사로 표현 할 수 있음을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공간을 설정한 사물의 관계는 2D 묘사, 3D 묘사, 길 안내와 장소 기술, counting hand로 분류하였다. 2D 묘사는 약도를 묘사는 방법이며, 3D 묘사는 손이용 동사와 손대체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길 안내와 장소 기술은 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며 정확한 위치를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손 자체를 사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엄지, 검지 등 각 손가락이 하나의 사물을 대표한다고 하며 이를 counting hand라고 하였다.

공간사용의 또 다른 분류는 부표(buoys)로 한 수어를 하고 나서 그 수어의 비우세 손이 계속 유지될 때, 유지되는 손이 공간적 기준이 되고 이를 부표라고 하였다. 부표는 공간 부표와 숫자를 세는 부표로 구분하였다.

통사론에 마지막으로 다루어지는 장은 내레이션 텍스트 체계로 내레이션의 규칙을 설명하였다. 수어에서 내레이션을 할 때 먼저 환경을 설정하여 이를 묘사한 후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규칙이 있다고 하였다. 인물을 소개할 때는 인물의 특징과 외모를 묘사하고 위치를 설정함을 하나의 수어 내레이션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의 통사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45>에 정리하였다.

<표 45> Papaspyrou 외(2008):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통사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Cla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dicate</li> <li>- Subject</li> <li>- Object</li> <li>- Aim object</li> <li>- Item object</li> <li>- Addition</li> <li>- Indication</li> <li>- Attribute</li> </ul>	-서술절, 주어절, 목적어절, 부가절로 나누어 설명
Sentence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tement</li> <li>- Questions</li> <li>- Yes-No Questions</li> <li>- WH-Questions</li> <li>- Request sentence</li> <li>- Plea</li> <li>- Order</li> </ul>	-문장 유형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누어 설명
Sentence mod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dal verbs</li> <li>- Negation</li> <li>- Negation by head shaking</li> <li>- Negation by Alpha-movement</li> <li>- Negation with the sign NEIN</li> <li>- Negation with other signs</li> <li>- Confirmation</li> <li>- Emphasis</li> <li>- Emphasis by non manual devices</li> <li>- Emphasis by conversion</li> <li>- Emphasis by negation of alternativ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장의 수정 방법으로 Modal verbs, 부정, 긍정, 강조로 나누어 설명</li> <li>-부정 방법으로 NMM(Head shaking, alpha-movement), 어휘 부정으로 나누어 설명</li> <li>-NMM에 의한 강조와 전환, 부정에 의한 강조로 나누어 설명</li> </ul>

Sentence conjun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and B”</li> <li>- “A or B”</li> <li>- “A but B”</li> <li>- “A, and then B”</li> <li>- “Although A, still B”</li> <li>- “While A happened B”</li> <li>- “A leads to B”</li> <li>- “If A, then B”</li> </ul>	-다양한 접속사에 의한 복문을 설명
Role shift		
Use of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ocalisation</li> <li>- Relation of the located items to each other</li> <li>- Two dimensional graphics</li> <li>- Three dimensional model</li> <li>- Directions and Description of locations</li> <li>- Position of objects on the hand Buoy as a reference point</li> <li>- Space buoy</li> <li>- Numeration buo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 사용을 2차원과 3차원 관계, 손을 통한 표현으로 나누어 설명</li> <li>-참조점인 부표를 공간과 명수법으로 나누어 설명</li> </ul>
text structure of a narration		

#### 4.3.4 호주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호주수어 문법서인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Johnston & Schembri, 2007)』의 통사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호주수어 문법서의 통사론에서는 문장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어휘 부류를 구분하고, 작은 성분이 모여 문장이 구성되는 방식과 단순절과 복합절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논의 후 수어와 음성언어의 기본 어순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어휘 부류, 문장 및 문장성분, 문장 유형, 단순 절(simple clause)에서의 문장성분 순서, 내용 의문문, 주제화(topicalisation), 유사 분열문(pseudo-clefts), 부정(negation), 복합절에서의 성분 순서, 접속절과 종속절, 기본 어순 순으로 설명하였다.

호주수어의 문법 범주 이해를 위해 수어 어휘를 의미적, 문법적인 특성으로 어휘 부류를 묶었다. 호주수어의 명사는 통상적으로 한정사, 형용사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절 안에서 동사/형용사 논항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명사의 복수성은 반복을 통해 표지가 되거나, 수동의 차이를 통해 동사와 구분되기도 하나 모든 명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동사는 수, 양태, 상 표지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명령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동사만으로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형용사는 일치동사의 뒤, 명사의 앞과 뒤에 나타날 수 있으며, 비교를 위해 VERY, MORE, MOST, WORSE와 같은 부사들로

수식할 수 있다. 호주수어에서 부사로 쓰이는 접미사가 없으며, 개별 단어, 기존 수어 단어의 변형, 혹은 ‘th’ 입 모양과 같은 비수지 기호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나의 수어가 형용사와 부사로 기능하는 예도 있으며, 한정사는 명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뒤에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호주수어에서 한정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어의 어순과 같으나 한정사는 명사 뒤, 조동사는 문장의 맨 끝 또는 주동사의 앞과 문장 끝, 모두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전치사는 문장의 다른 위치에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명사, 동사를 공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영어보다 전치사를 덜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호주수어에서 대명사는 지시 수어를 많이 사용하며, 복수는 동글게 움직이는 수동으로 설명하였다. 비1인칭 대명사의 방향은 맥락 의존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호주수어의 어휘 부류들이 그 유형에 따라 의미적, 형태적 성질이 다르며 출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서로 다른 제약이 있는 것처럼 문장 차원에서도 순서의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호주수어 문법서에서는 문장의 기능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평서문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음성언어와 다르게 어순의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의문문은 극성 의문문(Polar questions)과 내용 의문문(Content question)으로 구분하였다. 극성 의문문은 조동사와 명사구의 도치가 일어나지 않으며 눈썹 올림, 고개 젓힘과 같은 비수지 신호가 있고, 내용 의문문은 어순의 도치가 아닌 눈썹 찡그림, 고개와 몸이 앞으로 향하는 비수지 신호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의문문에서 비수지 신호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중립적인 표정으로 맥락이나 질문의 의미가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의문문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주수어 문법서에서는 단순 절(simple clause)에서의 문장 성분 순서를 동사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지시동사는 방향을 통해 논항의 행위자와 피동주를 구분하여 문장성분의 순서가 다양하나, 일반동사의 경우 어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문법서에서는 호주수어에 연결동사 및 계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동사 절(verbless clauses)의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때 연결 구문은 두 논항을 병치시키거나 명사보다는 형용사나 부사를 통해 담지자(carrier)로서의 개체를 나타내는 어휘와 속성(attribute)으로서의 어휘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일반동사 자동사절의 문장 성분 순서는 행위자 명사구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동사구나 나온다고 하였다. 일반동사 타동사 절에서는 행위자-동사-피동주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사가 상이나 수에 의해 굴절될 때 동사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일반적임을 설명하였다. 지시동사는 공간을 활용하며 공간을 통해 행위자 논항과 피동주 논항으로 구분되어 문장성분의 순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하였다. 호주수어에서는 성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조동사 반복의 경우 꼬덕임 비수지 신호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호주수어에는 주제가 되는 성분을 드러내기 위한 주제화 구문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문장의 주제를 표지하기 위해 비수지 신호와 짧은 휴지를 사용하며, 눈썹 올림으로 주제화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주제화 구문에서 나타나는 눈썹 올림 비수지 신호는 의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나 의문문에서는 눈썹 찡그림과 함께 나타난다고 하였다.

호주수어에도 미국수어의 유사 분열문(pseudo-clefts)과 같은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부정(negation)에서는 술어에 고개 저음과 같은 비수지 신호가 동반되거나 NOT, NOTHING 두 개의 수지 부정어 사용, NOT-YET, NEVER와 같은 부정어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수지 부정어는 동사 앞에 위치할 수 있으나 NOTHING은 동사 뒤에 두는 것을 선호하며 CAN'T, WON'T, NOT-HAVE, NOT-KNOW와 같은 부정의 의미가 있는 어휘가 있음을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조건절에서는 주제화와 유사하게 눈썹 올림과 고개를 뒤로 젖히는 비수지 신호가 동반되며 I-F와 같은 지문자가 함께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제한적 관계절은 명사구 내부에 위치하며 주제화 성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비수지 신호가 동반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호주수어에는 다양한 성분 순서로 구성된 문형이 존재하며 SVO 언어의 특징과 자유 어순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동사의 타동사 평서문을 호주수어의 기본 문형으로 간주할 근거가 불명확하며 문법적 의미역인 행위자, 피동주는 문법 관계인 주어, 목적어와 완벽히 대응하지 않음으로 호주수어의 기본 어순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고 하였다.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의 통사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46>에 정리하였다.

<표 46> Johnston & Schembri(2007). Australian Sign Language-통사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word cla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uns</li> <li>- verbs</li> <li>- adjectives</li> <li>- adverbs</li> <li>- determiner</li> <li>- auxiliary verbs</li> <li>- prepositions</li> <li>- conjunctions</li> <li>- pronouns</li> <li>- interjections</li> </ul>	- 품사를 중분류와 같이 분류하여 설명함

## II.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Sentences and their constituents		
Sentence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clarative(indicative)</li> <li>- interrogatives</li> <li>- imperatives</li> <li>- exclamatives</li> </ul>	-문장의 종류를 4가지로 분류하고 예를 들어 설명함
Constituent order in simple cla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erbless clauses</li> <li>- clauses with intransitive plain verbs</li> <li>- clauses with transitive plain verbs</li> <li>- clauses with indicating and depicting verbs</li> <li>- sentence-final tags and doubling</li> <li>- ellipsis</li> </ul>	-동사 종류에 따라 절 구성 요소와 어순을 분석함
Content questions		-Wh 의문문을 예를 들어 설명함
Topicalisation		-화제화 구문에 대해 기술함
Pseudo-clefts or rhetorical questions		-수사적 질문에 대해 기술함
Negation and affirmation		-부정과 긍정을 예를 들어 설명함
Constituent order in clause complexes		-복잡한 절과 구성 요소와 어순을 설명함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ditionals</li> <li>- relative clauses</li> </ul>	-가정문과 관계절에 대해 기술함
Basic word order?		

### 4.3.5 국외 수어학 개론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수어학 개론서인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Baker, Bogaerde, Pfau & Schermer (Eds.), 2016)』의 통사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 문헌에서는 단문과 복문으로 구분하여 통사론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장인 단문에서는 수어 단문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여러 나라의 수어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문장 성분의 기능에서는 수어의 문장 성분을 기능에 따라 논항, 술어, 부가어로 구분하였다. 술어는 동사 성분을 통해 실현되나 다른 성분이 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논항 성분은 문장의 문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부가어의 경우 생략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향가(valency)에서는 향가는 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의 개수이며 향가에 따라 술어를 한 자리 술어, 두 자리 술어, 세 자리 술어로 구분하였다. 이 향가는 상호성 대명사(each other) 사용, 상호성을 표지하는 접사 -s가 동사에 붙는 경우인 접사화, 동사 변형으로 술어의 향가가 축소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동사로

사용되면서 타동사로도 사용되는 경우를 향가 교체 현상이라고 하며 수어에서 향가 교체에 따른 수형 변화가 관찰됨을 소개하였다. 의미역은 술어에 의해 표현된 사건과 상태 속에서 참여자들이 관여하는 방식을 상세화하며 의미역과 문법 기능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어에서는 수동태 구문보다는 행위자-비초점화 구문(defocused agent construction)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미국수어, 러시아수어, 스웨덴수어, 브라질수어 등은 SVO 유형에 속하며, 네덜란드수어, 인도파키스탄수어, 이탈리아수어 등은 SOV 유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일부 수어에서는 동사가 공간적인 활용을 하거나 상에 의해 굴절하는 경우에서처럼 어순 변화가 매우 허용적임을 설명하였다. 수어 어순에서 처음 등장하는 성분은 크고 움직이지 않는 것(배경)을 지시하고 작고 움직이는 개체(전경)를 후에 가리키는 처소 구문의 어순을 설명하였다. 부가어의 경우도 기본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문장 수준의 기본 어순뿐 아니라 명사구 내부에서도 일정한 순서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탈리아수어의 경우 명사 수식어가 명사 뒤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식어가 여러 개인 경우 위치가 유연해짐을 설명하였다. 독일수어에서는 소유격 대명사와 수사는 명사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명사 앞에 오고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명사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임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본 어순을 따름에도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는 기제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주제화(topicalization)과 의문문, 명령문, 부정문, 긍정문, 대명사 규칙(pronominalization)과 대명사 누락(pro-drop)으로 설명하였다. 주제화는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문법 장치로 주제화된 성분은 문미로 이동하고 공유된 정보 혹은 구정보가 주제화 성분임을 설명하였다. 주제화시 통사적 위치와 비수지 신호로 주제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는 기제 중 하나인 의문문에서 수어는 긍정과 부정 의문문이 어순을 바꾸는 경우는 없었으나 비수지 신호를 통해 의문문을 표시하고 문미에 의문 첨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수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에도 비수지 신호가 사용되며 수어 의문문의 특정한 현상으로 의문사 복사(wh-doubling)를 설명하였다. 명령문에서도 비수지 신호가 사용되며 명령(command), 요청(request)에 따라 비수지 신호가 다름을 소개하였다. 부정문의 구조는 수어마다 다르며 부정소의 위치와 기본 어순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중요한 것은 부정소의 경우 부정문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반면 비수지 신호는 필수적이며 비수지 신호가 수지적 부정소와 완전히 결속해 있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긍정문에서 역시, 긍정문을 위한 외현적인 표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대명사 규칙(pronominalization)과 대명사 누락(pro-drop)에서는 수어의 대명사는 수어 공간에 대한 위치 지시(pointing) 신호로 실현이 되며 음성언어에서는 선행 맥락에 따라 대명사의 지시 대상이 중의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수어에서는 중의적 상황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간적인 변이를 가지는 동사의 경우 주어 대명사와 목적어 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고, INDEX를 통해 주어 논항을 문미에 반복하는 대명사 복사(pronoun copy) 현상을 소개하였다.

복문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주절과 매입절이 결합하는 종속이고, 다른 하나는 주절과 주절이 결합하는 접속이다. 음성언어에서는 매입절임을 나타내기 위한 특수한 표지나 어순 도치를 가지고 있으나 수어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드물고 주절과 매입절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였다. 매입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째는 보문절로 주절 동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논항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 수어에서는 SOV 어순임에도 목적어 보문절이 동사에 후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보문절은 특히 직접 화법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역할 전이라는 비수지적 신호와 함께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부사절로 주절의 동사를 부사적으로 수식하는 역할을 하며 보문절과는 달리 수의적임을 설명하였다. 수어의 시간부사절은 접속사를 사용하여 시간부사절을 표지하기도 하지만 비수지 신호를 통한 표지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원인 부사절과 목적 부사절은 접속사 혹은 의문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며, 조건 부사절의 경우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수어에서 주절에 선행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지적인 접속사는 사용이 수의적인 반면 비수지 신호는 강제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셋째는 관계절이며 보문절, 부사절과는 달리 동사가 아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수어에서도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내핵관계절 유형의 언어와 외핵관계절 유형의 언어가 존재하며, 접속의 경우 역접, 순접, 이접으로 하위 유형을 나눌 수 있으며 세 가지 유형 모두 수지 접속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비수지 신호를 통해 접속을 표지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의 통사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47>에 정리하였다.

<표 47> Baker 외(2016).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통사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Syntax: simple sentences	문장 성분의 기능 (Function of constituents)	-기능에 따라 논항, 술어, 부가어로 구분함
	항가(Valency)	-항가는 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의 개수임 -상호성 대명사(each other)를 사용, 접사화, 동사 변형으로 술어의 항가가 축소 될 수 있음을 기술함 -항가 교체에 따른 수형 변화가 있음
	의미역과 문법기능 (Semantic and	-의미역은 술어에 의해 표현된 사건과 상태 속에서 참여자들이 관여하는 방식을 상세화 함을 기술함

	<b>grammatical roles)</b>	-의미역과 문법 기능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며 문법 기능의 차이가 표현의 차이로 실현되지 않음
	<b>어순 (Sign order)</b>	-주어 목적어가 모두 유정성인 경우 어순이 중요하나 무정성인 주어, 목적어인 경우 상대적으로 어순을 변경함을 기술함 -동사가 공간적인 활용을 하거나 상에 의해 굴절하는 경우 어순을 변경함을 기술함 -최소 구문 어순으로 배경-전경 원리를 소개함 -부가어의 경우 기본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수어에서의 명사구 구성 순서 유형으로 명사 수식어가 명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 수식어가 여러 개일 때 여러 가지 구성이 모두 가능한 경우, 소유격 대명사와 수사는 명사 앞에 오는 경우, 관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명사 앞에 오고,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명사 뒤에 오는 경우를 소개함
	<b>주제화 (Topicalization)</b>	-주제화는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문법적 장치로 수어 사용자, 청자 사이에 이미 공유된 정보 혹은 구정보가 주제화 성분의 특징임을 설명함 -동사적 위치, 비수지 신호표지(t, 휴지 등)로 주제 표시를 함
	<b>문장 유형 (Sentence types)</b>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는 기제로 의문문, 명령문을 소개함 -수어에서 긍정, 부정 의문문의 어순이 바뀌지 않으나 비수지 신호로 의문문을 표지함 -의문 첨사가 사용되기도 하나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비수지 신호를 사용함 -수어 의문문의 양식(modality)에 특징적인 패턴을 가짐 예로 의문사 복사(wh-doubling)을 설명함 -수어의 명령문에서 비수지 신호를 발견하였으며 명령(command), 요청(request)에 따라 비수지 신호가 다름을 소개함 -이탈리아수어에서는 모든 명령문 유형에 지시(INDEX)신호를 사용함을 소개함
	<b>부정문과 긍정문 (Negation and affirmation)</b>	-부정문의 구조는 수어마다 다르며 수지 부정소의 위치는 수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정소의 위치와 기본 어순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기술함. -부정소의 경우 부정문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 비수지 신호는 필수적임을 설명함 -비수지 신호가 수지적 부정소와 완전히 결속해 있는 경우를 소개함 -긍정을 위한 외현적 표지는 필수적이지 않으나 부정문에서는 항상 실현됨 -긍정 비수지와 수어가 결속된 경우가 있음을 소개함
	<b>대명사 규칙 (Pronominalization) 과 대명사 누락(pro-drop)</b>	-이미 언급한 지시 대상이 수어 공간에 연결됨 -수어 공간에 대한 위치 지시(pointing) 신호로 실현됨 -음성언어에서 선행 맥락에 따라 대명사의 지시 대상이 중의적일 수 있으나 수어는 그러하지 않음을 설명함 -공간적인 변이를 가지는 동사의 경우 주어 대명사, 목적어 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음을 설명함 -INDEX를 통해 주어 논항을 문미에 반복하는 대명사 복사(pronoun copy)가 나타남을 설명함
<b>Syntax: complex sentences</b>	<b>보문절과 직접 화법 (Complement clauses and direct speech)</b>	-음성언어의 경우 보문절은 보문소(complementizer)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성분 순서가 주절과 다른 경우가 있으나 수어에서 보문소 사용이나 보문절의 어순 변경 같은 특징은 발견되지 않음



		-많은 수어에서 직접 화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임. 직접 화법에서는 역할 전환이 사용됨
	<b>부사절 (Adverbial clauses)</b>	-플라망수어에서는 상표지 사용, 매입절의 비수지 신호, 매입절과 주절 사이의 약간의 휴지나 고개 끄덕임으로 시간 부사절(temporal clauses)을 나타내고 독일수어에서는 시간 접속사, 비수지 신호를 사용함 -일부 수어는 접속사로 원인 부사절 및 목적 부사절을 만들거나 네덜란드수어의 경우 자문자답 형식으로 원인 부사절을 만듦 -조건 부사절(conditional clauses)은 종속 접속사를 통해 연결되거나 비수지 신호를 사용하며 이는 접속사 보다 중요한 표지임
	<b>관계절 (Relative clauses)</b>	-이탈리아수어와 독일수어에서의 한정적 관계절을 분석하였다. -두 수어 모두 SOV어순이나 명사 핵어(nominal head)는 관계절과 주절에서 다른 문법적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함. -이탈리아수어에서 명사 핵어는 관계절 내부에 위치하며 PE표지가 있음을 설명함 -독일수어에서 명사 핵어는 관계절 외부에 위치하며 관계절은 관계 대명사로 시작함을 설명함 -독일수어에서 비한정적 관계절은 관계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비수지 신호가 다름을 설명함
	<b>접속절 (Coordination)</b>	-접속의 유형은 역접, 순접, 이접이 있으며 접속사(but, and, or)를 사용하나 필수적이지 않고 비수지 신호로 실현함. 역접의 경우 두 술어의 자리 교체가 의미 차이를 만드나 순접과 이접은 어순이 중요하지 않음 -접속 시 두 접속절 모두에 나타나는 요소, 성분은 생략(ellipsis) 됨. 이탈리아수어의 경우 동사구 전체를 생략하기도 함. -수어에서 수지 생략, 어순 변경이 안 되는 등 주절과 매입절의 구별이 어려움

다음은 수어학 핸드북인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Pfau, Steinbach, & Woll (eds.), 2012)』의 통사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장인 어순에서는 어순을 기능적인 측면, 조음적인 측면, 기본적인 어순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통해 기본적인 어순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어의 어순을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며 SVO 또는 SOV로 결정내리는 것이 불가능함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수어에 대한 어순 연구는 구어와의 유사점에 초점을 두는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 수어와 구어의 차이에 초점 두고 기능주의, 인지적 관점에서 어순을 연구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어 데이터 설명과 분석의 일관성 있는 접근법이 없어 수어 어순의 유형에 대한 명확한 주장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새로운 기술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면 수어 어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생길 것이라 제안하였다.

두 번째 장인 명사구에서는 미국수어와 다른 수어들에서 나타나는 사람과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 사용의 예를 소개하였다. 또한 수어와 음성언어에서의 명사구의

내적 일치와 통사론적 문법 정보를 표현하는 비수지 표현을 설명하였다. 한정어 상관계,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 한정사구로써의 미국수어 명사구 분석, 파이자질(phi-features)의 비수지 표현의 설명을 통해 한정사-정관사 vs 부정관사, 부사적 어구가 수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수어에서의 한정사, 파이자질의 비수지 표현과 참조자질 대명사에서의 명시적 표현의 결과를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다. 수어에서 소유격, 재귀용법, 명사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어떻게 실현되며 모국어의 명사구 안에서 발견되는 그 외 요소들과 별건되지 않은 요소들을 소개하였다. 이후 복수가 수어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되며 명사구 내에서 명사와 형용사의 복수 표지를 설명하고 성, 수, 인칭에서의 일치 현상의 부족을 기술하였다. 수어에서의 양의 표현 방법과 형용사의 순서를 예시문을 통해 설명하였다.

세 번째 장인 문장 유형에서는 극성 의문문(polar questions)에서 특정한 비수지 신호가 나타남을 Zeshan(2004), Morgan(2006), Wilbur와 Patschke(1999)의 연구를 통해 설명하였다. Zeshan(2004)은 극성 의문문(polar questions)의 비수지 신호로 눈썹 치켜뜨기, 눈 부릅뜨기, 수신인과 눈 접촉하기, 머리를 앞으로 하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등을 제시하였으며 Morgan(2006)은 마지막 단어에 눈썹 올리기, 약간 고개 끄덕이기, 턱 붙이기를 소개하였다. Wilbur와 Patschke(1999)은 올림, 주름 잡음, 중립으로 구분할 수 있는 눈썹의 위치는 각각 [-wh], [+wh], [none]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wh의문문에서 역시 얼굴 표정, 상체, 눈썹에 주름지기와 같은 특정한 비수지 신호가 난다고 하였다. 미국수어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묻는 의문문은 오른쪽 움직임과 왼쪽 움직임 분석을 통해 그 현상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네 번째 장인 부정에서는 수지 부정과 비수지 신호의 부정, 부정의 통사적 패턴, 부정어 일치로 나누어 부정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수지 부정과 비수지 신호의 부정에서 모든 수어 문장의 부정은 수지 수어와 비수지 신호의 형태를 띤다고 하였다. 본 문법서에서는 부정 수어를 단순히 문장에서 드러난 사실을 부정, 화용적으로 추정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강조가 포함된 부정어, 불규칙적인 부정어, 명사와 부사 영역에서의 부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부정을 나타내는 비수지 신호로는 머리 움직임(머리 흔들기, 고개 돌리기, 가우똥하기)과 표정(얼굴 찌푸리기, 눈 가늘게 뜨기, 코 주름 만들기, 입 버리기, 입 오픈하기, 입술 양 옆을 밑으로 내려뜨리기)의 예를 보여주었다. 또한 부정 수어가 문장의 끝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기능적인 범주로써 부정은 다른 기능적인 요소, 그리고 어휘와 상호 작용을 하거나, 통사적 핵심이나 구로 어휘화되는 등의 통사적 패턴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어 일치하는 두 개 이상의 부정어가 같은 절에서 부정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양극성의 변화 없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장인 대등과 종속(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에서는 미국수어와 네덜란드수어에서 수어 결합문의 유형에 따른 실현 방법으로 사용되는 고개 기울임 등의 비수지 표지와 공간 활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문장에서의 비수지 표지의 확장 현상을 소개하고, 주어인 대명사의 반복과 wh-관계절의 확장을 소개함으로 종속절에서의 보어 역할을 설명하였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구성된 행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음성언어와 수어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행동을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수어에서 역할 전환이 일어나는 문장의 예를 소개함으로 몸의 방향이나 시선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구성된 행위의 유형과 특징을 Liddell과 Metzger(1998)의 연구를 통해 소개하였으며 문형을 분석하여 미국수어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구성된 행위의 예시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의 행위나 말을 인용하는 다양한 문장 형태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의 통사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48>에 요약하였다.

<표 48> Pfau, Steinbach, Woll(2012).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통사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Word order	Word order some background issues	-어순을 기능적인 측면, 조음적인 측면, 기본적인 어순 존재를 가정하여 살펴봄
	Word order and sign languages	-동사와 직접목적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들어 어순 결정이 불가능함을 설명함
	A timeline for sign linguistic research: how does word order work fit in?	-어순 연구의 연구 단계를 시기별로 소개함
	Towards a typology of sign languages	-유형학적 연구를 통한 수어 연구 단계를 소개함 -통사론에서의 수어 변이 연구를 소개함
	Methodological issues: how data type impacts results?	-수어 연구의 연구 방법론을 소개함
The noun phrase	Characteristics of this modality with consequence for noun phrase structure	-미국수어와 다른 수어들에서 나타나는 사람과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 사용의 예를 소개함 -수어와 음성언어에서의 명사구의 내적 일치를 설명함 -통사론적 문법 정보를 표현하는 비수지 표현을 설명함
	What's in a noun phrase? A closer look inside	-한정사-정관사 대 부정관사-그리고 부사적 어구에 대해 설명하고 수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소개함 -대명사에 대해 설명하고 수어에서의 한정사와의 관계, 파이자질(phi-features)의 비수지 표현과 참조 자질 대명사에서의 명시적 표현의 결과를 예시와 함께 설명함 -수어에서 소유격, 재귀용법, 명사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설명함 -미국수어의 명사구들 안에서 발견되는 그 외 요소들과 발견되지 않는 요소들에 대해 소개함
	Number: expression of plurality	-복수를 나타내기 위한 수어 공간의 사용을 설명함 -명사구 내에서의 명사와 형용사의 복수 표지에 대해 설명함 -성, 수 인칭에서의 일치 현상의 부족을 설명함
	DP-internal word order	-수어에서의 양의 표현 방법과 형용사의 순서에 대해 예시문과 함께 설명함
Sentence types	Polar(yes-no) questions	-Zeshan(2004), Morgan(2006), Wibur와 Patschke(1999)의 비수지 신호 연구를 소개함
	Content(wh) questions	-미국수어의 내용을 묻는 의문문들에서 오른쪽 움직임과 왼쪽 움직임을 분석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을 소개하고 설명함 -Wh-duplication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함
	Other constructions with wh-phrases	-Wh 의문구를 이루는 다른 요소들을 분석하여 설명함
Negation	Manual negation vs. non-manual marking of negation	-부정 수어를 단순히 문장에서 드러난 사실을 부정하는 수어, 추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부정 수어, 강조를 나타내는 부정 수어로 구분하여 설명함 -부정 비수지 신호는 머리 움직임과 표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Syntactic patterns of negation	-부정 수어는 문장의 끝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기능적인 범주으로써 부정은 다른 기능적인 요소 그리고 어휘와 상호작용함 -통사적 핵심이나 구로 어휘화됨
	Negative concord	-두 개 이상의 부정어가 같은 절에서 부정어가 남아있는 상태로 양극성의 변화 없이 나타나는 것을 부정어 일치라함
	Lexical negation and morphological idiosyncrasies of negatives	-반의어로서의 부정은 문장의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어휘 형성 과정에서 생긴 부정의 경우 또 다른 의미를 가짐을 설명함.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Coordination	-미국수어와 네덜란드 수어 등에서의 수어 결합문의 유형에 따른 실현 방법으로 고개 기울임 등의 비수지 표지와 공간 활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설명함
	Subordination	-종속절에서의 보어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인 대명사의 반복과 wh-관계절의 확장을 기술함 -관계절의 유형과 관계절을 만드는 문법표지를 소개하고 설명함
Utterance reports and constructed action	Reporting the words, thoughts, and actions of others	-음성언어와 수어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을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설명함
	Early approaches to role shift	-수어에서 역할 전환이 일어나는 문장들의 예를 소개하고 몸의 방향이나 시선 등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줌
	Role shift as constructed action	-구성된 행위의 유형과 그 특징에 대한 Liddell과 Metzger (1998)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함

## II.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b>Formal approaches</b>	-미국수어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구성된 행위(인용문)의 예시를 소개하고 문형을 분석하여 기술함
	<b>Integration</b>	-등장인물의 행위나 말을 인용하는 다양한 문장 형태를 소개하고 분석함

총 7권의 수어 문법서의 통사론 관련 내용을 고찰한 결과 수어 통사론에서는 품사, 문장 유형, 문장 구성(문장성분, 어순), 공간, 역할 전환으로 분류하고 각 문법서의 목차와 세부 목차를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표 49>, <표 50>은 각 문법서에서 수어 단어와 품사, 문장 유형, 문장 구성(문장성분, 어순), 공간, 역할 전환(role shift), 기타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목차들을 비교한 표이다.

&lt;표 49&gt; 주제에 따른 목차 분석-통사론\_1

문법서 주제	한국 수어학 개론 이준우, 남기현(2014)		한국수어의 이론 최상배, 안성우(2003)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Valli & Lucas(2011)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Papaspyrou 외(2008)	
	목차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품사	* 품사 분류 기준	-명사 / -대명사 -수사 / -동사 -형용사 / -관형사 -부사 / -감탄사 -조사			* Lexical Categories	-Open lexical categories -Closed lexical categories		
문장유형	* 문장 유형	-단문 -복문	* ASL의 기본 문형	-의문문 / -부정문 -명령문 / -화제화문 -조건문	* Basic Sentence Types		* Sentence type	-Statement -Questions -Request sentence
	* 의향법	-비수지 신호의 문법적 기능 -한국수어에서의 의향법	* 한국수어의 문형	-석동일(1989) -변지원(1992) -황도순(1994) -엄미숙(1996)			* Sentence modification	-Modal verbs -Negation -Confirmation -Emphasis
문장구성 (문장 성분 ,어순)	* 시제 와 상	-한국어의 시제 -한국어의 상 -수어의 동작상 -비수지 신호와 상			* Word Order	-Basic word order in ASL -Word Order with intransitive verbs	* Clauses	-Predicate / -Subject -Object / -Addition
	* 초점과 화제	-바탕-초점 -화제-논평			* Verbs	-Plain Verbs -Indication Verbs -Depicting Verbs	* Sentence conjunction	-“A and B”/ -“A or B” -“A but B” -“A, and then B” -“Although A,still B” -“While A happened B” -“A leads to B” -“If A, then B”
					* Time and Aspect	-Time and Tense -Expressing time in ASL -Temporal Aspect		
공간			* 구문론에서 공간이동의 중요성		* The Function of Space		* Use of space	
역할 전환 (role shift)							* Role shift	-Localisation -Relation of the located items to each other -Buoy as a reference
기타			* 수어 통사론의 의미 * 통사론 연구의 역사				* Text structure of a narration	

<표 50> 주제에 따른 목차 비교-통사론\_2

문법서 범주	AUSTRALIAN SIGN LANGUAGE Johnston & Schembri(2007)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Baker 외(2016)		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Pfau 외(2012)	
	목차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품사	* Word classes in Auslan	-Nouns / -Verbs -Adjectives /-Adverbs -Determiners /-Auxiliary verbs -Prepositions /-Conjunctions -Pronouns /-Interjections				
문장유형	* Sentences types		* Syntax: simple sentences	-Topicalization -Sentence types -Negation and affirmation	* Sentence types	-Polar(yes-no) questions -Content(wh) questions -Other constructions with wh-phrases
	*Content questions				* Negation	-Manual negation vs. non-manual marking of negation -Syntactic patterns of negation -Negative concord -Lexical negation and morphological idiosyncrasies of negatives
	* Topicalisation					
	* Pseudo-clefts (or 'rhetorical questions')					
	* Negation and affirmation					
문장구성 (문장 성분 ,어순)	* Sentences and their constituents		* Syntax: simple sentences	-Pronominalization and pro-drop-Function of constituents -Valency -Semantic and grammatical roles -Sign order	* Word order	-Word order-some background issues -Word order and sign languages -A timeline for sign linguistic research : how does word order work fit in? -Towards a typology of sign languages -Methodological issues : how data type impacts results?
	* Constituent order in simple clauses	-Verbless clauses -Clauses with intransitive plain verbs -Clauses with transitive plain verbs -Clauses with indicating and depicting verbs -Sentence-final tags and doubling -Ellipsis				
	* Constituent order in clause complexes		* Syntax: complex sentences	-Complement clauses and direct speech -Adverbial clauses -Relative clauses -Coordination	* The noun phrase	-Characteristics of this modality with consequence for noun phrase structure -What's in a noun phrase? A closer look inside -Number: expression of plurality -DP_internal word order
	*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Conditionals -Relative clauses			*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Coordination -Subordination
공간 역할 전환 (role shift)					* Utterance reports and constructed action	-Reporting the words, thoughts, and actions of others -Early approaches to role shift -Role shift as constructed action -Formal approaches / -Integration

#### 4.4 의미 및 화용론

의미 및 화용론 관련 해외 수어 문법서의 목차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수어 의미 및 화용론에서 다루는 하위 범주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거나, 특정 의미 및 화용론 연구의 결과를 하위 범주로 다룬 문법서가 있었다. 이러한 문법서를 제외하면 한국수어 문법서 2권, 나라별 문법서 2권과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으로 총 6권이다.

한국수어 문법서 2권(이준우, 남기현, 2014, 최상배, 안성우, 2003), 나라별 문법서 2권 (『호주수어 언어학 개론(Valli & Lucas, 2011, Johnston & Schembri, 2007), 개론 문법서 2권(Baker 외, 2016, Pfau 외, 2012)을 대상으로 수어학의 의미 및 화용론에서 다루고 있는 하위 범주와 내용을 고찰하였다. <표 51>과 <표 52>은 의미 및 화용론 관련 세부 내용을 고찰할 문법서 6권의 대범주와 중범주 목차를 비교한 표이다.



<표 51> 문법서별 체계 비교-의미 및 화용론\_1

한국 수어학 개론 이준우, 남기현(2014)		한국수어의 이론 최상배, 안성우(2003)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Valli & Lucas(2011)		AUSTRALIAN SIGN LANGUAGE Johnston & Schembri(2007)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 의미 이론	-지시적 관점 -표상적 관점 -수어의 기호 유형	* 수어 의미론의 의미		* Semantics	-The Meaning of Individual Signs -The Meaning of Sentences	* Semantics and pragmatics	-Sign meaning and sentence meaning -Types of meaning -Sign meaning -Iconicity and metaphor in Auslan -Sentence meaning -Utterance meaning
		* 수어 어휘에서의 의미	-의미의 유형 -외연과 암시 -어휘 항목들의 관계				
* 어휘 관계	-동의 관계 -동음이의어 관계 -다의어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환유 -은유	* 수어문에서의 의미		* Language in Use	-ASL Discourse -Bilingualism and Language Contact -Language as Art		
		* 수어의 의미 변화					
		* 차이와 역사적 변화	-차이 -역사적 변화				
		* ASL담화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담화 -규범으로서의 담화 -내적 구조를 지닌 담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 차이가 있는 담화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담화			* Discourse: structure and use above sentence	-Register -style and genre -Information structure -Cohesion
		* 2중 언어와 언어 접촉	-농과 2중 언어 -언어 접촉				
		* 수어의 예술	-이야기하기 -진동 수어 -드라마 -농유머 -수어시				

&lt;표 52&gt; 문법서별 체계 비교-의미 및 화용론\_2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Baker 외(2016)		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Pfau 외(2012)	
대 범주	중 범주	대 범주	중 범주
* Cooperating in conversations		* Iconicity and metaphors	-Iconicity in linguistic theory -Examination of linguistic iconicity -Relevance of iconicity to sign language use
* Turn-taking		* Use of sign space	-Use of sign space for referent localization -Discourse-level structuring of sign space -Structuring sign space for eventrepresentation: Signing perspective and classifier predicates
* Speech acts			-Structuring sign space with multiple articulators: Simultaneous constructions -Typological perspective: Use of sign space across sign languages
* Structuring the discourse	-The use of articles and pronouns -Information structure, Role shift	* Lexical semantics: Semantic fields and lexical aspect	-Words and their meanings -Semantic relations and semantic fields -Aspect and visibility in sign languages -Lexical aspectual structures at work
* Pragmatic adequacy	-Whispering and shouting -Influence of the hearing status of the conversation partner	* Information structure	-Linguistic encoding of topic information -Linguistic encoding of focus
		* Communicative interaction Grice's Co-operation Principle	-Speech acts -Turn-taking -Coherence and cohesion -Narratives -Pragmatic adequacy -Influence of cultural/hearing status

#### 4.4.1 한국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한국 수어학 개론(이준우, 남기현, 2014)』의 의미 및 화용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수어학 개론에서 의미론은 의미 이론과 어휘 관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장인 의미 이론에서는 지시적 관점, 표상적 관점을 제시하고, 수어의 기호 유형을 Bergman(1978)의 동기성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두 번째 장인 어휘 관계는 동의 관계, 동음이의어 관계, 다의어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환유, 은유로 나누고 있다. 동의 관계에서 동의어가 발생하는 이유를 지역적 방언, 문체(style)나 격식, 전문 용어, 완곡어법으로 설명하였다. 동음이의어 관계에서는 형태가 의미와 동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을 [이야기], [설교]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이야기], [설교]는 형태는 같으나 얼굴 표정이 다른데 이와 같은 단어 쌍들이 동음이의어의 예로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의어 관계에서 다의어의 발생 원인을 적용의 전이, 사회 환경의 특수화, 비유적 표현, 동음어의 재해석, 외국어의 영향으로 설명하였다. 반의 관계에서는 반의어의 유형을 등급 반의어(gradable antonym), 비등급 반의어(non-gradable antonym), 역의어(converse word) 유형으로 나누었다. 상하 관계에서는 수어의 특이점으로 하의어를 이용하여 상의어를 표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환유는 비유법의 하나로 한국수어에서 동물, 직업, 신분에 관한 단어들은 환유를 통해 표현된다고 하였다. 은유는 공간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구조적 은유, 수어소별 어휘 군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공간적 은유는 앞과 뒤, 위와 아래, 높고 낮음과 같은 공간적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고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개체, 상태, 사건을 사물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구조적 은유는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해 만들어지는 은유라고 하였다. 수어에서 어떤 단어들은 수형, 수동, 수위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공통된 의미를 공유하는데 이를 수어소별 어휘군이라 하였다.

『한국 수어학 개론』의 의미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내용을 <표 53>에 정리하였다.

<표 53> 이준우 · 남기현(2014). 한국 수어학 개론-의미 및 화용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의미 이론	지시적 관점	-언어학에서의 지시적·표상적 관점을 Bergman(1978)의 동기성으로 소개함
	표상적 관점	
	수어의 기호 유형	
어휘 관계	동의 관계	-동의어 발생 이유를 지역적 방언, 사회적 계층 차이로 구분하여 설명함 -한국수어에서는 방언, 문체(격식), 전문 용어, 완곡어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b>동음이의어 관계</b>	-형태가 의미와 동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형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함
	<b>다의어 관계</b>	-적용의 전이, 사회 환경의 특수화, 비유적 표현, 동음어의 재해석, 외국어의 영향으로 설명함
	<b>반의 관계</b>	-등급 반의어, 비등급 반의어, 역의어(가역성)로 설명함
	<b>상하 관계</b>	-상어의어가 하의어를 이용하여 표현됨을 설명함
	<b>환유</b>	-동물, 직업, 신분에 관한 단어들은 환유를 사용함을 설명함
	<b>은유</b>	-공간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구조적 은유, 수어소별 어휘군으로 설명함

다음은 『한국수어의 이론(최상배, 안성우, 2003)』의 의미 및 화용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수어의 이론에서는 수어의 의미론적 특징과 수어의 화용론적 특징을 중범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수어의 의미론적 특징에서 수어의 의미 구조를 여러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관계 분석은 수어 어휘의 어원적 의미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좌표로 보는 김철관(1999)의 연구를 통해 설명하였다. 수어 어휘에서의 의미는 의미의 유형, 외연(외포)과 암시(내포), 어휘 항목들의 관계, 수어문에서의 의미, 수어의 의미 변화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의미의 유형은 수어 어휘나 문장에 의해 지시된 생각이나 사물 또는 상태의 지시적 의미와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사회적 의미, 수어 사용자의 감정, 태도, 의견에 관한 정보를 지지하는 정의적 의미로 구분하였으며, 어휘 항목들의 관계는 하위어, 부분/전체 관계, 동의어, 반의어, 상반어, 은유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수어의 의미 변화에서 한국수어의 의미 변화의 유형을 크게 전이, 은유적 전용, 환유적 전용 등으로 구분한 김철관(1999)의 연구로 설명하였다.

수어의 화용론적 특징은 차이와 역사적 변화, ASL담화, 2중 언어와 언어 접촉, 수어의 예술로 설명하였다. 차이와 역사적 변화에서는 지역적, 사회적, 종족, 성, 연령, 인종 등의 차이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ASL담화에서는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담화, 규범으로서의 담화, 내적 구조를 지닌 담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 차이가 있는 담화,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담화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중 언어와 언어 접촉은 농과 이중 언어, 두 수어가 접촉하는 경우와 수어와 구어가 접촉하는 경우로 나누어 언어 접촉으로 구분하였다. 수어의 예술로는 이야기하기(지문자 이야기, 분류사 이야기), 진동 수어, 드라마, 농유머, 수어시를 소개하였다.

『한국수어의 이론』의 의미 및 화용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내용을 <표 54>에 정리하였다.

<표 54> 최상배 · 안성우(2014). 한국수어의 이론-의미 및 화용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수어의 의미론적 특징	수어 의미론의 의미	-김칠관(1999)의 연구를 통해 수어의 의미구조를 여러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관계 분석은 수어 어휘의 어원적 의미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좌표임을 설명함
	수어 어휘에서의 의미	-의미의 유형은 수어 어휘나 문장에 의해 지시된 생각이나 사물 또는 상태의 지시적 의미와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사회적 의미, 수어 사용자의 감정, 태도, 의견에 관한 정보를 지시하는 정의적 의미로 나뉘어 설명함 -외연(외포)과 암시(내포)로 구분하여 설명함 -어휘 항목들의 관계를 하위어, 부분/전체 관계, 동의어, 반의어, 상반어, 은유로 나누어 설명함 -수어문에서의 의미와 수어의 의미 변화를 설명함
수어의 화용론적 특징	차이와 역사적 변화	-지역적, 사회적, 종족, 성, 연령, 인종 등의 차이를 설명함 -역사적 변화 연구에서는 수어의 어원 연구와 연결되어 올바른 수어를 보존, 전승하는 계기에 대해 설명함
	ASL담화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담화 규범으로서의 담화, 내적 구조를 지닌 담화(주요받기, 주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 차이가 있는 담화,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담화를 소개함
	2중 언어와 언어 접촉	-농과 2중 언어에 대해 설명함. -언어접촉: 두 언어가 접촉하는 경우로 어휘 차용, 기호 변화, 외국인 대화, 간접의 발생. 수어와 구어가 접촉하는 경우 수어 어휘의 복합어(입원, 서점), 구어에 수어 영향(나는 요리 파)을 받음을 설명함
	수어의 예술	-이야기하기(지문자 이야기, 분류사 이야기), 진동 수어, 드라마, 농유머, 수어시를 소개함

#### 4.4.2 미국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미국수어 문법서인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Valli, Mulrooney, & Villanueva, 2011)』의 의미 및 화용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수어 문법서에서는 의미론과 관련된 내용을 어휘 수준에서의 의미와 문장 수준에서의 의미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먼저 어휘 수준에서의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결정짓는 출처는 사전이라 하였다. 수어 사전은 다른 사전과는 달리 대부분 이중 언어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즉, 수어 사전은 수어의 단어 목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영어로 된 주석(문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그러나 스토키의 미국수어 사전은 알파벳 리스트가 아닌 수형, 수위, 움직임 등의 수어소로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이중 언어로 된 수어 사전의 문제점은 동일한 수어가 여러 개의 다른 영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수어가 동일한 영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어의 의미는 그것의 주석만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의미 관련 이론들을 설명하면서 먼저 의미의 3가지 종류를 설명하였다. 그 첫 번째는 참조적 의미(referential meaning)이다. 이는 단어나 문장이 가리키는 사상, 사물, 상태 등으로 CAT을 예로 들었다. CAT이라는 수어는 고양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꼬리와 수염이 있고 4개의 다리를 가진 포유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는 수어 단어나 문장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수어화자가 사용하는 수어를 통해 수어화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정의적 의미(affective meaning)로 화자가 선택한 수어 단어나 문장 구조가 그 사람의 감정, 태도, 의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현 의미(denotation)와 내포 의미(connotation)에 대해 DEAF라는 수어로 통해 설명하였다. DEAF라는 수어는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단순히 청각적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볼을 부풀리면서 천천히 둥글게 움직이는 표현 속에는 사회적으로 내포된 의미인 농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어휘 관계에서는 미국수어를 예로 들어 상위/하위어 관계, 부분/전체 관계, 동의어(유의어), 반의어 관계를 갖는 수어 단어들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은유(metaphor)에 대해 기술하였다. 은유란 제1의 의미를 넘어서는 확대로 정의하면서 제1의 지시물과 유사한 대상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Lakoff와 Johnson의 세 가지 은유적 의미를 소개하였다. 첫 번째는 방향 관련 은유(orientational metaphors)로, 공간적 정보와 관련이 있는데 영어와 미국수어에서 위는 긍정적, 아래는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특히 수어에서는 은유와 도상성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것이나 경험의 영역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수어의 은유는 이중 맵핑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이미지와 손의 모양, 위치, 움직임 등이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로 추상적인 대상, 상태, 사건을 살아있는 대상처럼 다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는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s)로 영어와 미국수어를 예시로 만질 수 있는 개념에 근거하여 하나의 개념을 만드는 은유를 설명하였다. 즉 미국수어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물이나 종이처럼 만질 수 있는 물질의 소모로 나타내기 위해 동일한 손 모양으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어 단어에서 동일한 손 모양이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어족이라고 정의하고 미국수어에서의 특정 수형 관련 어족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장인 문장 수준에서의 의미에서는 어순이 의미를 결정함을 설명하였으며,

기능어와 형태소가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고 있음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즉 미국 수어의 경우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 별개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간에서 몸의 위치나 손의 위치로 시제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다가 그 사건이 다른 사건 보다 먼저 발생한 것임을 나타낼 때는 몸을 뒤로 약간 기울이거나 한쪽으로 기울여서 수어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수어에서 완료나 진행과 같은 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어 단어의 기본 구조를 변화(X M H → M H)시킨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수어에서는 특정 공간에 대상이나 사람을 위치시킨 후 손가락이나 눈 응시 등을 통해 이를 지시(deixis)함으로 영어에서의 관사 또는 정관사와 같은 기능을 실현시킨다고 하였다.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와 다양한 문법적 기능 외에도 물리적 사회적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맥락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화용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 문장이 맥락에 따라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문장의 의미는 산출된 수어 단어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는 하였다.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의 의미 및 화용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55>에 정리하였다.

<표 55> Valli 외(2011).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의미 및 화용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The Meaning of Individual Signs	Determining	-의미를 Referential, Social, Affective로 나누어 Referential meaning으로 나누어 설명함 -외현 의미(Denotation)와 내포 의미(Connotation)를 미국수어 예시를 통해 설명함
	Relationships between lexical items	-수어 사전은 이중언어로 되어 있어 수어 어휘와 영어 어휘와의 관계가 일대일 대응은 아님을 설명함 -미국수어를 예로 하여 상위/하위어 관계, 부분/전체 관계, 동의어(유의어), 반의어 관계를 소개함 -은유를 방향 관련 은유(orientational metaphors),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s)로 나누어 설명함
The Meaning of Sentences	Word order and Semantic roles	-미국수어 문장에서 어순에 의해 의미가 결정됨을 설명함
	Function words or morphemes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능어와 형태소를 설명함 -기능어와 형태소는 Tense, Aspect, Referense, Deixis로 나타남을 설명함
ASL Discourse	The functions of language	
	Language as skilled work	

	<b>The norms an structure of language use</b>	-Inter structure -Register variation
	<b>Language as a signal of social identity</b>	
	<b>New areas of research</b>	

#### 4.4.3 호주수어 문법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호주수어 문법책인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Johnston & Schembri, 2007)』의 의미 및 화용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 문법서에서는 의미 및 화용론 그리고 담화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의미 및 화용론의 서론에서는 호주수어는 영어와는 다른 또 하나의 언어 체계이며, 호주수어 단어를 빌려 와서 영어 문법 체계로 표현하는 인공 수어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물론 호주수어는 영어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모든 수어 단어의 의미는 수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의해 결정되며, 농문화 안에서 사용되는 수어의 의미를 수어 사전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다.

단어(형태)와 의미 및 참조의 관계를 살펴보면, 실제 참조물을 가리키거나 참조물의 성질을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때에는 언어 사용자의 심상에서 그 형태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특히 수어는 시각-몸짓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어 단어의 형태에는 그 의미를 반영하는 도상성이 존재하나 이 도상성을 구성하는 정신적 심상은 개개인마다 다르며 개념적 심상을 유발하지 않는 형태를 가진 단어도 많다고 하였다. 문장 수준의 의미 설명을 살펴보면, 평서문에서는 진리 조건, 참조 조건이 포함되어 그 의미 해석이 가능하며 의문문의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 문장의 진위 여부 뿐 아니라 문장의 사용(화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만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의미의 유형은 기술적 의미, 사회적 의미, 표현적 의미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기술적 의미란 사람, 사물, 사건, 사건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진제 혹은 참조적 의미)인데, 호주수어의 단어와 문장에서 기술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예를 통해 제시하였다. 사회적 의미란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특징과 언어 사용 맥락에 관한 정보이며, 수어 방언을 통해 수어화자가 살고 있는 지역과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표현적 의미는 언어 사용자의 세상에 대한 감정, 태도, 의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호주수어의 단어와 문장에서는 비수지 자질이 표현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명시적 의미와 언외의 의미를 호주수어 단어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수어 단어의 의미를 내용어에 해당하는 어휘적 의미와 기능어에 해당하는 문법적



의미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호주수어 단어를 세상의 사람, 사물, 사건 상태에 기반하고 있는 참조와 하나의 단어와 다른 단어와의 관계인 센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호주수어에서 형태는 같으나 문장 안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동형이의어, 하나의 수어 단어가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 형태는 다르나 의미가 비슷한 동의어(유의어)를 소개하였다. 또한 호주수어에서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두 개의 어휘 항목인 반의어를 소개하고, 상호보완적 반의어, 단계적(gradable) 반의어, 관계적 반의어를 설명하였다. 또한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를 가진 호주수어 단어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가진 의미의 호주수어 단어를 소개하였다.

호주수어의 도상성과 은유에서는 먼저 호주수어 TREE를 예로 들어 수어 단어 형태가 참조물의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도상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도상성은 개념적 맵핑으로 수어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Taub(2001)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도상성의 유형에서는 손으로 직접 지시(deixis)하는 것, 손모양이 지시물 대체(substitutive depiction)하는 것, 손과 몸의 일부분이 지시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손의 위치가 지시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 손이나 몸이 행위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presentable actions), 움직임의 모양이 지시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virtual depiction), 손모양이 지시물의 수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도상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도상성이 가장 높은 transparent sign(어휘집의 5%), 관찰자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translucent sign, 형태와 의미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민간 어원으로 알려진 obscure sign, 도상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언어 변화 과정을 통해 형태와 의미간의 연결이 도상성을 잃어 버려 도상성에 대한 명백한 요소가 없는 opaque sign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수어에서 은유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데 유창한 수어 사용자의 경우 존재하는 수어 단어의 의미를 확장 수정하기 위해 시각적 은유의 수많은 잠재적 요소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호주수어에서 공간을 time-line으로 사용하는 예를 소개하면서 이 또한 공간을 시간으로 은유하여 표현한 형태라고 하였다.

문장의 의미는 각 단어들의 합이 아니라, 구성 요소의 순서나 문장의 통사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호주수어 문장을 예시로 동사와 논항 간의 특정 관계를 반영하는 의미적 역할(role)인 행위자(agent), 피동작주(Patient)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발화 의미에서는 단어와 문장의 맥락을 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 문화적 맥락으로 나누어 설명한 후 호주수어 문장에서의 어휘적 모호성과 대명사로 사용되는 포인팅의 맥락 의존성을 소개하였다. 호주수어에서 명령하기, 요청하기, 약속하기 등과 같은 발화 내 행위인 언표(illocution)에서 의도가 분명한 것과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

구조를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어자가 가정하는 정보를 설명하면서 실제적으로 수어화자와 수신인이 가정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담화(Discourse)는 응집성을 가지는 문장들의 묶음으로, 담화 구조의 이해는 사용의 관점에서 해당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먼저 음성언어에서의 사용역(Register), 화체(style), 장르(genre)의 개념을 설명한 후, 수어의 사용역 변이를 미국수어의 사례 연구를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특정 텍스트 유형인 내러티브 구조를 설명하고, 호주수어에서의 내러티브 구조의 예시를 소개한 후에 수어와 음성언어의 내러티브 구조를 비교하였다.

대화의 구조에 따른 대화 형태의 차이를 소개한 후 음성언어와 수어에서의 대화의 시작, 말차례 주고 받기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수어에서는 대화의 시작과 말차례 주고 받기에서 시선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수어 공간 상에서 자신의 손을 유지시키느냐도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화 격률의 세 가지 유형인 관련성의 격률(maxim of relevance),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을 호주수어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정보 구조에서는 구정보와 신정보, 화제와 논평으로 구분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수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 주었다. 대조와 비교에서는 강세를 사용하는데, 수어에서도 강세가 긴 길이, 큰 동작, 강한 조음, 특정 비수지로 실현되고 있음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특히 수어에서는 공간을 활용하여 대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정사와 관련하여서는 호주수어에서는 명사구는 대체로 한정사가 표지되지 않으나, 한정 명사구를 위해서는 지시 수어(pointing sign)를 사용하며 비한정 지시는 ONE이라는 수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응집성에서는 지시적 응집성과 생략 및 대치, 담화 표지, 어휘적 응집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지시적 응집성은 대명사와 같은 어휘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데, 수어에서도 한정 명사구, 공간을 활용한 대명사 등을 통해 실현시키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특히 수어에서는 동사의 수정(modifications), 분류사 수형의 사용, 역할 전이, 비우세 손에 지시 대상을 연결하고 비우세손을 유지시키는 목록 부표(List buoys)의 사용을 통해 지시적 응집성을 실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어에서도 생략과 대치 그리고 담화 표지, 어휘의 재사용이나 연어의 사용 등을 통한 어휘적 응집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Johnston & Schembri, 2007)』의 의미와 화용론의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56>에 요약하였다.

<표 56> Johnston & Schembri(2007). Australian Sign Language-의미 및 화용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의미론과 화용론 (Semantics and pragmatics)	수어 단어 의미와 수어문장의 의미 (Sign meaning and sentence meaning)	-호주수어 단어, 영어단어와 의미의 관계를 설명함 -수어사전의 의미를 소개함 -수어 단어의 의미 및 참조의 관계를 설명함 -수어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정신적 심상의 특성을 설명함 -문장의 의미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진리 조건을 설명함 -의미의 이해를 위한 화용의 중요성을 설명함
	의미의 유형 (Types of meaning)	-기술적인 의미를 설명함 -사회적 의미를 설명함 -표현적 의미를 설명함 -명시적 의미와 연외의 의미를 설명함
	수어 단어의 의미 (Sign meaning)	-참조 및 센스를 설명함 -호주수어에서 동형어, 동의어, 반의어, 상위와 하위어 관계의 단어, 부분 전체 관계를 가진 수어 단어들을 소개하고 설명함
	호주수어 도상성과 은유 (Iconicity and metaphor in Auslan)	-도상성의 유형 7가지를 소개함 -도상성의 정도에 따른 4개 범주의 수어를 소개함 -호주수어에서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을 소개함
	문장 의미 (Sentence meaning)	-구성적 의미에 대해 설명함 -의미론적 역할과 문장의미론에 대해 설명함 -비구성적 의미에 대해 설명함 -다른 말로 바꿈, 문장 상위 하위 관계, 문장 모순에 대해 설명함
	발화 의미 (Utterance meaning)	-어휘적 모호성(Ambiguity)과 맥락 의존적인 대명사적 지시(Deixis)를 설명함 -발화의 문자적 형식인 언표에서 직접적 언표와 간접적 언표를 설명함 -수어문에서의 가정된 정보를 설명함
담화: 문장 이상인의 구성과 사용 (Discourse: structure and use above the sentence)	사용역, 스타일과 장르 (Register, style and genre)	-언어격식의 정도를 설명함 -수어의 사용역 변이사례를 소개함 -내레이선 구조를 설명함 -수어와 음성언어의 내레이선 비교함 -대화에서 나타나는 구조와 격률을 비교 설명함
	정보구조 (Information structure)	-구정보와 신정보, 화제와 논평 구조를 설명함 -대조와 비교의 구조를 설명함 -수어에서의 한정, 비한정 명사구의 실현을 설명함
	응집성(Cohesion)	-지시적 응집성의 2가지 하위 유형을 소개함 -생략과 대체를 통한 응집성을 설명함 -대화 표지를 이용한 응집성을 설명함 -어휘의 선택과 패턴을 통한 응집성을 설명함

#### 4.4.4 국외 수어학 개론서의 주요 내용

다음은 수어학 개론서인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Baker, Bogaerde, Pfau & Schermer (Eds.), 2016)』의 의미 및 화용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 문헌에서는 의미론과 관련된 주제는 따로 다루지 않고 화용론과 관련된 주제를 Interaction and discourse 라는 장에서 다루었다. 수어 대화에서도 특정한 대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모두 발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첫 번째, 내용은 대화시의 협력의 원리와 관련된 것으로 수어 대화에서도 대화의 양, 질, 적절성과 같은 격률과 규칙을 잘 적용하고 있음을 예시를 통해 보여 주었다. 또한 대화에서 동시 발화가 간혹 일어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대화 상대의 주위를 끌어 말차례(turn-taking)를 획득하면서 대화를 유지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특히 수어에서는 시선이나 테이블 두드리기, 바닥 구르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말차례를 획득한다고 하였다. 또한 손 내리기, 수어 속도의 변화 주기, 고개를 젓히거나 시선 마주치기 등으로 말차례를 넘기는 신호를 보낸다고 하였다.

발화에서는 적절성의 격률에 따라 응집성을 형성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예시를 보여 주었는데, 공간에서 지시 수어 단어인 INDEX를 사용하여 응집성을 유지하는 것이 음성언어의 대용 대명사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수어 담화에서 주어의 생략 등을 통해 응집성을 유지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형식과 의미의 화용적 측면에서는 언어적 형식과 의사소통 차원의 의도 등 두 개의 층위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의사소통 차원의 의도를 화행(speech acts)이라고 하며 언표는 발화 내적 행위인 내적 언표와 함께 발생한다고 하였다. 수어에서도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이 나타나며, 간접 화행에서 언표와 언표 내적인 것은 다르다고 하였다. 특히 수어에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과 같은 문장 유형은 대체로 비수지에 의해 언표 내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음성언어에서 의문문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대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문장 표현이 있듯이 수어에서는 눈썹 올림과 고개를 앞으로 젓히는 비수지 신호를 동반함으로 간접 요청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담화 구조를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관사와 대명사에 의해 구정보와 신정보를 구분하는데, 수어에서는 공간을 대명사화 시키고 INDEX를 사용하여 구정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음성언어에서 구정보를 앞에 놓아 화제화하고 뒤에 오는 신정보를 초점화하지만, 수어에서는 구정보를 문두에 놓으며 동시에 눈썹을 올리는 비수지 신호를 통해 화제화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화제화 표지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수어 담화에서는 역할 전이라는 특정 형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역할 전이는 화자가 말하고자하는 대상의 관점으로 행위를 표현하므로 구성된 행위(constructed action)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화용적 타당성은 어휘 선택 뿐 아니라 발화 속도, 발화 크기, 표현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네덜란드 수어의 INDEX를 예로 들어 어휘 선택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예로 손가락 하나로 하느냐 펼친 손으로 하느냐로 격식성과 공손성을 표현하는 것을 들었다. 또한 수어의 속삭이기와 외치기에 대한 최근 연구를 소개하면서 외치기는 큰 수동과 강한 표정으로 발화를 하며, 수어 공간은 더 큰 범위를 활용하고, 수위도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속삭이기는 일반적으로 더 작고 낮게 산출되며 머리와 어깨를 앞으로 기우려 수어 공간과 가깝게 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어의 화체는 상대방의 청력 상태에 따라 변이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청인이 있는 상황에서 수어는 형식이 단순하게 변하고 속도도 떨어진다고 하였다.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Baker, Bogaerde, Pfau & Schermer (Eds.), 2016)』의 의미와 화용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57>에 요약하였다.

<표 57> Baker 외(2016).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의미 및 화용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Interaction and discourse	대화 협력 (Cooperating in conversations)	-4명의 여성 농인 대화에서의 대화 협력 원리(격률, maxim)인 대화의 양, 질, 적절성이 나타남을 설명함
	말차례 획득 (Turn-taking)	-대화에서의 동시 발화(발화 중첩)가 나타나지만 말차례 획득 전략이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함: 주의(attention)끌기-상대방의 팔이나 어깨를 두드리기(tap),손을 흔들기(waving), 테이블 두드리기, 바닥 구르기, 조명을 켜고 끄기 등을 소개함 -수어에서 말차례 넘기기 신호를 소개함
	응집성 (Coherence)	-응집성 확보를 위한 대화 주제 유지를 예시를 통해 설명함 -적절성 격률(maxim of relevance)과 일관된 위치(공간) 활용 등 수어 담화에서의 응집성 확보 전략을 소개함
	화행 (Speech acts)	-언표(locution)와 언표 내적(illocution) 부분이 같은 직접 화행과 언표와 언표 내적 부분이 다른 간접 화행을 설명함 -수어에서 언표 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장 유형과 비수 지신호를 통한 문장 유형 실현을 설명함
	담화 구성 (Structuring the discourse)	-관사와 대명사의 사용(The use of articles and pronouns)을 통한 담화 구성의 예를 소개함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를 소개하고 설명함 -역할 전이(Role shift)라는 특정 형식을 소개하고 설명함
	Pragmatic adequacy	-발화 속도, 크기, 강도 등을 통한 화용적 타당성을 수어로 속삭이기와 외치기(Whispering and shouting)의 예시를 통해 설명함 -대화 상대의 청력 상태에 영향(Influence of the hearing status of the conversation partner)을 받아 수어의 형식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소개함

다음은 수어학 핸드북인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Pfau, Steinbach, & Woll (eds.), 2012)』의 의미 및 화용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 문법서에서 의미론과 관련하여 도상성과 은유, 어휘 수준에서의 의미를 다루었으며, 화용론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구조와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더불어 수어 공간의 의미론적 화용적 사용을 하나의 장으로 다루었다.

어떤 개념과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의 형태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도상성이라고 하며, 수어에서는 이러한 도상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한 개념을 나타내는데 수어 단어의 형태가 나라마다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이는 도상성이 문화적 개념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이며 그럼으로 도상성의 정의를 ‘형태와 의미간의 유사성’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화, 관습 그리고 도상성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Pizzuto와 Volterra(2000)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수어에서 도상성은 투명정보보다 언어 형태와 참조물 간의 맵핑으로 문화적 변수가 더 강력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즉 순수하게 도상성을 가진 수어 형태도 있으나,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예들도 있음을 소개하였다. 수어의 도상성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언어학적 구조가 없이 도상성만으로 구성된 판토마임의 한 형태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수어와 음성언어 간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어 체계가 도상성을 제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들(Boyes-Braem, 1981, Fischer, 1974, McDonald, 1982, Supalla, 1978, Wilbur, 1979)을 소개하였다.

특히 미국수어에서는 도상성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도상성은 판에 박히듯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여러 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므로 수어를 모르는 사람은 도상적 어휘의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투명하다고 한 Klima와 Bellugi(1979)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도상적 제스처(iconic gesture)와 도상적 수어 단어(iconic signs)의 차이를 ‘바나나 벗기는 동작’과 ‘바나나 수어’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즉 도상적 제스처와 도상적 수어 단어는 둘 다 형태와 참조물 간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도상적 제스처는 형태에 대한 제약이 없고 맥락 없이는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도상적 수어 단어는 형태에 대한 언어적 제약이 있고 맥락 없이도 수어를 아는 사람은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분류사 동사도 매우 가변적이고 도상성이 강하지만 전형적인 방식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수어 단어 형태와 의미가 맵핑되는 유형을 소개하였는데, 그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이미지 연합 유형으로 이것 역시 3가지 유형이 있다. [쓰다]와 같이 수어 화자의 손, 얼굴, 상체 또는 다른 사람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융합하는 전체-크기 맵핑

(full-size mapping)은 주로 행동을 나타내는 수어 단어들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손과 손가락으로 독립적인 실체를 나타내거나 그리는 손-크기 맵핑(hand-size mappings)과 수어자의 손이 어떤 실체의 윤곽을 나타내는 추적 맵핑(tracing mappings)이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개념/이미지 연합 유형이다. 이 유형은 물리적 개체를 나타낼 때는 해당 범주의 전형적인 형태를 선택하여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수어나 영국수어에서 자동차라는 수어 단어는 핸들을 돌리는 사람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며, 올림픽이라는 수어 단어는 올림픽 로고인 연결된 원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는 은유와 연계된 도상성으로, 이는 추상적인 어휘를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내는 형태로 구현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수어의 ‘분석하다’는 미디어를 깊숙이 파고들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수어와 영국수어에는 이러한 은유(metaphor)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수어는 시간적 차원의 체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상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시간적 도상성(temporal iconicity)이 있다는 것을 미국수어의 예로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수어는 개념과 연관된 소리 이미지 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구어보다 수어에서 도상성이 더 많다고 하였다. 또한 몸의 움직임, 얼굴 표정, 손과 팔의 형상, 공간을 사용하는 수어는 정신적인 이미지에 대한 언어적 유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구어보다 더 많은 도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연구(Orlansky & Bonvillian, 1984; Meier, 1982, 1987)에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수어는 도상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도상적인 형태론적 구조와 인칭 대명사를 도상성과 관련 없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본 문헌에서는 미국수어 사용자들의 수어를 회상하는 능력은 도상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Poizner, Bellugi, Tweney(1981)의 연구, 수어의 도상성은 의미를 점화(priming)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Bosworth와 Emmorey(1999), 수어 공간 사용에 대한 도상성은 공간 묘사와 분류사 구조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습적인 수어는 도상적이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문법적인 규칙에 의해 동일하게 다루어진다는 Emmorey(2002)의 연구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수어 시에서 예술적인 언어를 창조하는데 있어 도상성과 은유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보여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도상적 수어 단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예를 미국수어와 나카과라수어를 통해 설명하였다. 즉 수어의 어휘나 문법의 형태가 형태/의미 쌍으로 채택이 되면 언어 사용자들은 그것의 도상적 기원에 접근하지 않고, 도상성(투명성)이 덜하도록 변화시키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어의 분류사 체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주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도상적 측면을 유지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도상성의 상실’

보다는 ‘도상성 유형의 전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수어 공간에서의 의미론적 및 화용적인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즉 수어는 시각-공간적 생성 양식이므로 음운론과 형태 및 통사론적 층위 뿐만 아니라 의미와 화용론적 층위에서도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수어 공간의 사용에 있어 주된 원리는 공간에서 사물과 지시 대상을 연결하는 것인데, 이를 일반적으로 통사적 공간과 지형적 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문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 공간의 통사적 사용과 지형적 사용의 다른 기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Emmorey, Corina, Bellugi(1995)는 미국수어에서 수어 사용자들은 지형학적 맥락 내에서 부적합한 위치에 나타난 탐색 수어의 기억에 대해 속도와 정확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을 소개하며 이것으로 보아 의미론적으로 관련된 지형 위치가 임의로 선택된 통사론적 위치와 다르게 처리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Liddell(1990, 1995, 1998, 2003)과 Van Hoek(1992, 1996)과 같은 연구자들은 수어 공간 위치의 이중적 기능에 대해 매우 통합적인 관점을 제안하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증거를 내놓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수어 공간이 임의적이거나 추상적일 수 없고, 반드시 물리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정신 공간 이론에 의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존재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공간의 사용과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기능하며 지시 대상과 수어 공간에서의 위치 연관성은 지시 대상의 개념적 위치를 나타낸다는 Liddell(1995) 정신공간과 개념적 혼성 이론(conceptual blending theory)을 소개하였다.

수어 공간의 담화 구조에서는 수어 공간을 구성하는 관습에 대한 Engberg-Pedersen(1993)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어 화자의 위치 선택이 지시 대상간의 의미론적 공간 관계 그리고 지시 대상에 대한 수어 화자의 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에 의해 동기가 부여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어 화자가 몸 중심부 쪽이나 몸에서 먼 쪽의 위치를 사용하여 다른 지시 대상의 위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시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수어 화자는 싫어하는 지시 대상을 신체에서 더 멀리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고, 몸 가까이에서 그들이 공감하는 지시 대상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담화 층위에서는 Winston(1991, 1995), Mather와 Winston(1998)의 연구를 통해 수어 공간의 구조가 서로 다른 담화적 주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담화의 응집성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추상적인 생각이나 관념을 사상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수어 화자의 시점을 두 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관찰자 시점(observer perspective)에서 사건 공간은 수어 화자의 몸 앞의 수어 공간에 투사되며,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시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수어 화자가 등장인물로 하나의 역할을 맡은 등장인물



시점(character perspective)에서는 사건 공간은 실물 크기와 같이 수어 화자를 둘러싼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이는 시점에 따라 지시 대상이 수어 공간의 다른 위치에 연결될 수 있으며 수어 공간의 구성 방법과 담화의 응집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의 의미와 화용론과 관련된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을 <표 58>에 요약하였다.

<표 58> Pfau, Steinbach, Woll(2012).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의미 및 화용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Semantics and pragmatics	Iconicity and metaph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에서의 도상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수어에서 나타나는 도상성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설명함</li> <li>-수어에서의 도상성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해 왔나를 소개함</li> <li>-도상성의 언어학적 연구인 도상적 제스처와 도상적 수어 단어를 비교하여 설명함</li> <li>-수어의 언어학적 구조의 도상성에서 가변적인 형태인 분류사에 대해 설명함</li> <li>-형태/이미지 연합 유형으로 full-size mapping, hand-size mappings, tracing mappings 등 3가지를 소개하고 설명함</li> <li>-개념/이미지 연합 유형으로는 개념의 여러 크기와 모양을 나타내는 전형성으로 구현하거나 신체 움직임의 전형성으로 구현함을 예를 통해 설명함</li> <li>-은유와 연계된 도상성은 주로 추상적인 어휘를 구체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도상적 표현으로 나타남을 예를 통해 설명함</li> <li>-시간적 도상성을 반복이나 지연 등을 통해 나타내는 예를 통해 설명함</li> <li>-수어가 음성언어보다 도상성이 더 많은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함</li> <li>-수어 화자가 도상성을 인식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함</li> <li>-수어에서의 도상성을 소개함</li> <li>-도상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의 변이를 통해 도상성 유형의 전환이 일어나는 현상을 소개하고 설명함</li> </ul>
	Use of sign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시 대상의 위치 지정을 위한 수어 공간의 사용으로 통사적 공간 사용과 지형적 공간 사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비판적 논의를 소개함</li> <li>-통사적 공간과 지형적 공간의 통합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소개함</li> <li>-수어 공간의 담화 구조를 통해 수어 화자가 어떻게 수어 공간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소개함</li> <li>-사건을 표현하기 위한 수어 공간의 구성을 수어 시점과 분류사 술어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함</li> </ul>

총 6권의 수어 문법서의 의미 및 화용론 관련 내용을 고찰 한 결과 수어 의미 및 화용론에서는 의미 이론, 수어의 의미, 화용, 기타로 분류하고 각 문법서의 목차와 세부 목차를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표 59>, <표 60>은 각 문법서에서 의미 이론, 수어의 의미, 화용, 기타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목차들을 비교한 표이다.

<표 59> 주제에 따른 목차 분석-의미 및 화용론

문법서 주제	한국 수어학 개론 이준우, 남기현(2014)		한국수어의 이론 최상배, 안성우(2003)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Valli & Lucas(2011)	
	목차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의미 이론	* 의미 이론	-지시적 관점 -표상적 관점 -수어의 기호 유형	* 수어 의미론의 의미			
수어와 의미	* 어휘 관계	-동의 관계 -동음이의어 관계 -다의어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환유 / -은유	* 수어 어휘에서의 의미	-의미의 유형 -외연과 암시 -어휘 항목들의 관계	* Semantics	-The Meaning of Individual Signs -The Meaning of Sentences
			* 수어문에서의 의미			
			* 수어의 의미 변화			
화용			* ASL담화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담화 -규범으로서의 담화 -내적 구조를 지닌 담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 차이가 있는 담화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담화	* Language in Use	-ASL Discourse -Bilingualism and Language Contact
			* 2중 언어와 언어 접촉	-농과 2중 언어 -언어 접촉		
기타			* 차이와 역사적 변화	-차이 / -역사적 변화	* Language in Use	-Language as Art
			* 수어의 예술	-이야기하기 -진동 수어 -드라마 -농유머 -수어시		

<표 60> 주제에 따른 목차 비교- 의미 및 화용론

문법서 범주	AUSTRALIAN SIGN LANGUAGE Johnston & Schembri(2007)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Baker 외(2016)		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Pfau 외(2012)	
	목차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의미 이론	* Semantics and pragmatics	-Types of meaning -Iconicity and metaphor in Auslan			* Iconicity and metaphors	-Iconicity in linguistic theory -Examination of linguistic iconicity -Relevance of iconicity to sign language use
수어와 의미	* Semantics and pragmatics	-Sign meaning and sentence meaning -Sign meaning -Sentence meaning -Utterance meaning			* Use of sign space	-Use of sign space for referent localization -Discourse-level structuring of sign space -Structuring sign space for event representation: Signing perspective and classifier predicates -Structuring sign space with multiple articulators: Simultaneous constructions -Typological perspective: Use of sign space across sign languages
					* Lexical semantics: Semantic fields and lexical aspect	-Words and their meanings -Semantic relations and semantic fields -Aspect and visibility in sign languages -Lexical aspectual structures at work
화용	* Discourse: structure and use above sentence	-Register -style and genre -Information structure -Cohesion	* Cooperating in conversations		* Information structure	-Linguistic encoding of topic information -Linguistic encoding of focus
			* Turn-taking			
			* Speech acts			
			* Structuring the discourse	-The use of articles and pronouns -Information structure, Role shift		
			* Pragmatic adequacy	-Whispering and shouting -Influence of the hearing status of the conversation partner	* Communicative interaction Grice's Co-operation Principle	-Speech acts -Turn-taking -Coherence and cohesion -Narratives -Pragmatic adequacy -Influence of cultural/hearing status



### Ⅲ. 연구 추진 결과

1.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2.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한  
쟁점의 전문가 자문 결과
3.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문법 지식 설정 및 상세 범주화
4. 한국수어 문법 모형 제시



## Ⅲ. 연구 추진 결과

### 1.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한 쟁점은 한국수어 문법서 3권, 국외 나라별 수어 문법서 12권, 국외 수어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3권, 국외 수어 특정 주제로 이루어진 문법서 5권으로 총 23권의 수어 문법서를 선정하여 목차 분석 및 세부 내용 검토를 통해 도출하였다.

우선 대범주 목차와 하위 범주 목차 분석을 통해 분류 체계, 내용 구성에 해당되는 쟁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총 23권의 수어 문법서 중 한국수어 문법서 2권, 국외 나라별 수어 문법서 4권, 개론서 성격의 수어 문법서 2권, 총 8권을 선별하여 해당 문법서의 하위 범주별 수어 문법 내용 고찰을 통해 용어의 통일, 수어문 표기, 수어문 예시의 수집 방법, 내용 기술 방법과 같은 공통된 쟁점과 하위 범주별 쟁점을 끌어내었다.

이 쟁점을 거시적 쟁점과 미시적(하위 범주별) 쟁점으로 분류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1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거시적 쟁점

##### 1.1.1 분류 체계 문제

##### 1) 한국수어 문법서의 목차 구성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수어 문법서의 분류 범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독일수어와 미국수어 문법서의 경우는 언어학 분류 체계를 대범주로 하고, 중범주에서 수어의 언어학적 특징으로 분류하여 기술을 한 반면에, 호주수어 문법서의 경우는 언어학의 분류 체계와 수어의 언어학적 특징을 혼합한 형태로 분류하여 목차를 구성하였다. 또한 영국수어 문법서는 언어학적 분류 체계와 관계없이 수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수어 문법 체계를 어떻게 분류하여 목차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1.2 내용 구성 문제

##### 1) 수어 관련 제반 지식(습득, 농사회, 수어 환경 등) 포함 여부

수어는 다른 언어와는 달리 특수한 사회 언어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그 사회의 청인과 함께 살면서 청인의 주류 언어를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특히 수어를 사용하는 농공동체는 다른 언어적 소수 공동체와는 달리 아동이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우는 경우가 매우 적다. 90% 이상의 농아동은 농학교에 입학하여 다른 아동이나 가족 외의 성인으로부터 수어를 배운다. 이에 음성언어의

어휘와 문법을 나타내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다양한 인공수어체계가 나타나며, 자연언어 기준을 충족한 수어조차도 그 사회의 주류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국외 수어 문법서에는 농사회와 수어 환경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수어 습득 및 농교육 등과 관련된 수어 관련 제반 지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어 문법서에서도 수어와 관련된 제반 지식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의미론과 화용론 포함 여부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수어학 연구에서는 다른 범주에 비해 의미와 화용론 관련 연구물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연구물을 중심으로 자국의 수어 문법서를 제외한 언어학의 하위 범주별로 문법서를 구성한 호주수어와 미국수어만이 의미론과 화용론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더욱이 한국수어의 경우 의미론과 화용론을 다루기에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의미와 화용론을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시킨다면 어떤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1.3 용어 통일 문제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같은 문법 현상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나타나는 문법 현상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더욱이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달라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문법 용어는 체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문법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통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하위 범주별로 어떤 체계를 채택할지를 고려하여 용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어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고 평이해야 한다. 이에 한국수어 문법 체계를 정립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용어를 선정하여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고 평이한 용어로 통일하고, 그 용어의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선정된 용어와 조작적 정의는 미시적 쟁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 1.1.4 수어문 표기와 관련한 문제

#### 1) 수어문 표기 방법(예: 글로스, 비수지 요소 및 공간과 방향 요소의 기록 등)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문법 설명에 따른 예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수어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시하는 방법 둘째, 수어 표기 체계로 제시하는 방법 셋째, 수어 이미지와 함께 수어 표기 체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한국수어 문법서에서도 위의 3가지 방법이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수어 문법서에서도 위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될 것이다. 이에 한국 수어 문법서에서 사용할 수어 표기 체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외 수어 표기



에서는 영어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사용하여 수어의 이름에 해당되는 글로스(gloss)를 대문자로 기록하고 있어 음성언어와의 구분이 쉽다. 그러나 한글로 주석을 달 경우에는 수어 어휘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석에 사용하는 글로스 역시 해당 수어 단어의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단어를 빌려와 사용하므로 수어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어가 어떤 형태인지 모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과정을 통해 타입에 대한 글로스를 생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한국의 연구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어는 1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언어가 아닌 비수지 기호나 공간의 사용 등을 동시에 나타내어 문법 요소를 실현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비수지 요소와 공간과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 체계의 통일이 필요하다. 즉 글로스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기호 체계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1.5 문법 설명 시 사용하는 예시 수어문(데이터)의 수집 방법론

국외 수어 문법서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문법 관련 많은 연구를 분석하고, 정리한 결과물이다.

한국수어의 경우 문법서를 엮어 낼 만큼의 한국수어 문법 관련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수어 문법서에서 예시문을 제시할 때 현재 구축 중인 한국수어 말뭉치의 언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한국수어 말뭉치에서 모든 예시문을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하는 수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에 의존하여 언어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경우 그 과정에서도 한국어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 1.1.6 내용 기술 방법

국외 문법서의 경우 문법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할 때 먼저 음성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한 후, 수어의 문법적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수어 문법서에서도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 그리고 예시를 설명한 후에 수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2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하위 범주별 쟁점

한국수어 문법에서 미시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법에서처럼 같은 현상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저서와 연구물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어 문법에서는 미시적으로 같은 현상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저서나 연구물들을 찾기 어렵다. 다만, 한국수어 문법 연구나 저서

에서 기술하고 설명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 한국수어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가능한 쟁점들을 추려 하위 범주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 1.2.1 음운론

#### 1) 범주(목차) 관련 쟁점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음운론에서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주는 음운론의 단위, 음운 과정 그리고 동시성과 순차성이었다. 이외 미국수어 문법서에서는 수어의 표기 체계를 다루고 있었으며, 호주수어에서는 언어 양식의 특성에 나타나는 수어의 유형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언어학 핸드북과 개론서에서는 음운 차원에서의 도상성도 한 범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에 한국수어 음운론에서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3가지 범주 외에 언어 양식의 차이와 도상성의 영향을 또 다른 범주로 다룰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개의 개론서에서는 음성학과 관련된 영역도 다루고 있는데, 이 또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2) 용어 관련 쟁점

##### ○ 수어소 혹은 음운(음소)-음성과 음운 차원에서의 수어 단어 생성 기술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Stokoe가 수어소(cherem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수어소보다 음운(phoneme)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수어 음운론에는 모두 수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음운(음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수어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3) 내용 관련 쟁점

##### ○ 수어소의 개수-수형소, 수위소, 수동소, 수향소, 비수지 요소의 개수 기술

김승국(1989)은 한국수어에는 29개의 수형소, 23개의 수위소, 그리고 36개의 수동소가 있다고 했으며, 수향의 경우는 손바닥의 방향 10개와 손가락의 방향 10개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에 비해 석동일(1989)은 21개의 표준 수형소가 있고 다시 각 수형을 세분하여 44개의 수형소, 변이를 포함하여 40개의 수위소, 그리고 49개의 수동소가 있다고 하였으며, 수향은 손바닥과 편 손가락의 방향을 고려하여 상, 하, 좌, 우, 전, 후로 나누어 6개로 구분하였다. 김철관(1998)은 한국수어의 수형소만을 분석하였는데, 한글 지문자형이 11가지, 지화법과 알파벳형 6가지, 숫자형 20가지, 그 밖의 것 15가지로 구분하여 총 52개의 수형소가 있다고 하였다. 최상배(2012, 2013, 2015)는 한국수화사전(2007)을 대상으로 수어소를 분석하였는데, 한국수어의 수형소는 69개, 수위소는 46개, 수동소는 64개,

수위소는 손바닥 기저 방향과 손가락 기저 방향으로 나누어 손바닥 기저 방향은 우세손 18개, 비우세손 16개, 손가락 기저 방향 유형은 우세손 15개, 비우세손 14개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어 어휘의 구성 요소가 되는 비수지 기호의 경우는 김승국(1989)이 체동소라 하여 20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외 수어 문법서의 경우에는 Stokoe가 수어소를 분석하여 미국수어의 수형소, 수위소, 수동소의 개수를 언급한 이후, 호주수어 문법서를 제외하고는 수어소의 개수에 대해 기술한 문법서는 없다. 따라서 한국수어의 수어소의 개수를 기술할 것인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 ○ 고빈도 수형과 저빈도 수형

국외 수어 문법서의 경우 고빈도와 저빈도 수형 그리고 무표와 유표 수형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빈도와 저빈도 수형에 대한 연구는 1편(최상배, 2012)이며, 무표 수형에 대한 연구도 1편(석동일1989)에 불과하다. 이에 고빈도 수형과 무표 수형에 대한 한국수어의 예시를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 음운 과정

국외 수어 문법서의 경우 자국의 수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어 이러한 연구물을 중심으로 음운 현상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수어의 경우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음운 과정에 대한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하는 수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에 의존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이에 어떻게 언어 자료를 수집하여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2.2 형태론

#### 1) 범주(목차) 관련 쟁점

○ 대범주 영역의 범주를 선정하기 위해서 8권의 저서 중 몇몇 저서는 형태론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어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호주수어 문법서(Johnston과 Schembri, 2007), 독일수어 문법서(Papaspyrou, 2008), 미국수어 문법서(Valli 외 2011), 한국수어 문법서(이준우, 남기현, 2014) 등의 저서를 통해 대범주 내용을 선정하였다. 형태론의 대범주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범주는 ‘형태론과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하는 범주와 ‘수어 형성(sign formation)’과 ‘수어 변형(sign modification)’ 그리고 ‘품사’와 관련된 범주였다.

수어에 대한 기존 연구물에서는 형성 과정과 변형 과정을 파생과 굴절로 기술하고

있지만, Johnston과 Schembri(2007)는 최근 연구자들이 수어 문법에서 굴절의 특성을 발견하면서, 파생과 굴절이라는 과정을 수어 형성(sign formation)과 수어 변형(sign modification)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독일수어 문법서에서도 형태론을 ‘수어 형성’과 ‘수어 변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에 파생과 굴절이라는 용어 대신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인 수어 형성과 단어의 변형을 위해 형태소를 사용하는 수어 변형으로 대범주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향후 한국수어 문법서의 형태론에서는 음성언어와는 차별하여 ‘수어 형성’과 ‘수어 변형’ 그리고 형태론과 형태소의 개념을 정의하는 범주와 품사 등 4가지 대범주로 나누고자 한다. 물론 대범주에 수어 형성과 수어 변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수어 변형을 통사론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 외 독일수어 문법서에서 다루고 있는 ‘도상성’, 호주수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수지 자질’을 중범주 또는 대범주의 하나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 2) 용어 관련 쟁점

### ○ 변형(modification)

8권의 저서 중에서 5권의 저서에서 굴절(inflexion)과 변형(mod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준우와 남기현(2014), Baker 외(2016)는 굴절(inflex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Papaspyrou(2008)와 Johnston과 Schembri(2007)는 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굴절(inflex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준우와 남기현(2014)은 굴절 내에서 수어의 동사분류, 동사와 일치, 동사와 수, 상호 표현 등을 다루고 있으며, Baker 외(2016)는 시제와 상, 일치, 복수화 등을 다루고 있다. 변형(mod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Papaspyrou(2008)는 복수, 비교, 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Johnston과 Schembri(2007)는 명사 변형과 동사 변형으로 구분하고, 양태, 상, 복수형, 반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Johnston과 Schembri(2007)는 단어의 변형을 위해 형태소를 사용하는 것을 굴절이라고 하면서 변형 과정을 굴절로 보았다. 특히 ‘modification’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할 때, 최상배와 안성우(2014)는 석동일 연구를 근거로 ‘변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김칠관은 어형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modification’을 변형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 동시적 합성어

한국어 문법에서는 합성어를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단어로 본다. 특히 합성어는 정상적인 문장 구성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눈다. 언어학 핸드북에서 Meir(2012)는 합성어를 순차적 합성어(Sequential compounding)와 동시적 합성어(Simultaneous compounding)로 구분하였다. 동시적 합성어 용어의 경우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칠관(1996)은 복합구성, 원성옥과 장은숙(2003)은 한국복합수화, 이윤희(2008)는 동시적 결합 구조, 이준우와 남기현(2014)은 동시적 합성어, 동시적-순차적 합성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시적 합성어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

### 3) 내용 관련 쟁점

#### ○ 형태소 분류의 기준 -한국수어에서의 수어 형태소 유형 분류 기준

8권의 분석 대상 저서 중에서 형태소 분류의 기준을 제시한 저서는 4권이다. Johnston과 Schembri(2007)는 호주수어에서 음성언어와 달리 수어 형태소를 자립 어근형태소, 자립 비어근 형태소, 의존 어근 형태소, 의존 비어근(접사) 형태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준우, 남기현(2014)은 Johnston과 Schembri(2007)의 연구를 기초로 네 가지 유형에 따른 이론적 설명과 한국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Valli 외(2011)는 음성언어와 유사하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Sutton-Spence와 Woll(1999)은 단일 형태소(monomorphemic)와 다형태소(polymorphemic)로 크게 나누고, 다형태소를 세 가지 유형(두 개 이상의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의 결합, 두 개 이상의 의존 형태소의 결합)으로 구분하였다. 수어 형태소 분류를 할 때 일반 음성언어 형태소 분류 기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수어 형태소 분류 기준을 따를 것인지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 수어 형성에서의 도상성 포함 여부 -한국수어에서의 도상성과 수사 포함 기술

Papasprou(2008)는 독일수어를 도상성의 기준에 따라 손 대체(substitutor), 손 이용(manipulator), 손 묘사(sketch), 손 측정(measuring), 손 지시(index)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국수어 구성 방법 연구에는 김승국(1983)과 석동일(1989) 연구 등이 있다. 김승국(1983)은 지사, 모방, 상형, 형지, 행동, 회의, 전주 7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석동일(1989)은 사물의 지적, 형의 사상, 동작의 사상, 형태와 동작의 동시 사상, 추상적 사상, 대표성 사상, 공통 사상, 포섭어 사상, 자의적 구성 방법 등 9가지로 분류하였다. 수어는 시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수어 형성에 도상성의 원리가 반영되며,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새로운 수어 단어를 형성하는 데 도상성이 어떤 역할을 하며, 특히 도상적 수어에서 음소와 형태소를 어떻게 분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 합성어의 유형 -한국수어에서의 순차적 접사 첨가(파생)와 동시적 접사 첨가 구분 여부

Pfau, Steinbach, Woll(2012)은 합성어를 순차적 합성어와 동시적 합성어로 구분하였다. 순차적 합성어는 외심 합성어와 내심합성어, 연결합성어(dvandva compounds)로 구분

하였고, 동시적 합성어는 수사 포함, 두문자 수어(initialization signed)로 구분하였다. Baker 외(2016)는 일반 언어학과 유사하게 병렬합성어, 종속합성어로 구분하였다. 한국 수어 문법의 이준우와 남기현(2014)은 순차적 합성어와 동시적 합성어로 구분하였다. 순차적 합성어에서는 연결합성어(dvandva compounds), 분류사를 통합 합성어에 포함했고, 동시적 합성어에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동시적 합성어의 용어들을 소개하였으며, 두 단어 결합과 두 단어의 일부 수어소 결합 등의 동시적 합성어의 형태론적 과정을 소개하였다. 또한 번역 차용을 합성어 영역에 포함하였다. 한국수어에서도 위에서 제시한 순차적 합성어와 동시적 합성어의 하위 범주들을 포함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 ○ 반복(명사-동사 파생)과 지문자어 -한국수어 형성에서 반복(명사-동사)과 지문자어 결합 현상 기술

Baker 외(2016)는 반복을 통해 동사가 명사로 파생되는데, 이것을 동시적 파생으로 보았다.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Johnston과 Schembri(2007)는 중첩 또는 반복(reduplication)을 통해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김칠관(2010)은 수어에서 이 현상을 중첩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반복 운동(음운적 현상)으로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정확한 문법 용어의 정의를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수어에서 반복에 의한 동사에서 명사로의 파생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수어 등에서는 알파벳 지문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어 단어가 형성되는데, 한국수어에서도 한글 지문자를 활용한 수어 단어의 형성에 대한 사례 및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 수사 포함의 범주 및 접사 첨가와 관련된 이슈 -수어에서의 합성어 개념과 유형 분류 기준

Meir(2012)는 수사 포함을 동시적 합성어로 본 반면, Baker 외(2016)는 파생과 합성과는 다르게 어휘에서 두 요소가 결합하지 않고, 통사 구조 내에 있는 것이며, 굴절과 다르게 두 개의 자립요소들이 결합한 형태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수사 포함을 파생이나 합성의 한 영역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수어의 단어 형성에서 보이는 특성으로 보아 파생과 합성에 포함하기보다 구분하여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Pfau, Steinbach, Woll(2012)의 언어학 핸드북에서는 접사 첨가를 순차적 접사 첨가와 동시적 접사 첨가로 구분하였다. 수어에서는 순차적 접사는 매우 적게 나타나는데, 동작주 접미사(미국수어), 부정 접미사[zero](미국수어), 이스라엘수어 부정 접미사(문법표지), 감각 접두사(SENSE prefixes) 등 네 가지를 소개하였다. 이준우와 남기현(2014)은 접미사의 한국수어 사례(예, [보다]의 파생, [기술]의 파생, [맛없다]의 부정

접미사] 등의 사례 소개)를 제시하였으며, 김철관(2010)은 접두사의 사례(예, [만아들], [손자])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순차적 접사 첨가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어는 동시적 접사 첨가가 더 많이 발생되므로 이 부분들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스라엘 감각 접두사(SENSE prefixes)와 유사한 형태가 영국수어에서도 발견되었는데, Bremman(1990)은 이러한 수어 형성을 합성어로 보고 있다. 접사 첨가에 대한 후속 연구들의 고찰이 필요하다.

○ 수어 변형의 중범주 주제 및 영역 선정 -한국수어의 시제와 상, 일치의 언어학적 하위 범주, 한국수어 시제에서 비수지 시제 전략의 증거 유무, 복수 형성에 대한 한국수어와 국외 수어의 비교

8권의 분석 대상 저서 중에서 수어 형성 부분을 제외하고, 굴절과 수어 변형의 하위 주제들을 검토하였다. Pfau, Steinbach, Woll(2012)의 언어학 핸드북에서는 형태론의 한 주제로 시제와 상 그리고 양상, 복수성, 동사 일치를 다루었다. 이준우, 남기현(2014)은 굴절에서 동사분류, 일치, 동사와 수, 상호 표현을 다루었으며, Baker 외(2016)는 동사의 굴절에서 시제, 상, 일치를 다뤘다. 석동일(1989)은 수어 변용에서 시간과 시제의 변용, 인칭의 변용, 수-동사의 변용, 수-명사의 변용, 동사의 변용, 형용사의 변용을 다루었다. Papaspyrou(2008)의 독일수어에서는 수어 변형에서 복수, 비교, 시제를 다루었고, Johnston과 Schembri(2007)의 호주수어에서는 수어 변형에서 명사의 변형(복수성, 반복, 참조물의 크기와 모양, 접사 동반 등)과 동사의 변형(사람과 숫자 일치, 사람과 위치, 수, 양태, 상의 일치, 강조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외 연구마다 굴절과 수어 변형에 포함시키는 주제가 다양하였으나, 가장 자주 언급하고 있는 주제로는 시제와 상, 일치, 복수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어 변형의 중범주 주제들의 내용 선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즉 시제와 상, 일치, 복수화 정도만 다룰 것인지 또는 기타 다른 영역들 중 포함시킬 내용들이 있는지도. 또한 시제와 상의 경우, 이준우, 남기현(2014)은 형태론이 아닌 통사론 영역에 포함하였는데, 시제와 상을 형태론과 통사론 중 어느 영역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품사의 대범주 영역과 종류 -언어학적 하위 범주에서 품사의 위치

8권의 분석 대상 저서 중에서 품사의 영역을 형태론에 포함하여 기술한 저서는 3권이었고, 통사론에 포함하여 기술한 저서도 3권이었다.

먼저 품사를 형태론에 포함하여 기술한 저서를 살펴보면, Papaspyrou(2008)의 독일수어, Sutton-Spence와 Woll(1999)의 영국수어, Pfau, Steinbach, Woll(2012)의 언어학 핸드북 등이다. 또한 품사의 종류에서 독일수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시제 수어 소개하였으며, 영국수어와 언어학 핸드북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만을 기술하였다.

특히 언어학 핸드북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품사를 통사론에 포함하여 기술한 저서에는 이준우, 남기현(2014)의 한국수어학개론, Valli 외(2011)의 미국수어, Johnston과 Schembri(2007)의 호주수어 3권이다. 한국수어학 개론에서는 명사, 대명사(인칭 대명사, 지시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로 9개의 품사, 미국수어에서는 명사, 서술어, 형용사, 부사, 소수의 어휘 범주인 한정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로 9개의 품사, 호주수어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소수의 어휘 범주인 한정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로 10개의 품사를 다뤘다.

한국수어의 품사 관련 저서들이 부족하여 국내 문헌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초기 문법서에서는 한국수어에서 검증된 사례들이 있는 품사 개념과 품사의 사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품사의 종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등 4 종류 정도를 먼저 기술하고, 추후 검증된 사례들이 나타났을 때 추가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수어에서 품사의 분류 기준을 제시한 연구들도 거의 없는데, 한국수어의 품사 분류 기준들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1.2.3 통사론

#### 1) 범주(목차) 관련 쟁점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통사론에서는 다루고 있는 범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범주는 ‘문장의 유형’으로 기본 문형인 서술문, 의문문, 부정문, 명령문 등을 다루거나 단문과 복문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었다. 두 번째 범주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기술하고 있는 범주로 어순, 동사(서술어), 시제와 상 등을 기술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공간 언어인 수어의 특성상 공간의 기능이나 사용과 관련된 내용과 분류사 구문 등을 따로 다루는 문법서가 있었다. 특히 독일수어에서는 비수지 요소에 의해 구분되는 다양한 구문 형태(A와 B, A 또는 B, A 그러나 B 등)를 나누어 기술하고 있었다. 그 외에 품사와 관련된 내용과 역할 전환이나 구성된 행위를 통사론 범주에서 다루는 문법서들도 있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통사론의 범주를 다양하게 나누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문법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문장성분, 문장 유형, 그리고 공간과 서술어를 묶어 통사론의 대범주를 구성하였으며 품사, 그리고 시제와 상은 형태론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한국수어 통사론의 첫 번째 범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이고, 수어에서는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는가를 기술하는 문장성분으로 하였다. 두 번째 범주에서는 문장 유형으로 서술문, 의문문, 부정문 그리고 화제화문을 다룬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간과 서술어라는 대범주로 수어문에서 문법적 표지가 되는



공간의 다양한 기능과 문장에서 주된 기능을 하는 서술어인 동사의 체계, 그리고 수어의 동시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분류사 술어(classifier predicate)를 다룬다. 그러나 ‘분류사’를 형태론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어순’을 미국수어나 호주수어처럼 대범주로 분리하여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용어 관련 쟁점

### ○ 비수지 기호, 비수지 신호 또는 비수지 표지

국외 문법서에서는 수어에서 손 이외의 구성 요소를 비수지 요소를 nonmanual signal 또는 nonmanual marker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수어 문법서에도 비수지 신호, 비수지 기호, 비수지 표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수지 요소의 용어를 무엇으로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3) 내용 관련 쟁점

### ○ 수어에서 어순의 역할 -한국수어의 기본 어순

미국수어와 호주수어 등 국외에서는 문장의 성분을 결정하는 기본 어순의 존재와 더불어 어순이 나타나는 양상과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어에서도 기본 어순이 존재하는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와 확인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 ○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표지 -문장의 유형을 실현하는 문법적 표지와 그 증거 유무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 문장의 유형을 서술문, 의문문, 부정문, 화제화문으로 범주를 나누었으며, 서술문에서 기본적인 문장 유형을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어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복문에서는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 대등 접속문과, 인과, 조건 관계 등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문의 형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기술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수어와 호주수어 등 국외 수어에서는 이러한 문법적 표지가 비수지 기호나 공간에 의해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에 이러한 한국수어에서 이러한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다양한 문법적 표지에 대한 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 ○ 의문문과 비수지 기호 -한국수어의 의문문 문법 표지와 증거 유무

미국수어, 호주수어 등 대부분의 외국 수어에서는 예/아니오 의문문과 의문사(wh-) 의문문을 비수지 기호로 구분한다고 하였으며, 터키수어 등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례를 기반으로 의문문의 실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어에서도 비수지 기호의 문법적 기능에서 의문문을 실현하는 비수지 기호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에

의문문을 실현하는 비수지 기호에 대한 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 수어에서 공간의 기능 -한국수어에서 공간의 기능과 역할 기술을 위한 기초 자료 유무와 기술 방법

수어에서 공간은 음운과 형태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통사론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스라엘수어, 인도-파키스탄수어, 터키수어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수어와 미국수어에서도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매우 자세하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어에서도 통사론적 측면에서의 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논의와 이러한 수어 공간의 기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동사의 분류 체계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동사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일반동사(plain verb), 공간동사(spatial verb), 일치동사(agreeing verb)로 분류(Padden, 1990)하고 있었다. 그러나 Johnston과 Schembri(2007)는 일반동사와 방향동사(directional verb)로 구분하고 방향동사를 다시 일치동사와 공간동사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미국수어에는 일반동사(plain verbs), 지시동사(indication verbs) 묘사동사(depicting verbs)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결합가(valency)의 개수에 의한 동사 분류로 주어와 장소 1개 또는 장소 2개가 필요한 경우 결합가 2개, 또는 3개로 동사를 분류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수어 문법서에는 동사를 어떻게 분류하고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수어의 분류사 술어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이스라엘수어에서는 분류사 구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수어 문법서에서도 음운 및 형태론에서 도상성과 관련하여 분류사 또는 생산적 수어나 묘사동사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향후 한국수어 문법서에서는 분류사 구문을 어떤 범주에서 어떤 틀에 의해 정리하고 기술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2.4 의미 및 화용론

##### 1) 범주(목차) 관련 쟁점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독일수어 문법서에서는 의미론과 화용론을 대범주로 구분하지 않고 통사론에서 내레이션 구조를 간단히 기술하고 있었다. 미국수어와 호주수어 문법서에서는 의미론과 화용론으로 대범주를 구성하였다. 의미론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주는 의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범주와 수어에서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도상성과 은유에 관련한 이론과 분석을 소개하는 범주 그리고 수어 어휘에서의 의미 관계를 소개하는 범주였다. 화용론에서는 담화 수준에서 응집성과 정보 구조를 다루고 있었다. 한국수어 문법서에서는 의미와 관련한 범주를 의미 이론, 도상성과 은유, 어휘 관계로 나누었으며, 화용과 관련하여서는 담화 구조와 관련한 하나의 범주로만 다루었다. 그러나 한국수어를 대상으로 한 의미와 화용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범주와 중범주의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내용 관련 쟁점

도상성과 시각적 은유에 대한 한국수어 어휘의 형태와 의미 관계에 대한 연구물로는 한국수화어원 연구(김칠관, 1998)과 한국수어의 어원적 의미(장진석, 1995) 등이 있다. 이들 연구물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수어 어휘 형태에서의 도상성과 시각적 은유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한 쟁점의 전문가 자문 결과

### 2.1 자문 절차

한국수어 문법서 2권, 나라별 문법서 4권,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을 선정하여 언어학 하위 범주별 수어 문법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거시적 쟁점과 하위 영역별 쟁점을 도출하였다. 쟁점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언어학 전공자 2인, 국어학 전공자 1인, 수어 사용자 1인을 자문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쟁점을 정리한 질문지와 답변지를 작성하여 전자 메일을 통해 자문 의견을 수집하였다. 자문 의견 수집은 2018년 10월 19일~10월 27일(9일)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한 전문가 자문 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 2.2 거시적 쟁점 자문 결과 정리

#### 2.2.1 분류 체계 문제: 한국수어 문법서의 목차 구성

▶ 한국수어 문법서의 목차 구성 및 분류 체계는 전체 틀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술한다면 어떤 형태든 문제가 없을 것이며, 언어학 분류 체계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수어의 시각언어적 특징을 고려한 목차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한 전문가는 수어의 특성상 음운·형태론, 형태·통사론 등으로 묶어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총론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의 목적과 지향점을 명확히 하면 범위와 방법이 정해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약간씩 다른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방식들이 각자의 입장과 장단점이 있을 것이므로,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여 그에 따라 분류하고 기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자문 답변서는 본 자문자의 언어학자적 견해와 수어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분류 체계 문제에 대해서는(1) 독일수어와 미국수어 문법서처럼 대법주로 언어학 분류 체계를 따르고, 증법주에서 수어의 언어학적 특징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2) 호주수어 문법서는 언어학의 분류 체계와 수어의 언어학적 특징을 혼합하여 분류하여 부류를 구성하고, (3) 영국수어 문법서는(언어학적 분류 체계와 관계없이) 수어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기술하는데, 분류 체계의 이러한 방식은 각각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방식을 채택하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틀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술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언어학 분류 체계를 따를 것인지 수어학 분류 체계를 따를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성언어 분류 체계에 맞춰 수어의 언어적 특징을 끼워 넣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수어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분류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결국 수어 연구의 각 분야는 음성언어의 각 연구 분야와 완전히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언어학 분류 체계를 따르고 수어의 특징적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러한 혼합형은 두 언어 양식 간 비교 연구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언어의 양식적 차이로 인한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것은 한국수어 문법서의 역할이라 여겨집니다.
- 언어학 분류 체계를 대법주로 하고, 증법주에서 수어의 언어학적 특징으로 분류하여 기술하되, 한국수어 특성을 반영하여 음운·형태론, 형태·통사론 등으로 묶어서 분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음성언어의 문법서와 함께 다룰 부분들(언어 일반이론의 공통점들)에 대해서 목차 구성에는 이견이 있기 어렵지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음성언어 일반 이론에 부합하기 어려운 고려사항들을 어떻게 문법 체계에 담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류사(이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지만) 부분이 수어의 너무 넓은 영역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품사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비수지(공간, 얼굴, 몸짓, 시선 등)를 별도로 목차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영역에 분산시켜 담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2.2.2 내용 구성 문제

### 1) 수어 관련 제반 지식(습득, 농사회, 수어 환경 등) 포함 여부

▶ 한국수어 문법서에 수어 관련 제반 지식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법서이므로 언어체계나 문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만, 수어의 특성상 농사회와 수어 환경, 수어 습득 및 농교육 등 제반 지식을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본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제목에서처럼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가 목적이라면, 습득, 농사회, 수어환경 등 언어체계나 문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의미를 다루는 부분에서 화용적인 양상을 넣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 수어 관련 학위논문이나 이론서 첫 부분에 해당 수어를 둘러싼 농사회와 수어 환경을 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중에게 생소한 수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문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내용 구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언어 현상 전반을 다루는 언어학 이론서처럼 기술할 것인지 아니면 문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따라 내용 구성의 범위가 결정되겠습니다. 문법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수어를 이해하기 위한 제반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른 분야에서 다루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수어는 자연수어뿐만 아니라 인공수어체계, 그리고 동인과 청인이 만나 형성한 피진수어(접촉수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는 제반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수어 연속체라는 측면에서 자연수어, 수지한국어, 피진수어를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외 수어의 경우 문법서라고 하지만 언어학 이론서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외 수어의 문법서가 존재한다면 그 체계를 참고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수어문법이나 언어적 특성에 관련된 경우에만 농사회와 수어 환경, 수어 습득 및 농교육 등 제반 지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수어 문법 구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시각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로써의)은 서론 부분에서 다룰 만 한 사항이지만 문법서에 제반 지식을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어문법을 다룸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서론이나 들어가는 말에 포함하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2) 의미론과 화용론 포함 여부

▶ 한국수어 문법서에 의미론과 화용론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미는 음운이나 형태 또는 통사론 차원에서 다룰 수도 있으며, 별도로 다루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기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화용론은 특정 언어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제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의미와 화용론은 관련 연구가 매우 적지만 의미론과 화용론 영역을 생략하기보다 제한적으로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어느 언어를 연구하든지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의미는 형태(음성·음운적 형태, 형태적 형태, 통사적 형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문법연구에서 의미-화용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여러 형태를 다루는 분야에서 의미적 양상을 얼마만큼 넣을 것이냐에 따라 의미-화용부분을 별도로 다루지 않을 수도 있고, 의미 부분을 포함한다면(중복을 최소화하여) 별도로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화용적 양상은 언어의 기본적인 규칙적 양상이라기보다는 언어가 사용되는 각각의 특정 언어사용 상황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러한 수많은 각각의 상황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화용론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화용적인 양상을 꼭 포함해야 한다면, 수어의 특성 자체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미론과 화용론은 국내외 수어분야에서 비교적 연구가 부진했고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한국수어 문법을 깊이 있게 기술하는 작업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법의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향후 추가 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현재 관련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라도, 의미와 화용론 영역을 생략하기 보다는 포함하는 것이 이후 연구 영역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미론과 화용론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수어문법서의 기능에 의구심이 들 것 같습니다. 수어는 문자가 없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이는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회화 혹은 발화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언어는 결국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심하게 유동적인 부분이 있지만 수어문법서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이번 연구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가장 큰 기대는 음운론과 함께 바로 화용론 부분입니다.

### 2.2.3 수어문 표기와 관련한 문제(예: 글로스, 비수지 요소 및 공간과 방향 요소의 기록 등)

▶ 한국수어 표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수지 요소의 표기, 공간과 방향 요소의 표기, 수어 어휘의 표기, 동형이의어 표기 등은 가장 효율적이고 용이한 방법을 채택하여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어문의 표기와 한국어 해석문, 그리고 동영상이나 그림/사진도 함께 제시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한국수어의 수화어휘(sign)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어떤 방법이든 정답이라든지 가장 효율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문법기술에 가장 효율적이고 용이한 방법을 채택하여 일관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수화어휘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통사적 기술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음운적, 형태적 기술 부분은 수화어휘의 의미표현만으로는 이를 수 없기 때문에(음운 및 형태론적) 형태를 나타내는 수어소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림/사진을 직접 제시해야 할 경우도 있겠고, 전체 연구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필요한대로 동영상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 현재 한국수어 관련 논문이나 서적을 보면 공통된 수어문 표기가 없습니다. 저자마다 해당 문헌 안에서 임시적인 표기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통된 수어문 표기방법이 사용된다면 연구자간 수어문의 이해가 정확해질 것입니다. 비수지 요소의 표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어의 비수지 요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하겠습니다. 비수지 요소는 크게 감정표현을 위한 비수지 요소와 언어적 기능을 하는 비수지 요소로 구분되는데, 언어적 기능을 하는 비수지 요소들의 문법적 기능의 분류 및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공간과 방향 요소는 일치동사 표기에서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치동사가 이동하는 위치 정보로 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어 어휘 표기에서 국외 수어에서는 대문자로 수어 단어를 표기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한국수어에서는 대문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수어 단어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가 여러 개인 경우 그 중 어떤 의미로 글로스를 정하는가도 문제입니다. 코퍼스에서 글로스를 정할 때 의미와 관계없이 형태를 기준으로 하지만 수어문에서 어떤 글로스로 표기되었을 때 의미적으로 어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글로스로 표기했다면 이해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표기를 위한 기호는 문법 요소별로 제안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겠지만 글로스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어문의 표기와 한국어 해석문을 함께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 한국수어 표기 체계가 나오기 전에는 수어 이미지와 함께 수어 표기 체계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쓰여질 수어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4번의 문제와 함께 고민해 보자면 당연히 문법서에 대한 설명부분에서 먼저 하나로 통일된 용어와 표기법을 선정하고, 아직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통일 과정이 없는 용어와 표기법들에 대해서 단순히 본 연구에 한정하는 용어의 의미, 표기법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인의 문화/농문화/농인문화 등은 담을 수 있는 의미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담고자 하는 의미는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담고자 하는 의미를 한정하고 한 용어를 선택하면 연구과정과 결과물에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수어문 표기법이 싸인라이팅 표기법을 사용한다면 부록이나 별책, 첨부 정도로 해서 본 문법서(문법연구)에 쓰여진 부분에 한정하여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2.4 문법 설명 시 사용하는 예시 수어문(데이터)의 수집 방법론

▶ 문법 설명 시 사용하는 예시 수어문(데이터)의 수집 방법론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농인이 농인 사회에서 자신들이 모국어(母國語, native language)로 사용하는 수어를 자료로 수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대용량의 언어자료인 수어 말뭉치를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목차 및 내용 구성이 확정되면 특정 문법 항목들로 수집 범위를 좁혀서 그에 필요한 작은 수어 말뭉치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자료는 한국수어의 연구가 아직 방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자료를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새로이 자료를 수집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든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의 언어, 즉 모국어로서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의 자료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명칭만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의 명칭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인이 농인 사회에서 자신들이 모국어(母國語, native language)로 사용하는 수어를 자료로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어 음성언어의 문법에 따라 수화 어휘를 늘어놓은 인위적인 합성언어(예, signed Korean)를 대상으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아울러 고려할 사항은 수어 어휘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처럼 새로운 자료를 수집할 필요도 있겠지만, 문법에 대한 사항에서 새로운 방대한 어휘를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 이상의 방대한 자료에 필요 이상의 집착은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모국어로서의 수어 자료를 이용해야 함에 더해,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 한국수어 문법서에 넣을 예시 수어문을 얻기 위한 자료 수집은 많은 농인들의 수어 데이터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수어 코퍼스에서 예시 수어문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이상적이지만 원하는 만큼 예시 수어문을 얻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수어 문법서의 목차 및 내용 구성이 확정되면 특정 문법 항목들로 수집 범위를 좁혀서 문법을 위한 코퍼스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수어 수집에 대한 적합한 유도 환경을 제공하여 한국어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자료의 규모나 질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농인들의 수어 문법에는 개인차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많은 농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많은 수의 농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예시 수어문을 찾아내야겠습니다. 이 예시 수어문은 후속 연구자에 의해 재검토되어 궁극적으로 문법 현상에 대한 적절한 예시 수어문을 발굴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말뭉치 언어자료를 기본으로 두고, 연구 목적에 맞는 자연 발화 수집 및 의도자료에 의한 수어 수집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 문법연구는 물론 자연스러운 발화상태에서 어떻게 화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지만 코퍼스나 사전처럼 반드시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발화문만을 담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규칙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면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예문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진의 디자인된 예문, 코퍼스의 유도된 예문,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발화문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예문을 수집해도 되지 않을까요? 단 디자인된 예문 역시 가능하면 원어민 화자를 통해 불편함이나 억지스러움은 없는지 확인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지 확인 과정일 뿐 문법규칙을 설명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억지문장이라도 예문으로 활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추가로 그 문장에 대한 설명을 첨부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 2.2.5 내용 기술 방법

- ▶ 한국수어 문법서의 내용 기술 방법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활용하여 수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기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일반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 그리고 예시를 설명한 후에 수어의 언어적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수어에만 있는 문법 현상은 수어를 설명하는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각각의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 음성언어의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수어 언어학-문법연구 기술에(변형 및) 이용할 수도 있겠고, 그러한

전통(?)에서 벗어나 수어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필요한 대로 음성언어 언어학의 개념과 용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역시,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 한국수어 문법서의 목차 구성을 음성언어 분류 체계와 수어의 언어적 특징을 함께 담은 혼합형을 택하였다면(1번 항목에서 진술) 연구진이 언급하신 것처럼 음성언어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용어, 예시를 설명한 후에 수어의 언어적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 순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음성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어에만 있는 문법 현상이라면 굳이 위 기술 방법을 따를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문법서에서 굴절 현상을 ‘변형(modification)’으로 다루신다면 수어에서 굴절 현상으로 본 현상들이 왜 굴절이 아니라 변형인지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 음성언어에서의 파생과 굴절에 대한 문법 설명이 함께 비교, 기술되어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은 인간의 언어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축적된 것이므로 활용하여 수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기술하되, 수어 언어를 설명하는 용어를 과감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가장 큰 어려움이 기술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기 언어의 규칙과 법칙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기 언어로 기술할 수 없는 것은 매우 큰 제한점이기도 하고, 실재하지 않는 언어를 실재하는 형태로 기술함에 있어서의 한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한국수화연구소에서 수어 동사에 대한 접근을 기존 음성언어의 문법을 기반으로 접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능동, 피동, 주동, 사동 등에 대한 접근이었는데요. 기반지식을 음성언어에서 가져오다 보니 수어내용에 대한 기술보다 차이점과 제한, 한계 등에 대한 접근으로의 유혹을 벗어남에 매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비교접근은 이해도를 높임에 있어 필요하겠지만 수어에서 출발해서 수어로 접근하여 수어를 들여다보는 기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문법연구에서의 명확한 한계(예외사항을 포함한)를 매 챕터마다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포함 기재함으로 본 문법연구의 범위와 향후 연구 및 접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3 하위 범주별 쟁점 자문 결과

### 2.3.1 음운론

#### 1) 범주(목차) 관련 쟁점

- ▶ 한국수어 음운론에서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3가지 범주 외에 언어 양식의 차이와

도상성의 영향을 또 다른 범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었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음운적 쟁점으로는 음운단위, 음운과정, 그리고 동시성과 순차성이 있다. 나아가, 음성차원의 도상성(iconicity)을 고려하기도 한다. 수어의 특성상 도상성을 다루기는 하겠으나, 모국어에서 일단 기표(記表, signifiant)로 이용되면 그 기표의 도상성 그 자체나 도상성의 정도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상성을 필요 이상으로 다룰 것도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 먼저 음운론을 수어 문법에서 다룰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한국수어 음운론에서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3가지 범주 외에 언어 양식의 차이와 도상성의 영향을 또 다른 범주로 다루되, 그 순서를 도상성을 먼저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형부분에서 한국수어에서 쓰이는 수형을 추출하여 분류하는 것을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수어음운의 일반적인 분류는 수형, 수동, 수위, 수향, 공간, NMS 등일 것입니다. 이중에 논란이 있을만한 구성요소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을 수어의 음운요소로 볼 것인지 통사적 요소로 볼 것인지에 따라 범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 2) 내용 관련 쟁점

### ○ 수어소의 개수

▶ 한국수어의 수어소의 개수를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어소의 개수 기술 이전에 수어소의 개념과 수어의 변이음 환경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어소의 개수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수어소(chereme)를 다룸에 있어서 그 개수 자체에 대하여는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성언어의 변별자질에 있어서도 언어에 따라서 모두 사용되는 자질이 있고, 비교적 많이 사용되지만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지는 않는 것도 있으며,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수어소도 언어(수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데다가 나아가, 개별 언어에서도 특정 수어소에 따라서는 자주 쓰이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쓰이는 것, 거의 쓰이지 않는 것도 있으며, 특정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으므로, 그 수를

적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 있고, 그리 큰 쟁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 현재까지 한국수어 연구에서 수어소를 음소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는데, 소리의 변별적 단위라는 음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수어소를 음소로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소 목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지금 당장 도출해 낼 수는 없으나, 그 전에 수어소에 대한 개념 설명이 분명하게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음성언어에서 변이음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지만 화자는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소리인데, 수어의 경우는 어떠한 환경이 변이음을 만들어내는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미 연구된 관련 내용을 생략하기 보다는 제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수어에서 드러나는 수어소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형태에 대한 고려입니다. 어느 것을 한국수어의 수어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드러나는 모든 형태를 수어소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개수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왜 그렇게 정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 고빈도 수형과 저빈도 수형

▶ 고빈도 수형과 저빈도 수형에 대한 기술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수어의 특성 이므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코퍼스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에서 실현되는 수형의 분석을 제안하였으며, 수어소의 개수는 변이와 함께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고빈도 수어소와 저빈도 수어소의 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얼마만큼 연구서에 포함할지가 결정되겠는데, 본 연구는 한국어 수어라는 개별언어를 연구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론적 연구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연구일 것이기에 수어소의 빈도를 다루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빈도의 차이가 범언어적(범수어적) 유형, 경향성 등을 포함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 까지 할지는 의문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하나 중요한 사항은 빈도의 근거입니다. 빈도와 같은 것은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연구든지 새로운 (코퍼스) 연구든지 그 연구 자체를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더라도 근거는 명확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 고빈도 수형과 저빈도 수형에 관한 제안은 최상배(2012)와 석동일(1989)에서 ‘기본형’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코퍼스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에서 ‘실현되는’ 수형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퍼스에서 수형 빈도수 측정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어소의 개수는 변이와 함께 검토해야 그 수를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 고빈도 저빈도 수형은 한국수어의 특성을 알 수 있으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수형에 있어서 빈도수가 고려 사항인지 의문입니다. 수어소로 인정이 되고 확인이 되었다면 빈도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어떤 쟁점을 의도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특정 어휘에서나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수형이라도 한국수어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음운 과정

▶ 한국수어의 음운 과정 연구에 대해 몇 전문가는 전형적인 현상과 함께 비우세손 생략 및 유지, 치환 등의 음운현상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어 발화의 연속성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음운현상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전형적인 음운과정인 분절 삭제, 움직임 첨가, 동화 등의 전형적인 현상에 더해, 비우세손 생략 및 유지, 치환 등의 음운 현상도 포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현재 한국수어 음운 연구를 위한 자료는 기본형을 목록화한 국립국어원 한국수어 사전이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음운 과정은 소리가 실제 발음될 때 앞뒤 음에 따라 변하는 현상인데, 기본형만 제공되는 자료를 가지고서는 현상을 살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어 발화의 연속 속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모어 화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기술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는 관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음운 과정에 대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어려운 문제는 수동과 수향, 공간 등의 결합을 음운으로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와 시선 부분을 음운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동과 함께 공간을 이동함에 있어서 의미를 생산하지 않는 단순한 이동이라면 공간을 나누어 음운으로 볼 필요가 없겠지만 수동이 공간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수동의 범주로 할 것인지 공간의 범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 3) 용어 관련 쟁점

#### ○ 수어소 혹은 음운(음소)

▶ 음운(음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수어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용어를 사용하든 일관되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 수어에서는 이미 익숙하게 수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수어소”와 “음소”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어느 것이 되었든 하나를 정하여 일관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한국수어 연구 분야에서 ‘수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스토킵 박사가 제안했던 *chereme*이보다 *phoneme*를 지칭한다고 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소리를 기반으로 한 ‘음소’의 개념을 수지적 동작에 기반 한 수어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반대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언어에서 음소의 개념이 차이가 없다면 수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수어 연구 분야에서 ‘음소’라는 용어는 소리라는 어감이 있기 때문에 ‘수어소’의 사용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적으로 익숙한 ‘수어소’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음성언어연구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경우, 음운(음소)라고 사용하는 것이 언어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사료됩니다.
- 논쟁점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어떻게 할지 한정만 해 준다면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 2.3.2 형태론

#### 1) 범주(목차) 관련 쟁점

▶ 한국수어 문법서 형태론의 대범주에 수어 형성과 수어 변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구분하고 기술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그 외 독일수어 문법서에서 다루고 있는 ‘도상성’, 호주 수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수지 자질’을 중범주 또는 대범주의 하나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일반적으로 형태론 부분에서 다루는 형태소, 어휘, 어휘형성 등에 더해 굴절, 포함도 고려 대상이 되겠는데, 굴절(또는 변형)과 포함을 형태적 작용으로 볼 것이냐 통사적 작용으로 볼 것이냐는 순전히 이론적인 쟁점이므로, 이 점을 언급하고 임의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파생과 굴절이라는 과정을 수어 형성(sign formation)과 수어 변형(sign modification)으로 기술하고자 한다면, 파생과 굴절을 수어 형성과 변형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형태론과 통사론의 가장 큰 쟁점은 결국 분류사를 어떻게 다루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수어의 문법이 일반 음성언어의 문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논항표지와 분류사에 있다고 봅니다.

## 2) 내용 관련 쟁점

### ○ 형태소 분류의 기준

▶ 수어 형태소 분류를 할 때 일반 음성언어 형태소 분류 기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수어 형태소 분류 기준을 따를 것인지 대해 전문가들은 수어의 형태소가 음성언어의 단어 형성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기 어려우므로 음성언어 형태소의 분류 기준을 따르기 보다는 수어 형태소 분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음성언어의 형태소 크기와 그 형태소를 이용한 더 큰 단위인 어휘를 이루는 방식과 그에 상응하는 수어의 작용이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음성언어에서 변별자질이나 음소를 결합함으로써 인해 직접 형태소를 이루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수어에서는 수어소를 결합하면 바로 형태소나 어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음성언어에서도 변별자질이나 분절음 단위의 형태소가 존재하며 그러한 형태소가 결합하여 분리(형태소 분리)가 어려운 어휘를 이룬다. 따라서 수어에서도 형태소 분류의 기준을 음성언어와 유사하게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는 이론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겠으나, 한국어 수어문법 기술을 위한 연구로는 그 세세한 양상에 천착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유형적인 분류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 한국수어에서 형태소의 개념은 음성언어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어소 자체는 음소처럼 의미를 갖지 않아야 하는데 수형, 수위, 수동 등이 의미를 갖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장진권(1995)에서 수어소별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수형은 의미를 가진 단위입니다. 또한 수어 단어들을 구성하는 수어소들은 독립할 수 없지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어의 수어소와 형태소를 구분하는 문제가 음성언어와는 다른 수어의 특징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음성언어 형태소 분류로 수어 형태소 기술하는데 한계가 크므로 수어 형태소 분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형태론의 쟁점은 1) 분류사(도상성 포함)를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2) 품사(동사와 명사, 형용사의 구분)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3) 변이어, 동의어(변이와 동의 구분 기준) 등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음성언어나 문자언어를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 ○ 수어 형성에서의 도상성 포함 여부

▶ 수어는 시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수어 형성에 도상성의 원리가 반영되며,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수어 형성에 도상성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상성을 필요 이상으로 다루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과 수어 어휘의 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수어의 특성상 도상성을 다루기는 하겠으나, 모국어에서 일단 기표(記表, signifiant)로 이용되면 그 기표의 도상성 그 자체나 도상성의 정도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상성을 필요 이상으로 다룰 것도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 이 항목의 제목인 ‘수어 형성의~’에서 “sign”이라는 용어도 정리 및 통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어소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슨턴과 샘브리(1999)는 ‘음소형태소(phonomorpheme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두 저자 또한 만족스러운 용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음성’과 달리 ‘손’은 사물 자체와 사물에 가하는 인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혹은 매우 비슷하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 정보를 언어 기호로 환원하는데 도상적인 특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어 어휘의 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어의 특징으로 언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고찰이 필요합니다.
- 도상성의 유형을 분류하여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상성 역시 시각언어인 수어에는 중요한 요소이며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을 편 모양 하나만으로도 배, 승용차, 나뭇잎, 종이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지만 수동이 빠지면 매우 한정된 의미(평평한 어떤 것)만을 담게 됩니다. 따라서 음성언어의 어미변화, 혹은 굴절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도상성에서 형태소적 요소로 다룰 부분과 통사적 요소로 다룰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합성어의 유형

▶ 합성어의 분류와 이에 따른 합성어의 상위 범주에 대한 하위 유형 제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합성어의 상위 범주에 대해서는 순차적 합성어와 동시적 합성어, 등위합성, 분류사 포함 합성 등을 다루는 것을 제안하였고, 순차적 합성어와 동시적 합성어의 하위 범주들도 포함하여 기술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합성의 음운적 유형에 따른 순차적 합성어와 동시적 합성어의 구별, 등위합성, 분류사 포함 합성 등이 있겠습니다.
- 한국수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가 ‘합성어’ 연구라고 봅니다. 김철관(1996), 원성욱·장은숙(2003), 이윅하(2008) 연구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국수어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므로 순차적 합성어와 동시적 합성어의 하위 범주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국수어의 합성어를 한국어 어휘의 나열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 음성 언어에서 합성어의 정의를 다시 확인하고 수어언어에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의를 수정하거나 다시 접근해야 할지 연구진과 원어민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반복(명사-동사 파생)과 지문자어

▶ 한국수어에서도 반복에 의한 동사에서 명사로의 파생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국수어에는 반복 뿐 아니라, 움직임의 방식, 지속시간, 크기, 그리고 입모양도 명사-동사 파생에 관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이를 제시해야 하며, 만약 한국수어에 이러한 증거 사례가 없더라도 국외 연구를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문자어 역시 한글 지문자를 활용한 수어 단어의 형성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반복에 의한 파생, 중첩에 의한 품사전환 등의 체계적인 작용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처럼 형태적인 변화든지 품사 등 기능적인 변화든지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분류하고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지문자어도 포함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문자 어휘는 기본적으로 음성언어 어휘 차용을 위한 것이므로 그 양상이 많이 다르지만 수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명사-동사 파생 연구는 미국수어, 이스라엘수어, 호주수어, 오스트리아수어, 러시아수어, 알 사이드 베두인수어에서 연구되었습니다. 선행연구를 보면 명사-동사 파생이 중첩을(혹은 반복)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방식, 지속 시간, 크기, 그리고 입모양도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반복을 통해 동사가 명사로 파생에 대한 한국수어 예는 있으나 한국수어품사 연구, 반복에 의한 품사구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미국 연구를 소개하는 차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순한 제 경험으로 보자면 한국수어에서 반복이 명사나 동사를 구분짓는 요소로 작용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수어에서 가져온 구분 같으나 한국수어는 반복보다는 정황정보 혹은 화자의 습관에 의해 더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명사와 동사에 대한 구분, 그리고 동사인지 문장인지에 대한 구분점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문자가 수어의 의미를 생산한다기보다 한국어 음성(과 문자)언어의 의미나 발음을 차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태론에서 차용에 대해 가볍게 다룰 수는 있으나 수어의 문법을 다룸에 있어서는 포함할 것인지, 포함할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연구진이 세우지 않는다면 향후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수사 포함의 범주 및 접사 첨가와 관련 이슈

▶ 수사 포함을 파생이나 합성의 한 영역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수어의 단어 형성에서 보이는 특성으로 보아 파생과 합성에 포함하기보다 구분하여 다룰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수사 포함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동시적 접사 첨가로 설명하므로 접사 첨가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다음과 같다.

- 수어의 동시성으로 인해 아주 주요한 형태작용이므로 반드시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파생과 합성과 같은 형태작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립형이 결합한 통사적 과정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는 깊이 다루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 수사 포함에서 특정한 양을 나타내는 수사와 결합하는 특정 수위(날, 나이, 등수, 차례, 층수, 년 등)는 독립할 수 없고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경우 수사 포함은 어근의 결합인(동시적인) 합성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형이 수사로 교체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동사 ‘오다’는 수형을 교체하여 ‘한(두, 세)명이 오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다’ 또한 기본형은 엄지 수형인데 1, 2, 3 등으로 수형을 바꾸어 방문자 수를 표현합니다. 이 경우 두 구성 요소는 자립적인 단위이며 동시적 합성어가 두 어근의 수어소 일부를 가져와 동시적으로 결합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수사 포함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파생어, 합성어 혹은 수어 단어 형성의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수어는 동시적 접사 첨가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aker 외(2016)에서 diminutive와 augmentative를 동시적인 파생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conversion(음운적으로는 표지되지 않는 파생 과정)이 수어에 공통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합성어의 유형에 동시적 합성어로 하위 범주를 둘 경우 수사 포함을 합성의 한 영역에서 다루면 일관성 있는 서술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 수어 변형의 중범주 주제 및 영역 선정

▶ 수어 변형의 중범주 주제 및 영역들의 내용 선정에 대해 이론적인 사안에 따른 구별보다는 현상 자체와 현상의 분류와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수어 변형을 형태론에서 시제와 상, 일치, 복수화 정도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는 하지만 한국수어 시제와 동작상의 표현은 통사론에 포함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수어 어휘의 변형(modification)은 넓은 의미의 굴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어 어휘의 기능과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다루어야 하겠지만, 수사 포함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를 형태적인 작용으로 볼 것인지 통사적인 작용으로 볼 것인지는 상당히 이론적인 사안이므로 그 구별보다는 현상 자체와 현상의 분류와 기능에 집중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준우·남기현(2014)은 기존 입장에 따라 굴절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어 문법서가 수어에서 굴절을 인정하지 않고 변형(modification)을 취한다면 변형의 개념과 그에 속하는 언어 현상들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슨턴과 썸브리(2007)는 ‘명사 변형’과 ‘동사 변형’으로 나누는데 명사 변형의 경우 명사의 원래 위치가 아닌 특정 위치에서 산출될 때 그 위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수어 특징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명사가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 반복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닌 접도 변형으로 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유 접미사 ‘+gen’의 경우에도 모든 명사에서 소유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수어자마다

개인차가 있고 오히려 두 명사를 나란히 배치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임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수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현재 연구 자료를 근거로 시제와 상, 일치, 복수화 정도만 다루고 앞으로 연구과제 및 논의점을 제시하면 좋다고 사료됩니다. 수어의 형태론과 통사론 구분이 어렵지만 한국수어 시제와 동작상 표현에서 통사론에 포함되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 ○ 품사의 대범주 영역과 종류

- ▶ 품사를 어느 대범주 영역에 배치하느냐에 대해서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형태론과 통사론 중 어느 곳에서 다루어도 문제가 없으며, 품사의 종류에 있어서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등 4 종류 정도를 먼저 기술하고, 추후 검증된 사례들이 나타났을 때 추가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명사, 동사, 형용사/부사 등의 주요 품사(실사, content word)는 이론이 없겠으나, 허사 또는 기능어 중 어느 것을 얼마만큼 포함할 것인가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급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품사는 단어를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부류이므로 단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연구 영역인 형태론에서 다룰 수도 있고, 단어가 문장 안에서 실현될 때 품사에 따라 문법적 역할이 다르므로 통사론에서 다룰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진이 제안하신 것처럼 품사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도 상당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성언어에서 품사의 분류의 기준을 ‘형태’, ‘통사’, ‘의미’라고 보는데, 한국수어의 경우 어떤 단어는 명사와 동사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형태만으로 품사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장 속에서의 기능을 살펴봐야 정확한 품사 판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수어의 품사 분류 기준은 선행 연구들에서 품사를 가르는 기준을 검토하시어 그것들을 토대로 한국수어 자료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 같습니다.
- 품사에 대한 기초연구가 많이 없어 수어 분석이 필요합니다.

### 3) 용어 관련 쟁점

#### ○ 변형(modification)

- ▶ ‘modification’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할 때, 최상배와 안성우(2014)는 석동일 연구를

근거로 ‘변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김철관은 어형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modification’을 ‘변형’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몇 전문가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 전문가는 변이형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기본적으로 굴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굴절이라고 칭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대신 변형, 변용, 어떤 용어든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수어 연구에서 굴절을 인정하는 입장(대표적으로 Padden)과 굴절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대표적으로 Liddell)이 있는데, 한국수어 문법서가 어떠한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굴절’ 혹은 ‘변형’이라는 용어의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리델은 미국수어는 굴절이 없는 언어이며 동사 일치 현상도 reference tracking system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굴절의 예로 간주했던 언어 현상들은 대부분 형태의 변화로 인해 의미가 바뀌는데 그렇다면 굴절이 아니라 파생으로 볼 것인지(존슨 & 샘브리, 2007) 한국수어 데이터로는 깊이 있게 검토된 적이 없으므로 어느 한 입장에 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수어 문법서에서 변형의 입장을 취하셨다면 그 범주 안에 동사의 일치 현상, 동사와 수 표현, 명사의 복수 표현 등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수어 단어의 형태를 바꾼다는 뜻으로 modification을 ‘변형’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굴절과 파생 모두 단어의 형태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변형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어 보입니다.
- 변형의 한자어를 모르겠지만, 수어 형태 또는 수형이 변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변이형과 혼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변형의 경우 지역색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역색은 지리적 요인보다 특수학교(농학교)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수어에서 시인성이 떨어져 수어사용자에게는 변형이 없다고 생각되는 어휘(예: [없다]의 엄지손가락 등)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문법의 한 형태로 다룰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수어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문법으로 설명 가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동시적 합성어

- ▶ 동시적 합성어 용어의 경우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철관(1996)은 복합구성, 원성옥과 장은숙(2003)은 한국복합수화, 이율하(2008)은 동시적 결합 구조, 이준우와 남기현(2014)은

동시적 합성어, 동시적-순차적 합성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시적 합성어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동시적 합성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이에 대해서도 용어를 하나로 정하여(그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일관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 음성언어의 경우 동시적인 합성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말소리를 동시에 낼 수 없기 때문인데, 수어는 둘 이상의 실질형태소를 결합하거나 두 개의 실질형태소의 일부 수어소를 가져와 합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순차적 합성어, 후자를 동시적 합성어라 합니다. “한국복합수화”라는 용어는 ‘수화’라는 표현에서 언어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를 주며, “동시적 결합 구조”라는 용어는 ‘~ 구조’라는 어감에서 ‘단어’라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어 합성법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동시적 합성어”, “순차적 합성어”라는 용어가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동시적 합성어로 통일해도 다양한 표현의 의미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3.3 통사론

#### 1) 범주(목차) 관련 쟁점

▶ ‘어순’을 미국수어나 호주수어처럼 대범주로 분리하여 다룰 것인지에 대해 통사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법 주제이므로 분리하여 다룰 필요가 있으며, 중범주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문장성분에서 자연스럽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분류사’를 형태론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통사론의 주요 주제인 문장유형, 이에 따른 어순, 술어-논항의 관계 등에 더해 동사의 다양한 굴절형태, 수어의 특성 중 하나인 일치동사,(문장 또는 명제 등 구절의 의미와 관련된) 비수지 요소, 동시성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대범주에서 어순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문장성분을 기술하면서 주성분과 부속성분의 어순이 자연스럽게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분류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각각 다루어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어순은 대범주로 분리하지 않다고 될 것으로 봅니다.
- 증문, 복문, 구, 문장 등에 대한 수어의 구분방식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어는 회화 중심의 언어로 접속사가 하나의 어휘형태(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등)로 드러나지 않고 문맥과 정황에 의해 드러나는 경향과 얼굴 근육 경직, 노딩 등으로

드러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범주를 정함에 있어서 결국 다른 음성언어나 문자언어 방식을 가져오는 것은 수어를 들여다보는 표준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내용 관련 쟁점

### ○ 수어에서 어순의 역할

▶ 한국수어에서 어순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수어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실현은 어순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본 어순과 비기본 어순의 문형과 의미 차이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수어 어순과 관련된 기술을 위해 어순과 관련된 사례가 포함된 한국 문헌들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기본 어순이 있는지, 있다면 기본 어순과 비기본 어순의 문형과 의미 차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미묘한 의미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수어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실현은 어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관형어의 경우도 두 개의 명사가 나란히 배열될 때 둘의 수식관계를 통해 둘 중 하나를 관형어로 볼 수 있으므로 어순은 품사의 구별과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수어 부사어의 어순은 한국어 부사의 어순과 다르다고 하는데(원성욱 외, 2013), 이를 기술하는 것도 한국수어 어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어순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제시한 후 그 순서를 연구한 것으로 한국수어에서 어순이 있는 문장은 적어서 어순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엄미숙(1997) 한국수화의 통사론적 분석 연구결과에 동의합니다.
- 수어에서의 어순은 한국어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용적 측면에서는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작용하여 자유로움을 창조해 내는 매우 역동적인 언어입니다. 고정형의 어순과 고정된 어순을 변동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표지

▶ 한국수어에서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다양한 문법적 표지에 대해서는 문장유형을 결정하는 다양한 문법 표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유형화하고 정리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장유형에서 서술문, 의문문, 부정문, 화제화 이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문장유형을 결정하는 다양한 문법 표지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단순히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유사점과 상이점을 가능한 한 명확히 밝히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 한국수어에서 문장의 유형을 실현하는 비수지 신호의 유형이 잘 정리된다면 한국수어와 수지한국어의 구별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일례로 한국수어 의문문은 ‘-니까’라는 질문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비수지 신호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서술문, 의문문, 부정문, 화제화를 중범주로 설정하셨습니다. 덧붙여 문장 유형에서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을 제외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한국수어 서술문, 의문문, 부정문, 화제화문의 문법적 표지가 비수지 기호나 공간에 의해 실현될 뿐만 아니라 부정접사에 대한 내용 포함도 필요합니다.
- 문장유형에 대한 문법적 표지는 거의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손을 마주잡거나 아래로 늘어뜨리고 눈빛을 나누는 방법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많은 문장 분석을 요합니다. 이를 이미 수집된 코퍼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번역된 문장이 아닌 수어문을 보고 어디서 문장을 끊을지 그 요인이 문맥과 정황이 아닌 어떤 언어적 요소에 의한 것인지 원어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의문문과 비수지 기호

▶ 의문문을 실현하는 비수지 기호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어에서 의문문의 비수지 기호는 반드시 다뤄야 하고, 의문문의 종류에 따른 비수지 기호의 구별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의문문에서 비수지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수어의 특징으로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것인데, 의문문의 종류에 따른 비수지 기호의 구별, 명확한 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wh-의문문과 예/아니오 의문문에서 비수지 신호가 의문 표지의 역할을 한다면 두 의문문 유형에서 비수지 신호의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 한국수어도 예/아니오 의문문과 의문사(wh-) 의문문이 비수지 기호에 의해 구분된다고 사료됩니다. 이 둘의 차이도 기술해야 합니다.



○ 수어에서 공간의 기능

▶ 한국수어에서도 통사론적 측면에서의 공간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음운론에서부터 통사론에 이르기까지 언어적 측면에서 기술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어의 공간을 별도의 장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일치동사와 대명사를 다루면서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수어가 공간을 이용하여 형태(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형태)를 표현하는 언어이므로 공간 이용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텐데, 그 범위에 대하여는 화용적 측면이 아닌 언어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어 공간의 통사적 기능은 일치동사와 대명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어의 공간의 기능이라는 별도의 장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일치동사와 대명사를 다루면서 언급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또한 일치동사와 대명사에서 공간의 언어적 기능에 대한 리델의 반박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수어에서 공간과 관련된 영역은 매우 방대할 것으로 생각되며, 음운에서부터 통사론적 특성까지 자세히 정리하면 그 의의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간이 논항을 결정하는 통사론적 접근도 가능하지만 때로는 화용론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언어적 공간과 실제 환경을 재구성하는 공간 활용을 구분하고 이 둘 간의 역동적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어에서 공간은 다른 언어와 구분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로써 도상성과 동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이 어순에서의 자유로움을 부과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결국 수어를 함에 있어서 공간의 기능을 몇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사의 분류 체계

▶ 한국수어 문법서에는 동사의 분류 체계는 공간과 형태 변화에 초점을 둔 Padden(1990)의 동사분류가 한국수어 연구에서는 많이 채택하고 있어 익숙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기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술어-논항의 결합가에 의한 분류 등도 함께 기술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공간을 사용하는 수어의 특성과 동시성으로 인해(음성언어에서는 볼 수 없는) 소위 공간동사, 일치동사 등이 있는데, 그 용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태에 따른 이러한 분류와, 이에 더해(술어-논항의)결합가에 의한 분류는 흔히 있는 음성언어에서의 분류와 거의 유사할 것이고, 거의 모든 언어가 그러한 구분이 있을 것이므로 이렇게 구분하여 기술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일반동사-공간동사-일치동사의 구분에 더해 1가동사-2가동사-3가동사의 구분으로 인한 중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수어에서 동사는 음성언어에서 동사와 다르게 분류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기준에 따라 동사를 자동사 타동사로 구분한다든지, 의미적 특성에 따른 심리동사, 인지동사 등으로 분류한다든지 할 수 있으나, 수어의 경우는 동사의 형태 변화 유무, 특히 공간에서 산출되는 특성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어왔습니다. 학자마다 동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어왔는데 우선은 여러 용어들로 사용되어 온 수어에서의 동사 분류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일반동사(plain verb), 공간동사(Spatial verb), 일치동사(agreeing verb)로 분류(Padden, 1990)하는 것이 한국수어문법 기초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동사의 분류체계가 아니라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문장인지의 접근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각적 변화 뿐 아니라 움직임 형태 묘사 등이 수어에서는 대부분 움직임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동사 하나로 분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서술체계로 접근해야 할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분류사 술어

▶ 향후 한국수어 문법서에서는 분류사 구문을 어떤 범주에서 어떤 틀에 의해 정리하고 기술할지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서 기술하는지는 큰 문제가 아니며, 고빈도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류사를 용례와 함께 유형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분류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용어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분류사는 언어에 따라 양상과 사용정도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문법연구에서 어느 특정 사항에 대해 모든 예를 다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고빈도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류사를 용례와 함께 유형별로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2000년도 초반 미국에서 수어에서의 ‘분류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류사를 보는 관점이 다양하여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를 가진 수형에 기초한 분류, 분류사 수형을 포함한 서술어로의 분류, 언어적

요소와 제스처 요소의 결합으로 본 묘사동사로의 분류 등이 있습니다. 분류사 수형은 그 자체로는 단어 혹은 구문으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서술어로 정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분류사는 여러 영역에 걸쳐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음운, 형태, 통사 영역을 구분해서 기술한다면 각각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3) 용어 관련 쟁점

#### ○ 비수지 신호, 비수지 기호, 비수지 표지

▶ 비수지 요소의 용어에 대해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일관되게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문법적 기능을 강조하는 ‘비수지 표지(non-manual marker)’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정하여 일관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외에서도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서는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 표정(facial expression)과 대조하여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비수지 표지(non-manual marker)’라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 비수지 신호 또는 비수지 기호
- 세 용어가 같은 것을 규정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수지 기호’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기호는 일반적인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반면 신호는 광범위한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몸짓발짓을 수어로 포함하는 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표지는 일관성이나 문법성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2.3.4 의미 및 화용론

#### 1) 범주(목차) 관련 쟁점

▶ 한국수어를 대상으로 한 의미와 화용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범주와 중범주의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미부분을 별도로 다루는 것이 힘들 수 있으나, 초기 문법서임을 감안하여 의미론까지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어휘의 의미 변화 등도 의미론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언어라는 체계의 특성상 기표(형태)와 기의(의미)가 연루되는 이유로 인해 의미를 다루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기표와 기의를 분리하여 별도로 논할 수는 없으므로(음운부분과) 형태부분, 통사부분에서 해당 부분의 형태를 다루면서 의미도 아울러 다루기에, 의미부분을 별도로 다루는 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통적인 언어학에서 하는 대표적인 의미적 분야로 어휘의미론과 합성의미론이 있겠는데 이를 포함할지 말지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연구진께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토하신 것처럼 현재 한국수어에서 의미론 연구는 매우 부진하여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의미론의 이론적인 내용을 언어자료가 없이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한국수어에서 화용론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초기 문법서임을 감안하여 의미론까지 제시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증범주로 제안하신 도상성과 은유는 개인들의 논문이 몇 편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어에서 도상성과 은유는 어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어휘 관계에서는 언급하신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뿐만 아니라 다의어, 동형이의어, 어휘의 의미 변화 등도 함께 다루면 어떨까 합니다.
- 한국수어 문법서에 의미와 관련한 범주를 의미 이론, 도상성과 은유, 어휘 관계로 나누고, 화용과 관련하여서는 담화 구조와 관련한 하나의 범주로 나누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내용 관련 쟁점

### ○ 도상성과 은유

▶ 연구물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수어 어휘 형태에서의 도상성과 시각적 은유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도상성은 주로 어휘 차원에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도상성을 필요 이상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별 자문은 아래와 같다.

- 수어의 특성상 도상성을 다루지 않을 수는 없고, 또한 어휘의 어원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점은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음성언어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양의 도상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국어에서 일단 기표로 이용되면 그 기표의 도상성 그 자체나 도상성의 정도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또한 도상성은 주로 어휘 차원에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도상성을 필요 이상으로 다룰 것도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 현재 한국수어를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기술할 수 있을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 어렵다면 관련된 농인의 수어동영상을 분석하여 사례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어의 도상성과 은유는 분류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매우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문법에서 다루기에는 매우 방대한 것 같습니다. 변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범주화하고 규칙을 도출할 만큼 많은 언어정보를 확보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분이 아닌 단순한 발생 상황이나 형태에 대한 분류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수어에서는 ‘교통사고’라는 수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어화자들이 추상화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추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상성이 단순한 어떤 것에 대한 흉내나 묘사 차원에서 설명되기보다 수어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부분에서 도상성이 발생하고 은유적 표현은 어떤 영역에서 주로 드러나는지, 다른 언어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3.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문법 지식 설정 및 상세 범주화

#### 3.1 총론

수어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주류 사회 속에서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이에 총론에서는 대범주를 언어와 수어 그리고 수어와 사회로 나누었다. 언어와 수어에서는 수어의 언어 보편적 특성과 시각언어로서의 수어에 관한 기술을 한다. 수어와 사회에서는 수어와 농인, 수어 환경에 관해 기술한다. 그 내용은 <표 61>와 같다.

<표 61> 대범주와 중범주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쟁점 사항-음운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쟁점
언어와 수어	수어의 언어 보편성	-자의성 -분리성 -전위성 -문화적 전달 -역사성	
	시각언어로서의 수어	-동시성 -공간성 -도상성	

수어와 사회	수어와 농인	-농교육 -농사회와 농문화	
	수어 환경	-교차 언어 -다양한 수어의 형태	-한국수어와 수지한국어의 경계는 무엇인가?

### 3.2 음운론

음운론에서는 대범주를 수어의 내적 구조, 동시성과 순차성 그리고 음운 과정으로 나누었다. 수어의 내적 구조에서는 음운과 수어소, 수형, 수위, 수동, 수향, 비수지 요소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동시성과 순차성에서는 음절과 음절 구조, 움직임-정지 모델을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그 내용은 <표 62>와 같다.

<표 62> 대범주와 중범주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쟁점 사항-음운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쟁점
수어의 내적 구조	음운과 수어소	-음운 개념 정의 -수어의 구성 요소 -수어의 표기 방법 소개	-음성과 음운 차원에서의 수어 단어 생성에 대한 기술을 할 것인가?
	수형	-수형소의 정의 -수형에 의한 최소대립쌍 -한국수어에서의 수형소 분석 -고빈도 저빈도 수형	-수형소 개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고빈도 수형과 저빈도 수형
	수위	-수형소의 정의 -수형에 의한 최소대립쌍 -한국수어에서의 수위소 분석	-수위소 개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수동	-수동소의 정의 -수동에 의한 최소대립쌍 -한국수어에서의 수동소 분석	-수동소의 개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수향	-수향소의 정의 -수향에 의한 최소대립쌍 -한국수어에서의 수향소 분석	-수향소의 개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비수지 요소	-비수지 기호의 정의 -비수지에 의한 최소대립쌍 -한국수어에서의 비수지 분석	-비수지 요소의 개수를 어떻게 기술 할 것인가?
동시성과 순차성	음절과 음절 구조	-음절의 개념과 음절 구조 -수어에서의 음절 구조 -Wilbur(1993)의 수어 음절 이론	
	움직임-정지 모델	-Liddell과 Johnson(1989)의 움직임-정지 모델 소개	
음운 과정		-정지분절 삭제, 움직임 첨가, 동화 현상 등	-비우세손 생략 및 유지, 치환 등의 음운현상도 기술할 것인가?

### 3.3 형태론

형태론에서는 대범주를 형태소와 형태론, 수어 형성, 수어 변형, 품사로 나누었다. 형태소와 형태론에서는 형태소의 개념, 수어 형태소의 유형을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수어 형성에서는 수어 단어 형성 방법, 파생, 수사포합과 지문자어, 합성을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수어 변형에서는 시제와 상, 복수성, 일치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그 내용은 <표 63>과 같다.

<표 63> 대범주와 중범주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쟁점 사항-형태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쟁점
형태소와 형태론	형태소의 개념	-형태소의 개념 정의 -음성언어에서의 단어 형성 방법	
	수어 형태소의 유형	-수어 형태소의 유형	-한국수어에서 수어 형태소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수어 형성 (sign formation)	수어 단어 형성 방법	-수어 단어 형성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 -수어 단어 형성의 특성인 도상성 설명	-도상성에 관련된 내용을 한국수어에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파생	-수어에서의 접사 첨가 개념 설명 -국의 수어 접사 첨가 예시 소개 -한국수어 접사 첨가 예시 소개	-한국수어에서도 순차적 접사 첨가와 동시적 접사 첨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는가?
	수사 포합과 지문자어	-수어에서의 수사 포합과 지문자어 개념 설명 -국의 수어 수사 포합과 지문자어 예시 소개 -한국수어 수사 포합과 지문자어 예시 소개	-한국수어에서의 수사포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국수어 형성에서 반복(명사-동사)과 지문자어 결합 현상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합성	-수어에서의 합성어의 개념 설명 -국의 수어 합성어 예시 소개 -한국수어 합성어 예시 소개	-수어에서의 합성어 개념과 유형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
수어 변형 (sign modification)	시제와 상	-수어 시제와 상의 개념 설명 -국의 수어 시제와 상 소개 -한국수어 시제와 상 소개	-한국수어의 시제와 상은 형태론과 통사론 중 어느 영역에서 다룰 것인가? -한국수어 시제에서 비수지 시제 전략의 증거가 있는가?
	복수성	-한국수어의 복수의 개념 설명 -국의 수어 복수 형태 소개 -한국수어 복수 형태 소개	-한국수어에서의 복수 형성은 다른 나라의 복수 형성과 유사한가?
	일치	-수어 일치의 개념 설명 -국의 수어 일치 형태 소개 -한국수어 일치 형태 소개	-한국수어의 일치는 형태론과 통사론 중 어느 영역에서 다룰 것인가?
품사 (단어의 분류)		-품사의 종류 설명 -국의 수어의 품사 소개 -한국수어의 품사	-품사의 범주를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

## 3.4 통사론

통사론에서는 문장 성분, 문장 유형과 비수지, 공간과 서술어로 대범주를 나누었다. 문장 유형과 비수지에서는 비수지의 기능, 서술문, 의문문, 부정문, 화제화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공간과 서술어에서는 수어 공간, 서술어, 분류사 술어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그 내용은 <표 64>과 같다.

&lt;표 64&gt; 대범주와 중범주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쟁점 사항-통사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쟁점
문장 성분		-문장 성분 개념 정의 -수어문에서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주성분과 부속 성분 실현 방법 설명 -수어에서의 어순의 기능	-어순을 대범주로 다룰 것인가? -한국수어에서도 기본 어순이 존재하는가?
문장 유형과 비수지	비수지의 기능	-수어 문장에서의 비수지의 기능	
	서술문	-단문 유형 및 예시문 제시 -복문 유형 소개 및 예시문 제시	-문장의 유형을 실현하는 문법적 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문	-예/아니오 의문과 의문사 의문문 -한국수어에서의 의문문 실현과 예시문 소개	-한국수어에서 의문문을 실현하는 문법 표지를 어떻게 나누고 확인할 것인가?
	부정문	-부정문의 종류 -한국수어에서의 부정문 실현과 예시문 소개	
	화제화	-화제-논평 구조의 특성 -수어에서의 화제화 구문 실현 방법과 예시문 소개	
공간과 서술어	수어 공간	-수어에서의 공간(space)과 위치(locus) -지시와 공간 -동사와 공간	-분류사를 형태론에서 다룰 것인가? -한국수어에서의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확인하고 정리할 것인가? -한국수어 통사론에서는 동사의 분류 체계 중 어떤 체계를 따를 것인가? -한국수어 분류사를 어떻게 정리하여 기술할 것인가?
	서술어	-수어에서의 서술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의 분류 방법 설명 -한국수어에서의 동사의 종류별 예시 소개	
	분류사 술어	-분류사 술어 정의 및 개념 설명 -분류사 술어 종류 설명 -한국수어에서의 분류사 술어 예시 소개	



### 3.5 의미 및 화용론

의미 및 화용론에서는 대범주를 의미론과 화용론으로 나누었다. 의미론에서는 의미이론, 도상성과 은유, 어휘 관계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그 내용은 <표 65>와 같다.

<표 65> 대범주와 중범주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쟁점 사항-의미 화용론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쟁점
의미	의미 이론	-의미의 유형과 종류 설명	
	도상성과 은유	-수어 어휘 형태에서의 도상성의 유형 소개 -한국수어에서의 도상성과 은유적 표현에 대한 예시 소개	-구체적으로 한국수어를 대상으로 어느 수준까지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어휘 관계	-어휘 관계 설명 -한국수어에서의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등 예시 소개	
화용		-담화 구조에 대한 설명 -한국수어에서의 담화 구조 예시문 소개	

## 4. 한국수어 문법 모형 제시

### 4.1 한국수어 문법 기술 체계

한국수어 문법의 기술 체계는 기본적으로 언어학의 하위 범주인 음운, 형태, 통사, 그리고 의미와 화용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언어학 하위 범주에서 나타나는 수어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2-4개의 대범주로 목차를 구성한다. 이때의 목차는 문법 지식 설정 및 상세 범주화에서 제시한 대범주와 중범주로 한다. 예를 들어 음운론에서는 대범주인 ‘수어의 내적 구조’, ‘동시성과 순차성’, 그리고 ‘음운 과정’을 목차로 하여 3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수어의 내적 구조’ 장에서는 ‘음운과 수어소’, ‘수형’, ‘수위’, ‘수동’, ‘수향’, ‘비수지요소’ 등 6개의 중범주를, ‘동시성과 순차성’에서는 ‘음절과 음절 구조’와 ‘움직임-정지모델’을 하위 목차로 구성한다. 또한 각 장에서는 도입부에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중범주의 문법 지식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중범주 문법 지식의 세부 내용에 대한 기술 체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일반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용어와 개념을 국외 수어의 예시를 통해 기술한다. 셋째, 한국수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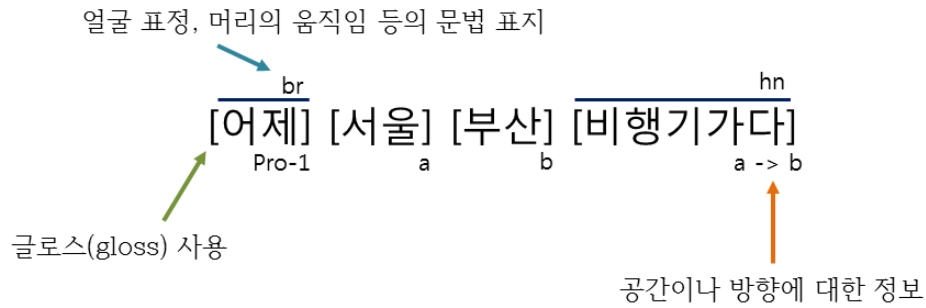
문법 지식을 예시와 함께 기술한다. 한국수어의 문법과 예시문은 기존의 합의된 연구물의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실제적인 문법 지식을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한 언어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수어문치를 구축하여 해당 문법 지식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모국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에 의존할 경우 최대한 한국어의 영향이 배제되어야 한다. 한국수어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거리로 남긴다.

## 4.2 한국수어 예시문 표기 방법

문법서에서 예로 제시되는 수어 단어나 문장은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표기 체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어는 음성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표기 체계가 부족하다. 물론, 수형, 수위, 수동을 기호 형태로 나타내는 스토키(Stokoe, 1960)의 표기 체계, 수향과 비수지표지까지 직관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사인라이팅(sign writing), 그리고 독일의 함노시스와 같은 표기 체계가 존재하지만 이를 익혀 기록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한국수어 문법서에서는 수어문을 기록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글로스(gloss)를 사용한다.

글로스란 수어 어휘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이는 그 수어 단어의 의미나 번역은 아니다. 다만 해당 수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한국어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지만 편 오른손을 오른쪽 관자놀이 옆에 접촉’한 수어 어휘의 의미는 ‘생각’ ‘사고’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수어의 글로스는 대표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생각]으로 표기한다. 영어의 경우 수어 글로스를 대문자로 표기하지만, 한글은 대문자와 소문자 구분이 없으므로 수어 어휘의 글로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 ]를 사용한다.

또한 수어는 문법적 표지가 동시적으로 표현되므로 표기에서도 다층 구조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즉, 수어문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비수지표지,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을 나타내는 방향이나 공간의 이동은 수어 어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수어문의 윗줄에는 얼굴 표정, 머리의 움직임 등의 문법 표지를 기록하고, 아래 줄에는 공간이나 방향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그림 3> 수어문의 표기 예시이다.



<그림 3> 수어문 표기 예시

### 4.3 한국수어 문법 모형 제시

#### 4.3.1. 음운론 - 수어의 내적 구조- 음운과 수어소

#### 1 음운과 수어소

##### 1.1 음운이란?

언어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는 분절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를 쪼개어 낸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 또는 음소라고 한다. 음운은 분절음인 음소와 초음절음인 운소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음운과 음소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음운과 음소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음운은 음성과는 구별이 된다. 인간이 발성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소리 중에서 실제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하는 반면에, 개별 언어 사용자가 지식으로서 알고 사용하는 말소리를 음운이라고 한다.

언어 사용자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소리란 언어 사용자가 말소리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여 다른 소리와 구별하는 소리로 이 소리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달라진다. 개별 언어에서 음운은 소리가 달라지므로 의미의 차이를 가져 온다. 예를 들어 한국어 ‘달’의 첫 소리 [t]가 [tʰ]로 바뀌면 ‘딸’이 되어 의미가 달라진다. 즉, 한국어 화자들은 [t]와 [tʰ] 소리를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을 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t]와 [tʰ] 즉, ㄷ 와 ㄷ ㅏ 는 음운이다. 그러나 ‘다달이’를 정상적으로 소리 내면 [tadari]이다. 한국어 사용자는 [t] 소리를 성대를 진동시켜 유성음 [d]로 내기는 하지만 이 두 소리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t]가 [d]로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 두 소리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성음인 [d]는 한국어에서는 음소가 아니며,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변이음으로 다른 환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영어에서는 tell(말하다)이 dell(작은 골짜기)이 되면 의미가 달라지므로 [t]와 [d]는 음소이다. 따라서 영어 화자들은 [t]와 [d] 소리를 구분하고, 영어 표기에서는 그 소리를 나타내는 철자 ‘t’와 ‘d’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t]와 [d] 소리가 존재하지만 그 소리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소리를 나타내는 철자가 한글에는 없다. 또한 한국어에서 [d]는 [t]가 오는 자리에는 올 수 없다

요약하면, 음소는 언어 사용자가 인식하는 지식으로서의 소리이다. 또한 각각의 음소들은 비상보적 분포를 가지며, 그 자리에 다른 음소가 대치되므로 의미 분화의 기능을 가진다. 그에 비해 어떤 음소와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소리는 그 음소의 변이음이 된다.

## 1.2 수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앞에서 우리는 언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어 역시 언어이므로 음성언어의 음소와 같은 작은 단위로 쪼개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수어를 음소와 같은 작은 단위로 쪼개어 내어 수어에서 의미의 차이를 가져 오는 시각적 변별 단위로 분석한 최초로 학자가 미국의 윌리엄 스토키(William Stokoe)이다.

스토키(1960)는 미국수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의미 있는 움직임에 하는 손의 결합 구도인 데즈(Dez:designator), 수어가 이루어지는 위치인 탭(Tap:tabulator), 수어의 움직임인 시그(Sig:signature)로 분석하고, 각 매개변수에서 분석해 낸 요소들을 음성언어의 음소와 같은 개념인 수어소(chereme)라 하였다.

미국수어 CAR는 주먹 쥔 양손(수형)을 가슴 앞 공간(수위)에서 두 손이 엇갈리게 아래 위로 움직인다(수동). 한국수어 [예쁘다]는 검지만 펴고 주먹 쥔 오른손(수형)을 오른쪽 뺨 옆(수위)에 대고 손목을 앞으로 돌린다(수동). 이렇게 수어 어휘는 손의 모양인 수형, 그 손이 움직이는 위치인 수위, 그리고 손의 움직임인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손의 방향인 수향 역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며 이러한 구성 요소는 동시에 결합한다. 이는 음성언어에서 구성 요소인 자음과 모음이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단어를 이루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수어는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손 이외에 얼굴 표정이나 입의 움직임 등도 의미의 차이를 가져 오는 시각적 변별 자질이 된다.

### 1.3 한국수어의 구성 요소는?

한국수어 역시 수형, 수위, 수동, 수향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입의 움직임과 같은 비수지 기호로 이루어진다. [예쁘다]는 검지만 펴고 주먹 쥔 수형, 볼 옆 수위, 손목을 앞으로 돌리는 수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수형만을 주먹 쥔 모양으로 바꾸면 [어렵다]라는 수어가 되고, 수동을 볼을 두드리는 동작으로 바꾸면 [거짓]이 된다. 이는 수형과 수동에서의 시각적 변별 자질이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수어소가 된다는 것이다.



[예쁘다]<sup>1)</sup>



[어렵다]



[거짓]

한국수어 [닭]은 모든 손가락을 편 수형, 이마라는 수위, 손가락 각자 운동이라는 수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닭]에서 엄지, 검지 그리고 중지만을 편 수형으로 바꾸면 [경찰]이 되고, [닭]에서 수위만 코로 바꾸면 [바보]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수형 뿐 아니라 수위에서의 시각적 변별 자질도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수어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닭]



[경찰]



[바보]

한국수어 [연습]은 모든 손가락을 구부려 편 수형, 입 앞이라는 수위, 손목을 돌리는 수동,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수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습]에서

손바닥을 몸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수향을 바꾸면 [청인]이 된다. 또한 [청인]이라는 수어와 같은 수형, 수위, 수향, 수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얼굴 표정인 비수지 기호를 바꾸면 [맵다]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손이 아닌 얼굴 표정 즉, 비수지 기호 역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별 자질임을 알 수 있다.



[연습]



[청인]



[맵다]

한국수어의 수형소는 [예쁘다]-[어렵다], [닭]-[경찰]과 같은 최소대립 단어쌍을 통해 분석해 낼 수 있으며, 수위소는 [닭]-[바보], [질투]-[의심]과 같은 최소대립 단어쌍을 통해 분석해 낼 수 있다. 또한 [예쁘다]-[거짓말], [자유]-[동물]과 같은 최소대립 단어쌍을 통해서는 수동소, [연습]-[청인], [학교]-[공부]와 같은 최소대립 단어쌍을 통해서는 수향소를 분석해 낼 수 있다. 또한 [청인]-[맵다], [귀엽다]-[아깝다] 등의 최소대립 단어쌍을 통해 우리는 한국수어에서 손 이외의 비수지 기호가 수어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3.2 형태론 - 수어 형성 - 파생

##### 2.1 파생이란?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한다. 이 때 하나의 단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중심부인 어근에 홀로 사용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인 접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파생어라고 한다. 접사는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 어근의 뒤에 붙는 접미사가 있으며, 어떤 언어에서는 어근의 중간에 붙는 접요사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접사는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파생 접사가

1)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

첨가되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파생은 문장 내에서 적절한 형식으로 변화시키는 굴절과 달리 하나의 단어나 어근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아들’ 또는 ‘딸’이라는 어근에 접두사 ‘만-’을 첨가하면 ‘만아들’, ‘만딸’이라는 첫째 아들과 첫째 딸을 의미하는 새로운 단어가 된다. 또한 파생 접사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어는 품사가 달라질 수도 있다. 즉, ‘항기롭다’ ‘자랑스럽다’처럼 ‘-롭-’ ‘-스럽-’이라는 접사는 명사인 어근에 붙어서 형용사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 2.2 수어에서의 파생

수어에서도 파생 과정을 거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국외 수어 연구에서는 파생을 통한 단어의 형성을 접사 결합, 명사-동사 파생, 수(지숫자)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접사 결합을 통한 파생만 다룬다. Valli와 Lucas(2011)는 미국수어에서 접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파생으로 동작주 접미사(agentive suffix)를 통해 새로운 수어 단어를 형성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TEACHER라는 명사는 TEACH라는 수어 뒤에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Papaspyrou 외(2008)는 독일수어에서 알파-수동(그리스 알파 모양을 따라하는 수동)을 통해 양상 동사(modal verb)의 부정형을 표현하는 파생어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부정을 나타내는 알파형 수동은 어근인 동사 뒤에 순차적으로 결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예, KANN/ KANN-NICHT:할 수 있다/할 수 없다). 또한 독일 수어에서는 고개 흔들기 동작을 어근인 수어와 동시에 실현하므로 부정형의 파생어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수어가 음성언어와 달리 접사가 순차적으로 결합될 뿐 아니라 동시적 결합도 일어난다는 증거이다. 특히 수 포함으로 파생되는 단어들은 접사가 어근에 동시에 결합되는 형태이다. 이 수 포함으로 나타나는 파생 과정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Johnston과 Schembri(2007)는 호주 수어에서 접사 결합에 의한 파생으로 부정 접미사(예, NOT WANT<sup>2)</sup>), 재귀 접사(예, 1인칭 대명사P (PRO-1+SELF) “myself”), 소유 접미사(예, MOTHER+GEN, “mother’s”)등을 발견하였으나, 이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재귀 접사나 부정 접미사의 경우 자립 형태소인지 접사인지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아 아직 연구거리로 남아 있다고 하였다.

## 2.3 한국 수어에서의 파생

한국수어에서도 접사 첨가를 통해 이루어진 파생어가 있다. 김칠관(2010)과 남기현(2014)은 한국수어에도 부정을 나타내는 접미사인 {손털기}(접촉 혹은 쥐었던 손가락을 펼쳐 손을 터는 동작)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맛있다], [관계있다], [보다]와 같은 어근인 수어에 {손털기}가 결합되어 [맛없다] [관계없다], [못 봤다] 등과 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의미의 파생어가 된다. 접촉 혹은 쥐었던 손가락을 펼쳐 손을 터는 동작인 {손털기}는 홀로 쓰이지 않으며, 앞의 단어인 어근과 순차적으로 결합되는 접미사이다. 이 때 [맛없다], [관계없다], [못 봤다] 등에서 어근과 접사인 {손털기}는 하나의 수동으로 나타나므로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이다.



[맛있다]



[맛없다]



[관계있다]



[관계없다]



[보다]



[못 봤다]



[필요하다]



[필요없다]

김칠관(1996)은 한국수어에는 접두사가 결합되어 형성된 파생어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고 하였다. 이 두 수어 단어에서 손가락을 볼에 스치는 동작은 {육친}을 나타내는 의존 형태소라고 하였다. 이 때 볼을 스치는 동작은 부모님을 나타내는 어휘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육친}이라는 의존 형태소로 볼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한국수어에서도 접미사나 접두사의 순차적인 결합으로 인한 파생 외에도 동시적 접사 결합이 나타난다. [맏형], [맏아들]과 같은 수어는 한 손 수어인 어근에 비우세손이 동시에 결합하는 접사 역할을 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만형]과 [형]이라는 수어의 어근을 비우세손 엄지에 접촉하여 형성되었다. 남기현(2014)은 [만아들]을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라고 하였으나, [아들]이라는 수어의 수위가 중립 공간으로 바뀌고(수위에서의 동화가 일어남) ‘비우세손 엄지와 접촉’이라는 의존 형태소가 어근과 동시에 결합된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아들]



[만아들]



[형]



[만형]



1. 연구 결과 요약
2. 제언



## IV. 결론

### 1. 연구 결과 요약

한국수어는 기본적으로 ‘시각’이라는 언어 양식이 그 문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수어의 조음에서부터 문법 구조에 이르기까지 설명하는 틀과 체계가 음성 언어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어와는 다른 문법 체계로 문법적 기능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는 체계로 한국수어 문법을 기술하면 많은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 문법 지식 범주를 상세화하기 위해 국내외의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후, 향후 활용할 한국수어 문법서의 기술 체계와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문법 지식 설정과 범주 상세화를 위해 국내외 문법서의 대범주 목차를 분석하여 특정 연구 주제로만 구성된 문법서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언어학의 하위 범주별 목차를 분석을 통해 각 범주별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지식의 주제를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세부 내용을 고찰할 문법서를 선별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별한 문법서의 세부 내용을 고찰한 후 쟁점을 추출하고 쟁점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수어 문법의 지식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상세화 한 후 문법 기술 체계와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 한국수어 문법서 대범주 목차 분석

단행본으로 출판된 한국수어 문법서는 총 3권으로 한국수어의 이론(최상배, 안성우, 2003), 한국 수어학 개론(이준우, 남기현, 2014), 수화(원성옥, 2013)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논문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으며, 단행본으로 출간된 문법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수어 관련 문법서 3권의 전체 목차를 총론,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와 화용론, 그리고 기타 수어 관련 제반 지식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문법과 관련한 언어학적 내용만을 다루지 않고 수어 통역이나 수어의 종류 등 수어와 관련된 제반 지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 1.2 국외 수어 문법서 대범주 목차 분석

국외 수어 문법서의 출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아마존(<https://www.amazon.com/>)에서 ‘sign language linguistic’, ‘sign language grammar’ 등의 검색어로 수어 문법서를 검색하였다. 위와 같은 검색 방법을 통해 특정 나라의 수어 문법서 12권,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3권 그리고 특정 주제로 이루어진 문법서 5권으로 총 20권의 영어로 출간된 수어 문법서를 선정하였으며 이 문헌들의 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나라별 문법서는 다음과 같다.

미국 3권(Liddell, 2003, Padden, 1988, Valli & Lucas, 2011), 영국(Sutton, 1999), 독일(Papaspyrou 외, 2008), 호주 2권(Bauer, 2014, Johnston & Schembri, 2007), 인도-파키스탄(Zeshan, 2000), 터키(Arik, 2013), 멕시코(Fridman-Mintx, 2005), 이스라엘(Meir & Sandler, 2007) 이탈리아(Mantovan, 2017) 등 9개국 수어 문법서 총 12권이다. 분석 결과, 이탈리아 수어 문법서(Mantovan, 2017)와 호주수어 문법서 1권(Bauer, 2014), 미국수어 문법서 2권(Liddell, 2003, Padden, 1988)은 특정 수어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었다.

개론서 성격의 일반 수어 언어학과 관련 문헌 총 3권에 대해 대범주 목차를 분석한 결과 Brentari(2010)의 문법서는 언어학의 하위 범주로 분석할 수 없는 특정 연구 주제별 목차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정 연구 주제별 문법서를 제외하고, 국내 문법서 3권, 국외 나라별 수어 문법서 8권과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3권의 목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음성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 용어와 더불어 수어의 특정 문법 요소로 목차 구성

둘째, 음성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를 대범주로 하고 하위 범주로 수어의 특정 문법 요소를 목차로 구성

셋째, 수어의 특정 문법 요소로만 목차 구성(음성언어학의 하위분류 체계 사용하지 않음)

## 1.3 하위 범주 목차 분석

국내외 수어 문법서의 하위 범주 목차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대범주 목차 분석을 통해 하위 범주 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 연구 주제 결과를 문법서로 엮은 문헌 5권을 제외하였다. 또한 나라별 문법서 중에서도 특정 연구주제로 대범주 목차가 구성된 문법서 4권도 제외하였다. 이에 분석 대상 문법서는 한국수어 문법서 3권과 국외

수어 문법서 11권으로 총 14권이다. 하위 범주 목차 분석은 언어학의 하위 범주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 및 화용론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시각언어의 특성상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는 목차와 기타 제반 지식 관련 목차의 하위 범주 목차도 분석하였다.

음운론 관련 내용의 목차 분석에서는 총 14권 중 나라별 문법서로 포함한 영국수어 문법서(Sutton, 1999)에 음운론을 다룬 목차가 없어 제외하였다. 영국수어 문법서를 제외한 후 한국수어 문법서 3권, 국외 나라별 문법서 7권 그리고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3권으로 총 13권을 분석하였다. 결과, 한국수어 문법서 1권(원성옥, 2013), 국외 나라별 문법서 4권(Arik, 2013, Meir & Sandler, 2007, Fridman-Mintx, 2005, Zeshan, 2000),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1권(Brentari, 2010)에서는 음운론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을 포괄하지 않고 있었다. 음운론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을 포괄하지 않은 위의 6권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어 문법서 2권(이준우, 남기현, 2014, 최상배, 안성우, 2003), 나라별 수어 문법서 3권(Valli & Lucas, 2011, Papaspyrou 외, 2008, Johnston & Schembri, 2007),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Baker 외, 2016, Pfau 외, 2012), 총 7권의 문법서가 선정되었다.

형태론 관련 내용의 목차 분석에서는 총 14권 중 나라별 문법서로 포함한 터키수어 문법서(Arik, 2013)에는 형태론을 다룬 목차가 없어 제외하였다. 터키수어 문법서를 제외한 후 한국수어 문법서 3권, 국외 나라별 문법서 7권 그리고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3권으로 총 13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어 문법서 1권(원성옥, 2013), 국외 나라별 문법서 3권(Meir & Sandler, 2007, Fridman-Mintx, 2005, Zeshan, 2000),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1권(Brentari, 2010)에서는 형태론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을 포괄하지 않고 있었다. 형태론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을 포괄하지 않은 위의 5권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어 문법서 2권(이준우, 남기현, 2014, 최상배, 안성우, 2003), 나라별 수어 문법서 4권(Valli & Lucas, 2011, Papaspyrou 외, 2008, Johnston & Schembri, 2007, Sutton, 1999),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Baker 외, 2016, Pfau 외, 2012), 총 8권의 문법서가 선정되었다.

통사론 관련 내용의 목차 분석에서는 총 14권 중 나라별 문법서로 포함한 멕시코수어 문법서(Fridman-Mintx, 2005)에는 통사론을 다룬 목차가 없어 제외하였다. 멕시코수어 문법서를 제외한 후, 한국수어 문법서 3권, 국외 나라별 문법서 7권 그리고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3권으로 총 13권을 분석하였다. 결과, 한국수어 문법서 1권(원성옥, 2013), 국외 나라별 문법서 4권(Rachel Sutton, 1999, Arik, 2013, Meir & Sandler, 2007, Fridman-Mintx, Zeshan, 2000)과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1권(Brentari, 2010)에서는 통사론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을 포괄하지 않고 있었다. 통사론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을 포괄하지 않은 위의 6권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어 문법서 2권(이준우, 남기현, 2014, 최상배, 안성우, 2003), 나라별 수어 문법서 3권(『호주수어 언어학 개론(Valli & Lucas, 2011, Johnston & Schembri, 2007),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Baker 외, 2016, Pfau 외, 2012). 총 7권의 문법서가 선정되었다.

의미 및 화용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한국수어 문법서 2권(이준우, 남기현, 2014, 최상배, 안성우, 2003), 국외 문법서 중 나라별 문법서 3권(Valli, 2011, Johnston & Schembri, 2012) 그리고 일반 문법서 2권(Baker 외, 2016, Pfau 외, 2012)에서만 다루고 있었다. 이를 제외한 문법서에서는 도상성, 은유, 공간, 비수지 등의 내용으로 음운 및 형태론과 통사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검토 결과 17편의 한국수어 연구물이 있었으나 연구의 대부분이 어휘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론과 화용론의 범주를 한국수어 문법서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쟁점으로 두고자 한다.

대부분의 수어학 문법서에는 언어학의 하위분류에는 속하지 않으나, 수어 환경의 특성상 사회문화적 영향, 습득, 농사회와 문화 등의 기타 제반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제반 지식 관련 목차 분석 결과 수어 습득 등의 언어 심리학, 수어의 변천사 등의 언어 사회학, 교차 언어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국외 수어 문법서에서는 언어학 하위 범주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어려운 주제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 그 목차들은 수어의 문법적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특정한 연구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학의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수어에는 음성언어를 설명하는 언어학의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다. 국외 수어 문법서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연구한 내용을 하나의 별도 주제로 구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있었다. 수어학의 역사는 길지 않아 기존의 체계화된 학문의 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수어의 특정 언어학적 현상에 대한 연구물이 축적된 경우 국외 수어 문법서와 같은 목차를 구성할 수 있다. 한국수어의 경우 이러한 연구물들이 축적된 상태가 아니므로 한국수어 문법서에서 가능한 체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한 연구 주제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4 언어학 하위 범주별 수어 문법 내용 고찰

### 1.4.1 음운론

음운론의 세부 내용을 고찰한 문법서는 국내 문법서 2권, 국외 나라별 문법서 3권, 개론서 2권 등 총 7권으로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 문법서 2권(『한국 수어학 개론(2014)』, 『한국수어의 이론(2003)』) 나라별 문법서 3권(『호주수어 언어학 개론(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2007)』, 『미국수어 언어학(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2011)』, 『독일수어(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2008)』, 개론 문법서 2권(『수어 언어학 핸드북(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2012)』, 『수어 언어학 개론(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2016)』)을 대상으로 수어학의 음운론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 범주와 세부 내용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수어 음운론에서는 수어소 등의 음운 단위와 음운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음운현상에 대한 기술이 있었으며 더불어 시각언어의 특성인 음운 차원에서의 동시성과 순차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 이론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에 수어 음운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크게 음운 단위, 음운 과정, 동시성과 순차성으로 분류하고 각 문법서의 목차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 1.4.2 형태론

형태론의 세부 내용을 고찰한 문법서는 국내 문법서 2권, 국외 나라별 문법서 4권, 개론서 2권 등 총 8권으로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 문법서 2권(『한국 수어학 개론(2014)』, 『한국수어의 이론(2003)』) 나라별 문법서 4권(『호주수어 언어학 개론(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2007)』, 『미국수어 언어학(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2011)』, 『독일수어(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2008)』, 『영국수어(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1999)』), 개론 문법서 2권(『수어 언어학 핸드북(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2012)』, 『수어 언어학 개론(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2016)』)이다.

고찰 결과, 수어 형태론에서는 형태소의 개념과 수어 단어의 형성 그리고 수어의 변형 과정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수어의 특징인 동시성과 관련한 수어 단어의 형성 및 변형 과정을 다루고 있었으며, 품사를 형태론에서 다루는 문법서도 있었다. 이에 수어 형태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수어 단어와 형태소, 형태론적 과정, 수어 형성 과정, 수어 단어 분류(품사), 수어 변형, 기타로 분류하고 각 문법서의 목차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 1.4.3 통사론

통사론의 세부 내용을 고찰한 문법서는 국내 문법서 2권, 국외 나라별 문법서 3권, 개론서 2권 등 총 7권으로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 문법서 2권(『한국 수어학 개론(2014)』, 『한국수어의 이론(2003)』) 나라별 문법서

3권(『호주수어 언어학 개론(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2007)』, 『미국수어 언어학(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2011)』, 『독일수어(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2008)』), 개론 문법서 2권(『수어 언어학 핸드북(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2012)』, 『수어 언어학 개론(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2016)』)이다.

고찰 결과, 수어 통사론에서는 품사, 문장 유형, 그리고 문장 구성과 더불어 어순 등을 다루고 있었으며, 수어 문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과 구성된 행위를 따로 다루고 있는 문법서도 있었다. 이에 수어 통사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품사, 문장 유형, 문장 구성(문장 성분, 어순), 공간, 구성된 행위(role shift), 기타로 나누고 각 문법서의 목차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 1.4.4 의미 및 화용론

의미 및 화용론의 세부 내용을 고찰한 문법서는 나라별 문법서 2권과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 등 총 4권으로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 문법서 2권(『한국 수어학 개론(2014)』, 『한국수어의 이론(2003)』) 나라별 문법서 2권(『호주수어 언어학 개론(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2007)』, 『미국수어 언어학(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2011)』), 개론 문법서 2권(『수어 언어학 핸드북(Sign language: International handbook, 2012)』, 『수어 언어학 개론(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2016)』)이다.

고찰 결과, 수어 의미 및 화용론에서는 기본적인 의미 이론과 수어의 의미, 그리고 화용적 특징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의미를 수어의 도상적 관점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문법서도 있었다. 이에 수어 의미 및 화용론에서는 의미 이론, 수어의 의미, 화용, 기타로 분류하고 각 문법서의 목차와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 1.5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및 자문 의견

한국수어 문법서 2권, 국외 나라별 수어 문법서 4권, 개론서 성격의 문법서 2권의 내용을 고찰한 결과를 통해 거시적 쟁점과 언어학의 하위 범주별 쟁점을 도출하였다. 쟁점에 대해 언어학 전공자 2인, 국어학 전공자 1인, 수어 사용자 1인의 자문 의견을 받았다. 자문을 받은 거시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문법서의 목차 구성을 위한 분류체계 문제, 둘째, 내용 구성 문제로 수어 관련 제반 지식(습득, 농사회, 수어 환경 등) 포함 여부와 의미론과 화용론 포함 여부, 셋째, 수어문 표기와 관련한 문제(예: 글

로스, 비수지 요소 및 공간과 방향 요소의 기록 등), 넷째, 문법 설명 시 사용하는 예시 수어문(데이터)의 수집 방법론, 다섯째, 내용 기술 방법이다.

음운론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목차) 관련 문제, 둘째, 내용관련 쟁점으로 수어소의 개수, 고빈도 수형과 저빈도 수형, 음운 과정에서의 자료 수집 문제, 셋째, 용어 관련 쟁점으로 수어소 혹은 음소 사용 여부이다.

형태론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목차) 관련 쟁점, 둘째, 내용 관련 쟁점으로 형태소 분류 기준, 수어 형성에서의 도상성 포함 여부, 합성어의 유형, 반복(명사-동사 파생)과 지문자어, 수사 포함의 범주 및 접사 첨가와 관련 이슈, 수어 변형의 중범주 주제 및 영역 선정, 품사의 대범주 영역과 종류, 셋째, 용어 관련 쟁점으로 변형(modification), 동시적 합성어 등이다.

통사론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목차) 관련 쟁점, 둘째, 내용 관련 쟁점으로 수어에서 어순의 역할,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표지, 의문문과 비수지 기호, 수어에서 공간의 기능, 동사의 분류 체계, 분류사 술어, 셋째, 비수지 신호 혹은 비수지 표지 등의 용어 관련 쟁점이다.

의미 및 화용론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목차) 관련 쟁점 둘째, 내용 관련 쟁점으로 도상성과 은유이다.

## 1.6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문법 지식 설정 및 상세 범주화

총론에서 수어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주류 사회 속에서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이에 총론에서는 대범주를 언어와 수어 그리고 수어와 사회로 나누었다. 언어와 수어에서는 수어의 언어 보편적 특성과 시각언어로서의 수어로 범주화 하였다. 수어와 사회에서는 수어와 농인, 수어 환경으로 범주화 하였다.

음운론에서는 대범주를 수어의 내적 구조, 동시성과 순차성 그리고 음운 과정으로 나누었다. 수어의 내적 구조에서는 음운과 수어소, 수형, 수위, 수동, 수향, 비수지 요소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동시성과 순차성에서는 음절과 음절 구조, 음직임-정지 모델을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형태론에서는 대범주를 형태소와 형태론, 수어 형성, 수어 변형, 품사로 나누었다. 형태소와 형태론에서는 형태소의 개념, 수어 형태소의 유형을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수어 형성에서는 수어 단어 형성 방법, 파생, 수사포합과 지문자어, 합성을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수어 변형에서는 시제와 상, 복수성, 일치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통사론에서는 문장성분, 문장 유형, 공간과 서술어로 대범주를 나누었다. 문장 유형에서는 서술문, 의문문, 부정문, 화제화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

하였다. 공간과 서술어에서는 수어 공간, 서술어, 분류사 술어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의미 및 화용론에서는 대범주를 의미론과 화용론으로 나누었다. 의미론에서는 의미 이론, 도상성과 은유, 어휘 관계를 문법 지식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 1.7 한국수어 문법 모형 제시

### 1.7.1 한국수어 문법 기술 체계

한국수어 문법의 기술 체계는 기본적으로 언어학의 하위 범주인 음운, 형태, 통사, 그리고 의미와 화용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언어학 하위 범주에서 나타나는 수어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2~4개의 대범주로 목차를 구성한다.

하위 범주 문법 지식의 세부 내용에 관한 기술 체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일반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수어의 언어적 특성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용어와 개념을 국외 수어의 예시를 통해 기술한다. 셋째, 한국수어의 문법 지식을 예시와 함께 기술한다. 이때 한국수어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 1.7.2 한국수어 예시문 표기 방법

문법서에서 예로 제시되는 수어 단어나 문장은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표기 체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어는 음성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표기 체계가 부족하다. 여기서는 수어 어휘의 이름을 의미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단어를 빌려와 사용하는 글로스를 사용하고, 글로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 ]를 사용한다.

또한 수어는 문법적 표지가 동시적으로 표현되므로 표기에서도 다층 구조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어문의 위 줄에는 얼굴 표정, 시선, 머리의 움직임 등의 문법 표지를 기록하고, 아래 줄에는 공간이나 방향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 1.8 한국수어 문법 모형 제시

음운론에서는 대범주 수어의 내적 구조 중 음운과 수어소라는 중범주에 대한 문법 모형을 제시하였고, 형태론에서는 대범주 수어 형성 중 파생이라는 중범주에 대한 문법 모형을 제시하였다.

## 2.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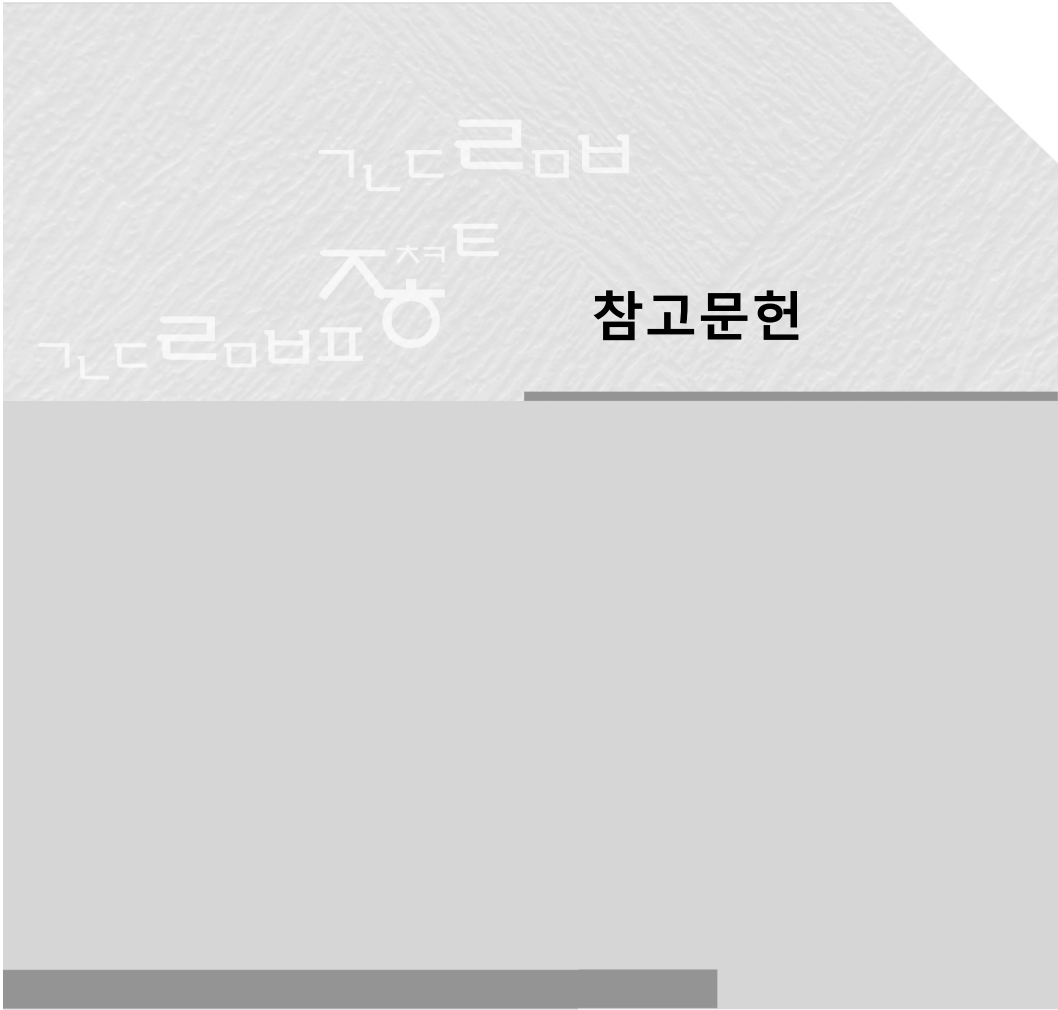
공용어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된 한국수어의 문법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수어 교재뿐 아니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이나 한국수어능력 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수어 문법서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수어 문법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수어 문법의 기술은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수어 문법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한국수어 문법서 개발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외 수어 연구에 비해 아직 한국수어 연구는 그 연구 방법론의 정확성에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수어 연구 방법론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더불어 한국수어 문법연구 방법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수어 문법 연구는 그 양이 많지 않아 한국수어 문법서의 문법 지식 범주와 관련하여 그 증거로 제시할 자료가 적다. 따라서 한국수어 문법의 지식 범주를 확정하고 그 증거 제시를 위한 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해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문법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의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수어 문법서는 언어학의 하위 영역별로 연차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승국 (1983). **한국 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철관 (1998). **한국수와 어원연구**. 인천: 인천성동학교.
- 김철관 (1996). 한국고유 수화 단순에서의 복합 구성 특성. **수화연구**, 1, 3-18.
- 김철관 (1999). 이디엄을 중심으로 본 한국수화의 의미구조. **수화연구**, 2, 2-17.
- 김철관 (2010). **한국수화언어학입문**. 미간행자료.
- 남기현, 원성옥, 허일 (2010). 한국수화의 동사 유형과 수 표현의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45-68.
- 변지원 (1992). **자연수화의 문형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석동일 (1989).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엄미숙 (1996). **한국수화의 통사론적 특징 분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윤병천 (2003).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정옥 (2012). **한국수어의 복합문 실현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장세은 (1996). 미국수화언어와 한국수화언어에서의 WH-의문문. **언어학**, 7(3), 297-319.
- 장세은 (1997). 수화언어와 음운중첩현상. **언어학**, 21, 263-287.
- 장세은 (1999). 한국수화언어의 음운구조 연구. **언어과학**, 6(1), 81-109.
- 장진권 (1995). **한국수화의 어원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최상배 (2012). 한국수화언어 수형소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1), 233-256.
- 최상배, 안성우 (2003). **한국수어의 이론**. 서울: 서현사.
- 이준우, 남기현 (2014). **한국수어학개론**. 경기도: 나남출판.
- 원성옥, 장은숙 (2003). 한국복합수화의 조어특성. **제5회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농아인의 고등교육과 수화**, 81-93, 한국수화학회.
- 원성옥 (2013). **수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율하 (2008). **한국수화언어의 동시적 결합구조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홍성은 (2013). 한국수화 일치동사의 상호-구조. **제15회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수화통역의 재탐구**, 7-24.
- 황도순 (1994). **농학생 수화의 통사구조와 발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Allan K. (1977). Numeral classifiers in Austroasiatic. In C. Craig (Ed.), *Noun classes and categorization*(pp. 241-262).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Arik, E. (2013). *Current directions in Turkish Sign Language research*. Newcastle

- upon Tyne, UK: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Aronoff, M., Meir, I., Padden, C., & Sandler, W. (2003). Classifier complexes and morphology in two sign languages. In K. Emmorey (Ed.), *Perspectives on classifiers constructions in sign languages*(pp. 52-84). Mahwah, NJ: Lawrence Erlbaum.
- Aronoff, M., Meir, I., & Sandler, W. (2005). The paradox of sign language morphology. *Language*, 81(2), 301-344.
- Barberà Altimira, G. (2015). *The meaning of space in sign language: Reference, specificity and structure in Catalan Sign Language discourse*. Berlin & Boston: De Gruyter Mouton Press.
- Baker, A., Bogaerde, B. van den, Pfau, R., & Schermer, T. (Eds.). (2016).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attison, R. (1978). *Lexical borrow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Silver Spring, MD: Linstok Press.
- Bauer, A. (2014). *The use of signing space in a shared sign language of Australia* (Vol. 5). Berlin: De Gruyter Mouton and Ishara Press.
- Bosworth, R. G., & Emmorey, K. (1999). Semantic prim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Manuscript, The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San Diego.
- Boyes-Braem, P. (1981). *Distinctive features of the handshapes of American Sign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Brennan, M. (1990). *Word formation in British Sign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tockholm, Brennan.
- Brentari, D. (2010). *Sign languages: A cambridge language surve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mier, K. (2012). Pronouns. In R. Pfau, M. Steinbach, and B. Woll (Eds.),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pp.227-244). Berlin: Mouton De Gruyter.
- Ekman, P., Friesen, W. V, & Ellsworth, P. (1982). Does the face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In P. Ekman (Ed.), *Emotion in the human face* (2nd ed.) (pp. 56-97).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morey, K., Corina, D. P., & Bellugi, U. (1995). Differential processing of topographic and referential functions of space. In K. Emmorey & J. Reilly (Eds.), *Language, gesture and space*(pp. 43-6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Emmorey, K. (2002). *Language, cognition, and the brain: Insights from sign*

- language resear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 Engberg-Pedersen, E. (2010). Factors that form classifier signs. In D. Brentari (Ed.), *Sign languages: A cambridge language survey*(pp. 252-283).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scher, S. D. (1974). Sign language and linguistic universals. In T. Rohrer & N. Ruwet (Eds.), *Actes du colloque franco-allemand de grammaire transformationelle II*(pp. 187-204). Tübingen: Niemeyer.
- Fridman-Mintz, B. (2005). *Tense and aspect inflections in Mexican Sign Language verbs: A cognitive grammar approach to morphology and phonology in signed languages*. Saarbrücken, Germany: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Herrmann, A., & Steinbach, M. (2011). Nonmanuals in sign language. *Sign Language Studies* 14(3), 402-405.
- Jerde, T. E., Soechting, J. F., & Martha Flanders, M. (2003). Coarticulation in fluent fingerspelling. *The Journal of Neuroscience*, 23(6), 2383-2393.
- Johnston, T., & Schembri, A. (2007).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ma, E. S., & Bellugi, U. (1979). *The signs of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iddell, S. K. (1980). *American Sign Language syntax*. The Hague: Mouton.
- Liddell, S. K., & Johnson, R. E. (1989). American Sign Language: The phonological base. *Sign Language Studies*, 64, 195-277.
- Liddell, S. K. (2003). *Grammar, gesture, and mean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ddell, S. K. (1990). Structures for representing handshape and local movement at the phonemic level. In S. Fischer & P. Siple (Eds.),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Linguistics*(pp. 37-6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ddell, S. K. (1995). Real, surrogate and token space: Grammatical consequences in ASL. In K. Emmorey & J. Reilly (Eds.), *Language, gesture, and space*(pp. 19-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Liddell, S. K. (1998). Grounded blends, gestures, and conceptual shifts. *Cognitive Linguistics*, 9(3), 283-314.
- Liddell, S. K. (2003). *Grammar, gesture, and mean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del, M. (1979). Iconic device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Friedman, Lynn A. (Ed.), *On the other hand*(pp. 57-107). London: Academic Press.

- Mantovan, L. (2017). *Nominal modification in Italian Sign Language*. Berlino: De Gruyter Mouton.
- Mather, S., & Winston, E. A. (1998). Spatial mapping and involvement in ASL storytelling. In C. Lucas (Ed.), *Pinky extension and eye gaze: Language use in deaf communities*(pp. 183-210).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Mathur, G., & Rathmann, C. (2010). Verb agreement in sign language morphology. In D. Brentari (Ed.), *Sign languages: A Cambridge language survey*(pp. 173-19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Donald, B. H. (1982). *Aspects of the American Sign Language predicate syst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uffalo, New York.
- Meier, R. P. (1982). Icons, analogues, and morphemes: The acquisition of verb agreement in AS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Meier, R. P. (1987). Elicited imitation of verb agreement in American Sign Language.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6, 362-376.
- Meier, R. P., Cormier, K., & Quinto-Pozos, D. (Eds.), (2002). *Modality and structure in signed and spoken languag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ir, I. (2004). Question and negation in Israeli Sign Language. *Sign Language & Linguistics*, 7, 97-124.
- Meir, I., & Sandler, W. (2008). A language in space: The story of Israeli Sign Language. New York: Lawrence Erlbaum.
- Meir, I. (2012). Word classes and word formation. In R. Pfau, M. Steinbach, and B. Woll (Eds.),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pp.77-111). Berlin: Mouton De Gruyter.
- Morgan, M. (2006). Interrogatives and negatives in Japanese Sign Language(JSL). In U. Zeshan (Ed.), *Interrogative and negative constructions in sign languages*(pp.91-127). Nijmegen: Ishara Press.
- Orlansky, M. D., & Bonvillian, J. D. (1984). The role of iconicity in early sign 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9, 287-292.
- Ormel, E., Crasborn, O., & van der Kooij, E. (2013). Coarticulation of hand height in sign language of the Netherlands is affected by a distinction in type of contact. *Journal of Phonetics*, 41, 156-171.
- Padden, C. A. (1988). *Interaction of morphology and syntax in American Sign Language*. New York: Garland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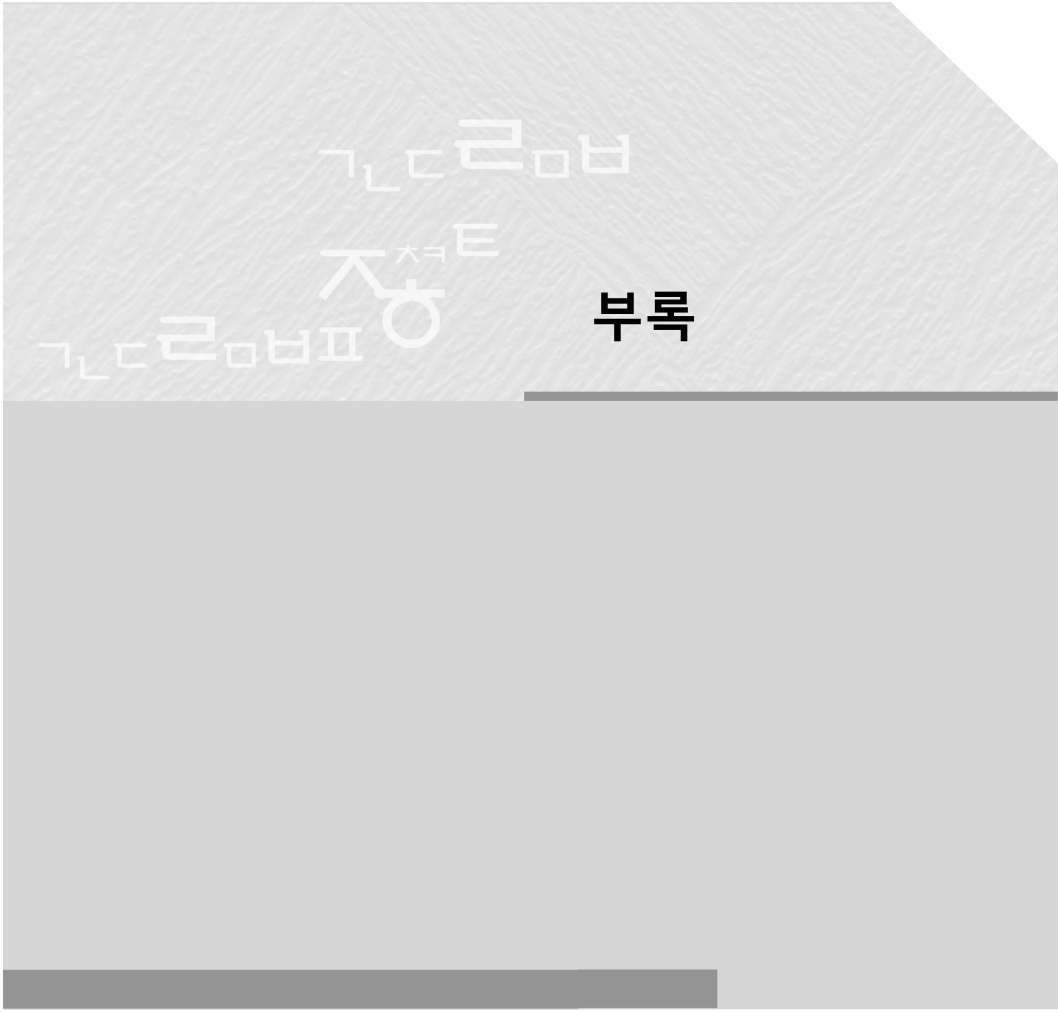
- Padden, C. A. (1990). Folk explanation in language survival. In D. Middleton & D. Edwards (Eds.), *Collective remembering*(pp.190-202). London: SAGE Publications.
- Papaspyrou, C., Meyenn, A., Matthaei, M., & Herrmann, B. (2008).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Hamburg: Signum.
- Pfau, R., Steinbach, M., & Woll, B. (2012).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R. Pfau, M. Steinbach, and B. Woll (Eds.),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pp.186-204). Berlin: Mouton De Gruyter.
- Pfau, R. (2016). Morphology. In A. Baker, B. van den Bogaerde, R. Pfau & T. Schermer (Eds.).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pp.197 - 228).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Pizzuto, E., & Volterra, V. (2000). Iconicity and transparency in sign languages: A cross-cultural view. In K. Emmorey & H. Lane (Eds.), *The signs of language revisited*(pp. 261-286). Mahwah, NJ: Lawrence Erlbaum.
- Pizzuto, E., Pietrandrea, P, & Simone, R. (Eds.) (2007). *Verbal and signed languages: Comparing structures, constructs and methodologies*. Berlin: Mouton de Gruyter.
- Poizner, H., Bellugi, U., & Tweney, R. D. (1981). Processing of formational, semantic, and iconic informa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7, 430-440.
- Sandler, W. (1989).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the sign: Linearity and nonlinearity in American Sign Language*. Dordrecht: Foris.
- Sandler, W., & Lillo-Martin, D. (2006). *Sign language and linguistic universal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pountzaki, G. (2012). Agreement auxiliaries. In R. Pfau, M. Steinbach & B. Woll (Eds),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pp. 204-227). Berlin: Mouton De Gruyter.
- Schermer, T. (2016). Lexicon. In A. Baker, B. van den Bogaerde, R. Pfau & T. Schermer (Eds).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pp. 173 - 196). Amsterdam: John Benjamins.
- Sinha, S. (2018). *Indian Sign Language: An analysis of its grammar*.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Siple, P. (1978). Visual constraints for sign language communication. *Sign Language Studies*, 19, 95-110.
- Steinbach, E. M. (2012). Plurality. In R. Pfau, M. Steinbach, and B. Woll (Eds.),

-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pp.112-136). Berlin: Mouton De Gruyter.
- Stokoe, W. (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Studies in Linguistics, 8*. Silver Spring, MD: Linstok Press.
- Stokoe, W. C., Casterline, D. C., & Croneberg, C. G. (1976). *A dictionary of American sign language on linguistic principles*. Silver Spring, MD: Linstok Press.
- Supalla, T., & Newport, E. (1978). "How many seats in a chair? The derivation of nouns and verb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P. Siple (Ed.), *Understanding Language through Sign Language Research*(pp. 91-132). New York: Academic Press.
- Supalla, T. (1982). *Structure and acquisition of verbs of motion and loca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Supalla, T. (1986). The classifier system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C. Craig (Ed.), *Noun classification and categorization*(pp.181-214).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upalla, T. (1998). *Reconstructing early ASL grammar through historic films*. Paper presented at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Linguistics(TISLR). Washington: Gallaudet University.
- Sutton-Spence, K., & Woll, B. (1999).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p. 99-1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ub, S. F. (2001). *Language from the body: Iconicity and metaphor in American Sig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lli, C., Lucas, C., & Mulrooney, K. J. & Villanueva, M. (2011).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p.57-88, 5th ed.).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Van Hoek, K. (1992). Conceptual spaces and pronominal reference in American Sign Language. *Nordic Journal of Linguistics, 15*, 183-199.
- Van Hoek, K. (1996). Conceptual Locations for Reference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G. Fauconnier & E. Sweetser (Eds.), *Spaces, Worlds, and Grammar*(pp. 334-350).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ermeerbergen, M., Lorraine, L., & and Crasborn, O. (2007). *Simultaneity in signed Llanguages: Form and func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ilbur, R. B. (1979). *American Sign Language: Linguistic and applied dimensions*(2ed ed.). Boston, MA: A College-Hill.
- Wilbur, R. (1993). Syllables and segments: Hold the movement and move the holds! In G. Coulter (Ed.), *Current issues in ASL phonology: Vol. 3. phonetics and phonology*(pp. 135-16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Wibur, R., & Patschke, C. (1999). Syntactic correlates of brow raise in ASL. *Sign Language & Linguistics* 2(3), 3-41.
- Winston, E. A. (1991). Spatial referencing and cohesion in an American Sign Language text. *Sign Language Studies*, 73, 397-410.
- Winston, E. A. (1995). Spatial mapping in comparative discourse frames. In K. Emmorey & J. Reilly (Eds.), *Language, gesture, and space*(pp. 87-11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Zeshan, U. (2000). *Sign Language in Indo-Pakistan: A Description of a signed language*(pp. 55-86).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Zeshan,U. (2004). Interrogative constructions in sign languages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Language*, 80, 7-39.
- Zwitserslood, I. (2012). Classifiers. In R. Pfau, M. Steinbach, and B. Woll (Eds.),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pp.158-185). Berlin: Mouton De Gruyter.









<부록 1> 전문가 자문을 위한 질문지

##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를 위한 질문지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에 애정을 가지고 자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는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내용입니다. 쟁점 도출은 크게 거시적 쟁점과 미시적 쟁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거시적 쟁점은 총 6가지로, 분류 체계, 내용 구성, 용어의 통일, 수어문 표기, 수어문의 수집 방법, 내용 기술 방법입니다.

미시적으로는 쟁점은 하위 범주별(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 및 화용론)로 구분하여 쟁점을 기술하였습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자문 의견 답변지에 자문하여 주실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시어 2018년 10월 27일까지 abc1234@naver.com으로 보내주시십시오.

2018년 10월 19일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진

### < 자문 목록 >

자문 목록	자문 여부
<b>I. 거시적 쟁점</b>	
1. 분류 체계 문제: 한국수어 문법서의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내용 구성 문제	
1) 수어 관련 제반 지식(습득, 농사회, 수어 환경 등)을 포함시킬 것인가?	
2) 의미와 화용론을 포함시킬 것인가?	
3. 용어의 통일	
4. 수어문 표기와 관련한 문제	
5. 문법 설명 시 사용하는 예시 수어문(데이터)의 수집 방법론	
6. 내용 기술 방법	

<b>II. 미시적 쟁점: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하위 범주별 쟁점</b>	
1. 음운론 - 범주(목차) 관련 쟁점, 내용 관련 쟁점, 용어 관련 쟁점	
2. 형태론 - 범주(목차) 관련 쟁점, 내용 관련 쟁점, 용어 관련 쟁점	
3. 통사론 - 범주(목차) 관련 쟁점, 내용 관련 쟁점, 용어 관련 쟁점	
4. 의미 및 화용론 - 범주(목차) 관련 쟁점, 내용 관련 쟁점	

## I

## 거시적 쟁점

### 1. 분류 체계 문제 : 한국수어 문법서의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수어 문법서의 분류 범주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독일수어와 미국수어 문법서의 경우는 언어학 분류 체계를 대범주로 하고, 중범주에서 수어의 언어학적 특징으로 분류하여 기술을 한 반면에, 호주수어 문법서의 경우는 언어학의 분류 체계와 수어의 언어학적 특징을 혼합한 형태로 분류하여 목차를 구성하였다. 또한 영국수어 문법서는 언어학적 분류 체계와 관계없이 수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수어 문법 체계를 어떻게 분류하여 목차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내용 구성 문제

#### 1) 수어 관련 제반 지식(습득, 농사회, 수어 환경 등)을 포함시킬 것인가?

수어는 다른 언어와는 달리 특수한 사회 언어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그 사회의 청인들과 함께 살면서 청인들의 주류 언어 역시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특히 수어를 사용하는 농공동체는 다른 언어적 소수 공동체와는 달리 아동이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우는 경우가 매우 적다. 90% 이상의 농아동은 농학교에 입학하여 다른 아동이나 가족 외의 성인으로부터 수어를 배운다. 이에 음성언어의 어휘와 문법을 나타내고자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다양한 인공수어체계도 나타나며, 자연언어 기준을 충족한 수어조차도 그 사회의 주류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으로 국외 수어 문법서에는 농사회와 수어 환경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수어 습득 및 농교육 등과 관련된 수어 관련 제반 지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수어 문법서에서도 수어와 관련된 제반 지식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의미와 화용론을 포함시킬 것인가?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수어 언어학 연구에서는 다른 범주에 비해 의미와 화용론 관련 연구물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연구물을 중심으로 자국의 수어 문법서를 제외하고 언어학의 하위 범주별로 문법서를 구성한 호주수어와 미국수어만이 의미론과 화용론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더욱이 한국수어의 경우 의미론과 화용론을 다룬 연구물은 각각 1편씩만 나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미와 화용론을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시킨다면 어떤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3. 용어의 통일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같은 문법 현상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나타나는 문법 현상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더욱이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달라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문법 용어는 체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문법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통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하위 범주별로 어떤 체계를 채택할 지를 고려하여 용어

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어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고 평이해야 한다. 이에 한국수어 문법 체계를 정립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용어를 선정하여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고 평이한 용어로 통일하고, 그 용어의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선정된 용어와 조작적 정의는 미시적 쟁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 4. 수어문 표기와 관련한 문제 (예: 글로스, 비수지 요소 및 공간과 방향 요소의 기록 등)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문법 설명에 따른 예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3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째, 수어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시하는 방법 둘째, 수어 표기체계로 제시하는 방법 셋째, 수어 이미지와 함께 수어 표기체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한국수어 문법서에서도 위의 3가지 방법이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수어 문법서에서도 위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될 것이다. 이에 한국수어 문법서에서 사용할 수어 표기 체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외 수어 표기에서는 영어의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어 수어를 나타낼 경우 대문자로 공간동사의 이름에 해당하는 글로스(gloss)를 기록하고 있어 음성언어와의 구분이 쉽다. 그러나 한글로 주석을 달 경우에는 수어 어휘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석에 사용하는 글로스 역시 해당 수어 단어의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단어를 빌려와 사용하므로 수어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어가 어떤 형태의 수어를 나타내는지 모호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과정을 통해 타입에 대한 글로스를 생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한국의 연구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어는 1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언어가 아닌 비수지 기호나 공간의 사용 등을 동시에 나타내어 문법 요소를 실현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으로 비수지 요소와 공간과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 체계의 통일이 필요하다. 즉 글로스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기호 체계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5. 문법 설명 시 사용하는 예시 수어문(데이터)의 수집 방법론

국외 수어 문법서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문법 관련 많은 연구를 분석, 정리한 결과물이다. 그러한 연구물이 축적되지 않은 멕시코나 이스라엘의 경우 연구물을 중심으로 문법서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한국수어의 경우 문법서를 엮어 낼만큼의 한국수어 문법 관련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수어 문법서에서 예시문을 제시할 때 현재 구축 중인 한국수어 말뭉치의 언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한국수어 말뭉치에서 모든 예시문을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모어 수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에 의존하여 언어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경우 그 과정에서도 한국어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 6. 내용 기술 방법

국외 문법서의 경우 문법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할 때 먼저 음성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한 후, 수어의 문법적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수어 문법서에서도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 그리고 예시를 설명한 후에 수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II 미시적 쟁점 : 한국수어 문법 기술을 위한 하위 범주별 쟁점

한국수어 문법에서 미시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법에서처럼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저서와 연구물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어 문법에서는 미시적으로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저서나 연구물들을 찾기 어렵다. 다만, 한국수어 문법 연구나 저서에서 기술하고 설명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 한국수어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가능한 쟁점들을 뽑아 하위 범주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음운론

1) 범주(목차) 관련 쟁점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음운론에서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주는 음운론의 단위, 음운 과정 그리고 동시성과 순차성이었다. 이 외 미국수어 문법서에서는 수어의 표기 체계를 다루고 있었으며, 호주수어에서는 언어 양식의 특성에 나타나는 수어의 유형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언어학 핸드북과 개론서에서는 음운 차원에서의 도상성도 한 범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에 한국수어 음운론에서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3가지 범주 외에 언어 양식의 차이와 도상성의 영향을 또 다른 범주로 다룰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개의 개론서에서는 음성학과 관련된 영역도 다루고 있는데, 이 또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2) 내용 관련 쟁점 정리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쟁점
수어의 내적구조	음운과 수어소	-음운 개념 정의 -수어의 구성 요소 -수어의 표기 방법 소개	-음성과 음운 차원에서의 수어 단어 생성에 대한 기술을 할 것인가?
	수형	-수형소의 정의 -수형에 의한 최소대립쌍 -한국수어에서의 수형소 분석 -고빈도 저빈도 수형	① 수형소 개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② 고빈도 수형과 저빈도
	수위	-수형소의 정의 -수형에 의한 최소대립쌍 -한국수어에서의 수위소 분석	① 수위소 개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수동	-수동소의 정의 -수동에 의한 최소대립쌍 -한국수어에서의 수동소 분석	① 수동소의 개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수향	-수향소의 정의 -수향에 의한 최소대립쌍 -한국수어에서의 수향소 분석	① 수향소의 개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비수지 요소	-비수지 기호의 정의 -비수지에 의한 최소대립쌍 -한국수어에서의 비수지 분석	① 비수지 요소의 개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동시성과 순차성	음절과 음절 구조	-음절의 개념과 음절 구조 -수어에서의 음절 구조 -Wilbur(1993)의 수어 음절 이론	
	움직임-정지 모델	-Liddell & Johnson(1989)의 움직임-정지 모델 소개	
음운 과정		-정지분절 삭제, 움직임 첨가, 동화현상 등	③ 비우세손 생략 및 유지, 치환 등의 음운 현상도 기술할 것인가?

○ 내용 관련 쟁점

① 수어소의 개수	<p>김승국(1989)은 한구수어에는 29개의 수형소, 23개의 수위소, 그리고 36개의 수동소가 있다고 하였으며, 수향의 경우는 손바닥의 방향 10개와 손가락의 방향 10개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에 비해 석동일(1989)은 21개의 표준 수형소가 있고 다시 각 수형을 세분하여 44개의 수형소, 변이를 포함하여 40개의 수위소, 그리고 49개의 수동소가 있다고 하였으며, 수향은 손바닥과 편 손가락의 방향을 고려하여 상, 하, 좌, 우, 전, 후로 나누어 6개로 구분하였다. 김칠관(1998)은 한국수어에는 수형소만을 분석하였는데, 한글 지문자형이 11가지, 지화법과 알파벳형 6가지, 숫자 형 20가지, 그 밖의 것 15가지로 구분하여 총 52개의 수형소가 있다고 하였다. 최상배(2012, 2013, 2015)는 한국수화사전(2007)을 대상으로 수어소를 분석하였는데, 한국수어의 수형소는 69개, 수위소는 46개, 수동소는 64개, 수위소는 손바닥기저 방향과 손가락 기저 방향으로 나누어 손바닥기저 방향은 우세손 18개, 비우세손 16개, 손가락기저 방향 유형은 우세손 15개, 비우세손 14개라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어 어휘의 구성 요소가 되는 비수지 기호의 경우는 김승국(1989)이 체동소라 하여 20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외 수어 문법서의 경우에는 Stokoe가 수어소를 분석하여 미국수어의 수형소, 수위소, 수동소의 개수를 언급한 이후, 호주수어 문법서를 제외하고는 수어소의 개수에 대해 기술한 문법서는 없다. 따라서 한국수어의 수어소의 개수를 기술할 것인가는 쟁점이 될 수 있다.</p>
-----------	---

<p>② 고빈도 수형과 저빈도 수형</p>	<p>국외 수어 문법서의 경우, 고빈도와 저빈도 수형 그리고 무표와 유표 수형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빈도와 저빈도 수형에 대한 연구는 1편(최상배, 2012)이며, 무표 수형에 대한 연구도 1편(석동일1989)에 불과하다. 이에 고빈도 수형과 무표 수형에 대한 한국수어의 예시를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p>
<p>③ 음운 과정</p>	<p>국외 수어 문법서의 경우, 자국의 수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어 이러한 연구물을 중심으로 음운 현상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수어의 경우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음운 과정에 대한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모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에 의존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이에 어떻게 언어 자료를 수집하여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p>
<p>3) 용어 관련 쟁점</p>	
<p>수어소 혹은 음운(음소)</p>	<p>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Stokoe가 수어소(cherem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수어소보다 음운(phoneme)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수어 음운론에는 모두 수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음운(음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수어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p>



## 2. 형태론

### 1) 범주(목차) 관련 쟁점

대범주 영역의 범주를 선정하기 위해서 8권의 저서 중 몇몇 저서는 형태론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어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호주수어 문법서(Johnston과 Schembri, 2007), 독일수어 문법서(Papaspyrou, 2008), 미국수어 문법서(Valli 외 2011), 한국수어 문법서(이준우, 남기현, 2014) 등의 저서를 통해 대범주 내용을 선정하였다. 형태론의 대범주의 내용을 선정하기 국내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범주는 ‘형태론과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하는 범주와 ‘수어 형성(sign formation)’과 ‘수어 변형(sign modification)’ 그리고 ‘품사’와 관련된 범주였다.

수어에 대한 기존 연구물에서는 형성 과정과 변형 과정을 파생과 굴절로 기술하고 있지만, Johnston과 Schembri(2007)는 최근 연구자들이 수어 문법에서 굴절의 특성을 발견하면서, 파생과 굴절이라는 과정을 수어 형성(sign formation)과 수어 변형(sign modification)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독일수어 문법서에서도 형태론을 ‘수어 형성’과 ‘수어 변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에 파생과 굴절이라는 용어 대신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인 수어 형성과 단어의 변형을 위해 형태소를 사용하는 수어 변형으로 대범주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향후 한국수어 문법서의 형태론에서는 음성언어와는 차별하여 ‘수어 형성’과 ‘수어 변형’ 그리고 형태론과 형태소의 개념을 정의하는 범주와 품사 등 4가지 대범주로 나누고자 한다. 물론 대범주에 수어 형성과 수어 변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수어 변형을 통사론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 외 독일수어 문법서에서 다루고 있는 ‘도상성’, 호주수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수지 자질’을 중범주 또는 대범주의 하나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 2) 내용 관련 쟁점 정리

대범주	중범주	세부 내용	쟁점
형태소와 형태론	형태소의 개념	-형태소의 개념 정의 -음성언어에서의 단어 형성 방법	
	수어 형태소의 유형	-수어 형태소의 유형	① 한국수어에서 수어 형태소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수어 형성 (sign formation)	수어 단어 형성 방법	-수어 단어 형성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 -수어 단어 형성의 특성인 도상성 설명	② 도상성에 관련된 내용을 한국 수어에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접사 첨가	-수어에서의 접사 첨가 개념 설명 -국외 수어 접사 첨가 예시 소개 -한국수어 접사 첨가 예시 소개	③ 한국수어에서도 순차적 접사첨가와 동시적 접사 첨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는가?
	수사포합 과 지문자어	-수어에서의 수사포합과 지문자어 개념 설명 -국외수어 수사포합과 지문자어예시 소개 -한국수어 수사포합과 지문자어 예시 소개	③ 한국수어에서의 수사포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④ 한국수어 형성에서 반복 (명사-동사)과 지문자어 결합 현상 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합성	-수어에서의 합성어의 개념 설명 -국외수어 합성어 예시 소개 -한국수어 합성어 예시 소개	⑤ 수어에서의 합성어 개념과 유형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
수어 변형 (sign modification)	시제와 상	-수어 시제와 상의 개념 설명 -국외수어 시제와 상 소개 -한국수어 시제와 상 소개	⑥ 한국수어의 시제와 상은 형태론과 통사론 중 어느 영역 에서 다룰 것인가? ⑥ 한국수어 시제에서 비수지 시제 전략의 증거가 있는가?
	복수성	-한국수어의 복수의 개념 설명 -국외수어 복수 형태 소개 -한국수어 복수 형태 소개	⑥ 한국수어에서의 복수 형성은 다른 나라의 복수 형성과 유사 한가?
	일치	-수어 일치의 개념 설명 -국외수어 복수 형태 소개 -한국수어 복수 형태 소개	⑥ 한국수어의 일치는 형태론과 통사론 중 어느 영역에서 다룰 것인가?
품사 (단어의 분류)		-품사의 종류 설명 -국외수어의 품사 소개 -한국수어의 품사	⑦ 품사의 범주를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

○ 내용 관련 쟁점	
① 형태소 분류의 기준	<p>8권의 분석 대상 저서 중에서 형태소 분류의 기준을 제시한 저서는 4권이다. Johnston과 Schembri(2007)는 호주수어에서 음성언어와 달리 수어 형태소를 자립 어근형태소, 자립 비어근형태소, 의존 어근형태소, 의존 비어근(접사)형태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준우, 남기현(2014)은 Johnston과 Schembri(2007)의 연구를 기초로 네 가지 유형에 따른 이론적 설명과 한국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Valli 외(2011)는 음성언어와 유사하게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Sutton-Spence와 Woll(1999)은 단일형태소(monomorphemic)와 다형태소(polymorphemic)로 크게 나누고, 다형태소를 세 가지 유형(두 개 이상의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와 자립형태소의 결합, 두 개 이상의 의존 형태소의 결합)으로 구분하였다. 수어 형태소 분류를 할 때 일반 음성언어 형태소 분류 기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수어 형태소 분류 기준을 따를 것인지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p>
② 수어 형성에서의 도상성 포함 여부	<p>Papaspyrou(2008)는 독일수어를 도상성의 기준에 따라 손 대체(substitutor), 손 이용(manipulator), 손 묘사(sketch), 손 측정(measuring), 손 지시(index)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국수어 구성 방법 연구에는 김승국(1983)과 석동일(1989) 연구 등이 있다. 김승국(1983)은 지사, 모방, 상형, 형지, 행동, 회의, 전주 7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석동일(1989)은 사물의 지적, 형의 사상, 동작의 사상, 형태와 동작의 동시 사상, 추상적 사상, 대표성 사상, 공통 사상, 포섭어 사상, 자의적 구성 방법 등 9가지로 분류하였다. 수어는 시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수어 형성에 도상성의 원리가 반영되며,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새로운 수어 단어를 형성하는데 도상성이 어떤 역할을 하며, 특히 도상적 수어에서 음소와 형태소를 어떻게 분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p>
③ 합성어의 유형	<p>Pfau, Steinbach, Woll(2012)은 합성어를 순차적 합성어와 동시적 합성어로 구분하였다. 순차적 합성어는 외심 합성어와 내심합성어, 연결합성어(dvandva compounds)로 구분하였고, 동시적 합성어는 수사 포함, 두 문자 수어(initialization signed)로 구분하였다. Baker 외(2016)는 일반 언어학과 유사하게 병렬합성어, 종속합성어로 구분하였다. 한국 수어 문법의 이준우와 남기현(2014)은 순차적 합성어와 동시적 합성어로 구분하였다. 순차적 합성어에서는 연결합성어(dvandva compounds), 분류사를 통합 합성어를 포함시켰고, 동시적 합성어에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동시적 합성어의 용어들을 소개하였으며, 두 단어 결합과 두 단어의 일부 수어소 결합 등의 동시적 합성어의 형태학적 과정을 소개하였다. 또한 번역 차용을 합성어 영역에서 포함시켰다. 한국수어에서도 위에서</p>

	제시한 순차적 합성어와 동시적 합성어의 하위범주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④ 반복(명사-동사 파생)과 지문자어	Baker 외(2016)는 반복을 통해 동사가 명사로 파생되는데, 이것을 동시적 파생으로 보았다.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Johnston과 Schembri(2007)는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이 중첩 또는 반복(reduplication)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김칠관(2010)은 수어에서 이 현상을 중첩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반복 운동(음운적 현상)으로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정확한 문법 용어의 정의를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 수어에서 반복에 의한 동사에서 명사로의 파생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 수화 등에서는 알파벳 지문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어 단어가 형성되는데, 한국수어에서도 한글 지문자를 활용한 수어 단어의 형성에 대한 사례 및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⑤ 수사 포함의 범주 접사첨가와 관련 이슈	<p>Meir(2012)는 수사 포함을 동시적 합성어로 본 반면, Baker 외(2016)는 파생과 합성과는 다르게 어휘에서 두 요소가 결합하지 않고, 통사 구조 내에 있는 것이며, 굴절과 다르게 두 개의 자립요소들이 결합한 형태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수사 포함을 파생이나 합성의 한 영역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수어의 단어 형성에서 보이는 특성으로 보아 파생과 합성에 포함하기보다 구분하여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p> <p>또한 Pfau, Steinbach, Woll(2012)의 언어학 핸드북에서는 접사첨가를 순차적 접사첨가와 동시적 접사첨가로 구분하였다. 수어에서는 순차적 접사는 매우 적게 나타나는데, 동작주 접미사(미국수어), 부정접미사[zero](미국수어), 이스라엘수어 부정 접미사(문법표지), 감각 접두사(SENSE prefixes) 등 네 가지를 소개하였다. 이준우와 남기현(2014)은 접미사의 한국수어사례(예, [보다]의 파생, [기술]의 파생, [맛없다]의 부정 접미사) 등의 사례 소개를 제시하였으며, 김칠관(2010)은 접두사의 사례(예, [만아들], [손자])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순차적 접사첨가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어는 동시적 접사첨가가 더 많이 발생되므로 이 부분들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스라엘 감각 접두사(SENSE prefixes)와 유사한 형태가 영국수어에서도 발견되었는데, Bremman(1990)은 이러한 수어 형성을 합성어로 보고 있다. 접사첨가에 대한 후속 연구들의 고찰이 필요하다.</p>
⑥ 수어 변형의 중범주 주제 및 영역 선정	8권의 분석 대상 저서 중에서 수어 형성 부분을 제외하고, 굴절과 수어 변형의 하위 주제들을 검토하였다. Pfau, Steinbach, Woll(2012)의 언어학 핸드북에서는 형태론 파트의 한 주제로 시제와 상 그리고 양상,

	<p>복수성, 동사 일치를 다루었다. 이준우, 남기현(2014)은 굴절에서 동사 분류, 일치, 동사와 수, 상호표현을 다루었으며, Baker 외(2016)는 동사의 굴절에서 시제, 상, 일치를 다뤘다. 석동일(1989)은 수어 변용에서 시간과 시제의 변용, 인칭의 변용, 수-동사의 변용, 수-명사의 변용, 동사의 변용, 형용사의 변용을 다루었다. Papaspyrou(2008)의 독일수어에서는 수어 변형에서 복수, 비교, 시제를 다루었고, Johnston과 Schembri(2007)의 호주수어에서는 수어 변형에서 명사의 변형(복수성, 반복, 참조물의 크기와 모양, 접사 동반 등)과 동사의 변형(사람과 숫자 일치, 사람과 위치, 수, 양태, 상의 일치, 강조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외 연구마다 굴절과 수어 변형에 포함시키는 주제가 다양하였으나, 가장 자주 언급하고 있는 주제로는 시제와 상, 일치, 복수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어 변형의 중범주 주제들의 내용 선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즉 시제와 상, 일치, 복수화 정도만 다룰 것인지 또는 기타 다른 영역들 중 포함시킬 내용들이 있는 지이다. 또한 시제와 상의 경우, 이준우, 남기현(2014)은 형태론이 아닌 통사론 영역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는데, 시제와 상을 형태론과 통사론 중 어느 영역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p>
<p>⑦ 품사의 대범주 영역과 종류</p>	<p>8권의 분석 대상 저서 중에서 품사의 영역을 형태론에 포함하여 기술한 저서는 3권이었고, 통사론에 포함하여 기술한 저서도 3권이었다.</p> <p>먼저 품사를 형태론에 포함하여 기술한 저서를 살펴보면, Papaspyrou(2008)의 독일수어, Sutton-Spence와 Woll(1999)의 영국수어, Pfau, Steinbach, Woll(2012)의 언어학 핸드북 등이다. 또한 품사의 종류에서 독일수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시제수어 등 다섯 가지를 소개하였으며, 영국수어와 언어학 핸드북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 세 가지만을 기술하였다. 특히 언어학 핸드북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p> <p>품사를 통사론에 포함하여 기술한 저서에는 이준우, 남기현(2014)의 한국수어학개론, Valli 외(2011)의 미국수어, Johnston과 Schembri(2007)의 호주수어 3권이다. 한국수어학개론에서는 명사, 대명사(인칭 대명사, 지시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 등 9개의 품사, 미국수어에서는 명사, 서술어, 형용사, 부사, 소수의 어휘 범주인 한정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등 9개의 품사, 호주수어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소수의 어휘 범주인 한정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 등 10개의 품사를 다뤘다.</p> <p>한국수어의 품사 관련 저서들이 부족하여 국내 문헌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초기 문법서에서는 한국수어에서 검증된 사례들이 있는 품사 개념과 품사의 사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품사의 종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등 4 종류 정도를 먼저 기술하고, 추후 검증</p>

	<p>된 사례들이 나타났을 때 추가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수어에서 품사의 분류 기준을 제시한 연구들도 거의 없는데, 한국수어의 품사 분류 기준들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p>
<b>3) 용어 관련 쟁점</b>	
<b>변형 (modification)</b>	<p>8권의 저서 중에서 5권의 저서에서 굴절(inflexion)과 변형(mod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준우와 남기현(2014), Baker 외(2016)는 굴절(inflex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Papaspyrou(2008)와 Johnston과 Schembri(2007)는 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굴절(inflex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준우와 남기현(2014)은 굴절 내에서 수어의 동사분류, 동사와 일치, 동사와 수, 상호표현 등을 다루고 있으며, Baker 외(2016)는 시제와 상, 일치, 복수화 등을 다루고 있다. 변형(mod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Papaspyrou(2008)는 복수, 비교, 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Johnston과 Schembri(2007)는 명사 변형과 동사 변형으로 구분하고, 양태, 상, 복수형, 반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Johnston과 Schembri(2007)는 단어의 변형을 위해 형태소를 사용하는 것을 굴절이라고 하면서, 변형 과정을 굴절로 보았다. 특히 ‘modification’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할 때, 최상배와 안성우(2014)는 석동일 연구를 근거로 ‘변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김칠관은 어형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modification’을 변형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p>
<b>동시적 합성어</b>	<p>한국어 문법에서는 합성어를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단어로 본다. 특히 합성어는 정상적인 문장 구성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눈다. 언어학 핸드북에서 Meir(2012)는 합성어를 순차적 합성어(Sequential compounding)와 동시적 합성어(Simultaneous compounding)로 구분하였다. 동시적 합성어 용어의 경우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칠관(1996)은 복합구성, 원성옥과 장은숙(2003)은 한국복합수화, 이윤희(2008)은 동시적 결합구조, 이준우와 남기현(2014)는 동시적 합성어, 동시적-순차적 합성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시적 합성어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p>

## 3. 통사론

## 1) 범주(목차) 관련 쟁점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통사론에서는 다루고 있는 범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범주는 ‘문장의 유형’으로 기본 문형인 서술문, 의문문, 부정문, 명령문 등을 다루거나 단문과 복문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었다. 두 번째 범주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기술하고 있는 범주로 어순, 동사(서술어), 시제와 상 등을 기술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공간 언어인 수어의 특성상 공간의 기능이나 사용과 관련된 내용과 분류사 구문 등을 따로 다루는 문법서가 있었다. 특히 독일수어에서는 비수지 요소에 의해 구분되는 다양한 구문 형태(A와 B, A 또는 B, A 그러나 B 등)를 나누어 기술하고 있었다. 그 외에 품사와 관련된 내용과 역할 전환이나 구성된 행위를 통사론 범주에서 다루는 문법서들도 있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통사론의 범주를 다양하게 나누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문법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문장성분, 문장 유형, 그리고 공간과 서술어를 묶어 통사론의 대범주를 구성하였으며 품사, 그리고 시제와 상은 형태론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한국수어 통사론의 첫 번째 범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이고, 수어에서는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는가를 기술하는 문장성분으로 하였다. 두 번째 범주에서는 문장 유형으로 서술문, 의문문, 부정문 그리고 화제화문을 다룬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간과 서술어라는 대범주로 수어문에서 문법적 표지가 되는 공간의 다양한 기능과 문장에서 주된 기능을 하는 서술어인 동사의 체계, 그리고 수어의 동시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분류사 술어(classifier predicate)를 다룬다. 그러나 ‘분류사’를 형태론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어순’을 미국수어나 호주수어처럼 대범주로 분리하여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내용 관련 쟁점 정리

대범주	중범주	세부내용	쟁점
문장 성분		-문장 성분 개념 정의 -수어문에서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등 의 주성분과 부속 성분 실현 방법 설명 -수어에서의 어순의 기능	- 어순을 대범주로 다룰 것인가? ① 한국수어에서도 기본 어순이 존재하는가?
문장 유형	서술문	-단문과 복문 -수어 단문 유형 및 예시문 제시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 종류 소개 및 예시문 제시	② 문장의 유형을 실현하는 문법적 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문	-예/아니오 의문과 의문사 의문문 -한국수어에서의 의문문 실현과 예시문 소개	③ 한국수어에서 의문문을 실현하는 문법 표지를 어떻게 나누고 확인할 것인가?

	부정문	-부정문의 종류 -한국수어에서의 부정문 실현과 예시문 소개	
	화제화	-화제-논평 구조의 특성 -수어에서의 화제화 구문 실현 방법과 예시문 소개	
공간과 서술어	수어 공간	-수어에서의 공간(space)과 위치 (locus) -지시와 공간 -동사와 공간	- 분류사를 형태론에서 다룰 것인 가?
	서술어	-수어에서의 서술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의 분 류 방법 설명 -한국수어에서의 동사의 종류별 예시 소개	④ 한국수어에서의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확인하고 정리할 것인가? ⑤ 한국수어 통사론에서는 동사의 분류체계 중 어떤 체계를 따를 것인가?
	분류사 술어	-분류사 술어 정의 및 개념 설명 -분류사 술어 종류 설명 -한국수어에서의 분류사 술어 예시 소개	⑥ 한국수어 분류사를 어떻게 정리 하여 기술할 것인가?

### ○ 내용 관련 쟁점

① 수어에서 어순의 역할	미국수어와 호주수어 등 국외에서는 문장의 성분을 결정하는 기본 어순의 존재와 더불어 어순이 나타나는 양상과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어에서도 기본 어순이 존재하는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와 확인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②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표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 문장의 유형을 서술문, 의문문, 부정문, 화제화문으로 범주를 나누었으며, 서술문에서 기본적인 문장 유형을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어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복문에서는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를 관계를 갖는 대등 접속문과, 인과, 조건 관계 등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문의 형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기술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수어와 호주수어 등 국외 수어에서는 이러한 문법적 표지가 비수지 기호나 공간에 의해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에 이러한 한국수어에서 이러한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다양한 문법적 표지에 대한 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③ 의문문과 비수지 기호	미국수어, 호주수어 등 대부분의 외국 수어에서는 예/아니오 의문문과 의문사(wh-) 의문문을 비수지 기호에 의해 구분한다고 하였으며, 터키수어 등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례를 기반으로 의문문의 실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어에서도 비수지 기호의 문법적 기능에서 의문문을 실현하는 비수지 기호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에 의문문을 실현하는 비수지 기호에 대한 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④ 수어에서 공간의 기능	수어에서 공간은 음운과 형태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통사론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스라엘수어, 인도-파키스탄수어, 터키수어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수어와 미국수어에서도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매우 자세하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어에서도 통사론적 측면에서의 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논의와 이러한 수어 공간의 기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⑤ 동사의 분류 체계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동사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일반동사(plain verb), 공간동사(Spatial verb), 일치동사(agreeing verb)로 분류(Padden, 1990)하고 있었다. 그러나 Johnston과 Schembri(2007)는 일반동사와 방향동사(directional verb)로 구분하고 방향동사를 다시 일치동사와 공간동사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미국수어에는 일반동사(Plain Verbs), 지시동사(Indication Verbs) 묘사동사(Depicting Verbs)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Valency(결합가)의 개수에 의한 동사 분류로 주어와 장소 1개 또는 장소 2개가 필요한 경우 결합가 2개, 또는 3개로 동사를 분류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수어 문법서에는 동사를 어떻게 분류하고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⑥ 분류사 술어	국외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이스라엘수어에서는 분류사 구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수어 문법서에서도 음운 및 형태론에서 도상성과 관련하여 분류사 또는 생산적 수어나 묘사동사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향후 한국수어 문법서에서는 분류사 구문을 어떤 범주에서 어떤 틀에 의해 정리하고 기술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용어 관련 쟁점	
비수지 신호, 비수지 기호, 비수지 표지	국외 문법서에서는 수어에서 손 이외의 구성 요소를 비수지 요소를 nonmanual signal 또는 nonmanual marker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수어 문법서에도 비수지 신호, 비수지 기호, 비수지 표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수지 요소의 용어를 무엇으로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 의미 및 화용론

## 1) 범주(목차) 관련 쟁점

국의 수어 문법서를 고찰한 결과, 독일수어 문법서에서는 의미론과 화용론을 대범주로 구분하지 않고 통사론에서 내레이션 구조를 간단히 기술하고 있었다. 미국수어와 호주수어 문법서에서는 의미론과 화용론으로 대범주를 구성하였다. 의미론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주는 의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범주와 수어에서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도상성과 은유에 관련한 이론과 분석을 소개하는 범주 그리고 수어 어휘에서의 의미 관계를 소개하는 범주였다. 화용론에서는 담화 수준에서 응집성과 정보 구조를 다루고 있었다. 한국수어 문법서에서는 의미와 관련한 범주를 의미 이론, 도상성과 은유, 어휘 관계로 나누었으며, 화용과 관련하여서는 담화 구조와 관련한 하나의 범주로만 다루었다. 그러나 한국수어를 대상으로 한 의미와 화용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범주와 중범주의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내용 관련 쟁점 정리

대범주	중범주	세부내용	쟁점
의미론	의미 이론	-의미의 유형과 종류 설명	
	도상성 과 은유	-수어 어휘 형태에서의 도상성의 유형 소개 -한국수어에서의 도상성과 은유적 표현에 대한 예시 소개	① 구체적으로 한국수어를 대상으로 어느 수준까지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어휘 관계	-어휘 관계 설명 -한국수어에서의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등 예시 소개	
화용		-담화구조에 대한 설명 -한국수어에서의 담화 구조 예시문 소개	

## ○ 내용 관련 쟁점

① 도상성과 은유	<p>도상성과 시각적 은유에 대한 한국수어 어휘의 형태와 의미 관계에 대한 연구물로는 한국수화어원 연구(김철관, 1998)과 한국수어의 어원적 의미(장진석, 1995) 등이 있다. 이들 연구물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수어 어휘 형태에서의 도상성과 시각적 은유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p>
-----------	--

연구 책임자 원성옥

공동 연구원 허일, 김지숙, 김만영, 김연우, 이윤선, 홍성은, 이현정

연구 보조원 김병아, 김효정, 박정민

담당 연구원 남미정(학예연구사)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18년 11월 30일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인 쇄: 책과공간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한국수어 문법 기초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